2013 서울시 자치구 동네관광상품 사업

스토리텔링 리슨스북

／ 성북구 정릉 · 의릉 권역

성북문화원
깊은멋·나눔·즐김

스토리텔링 리소스북 – 성북구 정릉 · 의릉 권역

기　　획 |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집 필 진 | 박수진(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 팀장)
　　백외준(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 연구원)
　　배경식(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문일웅(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자료조사 | 한아름(강원대 사학과 4학년)
　　김다은(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 1학년)
발 행 인 | 조태권(성북문화원장)
발 행 일 | 2013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성북문화원(www.isbcc.or.kr)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Tel 02-765-1611
　　Fax 02-765-1619
디 자 인 | 박현주
펴 낸 곳 | 학연문화사

비매품

겉표지 사진 : 장위초등학교 주변 장위 2동 전경 (2002)

No.	구분	스토리 제목		활용
1	역사/ 인물	조선 최초의 국모, 신덕왕후 강씨	이성계를 만나다	탐방코스 간행물 발간
2			조선최초의 국모가 되다	
3	역사 / 문화재	정릉 이야기	법도를 어기고 도성 안에 능을 만들다	탐방코스 간행물 발간
4			조선 최초의 국모에서 후궁으로	
5			송시열, 정릉을 복권하다	
6			세계 문화유산 정릉	
7			영화 『건축학개론』과 정릉	
8	역사 / 문화재	조선 불교의 흥망성쇠, 홍천사	이성계의 정성이 담긴 사찰	탐방코스 간행물 발간
9			왕실사찰로 거듭나다	
10			불타 사라지다	
11			새로운 흥천사	
12			중흥, 그리고 이름을 되찾다	
13			왕실사찰에서 연회장으로	
14			강북지역 중심 도량	
15	역사 / 문학	조선후기 동소문 밖 유람길	일구천석이 강동을 차지한 것보다 낫다오 - 남구만의 비위글씨	탐방코스 간행물 발간
16			십리 중에 내리는 붉은 가랑비 - 김려의 동소문 밖 1박2일	
17			가을 손가장에서 - 조수삼의 한시	
18			닷새간의 북한산 유람 - 이승희의 「북한일기」	
19			눈보라 속에 숨은 서울 - 신기선의 「유북한기」	
20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고 - 이남규의 한시	
21			시골? 詩谷! - 손가장과 정릉계곡에 바치는 시들	
22	역사 / 인물	대한제국기 동소문 밖 유람	총리대신 이완용의 경국사 피서	탐방코스 간행물 발간
23			서울기생조합소의 경국사 탁족회	
24			경국사의 가을밤, 서북학회의 시회(詩會)	
25	역사 / 인물	대한제국기 동소문 밖 운동회	홍천사에서 열린 운동회	탐방코스 간행물 발간
26			봉국사에서 열린 운동회	
27			개운사에서 열린 운동회	
28			연설회와 애국운동가	
29			개운사에서 열린 '원수'의 추도회	
30	역사 / 인물	일제강점기 동소문 밖 유흥공간	지긋지긋한 경성을 떠나고 싶다	탐방코스 간행물 발간
31			천재시인 이상과 홍천사의 풍경 소리	
32			두 친구의 결혼식	
33			다동기생조합의 홍천사 운동회	
34			동대문경찰서 김주임 인터뷰 - 동문 밖 사찰 정화	
35			홍천사 어수통을 일본군에 헌납	
36			동소문 밖 임화(林和)의 여름 추억	
37			홍천사의 자화상 - 홍천사 감로도(1940)	
38	역사 / 인물	정릉동의 주인(主人)들	손가장 농민들 국왕 정조 앞에 나아가다	마을 만들기 간행물 발간
39			'돌일'- 옛 손가장 사람들의 또다른 생업	
40			정릉천 경국사 앞 돌다리의 내력	
41			정릉 일대 토막민의 생활상 ①	
42			정릉 일대 토막민의 생활상 ②	
43			돈암지구 구획정리사업과 토막민들의 정릉리 이주	
44			김교신의 생애 - 김교신의 정릉리 개척기 ①	
45			정릉으로 이사하기로 결정 - 김교신의 정릉리 개척기 ②	
46			김교신의 정릉집 - 김교신의 정릉리 개척기 ③	
47			정릉에서 출퇴근길 - 김교신의 정릉리 개척기 ④	
48			북한학원(北漢學園) 설립 - 김교신의 정릉리 개척기 ⑤	
49			'참교육'과 '황국신민교육' 사이에서	

50			이남덕의 회고담 - 1950년 정릉의 여름 ①	
51			김성칠의 일기 - 1950년 정릉의 여름 ②	
52			폐허 위 재건의 몸부림	
53			1957년 정릉의 봄 풍경 - 소설가 계용묵의 수필	
54			세계 최대 초등학교, 숭덕초등학교	
55			정릉2동 교수단지와 북악스카이웨이, 그리고 정릉3동 배밭골 스카이아파트	
56	역사	슬픈 경종	어마마마, 왜 날 낳으셨나요?	탐방코스 간행물 발간
57			경종을 불행하게 만든 아버지 숙종	
58			경종은 어떤 왕이었나?-당파싸움의 희생양	
59			경종은 독살되었는가?	
60	역사	의릉 수난사	명당 중의 명당, 하늘이 숨겨놓은 땅 천장산	탐방코스 간행물 발간
61			의릉의 위치 선정에 얽힌 불편한 진실	
62			5·16 군사쿠데타로 의릉을 불법 점거하다	
63			의릉,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의 현장이 되다	
64	역사	의릉 복원과 시민 개방	왕릉으로 인한 지역 사회(석관동일대)의 변화	탐방코스 간행물 발간
65			34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66			안기부는 떠났지만 권력의 횡포는 여전	
67			안기부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다	
68			마침내 제 모습을 되찾은 의릉	
69	역사	석탄동에서 석관동으로 되돌아오기까지 - 석관동 이야기	개발시대 도시 거주 서민의 난방 문제와 연탄	탐방코스 간행물 발간
70			연탄공장과 '석탄동'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석관동	
71			석탄가루가 없어지자 철가루가 왠말이냐?	
72			석탄동에서 석관동으로	
73	역사	'쇠고랑 찬 꿈 속의 학사님' - 장위동 이야기	장위동이란 마을의 유래	탐방코스 마을 만들기 간행물 발간
74			복면강도 사건과 60년대 장위동	
75			복면을 벗은 강도의 맨얼굴	
76			꿈속의 학사님	
77			서민의 애환과 장위동의 미래	
78	민속	정릉, 의릉 일대의 동제(洞祭)	정릉3동 배밭골 산신치성제	탐방코스 마을 만들기 간행물 발간
79			정릉2동 산신제	
80			석관동 도당제	
81			종암동 북바위 산제사	
82			보문동 동망봉 산신제	
83			한산대동산신제	
84	역사/인물	독립운동가의 아내 - 이은숙	우당 이회영의 삶 ①	학생용 교재 개발
85			우당 이회영의 삶 ②	
86			우당 이회영의 삶 ③	
87			마적에게 총을 맞다!	
88			온가족이 함께한 짧은 서울 생활	
89			북경생활	
90			비밀문서를 갖고 조선으로	
91			신채호와 김창숙의 멱살을 잡다	
92			아들·손녀의 죽음, 남편과의 영원한 이별	
93			조선에서 남편의 독립운동 자금을 대다	
94			아들·딸을 만주로 보내고 홀로 남다	
95			남편의 부고를 듣다	
96			만주로 돌아가다	
97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98			전란속에서	

99			정릉에서 편안한 만년을 보내다.	
100	역사 / 인물	운명적 독립운동가의 삶 - 이규창	프롤로그	학생용 교재 개발
101			최고의 명문집안에서 태어나 가난한 삶을 살다	
102			독립운동을 하다	
103			고문 속에서	
104			공판과 서울에서의 감옥살이	
105			생과 사의 순간을 목격하던 광주형무소 생활	
106			건국 이후(정릉에서의 삶)	
107			에필로그	
108	역사 / 인물	남겨진 자의 이야기 - 유우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5길	학생용 교재 개발
109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 그리고 유관순의 가족들	
110			출옥 이후	
111			해방을 맞이하여	
112	인물 / 역사	어느 여학생의 4월 혁명 - 진영숙	어머니의 술회	탐방코스 간행물 발간
113			4월 혁명과 학생들 ①	
114			4월 혁명과 학생들 ②	
115			딸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	
116	역사 / 예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맑은 날을 보다 - 4월의 시인 신동엽	시인이 성북구에 자리 잡은 과정	탐방코스 간행물 발간
117			시인의 눈에 비친 맑은 하늘	
118			시인의 기억 속에 남은 4월, '갈아엎는 달'	
119			신동엽의 시인이 살았던 동선동의 현재	
120	역사	수난의 미아리 : 일제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미아리 일대 개발사	미아리라는 지명의 유래	탐방코스 간행물 발간
121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공간: 일제 시대의 미아리	
122			대표적인 서울의 달동네 지역: 해방 이후 미아리	
123			개발시대의 그림자: 점집과 미아리 텍사스	
124			미아리의 오늘날: 개발의 미래	
125	예술	정릉동의 예술가들	정릉동의 시인들 (박재삼, 고은, 신경림, 김태정, 박정대)	탐방코스 간행물 발간
126			정릉동의 소설가들 (최정희, 박경리, 김지원, 김채원)	
127			정릉동의 화가들 (박고석, 한묵, 이중섭)	
128	문화재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정릉	탐방코스 간행물 발간
129			의릉	
130			서울 선잠단지	
131			성저오리 정계석표	
132			한양도성 성곽	
133			북한산 북한산성 성곽	
134			혜화문	
135			숙정문	
136			동활인서	
137			경국사	
138			봉국사	
139			개운사	
140			내원사	
141			미타사	
142			정법사	
143			적조사	
144			대원암	
145			길상사	
146			석관동 도당	

147			보문사	
148			삼군부 총무당	
149			성락원	
150			김진흥 가옥	
151			한규설 가옥	
152			이종석 별장	
153			심우장	
154			이태준 가옥 (수연산방)	
155			간송미술관	
156			돈암장	
157			최순우 옛집	
158			청수동	
159			삼청각	
160	자연	정릉, 의릉 일대의 자연유산	북한산	탐방코스 간행물 발간
161			미아리 고개	
162			아리랑 고개	
163			북한산 정릉계곡	
164			개운산	
165			천장산	

No. 1	조선최초의 국모, 신덕왕후 강씨 - 1	작성자	박수진
제목	이성계를 만나다	키워드	이성계, 신덕왕후 강씨, 버들잎설화
이야기	정릉의 주인공은 바로 태조 이성계의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이다. 아버지 강윤성도 고려에서 문하찬성사(종1품)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이었으며, 황해도 곡산 지역의 실력자이기도 했다. 고려 말은 혼란의 시기 이성계는 공을 세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변방의 인물 이성계에게 개경 근처에 세력을 두었으며, 중앙에서도 높은 벼슬을 지내던 강윤성 집안과의 혼인은 구미가 당기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조선의 태조가 되는 이성계와, 실질적인 조선의 첫 번째 왕비인 신덕왕후와의 만남이 단순한 '정략결혼'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면 무언가 시시하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만남에는 저 버들잎 설화가 전해진다.  <태조 어진> "옛날 우리 태조(太祖)께서 여름철에 말을 달려 계곡을 지나다가 매우 갈증이 나므로 개울에서 빨래하는 한 여자를 보고 물을 떠오게 하였다. 그 여자는 일어나서 즉시 물을 떠오는데 버들잎 한 움큼을 물에 띄워가지고 바쳤다. 태조가 노하여 '왜 버들잎을 섞었는가?' 하니, 그 여자가 '더울 적에 물을 급하게 마시면 몸에 해로우므로, 그것을 불면서 천천히 마시게 하려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태조가 그를 매우 기특하게 여겨 말에 태워가지고 함께 돌아왔는데, 그가 바로 신덕왕후였다." (『다산시문집』14, 跋, 「神德紀蹟碑帖」에서 발췌) 무엇인가 로맨틱하면서도 익숙한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이 설화는 고려 태조 왕건과 장화왕후(莊和王后) 오씨의 이야기와 같기 때문이다. 버들잎 이야기에는 물과 여성이 등장한다. 개울이 아니라 우물로 전해지기도 한다. 아마 물과 여성이 갖는 모티브 때문일 것이다. 이런 모티브들이 남아 왕건과 장화왕후, 이성계와 신덕왕후에게 이어졌으리라. 비록 정략결혼이라 할지라도 이성계와 강씨의 금슬은 매우 좋았다. 특히 이성계는 강씨를 많이 아꼈다. 왕이 된 이후에 강씨(이때는 현비)가 병이 들자 죄수를 석방하였으며, 병이 나으면 승려들을 불러 법회를 열었다. 결국 이런 강씨가 죽자 이성계는 통곡을 했다고 전해진다. 강씨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녀는 과단성 있고, 당당한 성격이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고 어찌할지 모를 때, **"공(公)은 항상 대장군(大將軍)으로서 자처(自處)하였는데,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릅니까?"** 라고 힐책한 것이 바로 강씨였다. 이성계 역시 권근에게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당시 중외에서 근로할 때나 화가위국(化家爲國)하는 날에 있어서도 신덕왕후의 내조가 실로 많았다. 여러 가지 중요한 정무를 임할 때에도 충고하고 돕기를 부지런히 하였는데…(『동문선』78, 貞陵願堂曹溪宗本社興天寺造成記)"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과단성 있고 당당한 모습이 호방한 무인이었던 이성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다산시문집』, 『성북구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2	조선최초의 국모, 신덕왕후 강씨 - 2	작성자	박수진
제목	조선 최초의 국모가 되다.	키워드	국모, 방석, 방원, 정도전, 세자책봉, 병(病)
이야기	이성계가 즉위할 때, 첫째 부인인 신의왕후 한씨는 이미 죽은 후였다. 강씨는 현비(顯妃)로 책봉되어 실질적인 조선왕실의 첫 왕비가 된 것이다. 이성계의 사랑, 과단성 있고 당당한 성격, 왕비라는 위치는 그녀에게 정치적 야망을 갖게 하기 충분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성계에게는 한씨 부인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이 있었다. 특히 방간과 방원은 조선의 실질적인 개국 공신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도 어리고 정치적 경험도 없는 자신의 아들 방석을 세자로 세우는 일은 도박에 가까웠다.'세상이 어려울 때는 공이 있는 자를 세자로 세워야 한다'는 신하들의 반발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다른 개국공신 세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도전과 손을 잡고 방석을 왕위에 세우는 것에 성공한다. 차후의 일이야 어찌되었던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던 정도전에게는 강력한 세력을 가진 방원보단 어린 방석이 대하기 수월한 상대였다. 강씨는 이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으며, 정도전을 선택한 것 역시 그녀의 정치 감각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방석은 조선이 건국 된지 한 달이 조금 지난 1392년 음력 8월 20일 세자로 책봉된다. 강씨가 얼마나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는지, 또한 이성계가 얼마나 강씨를 아꼈는지를 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바로 약한 몸이었다. 조선이 개국한 다음해(1393년)부터 그녀의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조선왕조실록』은 1393년 이후 그녀에 대한 기록 가운데 많은 부분을 병을 앓는 이야기와 이성계가 그녀를 아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성계는 그녀가 생일이거나, 아프면 죄수를 풀어주었다. 덕을 쌓아 그녀의 병을 낫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병이 나으면 법회를 베풀고, 거동이 가능해지면 같이 근처의 사찰과 암자를 다녔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은 효험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1396년 8월 13일 이득분이란 자의 집에서 목숨을 다한다. 강씨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였을까? 어린 아들을 세자라는 위험한 자리에 두고 떠나지만, 자신을 사랑하던 이성계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정도전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편히 눈을 감았을까? 아니면 어린 아들이 범 같은 이복형들인 방간, 방원 등과 함께 세상에 남아 있음을 걱정하며 눈을 감았을까? 어느 쪽이었는지 지금은 알 길이 없다. 다만 그녀의 자식들은 불행한 최후를 맞는다. 그녀가 죽고 만 2년도 되지 않아 방간과 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강씨의 아들들인 방석과 방번을 모두 살해한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다산시문집』,『성북구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3	정릉 이야기 - 1	작성자	박수진
제목	법도를 어기고 도성 안에 능을 만들다	키워드	정릉, 황화방, 공민왕릉, 건원릉, 흥천사
이야기	정릉은 신덕왕후 강씨의 능이다. 강씨에 대한 이성계의 사랑은 그녀의 사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본래 사대문 안에는 보통 사람들의 무덤은 물론 왕릉도 쓸 수 없다. 그게 법도였다. 하지만 그것을 가장 먼저 어긴 사람이 다름 아닌 이성계다. 그는 무덤이나마 강씨를 가까이 두고 싶었다. 처음 생각한 곳은 안암동이었다. 하지만 땅에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황화방(皇華坊, 지금의 덕수궁 근처)에 강씨의 무덤(능)을 만들고 이름을 정릉(貞陵)이라 했다. 능은 크고 화려했다. 현재의 덕수궁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정릉의 권역은 적게는 1만평, 넓게는 지금의 정동 1번지를 모두 포함하는 넓이인 4만평까지 추정한다. 능 자체의 규모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공민왕릉을 모범으로 삼았다고 하는 원래의 정릉은, 현재 광통교에 남아있는 병풍석의 크기를 보면, 지름은 10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 이성계의 능인 건원릉보다 큰 규모였다(현재 정릉의 지름은 약 7.28m). 그 옆에 강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70여 칸 규모의 큰 사찰, 흥천사(興天寺)를 세우기도 했다. 정릉의 석물은 물론 흥천사도 화려하게 만들어졌다.  <프레스센터에서 본 정동 일대의 모습 (2013)>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문화재청, 『정릉 조사 보고서, 太祖 繼妃 神德王后 貞陵』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4	정릉 이야기 - 2	작성자	박수진
제목	조선 최초의 국모에서 후궁으로	키워드	사을한리, 정릉동, 이장, 강등, 후궁

이야기

정릉의 화려한 운명은 이성계의 생시까지였다. 이성계가 죽자(1408년) 신덕왕후와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이방원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능을 도성 밖 사을한리(지금의 성북구 정릉동)로 옮겼다(1409년). 남은 석물들은 땅에 묻혀 있다가, 홍수로 무너진 광통교를 재건하는 것에 사용됐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릉의 석물을 밟고 다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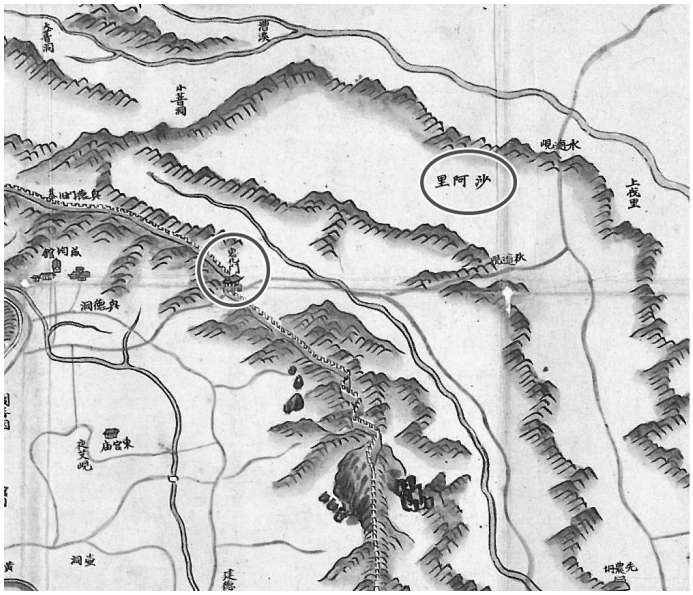
<현재 광통교에 남아 있는 당시의 호석 (2013)>

그리고 그녀의 지위를 왕후에서 후궁으로 격하시켰다. 이성계의 사랑도 그가 죽은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지금 덕수궁 근처 정릉의 흔적은 정동이라는 이름으로만 남아있다.

세종 대에는 정릉은 더욱 소외되었다. 정릉의 제사는 국가제사에서 친족들이 하는 제사로 격하된다. 반영(半影) 역시 고려 왕실의 그것들과 함께 불태워진다.

정릉이 옮겨간 사을한리, 지금의 정릉동은 서울 근교이긴 하지만 외진 곳이었다. 다른 왕릉을 갈 때는 사대문을 통해 나가지만, 정릉동 가는 길은 혜화문(동소문)을 거쳤다. 왕릉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조선 후기까지 지금의 정릉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었고, 일제 강점기에 이주 정책이 시행되며 비로소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역시 외지고 교통이 불편한 곳이었기에 개발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이런 궁벽한 곳으로 옮겨진 후 정릉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

	 <18세기 중만에 만들어진 도성도(여지도)에 보이는 사하리>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문화재청, 『정릉 조사 보고서, 太祖 繼妃 神德王后 貞陵』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5	정릉 이야기 - 3	작성자	박수진
제목	송시열, 정릉을 복권하다.	키워드	송시열, 현종, 세원지우, 복권, 종묘 부묘

이야기

이장 이후 정릉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170여년이 지난 선조 14년(1581년)부터였다. 신덕왕후의 아버지인 강윤성의 후손이 선조의 행차에 나타나서 **"저는 판삼사사 강윤성(康允成)의 후손입니다. 지금 군역(軍役)에 배정되어 있으니, 국묘(國墓)를 봉사(奉祀)하는 사람들은 군역을 면하는 전례에 의하여 개정해 주소서."** 는 청을 한 것이다. 율곡 이이와 같은 사람들도 정릉을 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정릉은 이미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상황이었다. 조정에서는 정릉의 위치도 알지 못했다. 논의가 시작되자 처음 정릉을 찾으러 보낸 곳이 아차산일 정도였다. 찾으려는 큰 노력도 없었던 것 같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릉을 사을한리로 옮겼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다. 실록을 봤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릉을 찾게된 것은 변계량의 『춘정집(春亭集)』 가운데 정릉을 이장한 축문에 '국도 동북' 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보고난 이후였다. 선조 역시 **'오늘날의 신하는 이 시대의 일만 논할 뿐이다.'** 라고 하며 윤허하지 않는다.

정릉이 다시 복권의 기미를 보인 것은 인조 6년(1628년)의 일이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정릉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관리 하는 사람(능참봉)이 없어 마구 벌목이 되어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었고, 제사를 지내는 丁字閣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인조는 다시 경기감사였던 최명길의 보고를 받고 정릉에 능참봉을 두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복권은 물론 정자각의 건설도 허락되지 않았다.

정릉의 복권은 송시열에 의해 추진되었다. 17세기 중반을 지나며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예학이 발달했다. 결과 조선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 되게 된다. 단종(당시 노산군)에 대한 복권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도 이때였다. 그리고 이 예학의 거두가 바로 송시열이다. 송시열에게 조선의 첫 왕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종묘 배향은 마땅한 일이었다. 그는 현종에게 여러 차례 신덕왕후의 복권을 주청한다. 송시열은 모든 잘못을 정도전과 태종을 보필한 신하들에게 돌림으로서 강씨를 복권시킬 명분을 마련했다.



<우암 송시열>

이 논의는 현종10년(1669년) 1월에 시작되어, 8월 5일 신덕왕후가 종묘에 부묘(祔廟)가 허락되었고, 10월 1일에 부묘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후궁으로

	격하되어 옮겨진지 260년 만이고, 선조 때 처음 복권이 처음 논의 된지 88년 만의 일이었다. 복권되던 날은 비가 많이 왔다. 사람들은 이 비를 '원한을 씻어주는 비', 즉 세원지우(洗怨之雨)라고 불렀다. 이후에 고종이 황제로 즉위 후 신덕왕후는 신덕고황후(神德高皇后)로 최종적으로 추존된다(광무 3년 12월 19일).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성북구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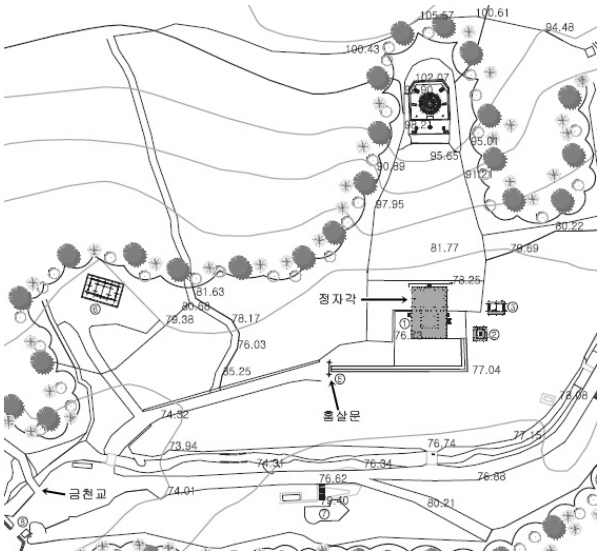
No. 6	정릉이야기 - 4	작성자	박수진
제목	세계문화유산, 정릉	키워드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휴식처

이야기

복권이 되었어도 정릉은 다른 왕릉보다 무엇인가 부족해 보인다. 먼저 출입구로 들어가면 나쁜 기운이 건너오지 못하게 한다는 금천(禁川)이 나온다. 이 금천은 능상의 진입축과 일치하게 동향(東向)을 하고 있다. 금천을 지나면 신성한 영역으로의 입구인 홍살문이 나온다. 홍살문은 능상 진입축과 직각에 가까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가는 참도(參道)라는 길이 다른 능과 달리 90° 가량 꺾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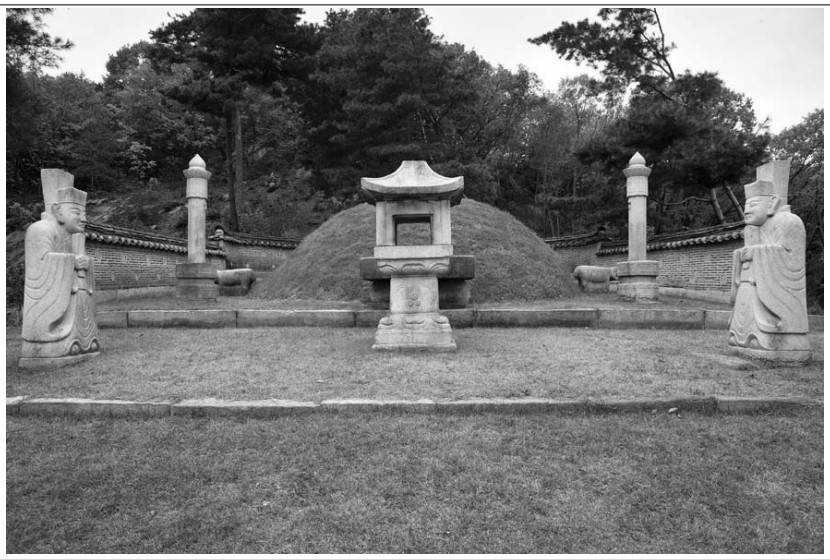
왕릉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무석인(武石人)도 없고, 석호와 석양의 수도 적다. 병풍석과 난간석도 모두 없다. 본래 옮겨진 곳이 워낙 궁벽하고 협소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몇몇 곳에는 초기의 화려했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장명등이다. 정릉의 장명등은 다른 석물에 비하면 규모가 크다. 다른 왕릉의 장명등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이다. 처음 정릉을 만들 때 같이 만들어진 정릉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혼유석의 밑에 있는 고석(鼓石)과, 소전대도 같이 옮겨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릉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광통교다. 이미 앞에서도 말했듯 태종은 홍수로 무너진 광통교를 재건하는데 정릉의 석물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 석물은 지금도 광통교에 남아 정릉의 옛 영화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정릉 배치도>

하지만 그 때문일까? 정릉은 서울에 보기 드문 넓은 녹지를 가진 공간으로 남아있고,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살아서는 조선 최초의 왕비였고, 죽어서는 온갖 풍파를 겪은 신덕왕후 강씨. 그의 마지막 휴식처인 정릉은 이제 다른 조선 왕릉들과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제되어 지난 풍파를 뒤로 하고 더욱 잘 정비·복원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정릉 (2013)>  <'유네스코 문화유산 자랑스런 정릉'. 정릉은 정릉동의 역사이자 자랑이다. (2013)>
원천자료	『성북구지』 문화재청, 『정릉 조사 보고서, 太祖 繼妃 神德王后 貞陵』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7	정릉이야기 - 5	작성자	김다은
제목	영화 『건축학개론』과 정릉	키워드	건축학개론, 첫사랑, 동네
이야기	우리는 흔히 마음을 집에 비유하고는 한다. 짝사랑은 자신의 마음 속 집에 방 하나를 내어주는 행위이다. 또한 양자 간의 사랑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일은 서로의 마음속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집을 새로이 건축을 하는 것과 같다. '첫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살려 남녀노소의 공감대를 형성한 영화 『건축학개론』은 정릉을 배경으로 하여 시작된 서연과 승민의 첫사랑을 회상하는 이야기이다. 영화의 OST로 또 한 번 화제가 된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이란 곡은 영화 속에 담긴 90년대 초의 사랑 감성을 더 잘 느끼게 해준다. 영화 도입부에서 대학의 건축학 개론을 담당하는 교수는 건축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다음 주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리포트, 지금 자기가 사는 동네를 여행을 해보는 거야. 평소에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골목들, 길들, 건물들, 이런 걸 한번 자세히 관찰하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건축학개론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사는 도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건축학의 시작이라는 강의 내용은 바로 사랑의 과정을 비유한 것이다. 건축학개론 첫 수업을 함께한 후 두 남녀는 정릉행 버스를 타게 된다. 건축학개론의 시작, 사랑의 시작을 향하여. 승민의 고향인 정릉이라는 배경에 서연이 들어오게 되고, 동시에 승민의 마음속까지 그녀가 차지해버린다. 정릉은 영화 속에서 단순히 장소의 의미 뿐 아니라 역사적인 상징 의미까지 연결 지을 수 있다. 정릉은 다름 아닌 조선 초대 임금 태조의 총애를 받았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이다. 신덕왕후는 이성계가 물을 청한 바가지에 버들닢을 띄워 주는 지혜를 보였고, 그 때의 인연으로 둘은 사랑에 빠졌다. '건축학개론' 속 승민과 서연의 나이와 비슷했을 두 남녀가 첫눈에 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순수한 첫사랑의 감정은 결국 세상의 홍진에 더럽혀지기 마련이다. 세상은 언제나 사랑보다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승민과 서연이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 서로를 향한 마음만으로는 하나일 수 없게 했던 장애물들은 사실 모든 절절한 사랑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신보다 경제적으로나 외적으로 우월한 선배 재욱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서연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승민. 사랑하는 마음을 에둘러 서툴게 말하여 재욱에게 더욱 상처만 주었던 서연. '건축학개론'의 첫사랑은 여러 가지로 정릉에 엮인 사랑 이야기와 비슷하다. 왕자의 난을 겪고, 방원의 미움을 사 사랑하는 이와 죽어서도 함께 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방치된 묘에서 하대를 받았던 신덕왕후. 그런 왕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마음이 애달프기만 했던 태조. 주변 환경을 눈치 보느라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머물러야했던, 서투른 '건축학개론'이 조선시대 왕실의 사랑에서도 존재한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달라져도 인간의 본질적인 원형은 바뀌지 않는다. 영화의 주된 배경인 정릉이란 공간이 암시해주듯이 영화 속 두 인물의 사랑도 해피엔딩이 아니다. 두 인물의 풋사과 같이 설익은 첫사랑은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상처 입으며 끝나고 만다. 서연과 승민은 십년간 외롭게 추억 속에 살아야했다. 다시 재회를 하고서도 결국 각자의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둘은 너무 멀어져버리고 만다. 그렇게 '건축학개론'의 사랑은 채 완성되지 못한 건축물로 각자의 마음 한 편에 방치된다. 잡초가 너무나 우거져 찾기조차 어려웠다는 신덕왕후의 묘처럼 외로이. 오래도록.   <영화『건축학개론』(2012)의 장면들>
원천자료	영화 『건축학개론』(2012)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8	조선불교의 흥망성쇠, 흥천사 - 1	작성자	박수진
제목	이성계의 정성이 담긴 사찰	키워드	흥천사, 원찰(願刹), 이성계
이야기	흥천사는 정릉에 묻힌 신덕왕후 강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어진 절이다. 이런 절을 원찰(願刹)이라고 한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이었지만 신덕왕후에 대한 이성계의 사랑이 깊었던 만큼 흥천사는 정릉의 바로 옆, 도성의 중심에 전체 170여 칸이라는 큰 규모로 만들어진다. 더욱이 김사행(金師幸)이라는 환관이 태조의 마음을 사기위해 화려하게 꾸몄다고 하니, 처음의 흥천사는 조선을 대표하는 크고 화려한 사찰이었을 것이다. 이성계는 단순히 도성 한복판에 흥천사 건설을 지시만 한 것이 아니었다. 흥천사를 건설하는 장인들에게 음식을 내려주기도 하고, 전각의 건설을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어떤 날을 백관이 모두 기다리는데도 이성계는 흥천사 공사현장에 가서 건설을 직접 살펴본 일도 있었다. 공사가 늦어지면 독촉하기도 했다. 이런 지경이니 법회가 자주 열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성계가 흥천사에 간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만든 흥천사여서였을까? 이성계는 흥천사의 종소리와 염불소리가 들려야 비로소 수저를 들었다고 한다.  <정릉2동 정릉 매표소 앞에 설치된 흥천사 이정표 (2013)>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성북구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9	조선불교의 흥망성쇠, 흥천사 - 2	작성자	박수진
제목	왕실사찰로 거듭나다	키워드	왕실사찰, 기우제, 외국사신
이야기	정릉이 옮겨 가면 원찰인 흥천사의 운명도 같이 해야 했다. 더욱이 태종에게 흥천사는 맘에 들지 않는 사찰이었다. 그러나 태조의 정성이 담긴 사찰을 함부로 폐할 수는 없었다. 태종은 흥천사의 스님들을 불경하다고 꾸짖으면서도 사리전의 중수를 허락한 것은 흥천사에 대한 태종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본래 역할, 즉 정릉에 대한 원찰의 역할은 사라졌으며 흥천사는 왕실 사찰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흥천사의 운명은 계속해서 위기를 맞는다. 세종 대에 들어서자 흥천사를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도성 안에 사찰이 있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유였다. 나중에는 정릉이 폐하여졌으니 흥천사 역시 폐해야 한다는 이유도 추가되었다. 비록 세종은 조종(祖宗)을 위한 사찰이란 명분으로 이를 모두 거부하였지만, 흥천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이 확인된다. 이후 흥천사에 대한 기록은 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대부분이다. 세종 31년 6월에는 흥천사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오자 왕이 승려 140여명에게 포물(布物)을 나눠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를 보아 흥천사는 이때까지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종 대에는 흥천사의 수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많은 신하들이 흥천사의 수리가 불가함을 왕에게 간한다. 그러나 일본 사신들이 보기 원하였기 때문에 수리는 간신히 진행된다. 흥천사는 기우제를 지내고 외국 사신이 예불하는 사찰이 되었던 것이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성북구지』, 『흥천사』.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0	조선불교의 흥망성쇠, 흥천사 - 3	작성자	박수진
제목	불타 사라지다.	키워드	중종, 억불정책, 흥천사종
이야기	연산군 10년 흥천사에 불이 났다. 이로 인해 흥천사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듯한데, 복구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흥천사는 왕실사찰로서의 기능도 잃은 것이다. 흥천사의 마지막은 중종 5년(1510년)의 사리각 화재였다. 이때의 화재는 유생들에 의한 것이었다. 유생들은 흥천사(정릉사)의 보물들을 도둑질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흥천사를 불 질렀다. 중종 7년에 성안의 폐사지를 민간에게 주어 살도록 하자는 건의가, 10년에는 흥천사 터에 압사 당한 사람을 장사지내가 하라는 전교가 있다. 이것으로 보아 흥천사는 앞의 두 번의 화재로 모두 불에 타 사라졌던 것 같다. 결정적으로 중종 32년 기록에는 '한성부에서 흥천사 옛 터에 대해서 아뢴 기록이 있다. 이렇게 중종 대에 완전히 사라졌다. 현재 흥천사의 옛 모습을 짐작케 하는 것은 세조 7년에 만들어졌다는 종이다. 화재가 났어도 흥천사종은 불에 타지 않았다. 아마도 화재 이후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 같다. 영조 23년(1747년)에 와서야 비로소 광화문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종은 일제강점기에 경운궁으로 옮겨졌으며, 지금은 덕수궁에 있다. 흥천사종에는 참여한 장인(匠人)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신삭종, 낙산사종, 봉선사종을 제작하는데도 참여했다. 흥천사종은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종이었던 것이다.  <흥천사명 동종 (2013)>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성북구지』, 『흥천사』.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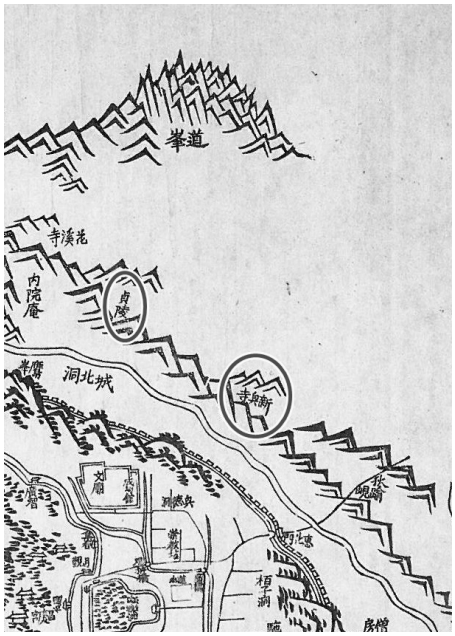
No. 11	조선불교의 흥망성쇠, 흥천사 - 4	작성자	박수진
제목	새로운 흥천사	키워드	신흥사, 복권, 수즙

이야기

지금 정동에 있는 흥천사는 불에 타 없어진 후 재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흥천사의 명맥은 이전한 정릉 곁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현재의 흥천사는 세 번의 이전 끝에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고, 신흥사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새로운 흥천사가 만들어진 것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기록에는 정릉을 사하리로 천장하였을 때 흥천사도 같이 옮겼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흥천사는 이후에도 계속 원래의 위치에 있었다. 그렇다면 기록이 잘못된 것일까? 정릉이 옮겨올 당시에 흥천사에 있던 스님의 일부도 능을 따라 왔고, 이것이 '절이 옮겨왔다'고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때 자리한 곳은 함취정(含翠亭)이 있던 곳으로 능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었다.



<1840년대에 만들어진 수선전도에 보이는 정릉과 신흥사>

절이 다시 옮긴 것은 현종 대의 일이었다. 현종은 신덕왕후를 복권하면서 정자각을 다시 짓는 등 정릉 정비 작업을 한다. 신흥사는 이때 능에서 매우 가깝다는 이유로 石門 밖으로 옮겨 간다. 능역은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동안 신흥사의 소식은 다시 자취를 감춘다.

하지만 소식이 없다고 절이 쇠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840년에 만들어진 수선전도에는 정릉과 함께 신흥사가 표기되어 있다. 쇠락한 사찰이었다면 이렇게 표기되어있지 않았을 것이다. 19세기 초기의 흥천사는 성민(性敏), 치감(致鑑), 경신(敬信) 등의 스님에 의해 수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성북구지』, 『흥천사』.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2	조선불교의 흥망성쇠, 흥천사 - 5	작성자	박수진
제목	중흥, 그리고 이름을 되찾다	키워드	흥선대원군, 왕실복원, 영친왕, 순정효황후
이야기	신흥사의 구체적인 재건의 기록은 헌종12년(1846년)부터 나타난다. 계장사(啓壯師)가 칠성각을 만들었고, 헌종 15년(1849년)에는 성혜사(性慧師)가 홀로 적조암(寂照庵)을 만들었다. 철종 4년(1853년)에는 계장사가 대웅전을, 같은 왕 6년(1855년)에는 순기사(舜祺師)가 명부전을 만드는 등의 중창이 행하여졌다. 흥천사가 원래의 이름을 되찾고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고종 2년(1865년)의 일이다. 흥선대원군은 직접 각도에서 돈을 걷어 요사(寮舍)를 증축하고, 낙성을 하면서 직접 흥천사라는 편액을 써서 내려준다. 대원군은 무리를 하면서까지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했던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한 때 왕실 사찰이었던 흥천사의 복원은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대원군 이후 대한제국 황실은 흥천사와 인연을 이어간다. 극락보전에는 대한제국 마지막 태자였던 영친왕이 다섯 살 때 쓴 글이 남아있고, 대한제국 마지막 황후인 순정효황후 윤씨는 한국전쟁 당시 흥천사에 머물기도 했다.  <흥선대원군이 직접 써 내려준 현판 (2013)>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성북구지』, 『흥천사』.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3	조선불교의 흥망성쇠, 흥천사 - 6	작성자	박수진
제목	왕실사찰에서 연회장으로	키워드	연회장, 이상, 결혼식, 환갑잔치
이야기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며 한국 불교계는 큰 변화를 맞이한다. 당시까지 한국 불교계에는 생소했던 대처승제도의 도입이었다. 전통적인 불교의 스님들은 출가를 하지 않았다. 저 유명한 원효대사도 요석공주와 정을 통한 후에, 스스로를 더 이상 스님이라 하지 않고 소성거사라 하였다.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한 서산대사, 사명대사도 모두 비구승이었다. 생소한 대처승 제도가 들어오고, 일제가 이를 장려하자 대처승의 수가 많아졌고, 이들이 많은 사찰을 차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은 뜻하지 않는 부작용을 낳았다. 스님들이 결혼을 하자 가족이 생겼고, 이들을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결과 사찰 내에 음식점이 생겼고, 나아가 술과 고기를 팔기도 했다. 지금의 흥천사가 있는 지역은 예부터 경치가 좋은 곳으로 유명했다. 거기에 도심과도 가까웠으며, 돈암동까지 전차도 다니게 되었다. 결과 일제 강점기 이후 흥천사는 생일 및 환갑잔치의 장소로 널리 알려진다. 유명한 시인 이상(李箱)도 이곳에서 결혼을 했다. 거기에 최근까지 대처승 제도를 인정하는 태고종 사찰이었던 것으로 보면, 흥천사는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 한국 불교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온 것으로 보인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성북구지』, 『흥천사』.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4	조선불교의 흥망성쇠, 흥천사 - 7	작성자	박수진
제목	강북지역 중심도량	키워드	조계종, 태고종, 강북지역 중심도량
이야기	흥천사는 2011년 조계종 사찰이 되었다. 그 전에도 명목상으로 흥천사는 조계종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태고종 스님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 이후 대처승과 비구승의 갈등이 생겼고, 흥천사는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것이다. 2011년 당시 흥천사 경내에는 22가구가 입주해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모두 이주 하였으며, 강북지역의 중심도량으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흥천사 (2013)>  <흥천사 신덕왕후 다례 (2013. 9. 23)>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성북구지』, 『흥천사』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5	조선후기 동소문 밖 유람길 - 1	작성자	백외준
제목	“일구천석이 강동을 차지한 것보다 낫다오” - 손가정에 남긴 남구만의 바위글씨	키워드	조선후기, 손가정, 약천 남구만, 서계 박세당, 유람, 바위글씨

이야기

혜화문(동소문)에서 신흥사(현 흥천사), 약사사(현 봉국사), 손가장(현 손가정), 청암사(현 경국사)를 경유하는 길은 북한산을 찾는 옛사람들이 자주 거쳐 갔던 길이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손가장은 바로 옆 계곡의 물과 바위가 ‘밝고 환해’ 많은 사대부들이 어울려 와서 풍류를 즐기고 시를 읊었다. 그 중에서도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이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 1629~1703)과 함께 놀러와 지은 시가 가장 유명했다.

서계와 함께 손가장에 놀며 돌 위에 쓰다. 與西溪游孫家莊 題石上

손씨 집안의 부자 영웅으로 알려지니 孫家父子號英雄
천하를 삼분하여 할거해서 패업이 융성하였네 割據三分霸業隆
지금 서인이 됨 어찌 한탄할 것이 있는가 爲庶於今何足恨
한 구역 천석이 강동을 차지한 것보다 낫다오 一區泉石勝江東

손가장 마을이 손씨 동성촌이란 점에 착안하여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손견, 손권 부자의 이야기를 끌어와 지은 기발한 시인데, 지금 이 자그마한 구역에서 산수와 함께 하는 즐거움이 저들 손씨 부자의 영화보다 낫다는 내용이다. 현종·숙종대의 대학자이자 소론의 영수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남구만의 호연지기를 엿볼 수 있다.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는 계곡의 커다란 바위 위에 새긴 것인데, 그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나서 손가장을 찾은 윤기(尹愭, 1741~1826)는 바위에 새겨진 남구만의 시구에 차운하여 지은 자신의 시를 남구만의 시 아래에 새겨 넣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이 시들을 각자한 바위는 1960년대 정릉천변에 집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땅에 묻혔다고 전한다.

원천자료	남구만 지음, 성백효 옮김, 『(국역) 약천집 1』, 한국고전번역원, 2004.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6	조선후기 동소문 밖 유람길 - 2	작성자	백외준
제목	“십리 중에 내리는 붉은 가랑비” - 김려의 동소문 밖 1박2일 유람기	키워드	담정 김려, 삼청동, 송동, 성북동, 홍천사, 손가정, 경국사
이야기	조선 후기의 문인 담정(薝庭) 김려(金鑢, 1766~1822)가 1819년 그의 나이 54세 때 지은 한시 「만춘유람(晩春遊覽)」에는 동소문을 나와 북한산 기슭 청암사(현 경국사)까지 이르는 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도성 안 삼청동 집에서 조용히 옛 생각에 잠겨있던 김려에게 젊은 두 겸인 복경(福慶)과 순흠(舜欽)이 와서 교외로 놀러 갈 것을 청했다. 이를 흔쾌히 승낙한 김려는 곧바로 간소한 행장을 차린 다음 나귀를 타고 도성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성균관 앞 반촌(泮村)과 우암 송시열의 옛집이 있는 송동(宋洞)을 지나 혜화문을 빠져나온 김려는 북저동(北渚洞, 지금의 성북동)에 이르러 천변에 만개한 흐드러진 복사꽃을 구경한다. 여기서 다시 정릉 입구의 신흥사(新興寺, 현 흥천사)로 향하는데 이 때 북저동에서 신흥사까지 나지막한 산등성이로 이어진 길은 모두 복사꽃 천지다. 이를 두고 김려는 동문 밖에 온 종일 퍼지는 꽃냄새가 바다와 같고 십리 중에 붉은 가랑비가 내리는 것 같다고 하여 감탄해 마지않는다. 신흥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김려 일행은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정릉천 우안에 자리한 유서 깊은 마을 손가장으로 간다. 손가장은 조선시대 밀양 손씨 의창군파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동성촌으로 정릉 일대에서는 가장 큰 마을이었다. 마을 옆을 흐르는 정릉천은 북한산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개천으로 그 풍광이 운치 있어 정릉천 옆의 정자에는 도성 안 사대부들이 자주 찾아와 풍류를 즐겼다. 그러나 김려가 찾아왔을 때 정자는 퇴락한지 오래였고 시냇가 바위에는 한 노파가 빨래를 널어 말릴 뿐이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김려 일행은 청암사로 향했다. 청암사에 들른 김려는 감회가 새로웠다. 18세 되던 해에 김려는 지우들과 함께 이 절에 책을 싸들고 와서 독서와 토론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모습이 젊은 시절 꿈꾸던 그 모습이 아님을 느끼고 엷게 웃을 뿐이었다. 이후 김려 일행은 청암사의 경판각과 철조문수보살상을 보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다. 아마 청암사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아침 이곳을 떠났으리라. 김려의 삶은 순탄치 못했다. 그는 32세 때부터 41세 때까지 꼬박 유배지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야 했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인 47세에야 처음으로 관직을 얻었다. 김려가 동소문 밖으로 나들이를 나선 때는 54세 때이다. 그 해 봄 김려는 연산현감 직에서 물러난 뒤 서울 삼청동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동소문을 나와 북저동과 신흥사를 거쳐 손가장과 청암사까지 나귀를 타고 북한산의 연봉들을 바라보며 느리게 옛 생각을 더듬듯이 가는 김려의 행로에서 그가 살아 온 인생길의 굴곡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김려의 「만춘유람(晩春遊覽)」중 네 수를 뽑아 번역한 것이다.

이 한봄 좋은 꽃철에 문 닫고 지내려니
떠서 사는 이 인생 업장 많아 부끄럽네.
이웃집 젊은이들 권유에 못 이기어
밀치고 당겨서 산언덕에 올랐노라.
복경과 순흠 두 겸인이 찾아와서 봄놀이를 가자고 청하기에 나귀를 타고 잠깐 나갔다.

一春花事閉門過
慙愧浮生業障多
強被南隣少年輩
並來牽挽陟山坡
福慶舜欽二傔。來請游春。遂跨驢暫出。

진달래꽃 져버리고 살구꽃도 스러졌네
못 믿을손 봄바람이 너무도 덧없어라.
다행히도 북저동에 천만 그루 울긋불긋
철 늦게 피어 있어 봄 경치 단정했어라.
북저동의 복숭아꽃도 이미 철이 늦었다.

鵑花凈盡杏花消
無懶東風太寂寥
北渚緋紅千萬樹
晩春猶保淡粧嬌
北渚洞。桃花已晩。

어젯밤 모진 바람 한바탕 휩쓸더니
봄 동산 온갖 꽃이 가뭇없이 사라졌네.
북저동 골짜기에 꽃향기 그윽하더니
동소문 안 십리 길에 붉은 꽃잎 깔렸구나
북저동에서 동소문 안에 이르기까지, 동소문에서 신흥사 동구까지 온통 복사꽃이었다.

昨夜封姨一陣風
芳園春色片時空
靑門盡日香如海
紅雨濛濛十里中
自北渚洞。至東小門。自門至新興寺洞口。摠是桃花。

시냇가에 솟아 있는 귀록정 좋은 쉼터
호기 있던 정자 임자 구름처럼 가 버렸나.
비단 빨던 빨랫돌 지금은 주인 없어
촌 할머니 베치마 그 위에 말리누나.
정자는 옛날 손씨 집안 별장이었는데 뒤에 정승 조현명이 소유했다가 지금은 감사 김계온이 소유하게 되었으나 온통 황폐해졌다.

歸鹿亭荒澗水濱
相公豪貴似浮雲
浣紗古石無人管
只敎村婆曬布裙
亭故孫家莊。後爲趙相國顯命郊莊。今賣爲金監司啓溫家物而盡荒癈。



<정릉천을 따라서 좋은 산책길이 생겼다. (2013)>

원천자료	김려, 『담정유고』 권1 , 민족문화추진회, 2002. 김려 지음, 오희복 옮김, 『글짓기 조심하소』, 보리, 2006, 385-387쪽.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7	조선후기 동소문 밖 유람길 - 3	작성자	백외준
제목	“가을 손가장에서” - 조수삼의 한시	키워드	추재 조수삼, 손가장, 가을, 경국사

이야기

추재(秋齋) 조수삼(趙秀三, 1762~1849)만큼 손가장에서 많은 시를 지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의 문집『추재집(秋齋集)』에는 ‘손가장’이라는 제목이 붙은 시가 모두 세 편이 있는데 그 중 한 편은 어느 가을날 손가장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저녁부터 밤 그리고 다음날 새벽의 전원풍경을 노래한 것이다.

손가장	孫家庄
시골집 가을 해는 저무는데	田家秋日下
기와집의 창은 산으로 열려 있네.	甕牖向山開
벌레 소리 성근 울타리를 타고 오르고	虫語踈籬蔓
소는 길섶의 이끼를 밟고 오네.	牛蹄小逕苔
책을 끼고 멀리 나간 나무꾼은	帶書樵去遠
아내와 함께 대추를 털어 담아 돌아오네.	與棗婦還來
본래 성정이 고운 것을 바라지 않으니	適性無相艷
질그릇 술단지가 옥잔보다 낫구나.	瓦樽勝玉杯
밭두둑 길은 모두 산 위로 통하고	畦畛通山上
마을 언덕 밑 개울물은 조용히 남쪽으로 흘러가네.	村墟隱水南
어떤 사람이 가을 나무 씨를 뿌리고	何人種秋樹
그윽한 곳에서는 오두막 지붕의 띠를 얽고 있네.	幽處縛茅庵
거둔 밤을 두 섬 가마니에 채우는 사람	收栗充儋石
따뜻한 샘물(온천)이 두 세 군데 솟는다 하므로	烹泉品二三
동쪽 골짜기 새로이 기록해둘 만한 것이라	東柯有新記
나중에 다시 올 때 농부들에게 물어보려네.	歸日次農談
돌 사이로 흐르는 물은 가을밤을 울리고	石瀨通秋夜
선방의 창은 단정히 뒤로 열려 있네.	禪窓定後開
시원한 구름은 강당 밖 나무에 걸쳐 있고,	凉雲依講樹
새벽 달빛 뜰 안 이끼에 내려앉네.	曉月下庭苔
꿈이 끊어지는 듯싶더니 범종과 목어 소리 울려와	夢斷鍾魚動
시(詩)가 탑을 이룬 곳에 기러기 내려와 앉네.	詩成塔雁來
좌정하고 빛이 생겨나는 곳을 보노라니	坐看生光處
단풍나무 향기는 부처님께 올리는 찻잔을 가르네.	楓香剖佛杯

이 날 조수삼은 김려가 그랬듯이 손가장 부근의 절, 아마 경국사나 봉국사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이 시를 지은 것 같다. 저녁 나절 손가장의 농부, 나무꾼, 아낙들이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풍경, 가을 밤 적막한 산사의 정취, 이튿날 새벽 동트는 장관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

다음은 조수삼이 손가장에 들러 쓴 또 다른 시들이다.

孫家莊 六首

斯亭歲一至。乃自弱冠初。窃欲爲吾物。今聞易主居。
珠泉淸可漱。白石滑宜書。子厚鈷潭記。平生意有餘。

泉聲凉到骨。峯月白於頭。地迥難爲夜。書多耐入秋。
巾車逢寤寐。枕席集淸幽。百歲强過半。今游勝昔遊。

水石名莊負郭東。東南峯豁一溪空。孫家昔謂吳王後。戚里今居漢侍中。
鐘鼎山林從我好。池臺花木與人同。閒來歌嘯誰相問。秋竹便妍滿夜風。

山中西日故遲遲。每個園邱坐一時。灌稻泉分人我相。種松僧養子孫枝。
秋懷似月終身抱。良士如雲到處隨。蓮社歸來薇塾暝。冷蟬凉鳥孰先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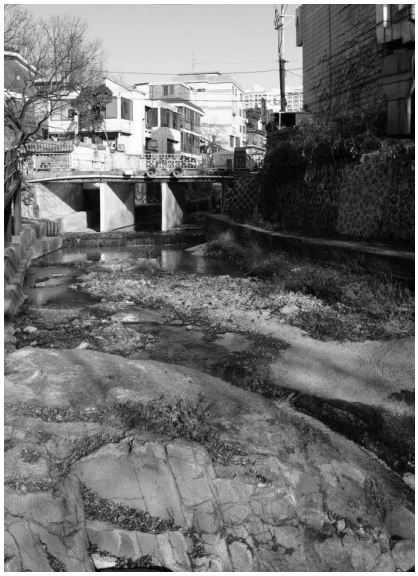
邱琴日夕抱淸音。石屋垂垂薜荔陰。明月投人無按劒。秋風令我有歸心。
堆之北斗爭高下。逝者東流感淺深。入世可堪成白首。論交何必問黃金。

踈煙秋樹掩衡關。凄裂晨蟹去復還。蘿葉遙明行飯路。禾叢特發立談間。
誰家白送陶潛酒。滿郭靑看謝朓山。想了半生雲水債。道人無病有長閒。

秋日孫家庄 二首

靑山繞繚作籬門。小聚烟生獨樹原。社肉誰分孺子手。秋花自發老僧園。
蒼苔踏遍行無定。流水聽多意不喧。未賦歸田先乞沐。斷雲孤鳥漸黃昏。

遠公初地接靑門。寒葉踈花覆古原。溪水未遮人世界。秋風亦到佛田園。
雲來雲去參空色。鍾後鍾前限寂喧。此夜欲修香火社。下方喚誰夢昏昏。


<손가정 마을 옆으로 흐르는 정릉천 (2013)>

원천자료	조수삼,『추재집』권2, 3 , 민족문화추진회, 2001.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18	조선후기 동소문 밖 유람길 - 4	작성자	백외준
제목	“닷새간의 북한산 유람” - 이승희의 「북한일기」	키워드	대계 이승희, 한계유고, 혜화문, 북한산, 손가장, 청수동, 북한산성, 세검정

이야기

이승희(李承熙, 1847-1916)는 대한제국기 조선의 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경북 성주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조선 말기의 대유학자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이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성리학과 예학에 조예가 깊었던 이승희는 20세 전후부터 위정척사운동에 앞장섰고, 1908년부터는 국외로 망명하여 블라디보스톡과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승희>
(출처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76년(고종13) 음력 2월, 당시 30세였던 이승희는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 하지만 시험 결과는 불합격. 이승희는 별시에 응시하기 위해 며칠을 더 도성 안에 머물러야 했다. 이 기간에 이승희는 김희진(金希鎭), 윤익규(尹翼逵), 송제익(宋濟翼) 등 지우들과 재종형 달희(達熙), 족형 영훈(英勳)과 함께 북한산에 올랐다.

첫째날인 음력 2월 22일, 이승희 일행은 혜화문을 나와 정릉고개, 봉국사, 손가정, 청수동을 거쳐 경국사에 도착, 하룻밤을 묵었다. 둘째날에는 곧바로 산에 올라 북한산성을 비롯해 백운대, 인수봉 등 주요 암봉들과 골짜기 사이사이의 절이며 암자들을 장장 나흘에 걸쳐 돌아보고는 26일 평창동 방면으로 하산해 세검정과 창의문을 지나 도성으로 돌아왔다. 이승희가 이 때 둘러본 북한산 일대의 실정들과 그에 대한 감상을 기록한 「북한일기(北漢日記)」는 19세기 후반 한양도성 밖의 경관과 주민들의 생활상을 유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다음은 그 중 첫째날과 둘째날의 기록이다.

2월 22일, 혜화문을 나오니 군인들이 기마훈련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산을 돌아 북쪽으로 돌려 정릉에 올라 작은 언덕을 넘어 봉국사에 들어갔다. 경내가 맑고 그윽해 사랑할 만했다. 비가 와서 잠시 쉬었다가 작은 개천을 넘으니 동네 하나가 나타났다. 물색이 영락없이 시골이다. 마을 이름이 송가정(松可亭, 아마 손가정을 잘못 들은 것 같다)이라고 한다. 얼마를 더

들어가니 골이 하나 나왔는데 '청암(靑巖)'이라고 하고 그 안의 절은 '경국사'라 하였다. 절은 자못 그윽하여 운치가 있었으나 승려들은 매우 고루했다.

밤에 청수동 정자에 내려갔는데 척신(戚臣) 김병기(金炳冀)의 별서라 하였다. 산은 험준하지 않으나 수려했고 물은 깊지 않으나 깨끗했다. 누대가 겹겹이 포개져 보이고 기이한 화초들이 자라고 있었다. 일찍이 서울 근교에서 제일가는 이름난 정원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기울어지고 무너져서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고 한다. 집안이 망해 수선할 수도 없어 정원의 나무들은 잘려나가고 누각들은 헐렸으며 담은 기울어지고 섬돌은 무너져내렸다. 옛 석숭(石崇)이 금곡 재택에 화려하게 지은 별장이 시간이 지나 황폐해졌다는 고사를 접하는 느낌이 들었다. (二月 二十二日 , 出惠化門, 觀馬兵習騎, 循山而北, 上貞陵(神德王后陵-원주), 越小岡, 入奉國寺, 淸幽可愛, 被雨少憩, 渡小溪, 一簇閭閻, 依然有野人物色, 曰松可亭, 入數方地, 洞曰靑巖, 寺曰慶國, 亦頗幽閒, 而僧徒頑甚, 夜下 淸水洞亭 , 是戚臣金炳冀別墅, 山不峻而麗, 水不深而淸, 樓臺稠疊, 花卉絢奇, 曾云京近第一名園, 而今爲張弁基溶所買, 家敗不能繕, 斬其樹, 撤其樓, 欹垣敗砌, 有金谷梓澤之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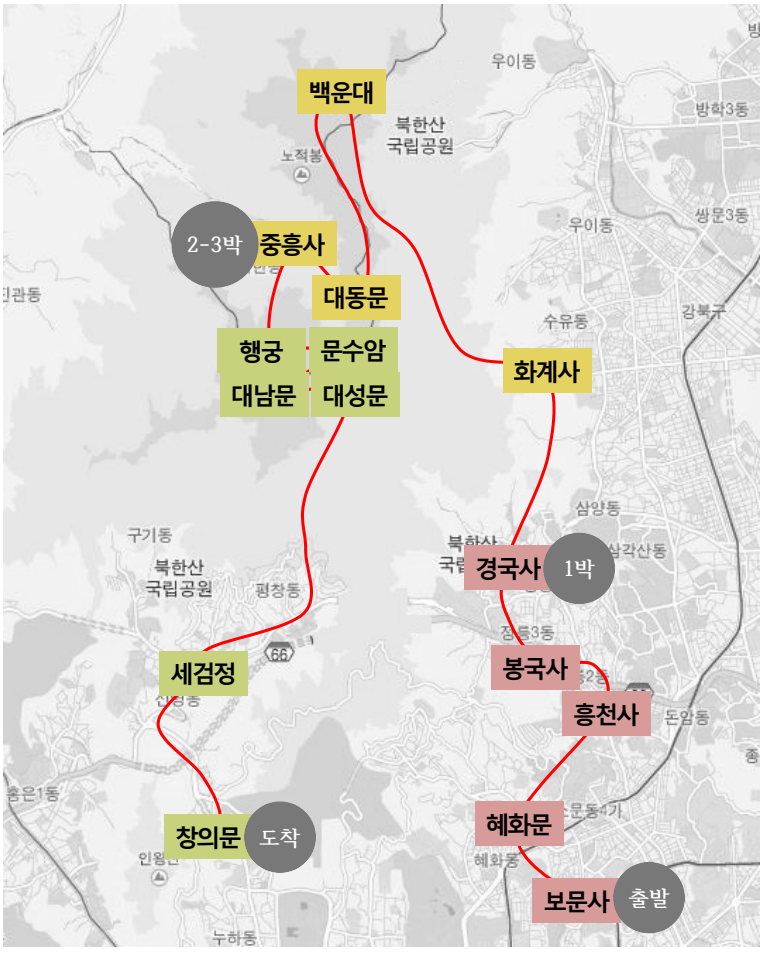
23일, 동구에서부터 푸른 계곡을 따라 올라가니 돌은 더욱 하얘지고 물살은 더욱 빨라졌다. 사람 사는 흔적도 없었다. 다만 멀리 돌문 하나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돌문은 구름 끝자락에 걸려 있어 마치 구천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보이니 볼 수는 있어도 가까이 가기는 힘들었다. 바로 북한산성의 소동문(小東門, 지금의 대동문)이었다. 문을 따라 들어가니 홀연히 세 봉우리가 하늘에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우뚝하기가 뿔과 같고, 의젓하기가 신과 같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감을 불러 일으켰다. 곧 백운, 만장, 노적으로 이루어진 삼각(三角)이었다.



<이승희가 지나갔던 소동문. 지금은 문루가 복원되어 대동문이란 현판을 걸었다.>
(출처 : 문화재청)

북풍이 불어 몸이 오그라들고 눈발이 뼈를 에니, 내려와 보국사(輔國寺)로 들어갔다. 머리를 깎은 사람이 둘 있었는데 모두 성문의 방비를 맡은 자들이었다. 그 행색이 가난하고 초라해 무거운 성문을 닫아 걸 힘도 없어 보였다. 우리 일행은 주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다시 일어나 유람할 뜻도 없어서 서둘러 태고사(太古寺)로 들어갔다. 절 뒷켠에는 목은 이색이 지은 원증선사비(圓證禪師碑)가 있었다. 원증의 속성은 홍(洪)이고 법명은 태고(太古)이다. 일찍이 이 절에 머무르니 고려 왕이 선사를 예우해 왕사에 봉하고 극진히 섬겼다. 입적후 원증이란 시호를 내리고 이색에게 명하여 명문을 짓게 했다. 이색은 문장과 절의로써 당대 제일이었으나 일개 승려를 위하여 지극히 성대하게 찬양하는 내용의 비명을 지었으니 이런 속습이 쉽게 없어지지 않음이 이와 같다. 절 이름은 원증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二十三日 , 自洞口緣溪而上, 石益白, 水益駛, 無人烟俗跡, 只望石門▣(石+含)硏, 懸在雲端, 如九天闔闢, 可望而不可親, 乃北漢小東門也, 從門入, 忽見三峰揷天, 突兀如角, 儼然如神, 使人敬畏, 即白雲萬丈露

	積三角也, 北風越緊, 冷雪砭骨, 下入輔國寺, 有二禿頭, 蓋掌管鑰者, 貧殘孤寄, 或不能關門, 肚飢腿軟, 不復作遊覽意, 走入太古寺, 寺後有李牧隱所製 圓證禪師碑 銘, 圓證俗姓洪, 法名太古, 嘗住是寺, 麗王禮之, 封王師, 極敬事, 化後諡圓證, 命公銘, 公以文章節義, 爲一世宗, 而爲一僧銘其墟, 備極艷贅, 俗習之不易祛, 類如此, 寺之名, 由圓證也。) 그 옛날 조선 사대부들의 북한산 유람은 최소한 이틀 이상 걸렸다. 혜화문을 빠져나와 홍천사, 정릉고개, 봉국사를 지나 경국사까지가 하룻거리여서 유람객들은 산에 오르기전 청수동 경국사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경국사는 일종의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었다. 유람 이틀째에 비로소 산에 올라 북한산성과 주요 암봉들을 둘러보는 것인데 산성 안의 태고사와 중흥사에서는 유람객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 마지막 하산하는 날에는 세검정에 들렀다가 창의문을 지나 도성에 들어오는 것으로 북한산 유람은 끝이 났다. 짧으면 2일, 길면 5일이나 걸리는 행로였다.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명승지라 해도 자동차로 하루나 이틀이면 남김없이 '관광'하고 올 수 있다. 북한산 쯤이야 차로 입구까지 가서 한나절이면 정상을 '찍고' 내려올 수 있는 거리이다. 실로 주마간산이라는 말이 제격이다. 반면에 옛 사람들의 유람이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산수자연을 경험하고 혹은 그 느낌을 시나 글로 옮겨서 내면에 간직하는,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심신을 자연에 맡기는 과정이었다. 때로 유람객들은 김려나 이승희의 경우와 같이 거쳐가는 장소들에 남겨진 이야기들, 이를테면 북한산의 경우에는 마을, 정자, 산성, 절, 암자 등 인공물과 계곡, 봉우리와 같은 자연물에 담긴 설화나 역사를 채록해 두기도 하였다. 유람객들에게 근교의 낯선 공간들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텍스트였거니와 사물들이 내뿜는 빛깔, 소리, 냄새는 인간의 문자(人文)로 번역되었다.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옛 사대부의 흉내를 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낯선 공간을 마주하는 '나'의 자세일 것이다. 휴대용 디지털카메라가 널리 보급된 오늘 우리에게 풍경은 단지 망막을 스쳐가는 순간적인 상일 뿐인 경우가 많다. 일상으로 돌아오면 풍경은 기억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로 변환되어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될 뿐이다. 그러나 한 번쯤 풍경을 글로 옮겨보자. 서투른 솜씨일지라도 거리에서 지나친 아름다운 경관이랄지 낯선 공간이 주는 모호한 감정을 글로 한 번 옮겨 써보자. 그러면 영원히 묻힐 뻔했던 기억은 문자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꿈틀거릴 것이다.
원천자료	이승희, 「北漢日記」, 『韓溪遺稿 6』, 국사편찬위원회, 402-405쪽.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9	조선후기 동소문 밖 유람길 - 5	작성자	백외준
제목	“눈보라 속에 숨은 서울” - 신기선의 「유북한기」	키워드	양원 신기선, 혜화문, 흥천사, 봉국사, 경국사, 화계사, 북한산
이야기	1898년(광무2) 대한제국의 관료 신기선(申箕善, 1851~1909)은 예전 김려 일행이 갔던 길을 따라 북한산으로 유람을 떠났다. 찬바람이 제법 옷깃을 파고드는 음력 10월의 초겨울이었다. 신기선은 주사(主事) 강봉조(姜鳳朝) 등 4명의 길동무와 함께 길을 나섰다. 그들은 보문암(普門庵, 현 보문사)에서 출발하여 홍천사와 약사사(藥師寺, 현 봉국사)를 거쳐 청암사(현 경국사)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북한산 입구의 화계사(華溪寺)로 향해 출발했다. 북한산이 최종 목적지였던 신기선 일행은 북한산성 내 중흥사에서 2박을 하면서 백운대, 인수봉, 노적봉, 문수봉 등 북한산의 거대 암봉들과 산성 안의 행궁과 성문들을 구경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평창동과 세검정을 지나 저녁 어스름이 깔릴 무렵 창의문을 거쳐 도성에 들어왔다. 마지막 하산하는 날은 온 산에 눈이 내려 산 아래 지척에 있는 한양 도성이 천리 밖에 있는 것처럼 아득히 보였다고 신기선은 기록했다. 신기선 일행이 거쳐 간 곳을 지도상에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기선의 기문에는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수창한 시도 여러 편 삽입되어 있는데 다음은 그 중 몇 편을 번역한 것이다. 솔바람에 낙엽 쓸려 가고 종소리 은은히 들려오는데 / 松風搖落撼鍾聲 고요한 밤 이 산방을 촛불 하나로 밝혔네 / 夜靜山房一炷明 방안 병풍에 쓴 천 개의 복(福)자, 어찌해야 얻을 수 있을까 / 安得屛間千福字 모두가 은혜 베풀고 살면 함께 승평한 시대를 누리리라 / 撒施大界共昇平 서울에서 태어나고 늙은 지가 어언 오십년 / 生老長安五十年 멀리 뵈는 삼각산은 푸른 하늘마냥 아득했는데 / 遙望三角似靑天 우연히 여기 중흥사에 와 묵고 보니 / 偶然來宿重興寺 꿈속에선가 지선(地仙)이 되어보네 / 夢裏還疑作地仙 밤이 지나고 나니 희디흰 꽃잎 절간에 가득해 / 一夜瓊花滿祗林 띠끌과 먼지 말끔히 사라져 선심(禪心)을 보겠네 / 塵埃淨盡見禪心 천봉만학은 온통 유리로 뒤덮이고 / 千峯萬壑琉璃界 장안은 어디에 있는지 분간할 수 없어라 / 不辨長安何處尋 삼십년이 지나서 다시 여기에 놀러오니 / 三十年來此重遊 소림사(少林寺)* 아래 서쪽으로 흘러가는 개울 / 少林寺下水西流 바위에 부딪히며 이루는 격랑은 옛날과 변함없는데 / 激石奔流如昨日 누가 다시 검을 씻어 저 오랑캐별(旄頭)을 자르랴 / 何人洗劍斬旄頭 *소림사는 현재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241-3에 있는 절이다.
원천자료	신기선,「遊北漢記」,『양원유집』권10 , 민족문화추진회, 2005.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20	조선후기 동소문 밖 유람길 - 6	작성자	백외준
제목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고” - 수당 이남규가 홍천사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지은 시	키워드	수당 이남규, 홍천사, 동문 밖
이야기	수당(修堂) 이남규(李南珪, 1855~1907)는 충청남도 예산 출신으로 1875년(고종 12) 사마시에 합격한 후 1885년 홍문관교리에 임명되고 1902년 궁내부특진관을 역임한 조선 말기의 문신이었다. 1894년 5월 일본공사 오도리(大鳥圭介)가 군대를 이끌고 서울에 입성하자 상소를 올려 일본의 무도함을 규탄할 것을 요구하였고, 갑오경장의 부당성과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의 통분함을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영흥부사의 직을 사임하고 향리로 돌아갔다. 1906년 병오의병 당시 홍주에서 거의하였던 민종식(閔宗植)이 일본군에 패하여 은신을 요구하자 숨겨 주었으며, 이 일로 인하여 의병과 관련 있다 하여 1907년 공주옥에 투옥되었다가 며칠 뒤 온양 평촌 냇가에서 아들 충구(忠求)와 함께 피살되었다. 이남규는 문장에도 능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에도 힘써서 그 문하에서는 변영만(卞榮晩, 1889~1954)과 신채호(申采浩, 1880~1936) 같은 근대사의 거인들이 배출되었다. 아래의 시는 이남규가 1880년대 후반에 쓴 시로,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동문 밖 홍천사에서 모이기로 하였는데 그 중 ‘강재(康齋)’ 라는 친구 한 명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그를 기다리는 동안 쓴 것이다. 옛 시들에서는 자주 동대문과 동소문을 아울러 청문(靑門)으로 불렀는데 이는 동쪽이 오방색 가운데 청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동문(東門) 밖으로 말을 달려 나가니 振策靑門外 예나 이제나 갈랫길 변함없구나 古今岐路橫 바위 기슭 낙숫물에 얼음이 매달렸는데 斷氷巖溜滴 지붕의 기왓골에는 남은 눈이 하얗고야 殘雪瓦溝明 미관이라 벼슬살이 때때로 즐거운데 薄宦時淸樂 저무는 한 해에 타향이 느꺼워라 羈遊歲晏驚 기다리는 이는 왜 이다지 아니 오나 所思殊未到 아득히 성머리에 저녁 해가 기우네 遙郭日西傾		
원천자료	이남규 저, 홍승균 역, 『(국역) 수당집 1』, 민족문화추진회, 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21	조선후기 동소문 밖 유람길 - 7	작성자	백외준
제목	시골? 詩谷! - 손가장과 정릉계곡에 바치는 시들	키워드	손가장, 손가정, 홍수주, 오도일, 최석항, 조유수, 오원, 이윤영, 이명환, 김종수, 박준원, 윤기, 박윤묵, 김진수, 김택영

이야기

조선시대 정릉천의 상류는 깨끗한 물과 하얀 바위, 북한산의 장대한 풍경이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다. 이 때문에 도성 안의 많은 선비들은 가까이 정릉천이 흐르는 손가장 마을을 찾아 풍류를 즐겼다. 한시는 이 시대 풍류의 최상급 형식으로서 카메라가 없던 시절 이곳을 방문한 선비들이 남긴 시에는 조선후기 손가장 일대의 자연과 간혹 주민들의 생활모습이 한 장의 스냅사진처럼 담겨 있다.

앞서 소개한 조수삼 말고도 홍수주(洪受疇, 1642~1704), 오도일(吳道一, 1645~1703), 최석항(崔錫恒, 1654~1724), 조유수(趙裕壽, 1663~1741), 오원(吳瑗, 1700~1740), 이윤영(李胤永, 1714~1759), 이명환(李明煥, 1718~1764), 김종수(金鍾秀, 1728~1799), 박준원(朴準源, 1739~1807), 윤기(尹愭, 1741~1826), 박윤묵(朴允默, 1771~1849), 김진수(金進洙, 1797~1865), 김택영(金澤榮, 1850~1927)과 같은 조선시대 문인들이 손가장에 들러 아름다운 시를 남겼다.

又與貫之，子懷，一卿往貞齋。舍姪禹翊亦以貞郎同到。轉向孫家庄。李季泉追及。與之觀瀑。

武陵流水更來尋 我欲窮源到轉深
嶺底濕雲龍卧洞 巖邊落日鹿眠林
謝公蠟屐蒼苔滑 摩詰仙庄綠樹陰
前後風烟渾一致 每逢佳處洗塵心

— 홍수주, 『호은집』권3

松村錄上 自乙亥冬。至戊寅春。僑居松峴第。丙子冬。乍出寓黔陽。

筍輿出郭事幽尋 孫氏溪莊境最深
政好休時同藉石 不妨行處每穿林
將秋麥茂山田美 欲雨雲多洞府陰
莫笑玆遊無酒具 巖泉一滴醒塵心

又
興到尋常訪此區 歸途駄醉信人扶
當時勸酒林間鳥 應怪今行一榼無

— 오도일, 『서파집』권6

淸潭洞。次載中韵。俗名孫家莊

淸潭誰道勝昭泉 兩地風烟各洞天
會心只在驪黃外 始覺幽棲亦有緣

懸崖度盡忽飛泉 始信壺中別有天
多謝諸君相訪意 一笻吟嘯亦佳緣

— 최석항,『손와유고』권1

同禎甫出孫家莊。夐可居地。

武陵溪路接靑門 雨後風泉處處噴
瓜蔓豆花緣岸圃 石垣茅舍背山村
瀼西種果方依朴 潭上謀田價問孫
若使玆丘粧點就 不論城外數名園

— 조유수,『후계집』권1

歸路訪孫家庄。次洛叟韻。

曲折明湍綠樹間 雨餘三角倒孱顔
此心澹若山頭靄 著在淸潭暮不還

— 오원,『월곡집』권1

孫家庄

秋氣日淸泠 秋山更幽靜
崖寺信馬還 巖泉一路永
林風響湍瀨 山翠明潭影
移尊坐素石 夕暉在西嶺
身與華組忘 心隨流水逈
悠然雞犬處 村籬煙火淨
會心自非遠 終思世機屛

— 오원,『월곡집』권3

孫家庄。同士晦，子直，深遠，鄭大受 存謙，伯愚，定夫。以已知出郭小塵事分韻。戊寅五月日。

洗心當以書 洗垢當以水
濯濯垂兩足 淸泉來未已
白石厲其色 明沙淨餘滓
振衣出靑林 顧影還自喜
暗逕不可行 曲木不可倚
逝將箕潁遊 携手有數子

— 이윤영,『단릉유고』권10

孫家莊水閣

悠悠行止閒無事 雲與俱來石與停
流水孫家千柳綠 夕陽華嶽數峯靑
閒花落遍驢嘶樹 古硯磨淸客到亭
高興不敎歸思促 街樓直待夜鍾聽

— 이윤영,『단릉유고』권10

與李胤之，李深遠　惟秀，洪子直　益弼，金伯愚，鄭大受，金定夫　鍾秀　遊孫家庄。賦古詩。

連鑣早向孫庄時　綠樹十里鳴黃鸝
山柰子落貞陵澗　佛川沙晴漾遊絲
經林越壑入洞深　皓泖淸水何漪漪
諸賢衮衮動詩興　浩然先唱者胤之
定夫蹇驢喜仙呼　予直飛龍嫌靴馳
提席選陰靑楓下　濯纓濯足恣所宜
擊節高歌招隱士　王孫不見山石崎
山石獨在王孫去　層臺傑構復是誰
乃知磎山無定主　階松田海須臾移
誅茅結廬何太苦　不必勞勞費營爲
世間萬事皆如此　寂寞千載知不知
眼前感激歷歷在　少年行樂君莫辭　子直時以僕判來會。故云云。

— 이명환,『해악집』권2

五月二日。同胤之直兄深遠　李惟秀，大受　鄭存謙，伯愚及李士晦　明煥。遊孫家庄水石。以已知出郭少塵事分韵。

出門羣巒秀　長松十里翠
沙平馬蹄閒　谷邃禽聲媚
飛泉兩道來　恰與茅楹値
解衣掛靑柯　炊飯坐碧荔
丹翁潑水墨　山行有故事
返照帶孤花　流風散良穗
感歎惜華髮　永懷超塵累

— 김종수,『몽오집』권1

與同里諸友。遊孫家庄。

諸君出郭笑談譁　散策靑蕪與白沙
日暖墟烟依樹靜　風輕山靄度溪斜
憩臨藥寺生淸磬　行過貞陵有落花
三角峰低亭子出　一區泉石是孫家

— 박준원,『금석집』권1

至孫家庄。見石上有南藥泉詩云孫家父子號英雄。割據三分覇業隆。爲庶於今何足恨。一區泉石勝江東。余讀而愛之。旣而問之。則今已爲他人物矣。余不覺感歎。以爲孫家前後。何其初善擇地而卒皆不克保也。今之一區。亦猶昔之江東。余未見其勝也。因步其韻以和。噫。九原可作。藥泉相公。殆必笑而然之。許刻于下也。

奔流覇業兩豪雄　今古孫家占得隆
此日未須論勝負　一區堪歎似江東

— 윤기,『무명자집』권1

孫家莊

孫氏子孫好作隣　至今猶說善心人
十餘世久風流在　五百年深水石新
門外田園摩詰樂　村中巾服少游身

	我家亦有淸潭勝 投紱何時杖履頻 — 박윤묵,『존재집』권2 孫家庄 東林莫過此山佳 家後園庭種樹皆 杏子初黃桃子大 幾多收入牧童懷 山下溪流綠似油 何妨潑剌懶含鉤 開襟正好朝西坐 二麥蕭凉四月秋 — 김진수,『연파시초』권하 孫家莊寓中。寄王掌令原初 性淳，林解元有瑞 圭永。當在金煥國下。 王郎持被入金閶 幾舞霓裳玉帝傍 聞已歸來猶未見 秋溪一夜雨浪浪 朗吟風雨一溪水 去後空山秋色悲 楚楚可憐林有瑞 天能貧汝不貧詩 — 김택영,『소호당집』보유 권1
원천자료	한국고전번역원 편,『한국문집총간』.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22	대한제국기 동소문 밖 유람 - 1	작성자	백외준
제목	총리대신 이완용의 경국사 피서	키워드	경국사, 이완용, 통감, 소네아라스케, 피서

이야기

성 안 사대부의 유람처 또는 별서지로서의 정릉동의 공간적 성격은 우리나라 근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성 밖으로 나들이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향유계층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산 유람길에 한 숨 쉬어 가는 장소였던 흥천사는 집회나 연회의 장소로 대여되었고, 경국사는 고관대작들이 기생, 창부들을 대동하고 와서 한 판 잔치를 벌이는 장소로 쓰였다. 그 옛날 사대부들이 삼삼오오 와서 산수에 파묻혀 술과 시를 주고받던 그윽한 정취를 갑오년 이후 생산된 문헌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다. 조선 말기 한국 사찰의 이러한 모습은 비단 근교의 사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불교철학자 이기영(李箕永, 1922~1996)은 그 시절 불교계의 전반적인 퇴락상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 승려들은 왕조의 귀신(貴紳)이 사찰을 방문하면 멀리 나가 그들의 가마를 메야 했고, 산에서 나는 산채와 그 좋은 장과 두부로 성찬을 차려 대접해야 했으며, 심지어는 빨래돌, 다듬이돌을 제공해야 했고, 산사는 그들의 유흥장으로 제공되어야만 했다. 지난날 갸륵한 호국존왕(護國尊王)의 의리에서 스스로 궐기했던 의병의 전통은 지금 한낱 인습화하여 승려의 굴욕적인 의무로 전락했었다.

흔히 '청암사'로 불렀던 경국사는 정릉동 안쪽에 자리한 유서 깊은 고찰로서,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산의 맑은 바람과 정릉계곡의 물소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장소였다. 더구나 도성과는 앞 쪽의 북악산 등성이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 도성과 반나절 거리에 있는 흥천사에 비해 사람들의 발길도 뜸한 편이었다. 그 때문에 경국사에는 장안의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와서 며칠이고 머물면서 유흥이나 피서를 즐기곤 하였다.

대한제국기 신문 기사들 가운데 경국사와 관련하여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909년 8월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1858~1926)이 피서차 약 일주일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렀다는 기사이다. 당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彌荒助, 1849~1910)가 이완용을 박대하자 이완용은 잠시 정릉동 경국사로 물러나 대신 몇 명을 불러서 자신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비밀협의를 했다. 그 후 8월 16일 일주일 간의 피서를 마치고 입성한 이완용은 그 즉시로 통감부를 찾아갔다. 경국사에서 구상한 복안을 가지고 소네 통감과 모종의 협상을 시도함으로써 소네 통감 부임 이후 불안해진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완용은 다시 통감부 문전에서 보기 좋게 박대당하고 하릴없이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전한다. 일국의 총리라는 자가 보여준 한심한 작태였다. 1909년 8월 19일자 황성신문은 이완용의 이러한 처신을 '영영설설(營營屑屑)'이라는 제하에 전했는데

	이는 쉬파리처럼 윙윙거리며 구질구질하게 군다는 뜻이다. 영영설설(營營屑屑). 청암사에 체재하던 총리대신 이완용씨가 그저께 입성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다시 들은즉 입성하던 날에 즉시 통감부에 갔으나 소네(曾禰) 통감이 접견치 아니함으로 무료히 물러났다더라. <황성신문 1909.8.19> 이완용 말고도 경국사에 들른 대한제국기 고위 관료로는 학부대신을 지낸 이지용(李址鎔, 1870~1928), 궁내부대신 민병석(閔丙奭, 1858~1940), 시종원경 윤덕영(尹德榮, 1873~1940)이 있었고 황족 중에는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堈, 1877~1955), 영선군(永宣君) 이준용(李埈鎔, 1870~1917)이 가끔 경국사에 묵으면서 기악(妓樂)을 즐겼다고 한다.  <이완용>
원천자료	李箕永, 「佛敎思想」, 『韓國現代文化史大系2』,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1975, 715쪽. 『황성신문』 1909.8.10, 1909.8.18, 1909.8.19 『대한매일신보』 1909.8.13, 1909.8.18, 1909.8.21.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23	대한제국기 동소문 밖 유람 - 2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서울기생조합소의 경국사 탁족회	키워드	경국사, 서울기생조합소, 기부 한덕호, 인력거꾼, 폭행사건, 경시청

이야기

피서지에서는 간혹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1909년 7월 29일 서울 기생조합소(妓生組合所)는 경국사에서 탁족회(濯足會)를 열었다. 피서를 겸한 조합의 친목 행사였다. 정릉천 골짜기에는 기생들을 태운 인력거들이 폭주했고, 탁족하는 기생들을 보려는 구경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몰려들었다. 폭행 사건은 기부(妓夫) 한덕호와 인력거꾼 사이에서 벌어졌는데, 이 사건은 경국사 온 경내를 뒤흔든 큰 소동이 되었다. 황성신문이 전하는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 탁족회파흥(濯足會破興). 기생조합소에서 그저께 동문 밖 청암사로 나가서 탁족회를 설(設)함은 전보(前報)에 이미 썼거니와 당일에 일장풍파(一場風波)가 일어났다는데 그 내용인 즉 기생 연옥(燕玉)을 태운 인력거꾼이 말실수가 있어서 기부(妓夫) 한덕호(韓德鎬)가 인력거꾼을 난타하여 중상을 입히므로 함께 온 경시청 형사순사 등이 이 사건을 듣고 한씨를 포착(捕捉)하려다가 한씨가 도망해 숨어버려 잡지 못하고 이 조합소장을 포착한 즉 이 소장의 기생 유록(柳綠)이가 발악욕설(發惡辱說)하다가 이 절에 피서차로 머물러 있는 모(某) 존전(尊前)에 급한 상황을 알려 순사 등을 불러 엄책하니 순사 등이 황송하여 물러났는데 당일 탁족회는 남원신사도(南原新使道)의 생신연(生辰宴)이 되었다더라. <황성신문 1909.7.31>

기부 한덕호의 인력거꾼에 대한 폭행으로 시작된 이 날 사건은 경시청 순사들의 추적이 시작되면서 큰 소동으로 번졌고 결국 경국사에 머물고 있던 '모 존전'의 등장으로 상황이 일단 종료되었다. 도성 사람들의 연회장으로 쓰이면서 산사의 고적한 운치를 잃어버린 당시 경국사의 기이한 현실을 보여주는 삽화이다.



<정릉천에 버려진 우산. 그러나 물은 아직 깨끗하다. (2013)>

원천자료	『황성신문』 1909.7.31.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24	대한제국기 동소문 밖 유람 - 3	작성자	백외준
제목	경국사의 가을밤, 서북학회의 시회(詩會)	키워드	경국사, 서북학회, 박은식, 최린, 이은우, 한상우, 시회, 청암사기

이야기

소란한 여름이 지나고 온 계곡에 낙엽이 수북이 깔리는 가을이 되면 인적 뜸해진 경국사는 선방 본연의 고적한 분위기를 되찾곤 하였다. 그러면 도성 안 인사들은 다시 경국사를 찾아 격조 있는 시회(詩會)를 열기도 하였다. 1909년 10월 어느 날 경국사에서 열린 모임에는 박은식(朴殷植, 1859~1925), 최린(崔麟, 1878~1958), 이은우(李恩雨), 한상우(韓相愚) 등 서북학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기록을 남겼다. 『서북학회월보(西北學會月報)』 1909년 11월호에 실린 기문(記文)과 박은식 등이 지은 한시 5편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 '쌍성일민(雙城逸民)'이라는 필명의 인사가 쓴 「청암사기(靑巖寺記)」는 이들이 경국사를 유람한 경위와 이튿날 경내를 둘러 본 소회를 적은 글이다. 다음은 그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삼각산의 한 지맥이 높이 치솟아 웅장한데 곧바로 동남쪽으로 치달리면 처음에는 굽이쳐서 둘러 감싸다가 마지막엔 평온하게 배치된다. 이 지맥의 끝부분이 좌로 갈라져서 굽이굽이 맑은 계곡을 이루고 우로 열지어서 점점이 푸른 산록을 만들어내는데 그 가운데에 청암사가 있다. 절의 결구는 매우 왜소하여 그 유적하고 청한함이 도선(道禪)과 일인(逸人)이 거하는 곳이라고 할 만하다. 나는 오랜 세월 속된 생각에 젖어 빨리 돌아와 이 절을 한 번 보지 못함을 아쉬워하다가 금년 가을 장안을 객으로 노니다가 마침 전염병이 유행하여 잠깐 성 밖으로 나가 머물러 숙박하기로 계획했다. 다만 가면서 웃고 떠들 동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쉬워한 날이 며칠 되었다.

하루는 편지를 받았는데 벗 최린(崔麟)이 나와 함께 유람하러 가자는 뜻으로 보낸 것이어서 마침내 벌떡 일어나 크게 한숨을 쉬면서 "질병은 진실로 환난 중에서도 가장 삼가야할 것이다. 더구나 이는 불같이 전염됨이 성화와 같으니 비록 가족이나 부자의 친밀함이라도 서로 피하여 보지 않은 것이 예사이다. 지금 최군은 쓸쓸한 객의 신세로 덩굴과 바위 가운데서 방황하여 일신의 안위는 스스로 보전할 겨를이 없이 동동거릴 뿐이지만 끝내 나를 생각하고 멀리하여 버리지 않았구나! 내 비록 완고하기가 돌 같지만 어찌 그 정을 느껴 알지 못하겠는가!"고 말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겸곡노사(謙谷老師) 박은식 씨에게 가서 상황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함께 행장을 꾸렸다. 성 동쪽으로 10리 되는 곳에 이르러서 비로소 푸른 산골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푸른 소나무가 무성하게 열지어선 것을 보고 계속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천천히 그 가운데로 들어갔다. 산의 중허리쯤 되는 곳에 당도하니 한 방에서 문을 열고 맞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바로 최(崔)군를 비롯해 이은우, 한상우 군이 막 술상을 차리고 자리를 쓸어낸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밤을 타서 즐겁게 마시다가 스님 몇 분을 초대하여 함께 시 한 수 씩 지을 것을 의논하였다. 스님들은 모두 문장을 하지 못한다고 사양했으나 그 중에 박(朴)처사라는 분이 계셔서 시 짓기에 능한 고로 함께 상영지정(觴詠之情)을 풀어내었다.

다음날 이 절의 역사를 알아보고자 여러 승도(僧徒)들에게 물었으나 모두 모호한 이야기만 하고 가버리니 맨 처음 창립 사적(事蹟)에 관해서는 애초에 입조차 열 수 없었다. 오호라! 승도 제군들이여! 무릇 작은 사물 하나하나는 모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사찰은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의 땅으로 자처하거늘 제군 역시 석가여래의 문도이니 특히나 대자

대비의 마음으로 반드시 그 구세주의를 강구한다. 만약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세계의 흥망역사를 살핀 연후에야 참되게 구원할 수 있다. 지금 제군들은 자기가 어떠한 연혁과 역사를 가졌는지도 살피지 않았으니 그 깨달음의 헛됨이 어찌 심하지 않겠는가. 제군들이 불서의 뜻은 분명히 알고 있으나, 제군들의 배우지 않음은 미루어 알 수 있다. 백운유수 속에서 마음을 청정케 하는 것, 제군들이여 이것이 도를 실천하는 것인가? 도는 도이나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련다. 홍진이 자욱한 거리로부터 발을 끊는 것, 제군들이여 이것이 낙이라 할 수 있는가? 낙은 낙이나 내가 부러워하기에는 부족하다. 단 제군들에게 구구하게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진실로 석가의 도를 배우고 석가의 행실을 실천하려거든 외교 사절로 바다를 건너가 임진왜란으로 잡혀간 조선 포로들을 데리고 온 송운대사(松雲大師, 사명당 유정)의 씩씩한 기상을 배우고, 난리를 만나 분연히 의병을 일으켜 싸운 영규(靈圭, 임진왜란시 승병장) 어른의 큰 용기를 본받는 것이다. 그러면 제군들의 가치는 비단 불문(佛門)에서 빛날 뿐 아니라 국가만세에 할 말이 있을 것이며 장차 극락세계에 가서 최후의 영광을 차지할 것이니 제군들은 모두 이를 유념할진저.

이미 붓을 들었으니 부득불 간략하게 들은 것이나마 기록해 두어야겠다. 이 절에서 북쪽으로 5리 쯤 올라가면 옛날 백파선사(百波禪師)가 강도(講道)한 암자가 있었는데 암자가 닫힌 뒤 이 절을 지었으나 언제인지는 모르겠다고 한다. 지난 철종 때 경국사라는 절 이름을 내려주었다고 하며 그 후 대원군 왕전하께서 여러 번 이곳에 오셔서 불전에 참배했다고 할 뿐이다. 이에 기문을 짓는다. (三角山一枝脈 嶒峻磅礴 直馳東南 始焉屈曲圍繞 終焉平穩排置 左分爲曲曲淸溪 右列爲點點翠麓 其中有靑巖寺 寺之結搆 甚矮小 而其幽寂淸閒 可謂道禪逸人之居也 余以長年塵想恨不早來而一觀矣 今年秋 客遊長安 適値 厲氣流行 乍計城外止泊 但恨未有定屆趑趄囁嚅者有日矣 一日奉尺牘 卽友崔君麟請余同遊之意也 遂蹶起喟然曰 疾病固是患難中最愼者而矧此熾染流行如星如火 雖家人父子之親互避不見是例事也 今崔君蕭蕭客驂彷徨于藤蔓石硿之中 一身安危勢難暇保憧憧爾 思終不我遐棄 余雖頑石寧不知感 卽就謙谷老師朴殷植氏具道其實 共謀行李 出至城東十里 始見 碧澗逶迤 蒼松森列 乃從斜蹊曲徑徐入其中 翠微一室開戶迎之者卽崔君及李君恩雨韓君相愚方置酒掃榻而待之也 遂乘夜歡飮 召致僧侶數人 共議賦詩一絶 僧侶皆以不文辭之 其中有曰朴處士能解作詩 共敍觴詠之情而己 翌日 欲探本寺歷史 問諸僧徒 悉皆糢糊說去 而當初創立事蹟初不能開喙 嗚乎 僧徒諸君 凡一小物一小事皆有歷史況寺刹卽自處於天上天下惟我獨尊之地而諸君亦皆釋氏如來之門徒則特以大慈大悲之心 必先講究其救世主義也 如欲救世必先審其世界之興亡歷史然後亦可以實地救世也 今諸君不審自家之如何沿革歷史則其空空之覺無乃己甚乎嗚乎諸君傳鉢之書意必有在而諸君之不講推可知矣白雲流水心共淸淨諸君此可爲道耶道則道矣余不足稱也 紅塵紫陌 跡與殊絶 諸君此可爲樂耶 樂則樂矣 余不足羨也 但區區所望於諸君者 眞講釋氏之道 實踐釋氏之行 超海使節 學松雲大師之壯氣 臨難憤義 效靈圭上人之大勇 則諸君價値非但有光於佛門 抑亦有辭於國家萬世 而最後榮光 其將超上於極樂世界也 諸君盍念之哉 余旣執筆不得不以略聞記之 此寺之北距五里許 古有百波上人之講道菴 菴廢以後建設此寺 而未知何時云也 粵在哲廟時賜號慶國寺云 而其後大院王殿下屢臨此地拜佛云云爾遂爲之記) <서북학회월보 제17호 1909년 11월 1일 21~22쪽>

자신이 속한 절의 역사에조차 몽매한 경국사 스님들을 준열히 꾸짖는 대목에서는 대한제국기 애국계몽운동 특유의 '진보적' 사고방식이 이 조그만 산사에 와서도 가차 없이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박은식이 이날 경국사 선방에서 읊은 시도 당시 구국과 계몽의 열정으로 가득 찬 당시 서북학회 회원들의 심정을 잘 대변한다.

	가을밤 청암사에 모여 읊다. 秋夜會吟靑巖寺 절은 고요하고 적막한데 만 그루 소나무 푸르고 一菴靜寂萬松靑 바람은 성긴 격자창에 가득 차고 달빛이 온 뜰을 채우네 風滿疏櫺月滿庭 옥 같은 이슬 단풍나무 숲에 내려 쌀쌀한데 玉露楓林何瑟瑟 백련보탑은 스스로 우뚝하네 白蓮寶塔自亭亭 고통의 바다 끝없음을 이제 알아 方知苦海無窮盡 홀로 현묘한 이치에 의지해 묘한 깨달음을 얻었네 獨賴玄機有玅醒 곧바로 불전을 향하여 공양하고 발원하는 말, 直向佛前供發願 지금 어찌해야 생령을 구제하리이까? 于今何以濟生靈 법당에 모신 불상을 향한 절박한 질문으로 끝을 맺는 이 시에서는 망국의 위기에 직면했으면서도 민중에게 어떠한 대안이나 전망도 제시할 수 없었던 지사(志士)의 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박은식과 서북학회월보> 시에 보이는 경국사의 푸른 솔숲과 '옥 같은 이슬이 내린' 단풍나무 숲은 아직도 울창해서, 바람 부는 날이면 도시의 소음과 격절된 숲은 솨솨 소리를 낸다. 박은식과 서북학회 회원들이 활동했던 1909년으로부터 100여 년이 흐른 지금, 다시 우리가 가을밤 경국사 뜰에 선다면 불상을 향하여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경국사 (2013)>
원천자료	『서북학회월보』 제17호 (1909. 11. 1), 21~22쪽, 28쪽.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25	대한제국기 동소문 밖 운동회 - 1	작성자	백외준
제목	홍천사에서 열린 운동회	키워드	홍천사, 황성기독교청년회, 운동회, 이상재, 윤치호, 보성전문학교, 관립일어학교, 관립영어학교, 관립법어학교, 성균관, 사범학교, 대중, 조선총독부 학령 제716호

이야기

대한제국기 홍천사에 관한 신문기사들 중 단연 눈에 돋보이는 것은 도성 내 각종 단체와 신식학교들의 운동회 소식이다. 특히 황성기독교청년회(皇城基督敎靑年會, YMCA)는 1905년부터 1908년까지 매년 5월에 홍천사에서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 당시의 운동회를 단순한 체육행사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다. 운동회 날이면 운동경기를 겸해 시국연설, 다과회, 애국가 부르기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렸다. 1905년 5월 22일에 열린 기독청년회 운동회의 식순을 보면 운동경기 시간이 단 두 시간 밖에 되지 않는 것은 꽤 흥미로운 점이다. 대신에 대중연설이 답사를 포함해 세 번이나 있었던 사실은 당시 운동회의 계몽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 날 연설회는 이튿날까지도 이어졌다. 1908년 5월 4일에 열린 운동회에는 황성기독교청년회 부회장 윤치호(尹致昊, 1864~1945), 교육부장 이상재(李商在, 1850~1927)가 참가하여 젊은이들에게 강연했다.

▲ 개회식 (오전 10시)
- 개회선언 : J. S. Gale(奇一, 회장)
- 찬 미 가 : 연동중학교 생도
- 연 설 : 김정식(金貞植, 부총무)
- 답 사 : 최병헌(崔炳憲, 정동교회 담임목사)
- 내빈연설 : H. B. Hulbert(訖法, 감리교 선교사)

▲ 다과회 (오후 1시)

▲ 유희운동 (오후 3시)

▲ 폐막식 (오후 5시)
- 애국가 제창
- 시상식

<홍천사에서 열린 황성기독교청년회 운동회 식순(1905.5.22)>

그 밖에 도성 안 신식학교에서도 봄 운동회 장소로 홍천사 앞 운동장을 택했다. 보성전문학교가 1906년 4월 5일, 관립일어학교와 관립영어학교가 1906년 4월 28일, 관립법어학교가 1907년 5월 3일, 성균관에서 1909년 5월 18일에 운동회를 개최하였고, 사범학교는 1909년 6월 19일 녹음회(綠陰會)를 홍천사에서 가졌다.

대한제국기(1897~1910)는 우리 민족이 일본, 러시아 등 제국주의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의 존망을 걱정해야 했던 위기의 시대였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위기는 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모아야 한다는 자강운동, 실력양성운동이

시작된 배경이 되었다.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고 자주독립을 위한 실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많은 종교,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었고 신학문을 가르치는 신식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구식 과거공부 대신에 신식학교에 몰려들어 신학문을 배웠고, 그렇게 새로이 정의된 집합 속에서 반상(班常)의 구별은 의미를 잃어갔다. 신앙,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고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신문지상이나 집회장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 백성(百姓) 또는 신민(臣民)의 시대가 저물고 이른바 대중(大衆)이 그 싹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중은 고립되고 정지해서는 존립이 어려운 법이어서 그들은 곧 새로운 이슈를 찾고 새로운 구성원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여러 형태의 집회와 연설회는 몸집을 불려가는 대중의 존재 방식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때에 당시 서울 근교의 사찰들은 이러한 대중에게 충분한 물리적 공간과 편의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흥천사는 막 탄생한 대중에게 그들의 생생한 실체를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는 열린 장소였던 셈이다.

그러나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을 기점으로 대한제국기 활발하게 열렸던 대중 집회는 그 빈도가 급감했다. 대다수 애국계몽단체들이 해산되고 그나마 남아 있는 단체들도 조직이 축소되거나 노선이 변질되었다. 대한제국기 신학문을 가르쳤던 신식학교도 폐교 절차를 밟거나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흡수되고 말았다. 이와 동시에 조선총독부는 1912년 5월 31일에 학령 제716호를 내려 서울 시내는 물론 전국의 각 학교와 단체의 연합운동회를 폐지했다. 한국인들의 비밀결사를 막기 위한 강압적인 조처였다. 이 때문에 봄, 가을 흥천사 앞마당을 가득 채웠던 조선 청년들의 땀냄새와 선각자들의 열변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고작 흥천사는 서울 사람들의 나들이나 연회 장소로 이용될 뿐이었다.



<황성기독교청년회 1904년 기념사진. 인사동 임시회관 앞>

	 <흥천사 앞 운동장 (1989). 2010년 돈암 코아루 더 클래식 아파트가 들어섰다.>
원천자료	『황성신문』 1905.5.22, 1906.5.30, 1907.5.18, 1908.5.2. 『황성신문』 1906.4.6, 1906.4.30, 1907.5.2, 1909.5.20, 1909.6.20.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26	대한제국기 동소문 밖 운동회 - 2	작성자	백외준
제목	봉국사에서 열린 운동회	키워드	봉국사, 운동회, 법어학교, 덕어학교, 종목, 이재극
이야기	1906년 5월, 봉국사 뜰에서는 한성법어학교 주최 봄운동회가 열렸다. 이 소식을 전한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는 운동회 종목까지 자세히 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금요일에 법어학교(法語學校)에서 춘기 운동회를 동소문 밖 봉국사에서 설행하였는데 멀리뛰기(廣跳), 높이뛰기(高跳), 경주(競走), 줄다리기(引繩), 축구(踢球)를 종일 운동하고 교사 마태을(馬太乙) 씨가 여러 가지 문구를 후하게 상준 뒤에 모든 학도들이이 만세를 삼창하였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06년 5월 6일> 1907년 6월에는 한성덕어학교 학도들이 봉국사에 와서 운동회를 열었다. 한성덕어학교(漢城德語學校)에서 춘기 운동회를 동소문외 봉국사에서 개설하였는데 마침 그 때에 궁내부대신 이재극(李載克) 씨가 꽃놀이 하러 나왔다가 운동회를 관광하고 5원을 기부하였더니, 이처럼 궁내의 지위로 돈 5원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같이 씀씀이가 크게 돈을 쓰면 패가할 걸.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6일> 덕어학교 운동회에 들러 덜컥 5원을 내놓은 궁내부대신 이재극에 대하여 다소 삐딱한 논평을 하는데 반해, 같은 내용을 전하는 황성신문의 기사는 이재극에 대해 한결 우호적이다. 재작일 덕어학교(德語學校)에서 동문 밖 봉국사에 운동회를 열고 각과 운동을 할제 궁내부대신 이재극(李載克) 씨가 마침 여기를 지나다가 학원(學員)에게 일장 권면을 하고 일금 5환을 운동비로 연부하였다더라. <황성신문 1907년 6월 5일>		
원천자료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6. 5. 6, 1907. 6. 6. 『황성신문』 1907. 6. 5.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27	대한제국기 동소문 밖 운동회 - 3	작성자	백외준
제목	개운사에서 열린 운동회	키워드	개운사,

이야기

안암동 개운사 — 당시는 대개 영도사(永道寺)로 불렀다 — 도 흥천사만큼이나 인기 있는 운동회 장소였다. 흥천사보다 조금 멀었지만 오늘날 고려대 이공대 캠퍼스가 자리한 평탄한 지대여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훨씬 넓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자료는 대한제국 말기 개운사에서 열린 서울 각 학교들의 운동회 기사를 날짜순으로 모아본 것이다.

再昨日 普成學校 學徒等이 春期運動會를 東門外 永道寺에셔 設行ᄒᆞ얏ᄂᆞᆫᄃᆡ 適其時中署 摠巡 崔悳 氏가 緣何出往이든지 對其學徒ᄒᆞ야 爭詰을 惹起라가 崔摠巡이 ᄎᆞᆨ倒衆人之食卓ᄒᆞ니 諸學徒가 一層忿激ᄒᆞ야 亂杖毆打에 至ᄒᆞ다가 被逐入來ᄒᆞ얏ᄂᆞᆫᄃᆡ 該學校에셔 警廳에 請願ᄒᆞ야 此等警官의 悖行은 禁止케ᄒᆞ리라ᄒᆞᆫ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06년 5월 1일>

農校運動. 再昨日 官立農商工學校에셔 東門外 永導寺에 春季運動會를 設行ᄒᆞ얏ᄂᆞᆫᄃᆡ 援旗競走와 高跳와 廣跳 等 運動에 優等者 十餘名에 對ᄒᆞ야 書册 筆墨 等으로 施賞ᄒᆞ고 其他 諸般遊戱로 十分消暢ᄒᆞ다가 下午六時量에 罷歸ᄒᆞ얏다더라. <황성신문 1906년 5월 4일>

國民校運動. 日昨 國民師範學校에셔 春期大運動을 東大門外 永道寺에 設行ᄒᆞ얏ᄂᆞᆫᄃᆡ 旗取競走와 高跳、廣跳、角戱、唱歌의 諸般活潑ᄒᆞᆫ 運動으로 晩春山澗에 暢和ᄒᆞᆫ 新空氣를 娛吸ᄒᆞ고 夕陽에 罷歸ᄒᆞ얏다더라. <황성신문 1906년 5월 8일>

漢校運動. 漢語學校에셔 來十日 木曜에 東門外 永道寺로 運動을 設行ᄒᆞᆫ다ᄂᆞᆫᄃᆡ 賞品이 有ᄒᆞ다더라. <황성신문 1906년 5월 8일>

再昨日 校洞 日新義塾 學徒 六十餘名이 永道寺에 出去하야 運動會를 設行하얏ᄂᆞᆫᄃᆡ 濟濟蹌蹌ᄒᆞᆫ 各項技藝ᄂᆞᆫ 尤極壯觀홈이 觀光하ᄂᆞᆫ 者가 如雲ᄒᆞᆫ지라 宮ᄂᆡ大臣 李載克氏ᄂᆞᆫ 當場에셔 新貨十元學 務局長張 世基氏ᄂᆞᆫ 二元을 補助하야 賞與品에 准備添入하얏ᄂᆞᆫᄃᆡ 塾長 李鍾一氏가 隨等 施賞하고 同午後七時半에 運動歌를 齊唱入塾하야 萬歲三唱하고 各歸其家하얏더라. <대한매일신보 1906년 5월 22일>

普광學校에셔 本日에 春期運動을 東小門외 永道寺에 擧行ᄒᆞᆫ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21일>

本月十四日에 官立漢語學校學徒가 春期運動을 東門外永度寺에 出往擧行ᄒᆞᆫ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12일>

華校運動. 三昨日에 華東學校에셔 春期運動會를 東門外永道寺에 設行ᄒᆞ얏ᄂᆞᆫᄃᆡ 該運動課程에 最優等生은 二百步競走에 金今돌 兩人三脚에 李順用計筭競走에 李完奎旗取에 金貴石提燈에 安貴用諸氏인ᄃᆡ 各其 優數ᄒᆞᆫ 賞品을 施與ᄒᆞ얏다더라. <황성신문 1907년 6월 7일>

典동私立中東학校의셔 來日曜日의 東門外永道寺로 前往ᄒᆞ야 秋期運動을 擧行ᄒᆞᆫ다더라. <대

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14일>

洞私立中東夜학校의셔 日曜日의 東門外永道寺의 前往허여 秋期運動을 擧行허엿ᄂᆞᆫᄃᆡ 其運動 졀차ᄂᆞᆫ 如左ᄒᆞ니 午前九時로붓터 大中小人을 分隊허여 각科을 幾回左行ᄒᆞ난대 第一次의 旗取競走第二次의 高跳第三次의 廣跳을 畢ᄒᆞᆫ 後午◈을 食ᄒᆞ고 午後一時의다시시작ᄒᆞ여 一次의 全隊體操第二次의 救護隊競爭第三次의 送旗競走第四次의 助力第五次의 ᄀᆞᆨ隊伍을 整列ᄒᆞ고 呼萬歲三唱ᄒᆞᆫ 후각科目一二三等人의게 紙筆墨으로 시상ᄒᆞ고 閉會현후校監학監及一般任員講師諸氏가 順序로 一場권면헌후校監崔興模氏가 手帖과 鉛筆로 一般學員에게 一一히 分給하엿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19일>

靑年學校에셔 本日東大門外永道寺에 前往ᄒᆞ야 秋期運動을 擧行ᄒᆞᆫ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20일>

運動延期. 靑年學校에셔 昨日永道寺에 前往ᄒᆞ야 秋期大運動을 擧行ᄒᆞᆫ다더니 該寺에셔 設齋에 相値가되야 本日로 延期擧行ᄒᆞᆫ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21일>

兩校運動. 南大門內廣信商業學校에셔 廣興學校와 聯合ᄒᆞ야 來日曜日에 永導寺에셔 春期大運動을 設行ᄒᆞᆫ다더라. <황성신문 1908년 4월 10일>

商校運動. 南門內廣信商業學校에셔 光興學校를 請邀ᄒᆞ야 東門外永道寺에셔 聯合運動式을 擧行ᄒᆞ얏ᄂᆞᆫᄃᆡ 計筭競走、高跳廣跳、送旗競走等多般技術로 競爭ᄒᆞ야 多數ᄒᆞᆫ 優等에게 多數ᄒᆞᆫ 賞品을 施及ᄒᆞ얏다더라. <황성신문 1908년 4월 19일>

광성학교운동. 일전에 남문안 양골 광성학교에서 영도사에 가서 춘기운동을 하였는데 산술 경주와 기취경주와 고조 광조에 입격한 자를 공책 연필 양목 철필 등속으로 시상하고 교사 일인은 공책 십삼권과 연필 삼속이오 손님 최문현씨는 지화 이원을 상품으로 주었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23일>

그것도 임자 있나. 일전에 돈명의숙에서 동문 밖 영도사에 나가서 운동기지를 정하려 한즉 대동회에서 금지하여 가로되 한 일삭하고 대동회에서 놀기 위하여 기지를 먼저 정하였으니 허급할 수 없다 하는 고로 그 학교에서 운동기지를 정하지 못하고 들어왔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26일>

鳳校運動. 私立鳳鳴學校에셔 再昨端陽日에 消暢ᄒᆞ기 爲ᄒᆞ야 一般任員이 學徒를 領率ᄒᆞ고 永道寺에 前往ᄒᆞ야 運動을 設行ᄒᆞ얏ᄂᆞᆫᄃᆡ 當日經費가 四五十圜假量인ᄃᆡ 前叅將金永振氏가 擔當ᄒᆞ고 校主李鳳來氏ᄂᆞᆫ 學徒每名에게 扇子一柄式給與ᄒᆞ얏다더라. <황성신문 1908년 6월 5일>

妄問可否. 再昨日鳳鳴學校에셔 永道寺에 出往運動ᄒᆞᆷ은 別項과 如ᄒᆞ거니와 右日에 杷成學校에셔도 學徒를 領率ᄒᆞ고 出來ᄒᆞ니 此ᄂᆞᆫ 偶合이라 學徒親睦ᄒᆞ기 爲ᄒᆞ야 兩學校가 聯合運動ᄒᆞᄌᆞ고 鳳鳴學校에 交涉ᄒᆞᆫ즉 校長金重煥氏가 叟期後日ᄒᆞ야 設行ᄒᆞᄌᆞᄒᆞ거ᄂᆞᆯ 般任員이 言ᄒᆞ기를 兩學校가 不期而會되얏슨즉 不必後期오 今日로 設行ᄒᆞ자ᄒᆞᆫᄃᆡ 金重煥氏가 發論ᄒᆞ기를 蔽一言ᄒᆞ고 學員에게 可否取决ᄒᆞᄌᆞᄒᆞ야 聯合運動의 可否를 問ᄒᆞᆫ즉 一般學徒가 一齊可便으로 擧手ᄒᆞᄂᆞᆫ지라 金氏가 內心不悅ᄒᆞ야 曰學徒로셔 校長의 命令을 不服ᄒᆞᆫ다ᄒᆞ고 即時起身入城ᄒᆞᆷ이 學徒덜도 不得已ᄒᆞ야 即爲入城ᄒᆞᆫ지라 學徒中一員이 體操敎師에게 對ᄒᆞ야 質問ᄒᆞ되 校長이 旣是取决ᄒᆞ야 聯合運動ᄒᆞ기로 全數可决되얏ᄂᆞᆫᄃᆡ 何意思로 不爲運動ᄒᆞᄂᆞ뇨ᄒᆞᆫ즉 體操敎師가 默默無答ᄒᆞ얏다더라. <황성신문 1908년 6월 5일>

隆校運動演習. 隆熙學校에셔 該校長이 一般 學員을 領率ᄒᆞ고 再昨日曜日에 東門外永道寺에

	出往ᄒᆞ야 大運動演習會를 設行ᄒᆞ얏다더라. <황성신문 1909년 4월 27일> 동창교운동. 지난달 22일 사립동창학교에서 춘기운동을 영도사 근처에서 거행할 때에 모든 임원과 학도의 부형이 와서 참여하였다가 의연금을 많이 내고 내빈 중 장헌식 등 제씨가 차례로 권면한 후에 각각 의연금을 내어 운동비에 보용케 하였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1일> 觀鎭運動會. 北部觀鎭學校任員諸氏가 學徒를 領率ᄒᆞ고 本日에 東大門外永道寺에 前往ᄒᆞ야 運動會를 設行ᄒᆞᆫ다ᄂᆞᆫᄃᆡ 學會長 趙民熙氏가 午餐料로 十圜金을 捐助ᄒᆞ얏다더라. <황성신문 1909년 6월 27일> 日語同窓. 外國語學校日語部同窓會에셔 再昨日에 總會를 開ᄒᆞ고 事務를 處理ᄒᆞᆫ 後에 任員을 選定ᄒᆞ얏ᄂᆞᆫᄃᆡ 會長은 朴容九氏로 推選ᄒᆞ고 來二十六日에 東門外永導寺에셔 運動會를 設行ᄒᆞ기로 決定ᄒᆞ얏다더라. <황성신문 1909년 9월 14일>
원천자료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28	대한제국기 동소문 밖 운동회 - 4	작성자	백외준
제목	연설회와 애국운동가	키워드	연설, 황성기독교청년회, 흥천사, 김정식, 대한체육구락부, 애국운동가, 창가

이야기

운동회는 오늘날 전국체전처럼 단순한 시합이 아니었다. 그 학교에 관련된 많은 저명인사들이 참석했고, 이들에게는 대중연설의 기회가 주어졌다. 연설은 주로 세계정세와 각국의 실정에 대해 설명하거나 청년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그 밖에도 종종 개회식이나 폐회식에서 '운동회 노래'라는 것을 모든 참석자들이 따라 부르면서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였다.

운동, 연설, 노래가 합쳐진 이 시기 운동회의 활기를 아래에 인용한 기사에서 느낄 수 있다. 다음은 1905년 5월 23일 흥천사에서 열린 황성기독교청년회 운동회에서 본회 부총무 김정식(金貞植)이 연설한 내용이다. 요지는 간단했다. 최근 중국 천진기독교청년회의 발전은 중국의 고위 관료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으로, 우리 대한의 고관들도 중국 고관들처럼 황성기독교청년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금전적 지원을 부탁한다는 것이다. 연설문은 황성신문에 4일에 걸쳐 연재되었다.

靑會演說. 昨日 靑年會에셔 新興寺에 開會ᄒᆞ고 該會副總務 金貞植氏의 演說이 如左ᄒᆞ니

"天津靑年會景況을 察槪ᄒᆞ온 즉 靑年本會堂은 在於法國租界巴利路第四十六號ᄒᆞ온 즉 創設於一千八百九十五年ᄒᆞ옵고 會員聚集의 便易ᄒᆞᆷ과 屋宇의 擴張ᄒᆞᆷ을 爲ᄒᆞ아 再昨年에 東門內經司胡同路西에 志學會堂을 分設ᄒᆞ고 租界會堂과 志學會堂相距中間城之東南에 體操場을 別設ᄒᆞ엿ᄂᆞᆫᄃᆡ 租界會堂은 二層洋制甎壁屋이니 內設辦公所 會客所 閱報所 演說廳 玩賞室又有各課講習所ᄒᆞ고 志學會堂은 淸國舊制니 房舍가 一百二十間이라 講堂이 數處오 司事廳과 會客所와 演說廳과 藏書閱報處와 董理辦公處와 總董辦公處及住宅과 學生留宿處와 博物儀器陳列處와 遊藝處와 廚房及鑄字機械所等이 無所不備ᄒᆞ고 至於 書籍及報章과 外他 物品之地球儀와 日月蝕儀와 四季儀와 天文地理之器와 飛禽走獸之雛形 等可以博覽益智者를 槪爲陳列ᄒᆞ고 會員則常時聚集者가 二百餘人이오 其外無常出入者ᄂᆞᆫ 不在此數라. 月捐金은 每人每月에 洋銀 一元이니 若先捐則 每年十元이오 就其中學生은 每季 一元이니 若先捐則 每年 三元이오 學生의束修金이 另有ᄒᆞ니 正課學生 每年 三十六元이오 第以英文學論之ᄒᆞ면 會友之夜學者ᄂᆞᆫ 每年洋銀 十六元이오 非會友則 每年 三十二元이오 至於 漢文學及各等學者ᄂᆞᆫ 會友則 無束修ᄒᆞ고非會友則 每年 十元이오 外他도 各有差等定章이니 昨年一歲 幷義捐統收入이 共 一萬五千一百九元零 敎育方法은 晝夜를 分課ᄒᆞ야 英語와 日語와 法語와 筭術과 輿地와 格致와 經史와機器打字와 氯機와 商務와 工藝와 又論策과 繪圖等이니 詳悉於普通學堂課程及夜館啓課程이니 每日 出席學生이 二百六十餘人이오 今國敎師가 九人이오 外國敎師가 四人이오, 演說則每週에 內外國間 高明紳士를 延請ᄒᆞ야 木曜日은 志學堂에셔 學問上으로 演說ᄒᆞ고 日曜日은兩會堂에셔 各其 道德上으로 演說ᄒᆞ고 火木金三曜日은 察經會를 設ᄒᆞ니 總務 副總務及各敎習與任員은 木曜日이오 諸學生은 金曜日이오 凡會員與外人은 火曜日이오 春秋兩等에 有二次大演說會ᄒᆞ니 春則學問上演說이오 秋則道德上演說이니 會集者 每以三四千計云이오 會堂에有鑄字機械ᄒᆞ야 每週에 印出會報ᄒᆞ니 卽星期報是也오 新聞雜誌를 閱覽往來者가 昨年一歲에共計 一萬零八百三十七名이니 學生은 不在此數라. 體操則 禮拜日外 每日下午四時에 租界와城內 兩學堂이 勿論會員 學生ᄒᆞ고 合聚于體操場ᄒᆞ야 專敎兵式體操及柔軟體操ᄒᆞ니 此敎師은曾在威海英人所練華兵內ᄒᆞ야 爲隊官之族人桂祥者니 極爲嫻熟人也라. 大抵 該會主旨ᄂᆞᆫ 本會와 相同ᄒᆞ야 德育 智育 體育 三者에 不出ᄒᆞ야 其制度와 章程과 規則의 許多枝節은 猝難畢陳

ᄒᆞ깃슨 즉 次第로 逐日 談論ᄒᆞ려니와 該會諸兄弟의 欣欵ᄒᆞᆫ 情誼와 慇懃ᄒᆞᆫ 誠意ᄂᆞᆫ 辭色에 發表ᄒᆞᆯ 뿐야니라. 衷曲에 湧出ᄒᆞ야 居接ᄒᆞᄂᆞᆫᄃᆡ 穩便케 ᄒᆞᆷ과 飮啖에 歡洽ᄒᆞᆷ을 相愛相憐ᄒᆞᆷ은 肉身上同己兄弟가 幾多年阻餘相逢ᄒᆞᆷ과 無異ᄒᆞ니 만일 我天父의 仁愛ᄒᆞ신 本意를 仰體치 아니ᄒᆞ고 我救主의 愛人如己ᄒᆞ시ᄂᆞᆫ 新誡를 遵奉치 아니ᄒᆞ오면 豈容有是也리오 且以會況의 前進을 論ᄒᆞᆯ진ᄃᆡ 該會諸兄弟의 誠信이 如此ᄒᆞᆯ 뿐 아니라 現任 直隸總督 北洋大臣 袁世凱氏와 現任 山東署理巡撫 楊士襄氏와 外他 有志ᄒᆞᆫ 高等官人들이 國家에 此會가 不可無ᄒᆞᆯ 形便을 深察ᄒᆞ야 熱心贊成ᄒᆞ며 隨事幇助ᄒᆞ고 隨時勸奬ᄒᆞ야 義捐金은 非徒一度라 每年 捐欵이 洽過五千餘元ᄒᆞ니 我韓與淸國이 國雖分區ᄒᆞ나 會則 相聯이라 堪謝袁楊諸氏之義擧ᄒᆞ고 幷賀淸國中所在四十三處靑年會와 統計五大洲靑年會 六千六百二十五處會務之蒸蒸日進ᄒᆞ나이다. <황성신문 1905년 5월 24, 25, 26, 27일>

1906년 6월에는 대한체육구락부(大韓體育俱樂部) 회원 40여 명이 동문 밖 개운사에 나가 운동회를 열었다. 여느 운동회와 마찬가지로 한바탕 일장연설이 있었다. 구락부의 총무를 맡은 신봉휴(申鳳休)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 40여 인이 사천년 이래 미증유하던 일대사업을 창기하여 이 대한체육구락부를 조직하였은즉 지금부터 몇 천년 이후라도 우리의 영광된 이름은 작지 않을 것이라"고 호기롭게 열변했다. 그 후 회원들은 '애국운동가(愛國運動歌)'라는 노래를 부른 다음 만세삼창을 하고 귀가하였는데 기사 말미에 노래 가사가 실려 우리의 관심을 끈다. 노래는 당시 유행한 4·4조의 창가(唱歌) 형식이다.

아세아주 예의방은 우리대한 분명ᄒᆞ다
청년들아 동포들아 이천만중 동포들아
부패기상 다버리고 활발용기 닉여보셰
대한체육 구악부ᄂᆞᆫ 유지동포 창립ᄒᆞ여
청년교의 돈목ᄒᆞ고 체육운동 목적이라
우리신체 강건ᄒᆞ니 문명전진 용감ᄒᆞ다
일심단체 굿게되니 억만오획 씨칠소냐
산악ᄀᆞᆺ튼 불변심은 제국독립 기초로다
수신제가 근본되고 충군애국 강령이라
일등훈장 영화롭고 류방백세 불후로다
우리황상 성은으로 여민동락 금일이라
일난풍화 죠흔씨에 우리운동 질겁도다
태극국기 놉피드니 동서양에 빗ᄂᆞ도다
천세천세 천천세요 만세만세 만만세라
<대한매일신보 1906년 6월 13일>

원천자료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29	대한제국기 동소문 밖 운동회 - 5	작성자	백외준
제목	개운사에서 열린 '원수'의 추도회	키워드	개운사, 추도회, 연설, 정재홍, 이토히로부미, 베셀, 안창호, 양기탁, 유길준, 이완용

이야기

동문 밖 절에서는 운동회만 열린 것이 아니었다. 1898년 9월 9일, 흥천사에서는 고종황제의 생일인 만수성절을 맞이하여 수천명의 인민들이 모여 기도를 올렸다.

성절기도. 대황제 폐하의 만수성절을 위하여 동소문 밖 신흥사에서 이달 구일에 기도를 올렸는데 각처 인민 수천명이 구름같이 모였다더라. <독립신문 1898년 9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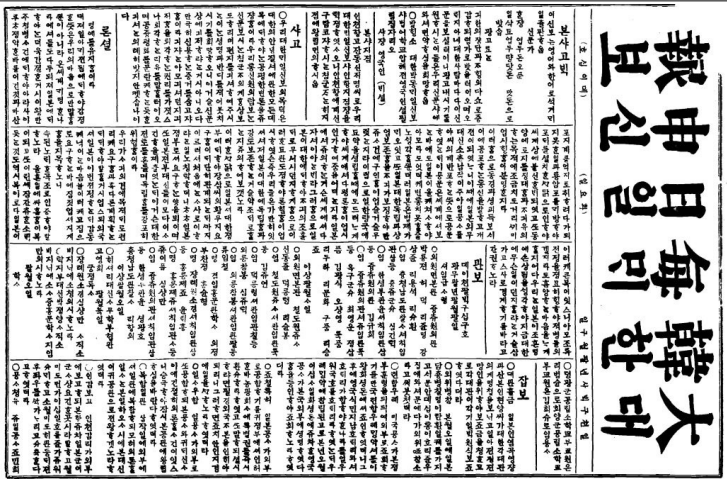
흥천사 뿐 아니라 안암동 개운사도 때때로 유명 인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추도회 장소로 쓰였다. 1907년 7월 14일 개운사에서는 정재홍(鄭在洪, ?~1907)을 위한 추도회가 열렸다. 정재홍은 같은 해 5월 을사늑약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가 국내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암살 계획을 세웠으나, 계획이 누설되자 원수의 손에 죽을 수 없다며 결국 자결을 택한 지사이다. 대한자강회 주최로 열린 추도회에는 많은 인파가 참석해 지사의 의로운 죽음을 애도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개운산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鄭志士 追悼會. 再昨日 下午 一時에 大韓自强會와 一般 社會紳士 諸氏가 永道寺에 會集ᄒᆞ야 故 志士 鄭在洪 氏 追悼會를 設行ᄒᆞᄂᆞᆫᄃᆡ 開會 趣旨ᄂᆞᆫ 尹孝定 氏, 鄭氏 歷史ᄂᆞᆫ 張志淵氏, 演說은 鄭雲復 氏인ᄃᆡ 次第 出席ᄒᆞ야 慷慨激切ᄒᆞᆫ 言論은 令人感淚오 山川樹雲이 爲之悽悵失色ᄒᆞᄂᆞᆫ 듯ᄒᆞ더라더라. <황성신문 1907년 7월 16일>

1909년 5월 5일 개운사에서는 대한매일신보사 전 사장 베셀(Ernest Thomas Bethell, 1872~1909)의 추도회가 열렸다. 1904년 7월 18일, 대표적 항일언론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베셀은 일본의 끈질긴 탄압에 시달리다 결국 1909년 5월 1일 서울에서 병사했다. 개운사에서 거행된 추도사에서는 안창호, 양기탁, 임병항 등이 추도연설을 했다.

隆熙 3年(1909년) 5月 5日(水) 姜琄熙.林炳恒 등 10餘名의 發起로 大韓每日申報 前社長「베셀」의 追悼會가 東大門 外 永道寺에서 擧行되다. 이 자리에서 安昌浩.梁起鐸.林炳恒 등이 追悼演說을 하다. <고종시대사 6집>

裵氏追悼會. 大韓每日申報社 前社長 裵說氏의 追悼會를 昨報와 如히 昨五日 下午 三時 三十分에 東大門外 永道寺에셔 設行ᄒᆞ얏ᄂᆞᆫᄃᆡ 各社會及團體 代表者와 各新聞記者 諸氏와 其他 學生 諸氏 數千名이 來參ᄒᆞ야 該氏의 夫人 及 令男과 相見禮를 行ᄒᆞᆫ 後 禮式을 行ᄒᆞᆫ 順序가 如左ᄒᆞ더라 該氏를 爲ᄒᆞ야 祈禱ᄒᆞᆫ 後에 讚美ᄒᆞ얏고 其次에 開會趣旨를 說明ᄒᆞ고 其次에 該氏行狀을 說明ᄒᆞ고 其次에 追悼詞을 朗讀ᄒᆞ고 其次에 答辭ᄒᆞ얏ᄂᆞᆫᄃᆡ 同六時頃에 閉會散歸ᄒᆞ얏더라. <황성신문 1909년 5월 6일>


大韓每日申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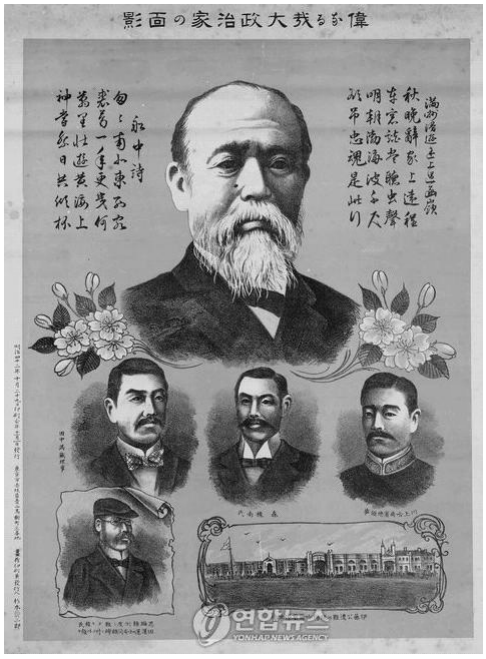
<대한매일신보>



<베셀>

정재홍이 죽이려던 이토 히로부미는 결국 2년 후인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이 쏜 총을 맞고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독립지사들이 대거 일제에 의해 체포되었고, 반면에 친일파 관리들과 일진회를 비롯한 친일단체의 회원들은 이토를 추모하기 위해 직접 일본에 다녀오거나 그렇지 못하면 국내에서 추도회를 열었다.

1909년 12월 12일 오전 11시 개운사에서도 추도회가 열렸는데 첫 번째는 한자통일회(漢子統一會)라는 단체가 주최한 것으로, 유길준(한성부민회장)이 이토의 약력을 설명했고 학부대신을 지낸 이재곤이 개회 취지를 설명했으며 지석영(국문연구소 위원)이 추도문을 낭독했다. 마지막으로 이완용이 '위로의 말'을 진술하는 것으로 추도회는 끝이 났다. 그리고 같은 달 27일 오후 4시 해가 넘어갈세라 이번에는 각도의 지방위원들이 대거 상경해 개운사에서 이토를 위한 추도회를 거행했다. 2년 전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다 그만 자결에 이른 정재홍 지사의 추도회가 열린 곳에서 이번에는 그가 죽이려던 원수의 추도회가 열린 것이다. 실로 냉혹한 역사의 장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追悼情況. 旣報와 如히 漢字統一會에셔 再昨日 上午 拾一時에 東大門外 永導寺에셔 故 伊藤公의 追悼會를 設行ᄒᆞ얏ᄂᆞᆫᄃᆡ 漢城府民會長 兪吉濬氏ᄂᆞᆫ 伊藤公의 歷史를 說明ᄒᆞ고 李載崑氏ᄂᆞᆫ 開會趣旨를 說明ᄒᆞ고 池錫永氏ᄂᆞᆫ 追悼文을 朗讀ᄒᆞ고 李完用氏ᄂᆞᆫ 慰辭를 陳述ᄒᆞ얏다더라 <황성신문 1909년 12월 14일> 追悼擧行. 地方委員 桂膺奎, 趙達元, 金容奎, 甘翊龍, 黃宗周, 張在翰, 洪河奎 諸氏가 各道 代表로 伊藤太師 追悼會를 再昨日 下午 四時에 東大門外 永道寺에셔 擧行ᄒᆞ얏다더라. <황성신문 1909년 12월 29일>  <이토 히로부미 추모포스터. 안중근 의사의 의거 후 3일 만에 제작된 것이다.>
원천자료	『독립신문』, 『황성신문』, 『고종시대사 6집』.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30	일제강점기 동소문 밖 유흥공간 - 1	작성자	백외준
제목	지긋지긋한 경성을 떠나고 싶다	키워드	홍천사, 염상섭, 소설 「표본실의 청개구리」
이야기	일제강점기 서울의 인구증가 덕에 예전보다 붐비게 된 홍천사는 서울 사람들이 일 년에 꼭 한 번은 가고 싶어 하는 명소 중 하나였다. 무슨 진귀한 볼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식민지 수도 경성의 갑갑함과 지긋함을 근교의 숲과 계곡에서 풀어보려는 심사에서였다. 염상섭(廉想涉, 1897~1963)이 1921년 『개벽』에 발표한 단편소설 「표본실의 청개구리」중 한 구절은 1920년대 서울 사람들이 홍천사를 어떤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지긋지긋한 듯이 방 안을 휘익 둘러본 뒤에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디든지 여행을 하려는 생각은 벌써 수삭 전부터 계획이 있었지만 여름에 한 번 놀러 가 본 신흥사도 간다는 말 뿐이요, 이때껏 실현은 못 되었다. 소설에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나'는 불규칙한 생활과 권태로 신경과민에다 불면증까지 겹쳐 죽음의 유혹마저 느끼고 있는 터였다. 이 때 한 번 집 밖으로 나가 볼까 하는 곳이 동소문 밖 홍천사인데 혼자서는 발길을 떼지 못하고 있다가 친구 'H'의 권유에 따라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여행을 간다. 짧지만 당시 서울 사람들의 동소문 밖 홍천사라는 장소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원천자료	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31	일제강점기 동소문 밖 유흥공간 - 2	작성자	백외준
제목	천재시인 이상과 홍천사의 풍경 소리	키워드	홍천사, 이상, 소설「종생기」, 데이트
이야기	대한제국기(1897~1910)가 대중의 발흥기였다고 한다면 일제강점기는 대중문화의 본격적인 성장기였다고 할 수 있다. '연애'는 도시의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핵심 키워드이자 유행이었다. 연애소설이 불티나게 팔렸고 신문, 잡지들은 연애소동, 이혼소동, 남녀의 정사(情死) 소식을 전하는데 열심이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부부나 연인끼리 나란히 걷는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물론 홍천사는 그네들에게 훌륭한 데이트 코스였다. 이상(李箱, 1910~1937)이 1937년 『조광』에 발표한 소설「종생기(終生記)」에는 이상과 그의 애인 정희(貞姬)의 홍천사 데이트 광경이 묘사되어 주목을 끈다. 그렇다고 내가 찔끔 정희 어깨 우에 얹었든 손을 뚝 떼인다든지 했다가는 큰 망발이다. 일을 잡치리라. 어디까지든지 내 뺨의 홍조만을 조심하면서 좋아, 좋아, 좋아, 그래만 주면 된다. 그러고 나서 피차 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어깨를 나란히 흥천사(興天寺) 경내로 들어갔다. 가서 길을 별안간 잃어버린 것처럼 자분참 산 우으로 올라가 버린다. 산 우에서 이번에는 정말 포즈를 할 일 없이 무너뜨렸다는 것처럼 정교하게 머뭇머뭇해 준다. 그러나 기실 말짱하다. 풍경(風磬) 소리가 똑 알맞다. 이런 경우에는 제법 번듯한 식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상과 그 애인 정희에게 홍천사는 좋은 데이트 코스이자 놀이터였던 모양이다. 법당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의 딸랑거리는 소리는 멜로 영화 같은 두 남녀의 데이트 장면에 꼭 맞는 효과음이다. 이렇듯 '데이트'라는 신풍속도의 근사한 배경이 된 홍천사에는 유흥을 즐기려는 도시의 남녀들이 자꾸자꾸 모여들었다.		
원천자료	이상, 「종생기(終生記)」.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32	일제강점기 동소문 밖 유흥공간 - 3	작성자	백외준
제목	두 친구의 결혼식	키워드	홍천사, 이상, 변동림, 정인택, 권순옥, 결혼식

이야기

동소문 밖 홍천사는 결혼식장으로도 인기가 높았다. 대표적인 경우로 이상(李箱)과 변동림(卞東琳, 1916~2004, 김환기와 재혼 후 '김향안'으로 개명)의 결혼식을 들 수 있다. 1936년 6월, 당시 27살이었던 이상은 21살 변동림과 짧은 연애 끝에 홍천사 법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앞서 소설 「종생기」의 이상과 그의 애인 정희의 데이트 장면은 실제로 이상과 변동림이 홍천사에 왔을 때 상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성 황금정(현 을지로)에 신방을 차리고 시작한 둘의 부부생활은 안타깝게도 4개월 후 이상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상의 친구였던 소설가 정인택(鄭人澤, 1909~?)도 홍천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정인택은 이상이 경영하던 까페 '쓰루(鶴)'의 여급 권순옥(權順玉)을 사랑한 나머지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1935년 8월 29일 홍천사에서 권순옥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 이날 결혼식에는 이상을 비롯한 구인회(九人會) 동인들이 참석해 이들의 결합을 축하해주었다. 이날 결혼식 사회는 이상이 맡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도 권순옥을 은밀히 마음에 두고 있었던지, 그의 소설 「환시기」에는 권순옥을 둘러싼 두 남자의 삼각관계가 흥미진진하게 그려져 있다.



<홍천사 뜰에서 찍은 정인택, 권순옥의 결혼 기념사진. 뒷줄에 검은 양복을 입고 웃고 있는 이상을 비롯해 1930년대 문인들의 얼굴이 보인다.>

[李箱과 1930년대 경성의 '모던 뽀이'들] [6] 변동림과의 짧은 결혼생활
— 장석주 (시인.문학평론가)

1930년대 '모던' 경성이 보여준 최고 패션은 '자유연애'였다. 자유연애의 대유행을 빼놓고는 이 시기 경성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이때 자유연애의 이념은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넘어서는 사랑, 죽음마저도 불사하는 진실한 사랑이었다.

1916년 경성에서 태어나고, 경성여고보를 거쳐 이화여전 영문과를 졸업한 지식인 신여성 변동림(卞東琳, 1916~2004, 김환기와 재혼 후 金鄕岸으로 개명) 역시 자유연애론자 중의 하나였다. 변동림은 이상이 단골이었던 커피 다방 낙랑파라에서 자주 마주쳐 알던 당대의 지식인 변동욱(卞東昱)의 동생이자, 이상의 절친한 친구 화가 구본웅의 서모(庶母)와는 이복지간이었다.

이상이 변동림을 '낙랑'에서 처음 만났을 때, 평소의 그답지 않게 얼굴이 벌게지면서 각설탕만 만지작거려 다방 아가씨들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이상은 좌중을 압도할 만큼 위트와 패러독스가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변동림을 만난 자리에서는 변변히 말도 제대로 못했다.

이상은 변동림 주변의 애인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럼에도 변동림이 "당당한 시민이 못 되는 선생님을 저는 따르기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자, 이상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나는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어떤 여자 앞에서 몸을 비비 꼬면서, 나는 당신 없이 못 사는 몸이오, 하고 얼러 보았더니 얼른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되어버린 데는 실없이 깜짝 놀랐습니다"라는 이상의 훗날 고백으로 미루어보건대 금홍과 헤어진 뒤 의식이 황폐해진 이상이 일종의 도피로써 변동림을 선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몇 번?" "한번" "정말?" "꼭" 이래도 안 되겠다고 간발을 놓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고문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윤 이외에?" "하나" "예이!" "정말 하나예요" "말 마라" "둘" "잘 헌다" "셋" "잘 헌다, 잘 헌다, 잘 헌다" "넷" "잘 헌다, 잘 헌다, 잘 헌다" "다섯" 속았다. 속아 넘어갔다.〉(소설 〈실화(失花)〉의 한 대목)

이상이 변동림의 남자관계를 캐는 장면이다. 이상은 〈단발〉〈실화〉〈동해(童骸)〉〈종생기(終生記)〉 등에서 변동림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상은 아내가 간음한 경우라면, 특히 자신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선 동거녀 금홍의 방종한 남자관계에는 그토록 관대했던 이상이 변동림의 정조(貞操) 관념에 엄격한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상은 "20세기를 생활하는데 19세기의 도덕성밖에는 없으니 나는 영원한 절름발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

어쨌든 그들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36년 6월 서둘러 신흥사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황금정(黃金町)의 허름한 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다.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셋방에서 이상은 종일 누워 지냈다. 햇빛을 보지 못한 이상의 얼굴은 더욱 하얘졌고, 폐결핵은 깊어졌다. 변동림은 이상의 약값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본인이 운영하는 바에 나갔다. 두 사람의 신혼살림은 이상이 10월에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파경(破鏡)을 맞았다. 불과 넉 달이 채 못 되는 짧은 결혼생활이었다. 변동림은 이상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몇 달 뒤 날아온 것은 이상이 동경제국 부속병원에 입원했는데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신여성 변동림은 1930년대에 돌출한 아방가르드 예술가 이상을 배우자로 선택함으로써 남과 다르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추구했지만 그 꿈은 실패했다. 그는 1944년 5월 화가 김환기(1913~1974)와 재혼하고, 프랑스 유학을 거쳐 1964년 이후 뉴욕에 정착해 뉴요커로서의 삶을 살았다. '변동림'에서 '김향안(金鄕岸)'으로 개명함으로써 낡은 봉건 도덕과 낙후된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는 구태의연한 것에서 벗어나 첨단의 삶을 향한 주체적 의지를 드러냈다. 김향안은 1974년 김환기가 죽은 뒤 그의 그림과 유품들을 정리해서 1992년에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환기미술관을 설립했고, 2004년 2월 29일 뉴욕에서 세상을 떴다. <조선닷컴 2010. 2. 9>

	 <김향안(변동림)>
원천자료	이상, 「종생기(終生記)」. 장석주, [李箱과 1930년대 경성의 '모던 뽀이'들] [6] 변동림과의 짧은 결혼생활, 조선닷컴, 2010. 2. 9.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33	일제강점기 동소문 밖 유흥공간 - 4	작성자	백외준
제목	다동기생조합의 홍천사 운동회	키워드	홍천사, 다동기생조합, 운동회, 그네, 인력거

이야기

두견(杜鵑)과 쟁연(爭娟)
-다동조합운동회-
경성 안 풍류랑을 신흥사로 끌었다

왔도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철이 돌아 왔도다. 여러 달 동안 사람을 몹시 괴롭게 하던 혹독한 추위도 뒤로 벌써 멀리 물러가고 양춘삼월 좋은 절기가 돌아왔다. 어느 곳에는 신이화가 만발하였다. 어느 곳에는 앵두화가 눈을 뜨고 뾰족이 내다본다. 두견(진달래), 철쭉도 이제 수일만 지나면 제 세상이 될 터이라. 이때에 다동조합에서는 여러 기생들을 데리고 산명수려한 곳을 택해 운동회라고 하는지 소풍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더라. 처음에는 지나간 열흘날로 택일한 것이 비로 인하여 십이일로 돌리고 장소는 화계사로 정하였던 것이 길이 너무 험하고 먼 것을 꺼려 동소문 밖 신흥사로 지정하였다.

이날 아침에는 바람은 좀 심하였으나 여러 미인들은 이왕 작정한대로 당일 오전 9시부터 일제히 백여채의 인력거를 몰아 동소문을 가로질러 나아간다. 종로네거리 너른 길에 왕래하는 사람들은 공연히 이 구경에 우선 눈이 멀개지며 갈 길을 얼마나 밑지었다. 겨울 이후로 극히 적막하던 신흥사는 백화가 난발하여 돌연히 번화한 일종 화류장을 이루었다.

기생의 운동회라 하면 물론 경주나 고도(높이뛰기), 광도(멀리뛰기) 등은 없을 것이요, 다만 하루 동안 먹고 놀고 노래나 부르고 춤이나 추자는 것이라. 신흥사 큰방 부처님 계신 탁자 앞에는 가사와 석장은 다 어디로 가고 황송하지만 홍군취삼 유두분면의 미인들로 가득히 채웠다. 얼른 보건대 그 불당 안에는 꽃밭이 되었는지 또는 울긋불긋한 비단천을 내었는지 눈이 황홀하다. 아무튼지 그 법당 부처님께서도 이것으로 적막한 회포를 조금 위로하실 듯하다.

기생은 모두 백여명인데 그 중에 550리 밖(서울에서 220km 떨어진 평양) 아씨가 칠십명은 된다. 마당에는 인력거꾼들이 훈련도감 무예청 같이 움덕움덕 한다. 구경꾼 마음에는 바로 평양에 가서 노는 듯하다. 이곳에서 '오마니', 저곳에서 '돗퇴'하며 저희끼리 즐겨 노는 모양은 귀엽기도 하고 가증스럽기도 하다.

너무 방안에만 있어서 무슨 운동의 뜻이 있느냐고 어떤 일없는 사람의 주창으로 겨우 산우송림 속에 그네를 매고 오월단오 아니지만은 임시로 여러 미인에게 한 번 뛰기를 권하였다. 나중에는 다 각기 내가 먼저 뛰겠다고 경쟁이 일어난다. 이것도 장관이라 이후로 늦도록 질탕한 풍류와 가무가 있을 터이며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방속 유희도 있을 것이라. 정오 때부터 동소문으로 몰려나오는 자동차, 인력거에는 다 각각 알뜰이 차려입은 화랑들이 뒤를 이었고 그중에는 뉘 집 새서방님인지 오히려 부끄러운 줄을 아는지 검은 안경에 나가오리를 잔뜩 숙여 쓰고 이마에서는 땀이 나는 모양이지만은 목도리로 코 위까지 싸고 인력거 위에서 거드럭거리는 자도 있더라. 어쨌든지 기생의 대운동회라 하는 것은 그 이름부터 처음 듣는 것인즉 또한 새봄의 새제목이리로다.



□ 빅화란멀솔밧헤두여잇다 신문사여셔

<매일신보 보도 사진>



杜鵑과爭妍
(다동조합문동회)

◇님, 안풍류랑을 신흥소로쇼렷다◇

◇빅여치의인력거 클모려

◇제세상이될터이 려어

◇춤이나추자는 것이라선홍

◇모다빅여멍인듸

◇찬우숑림속에 그네를비이

◇뉘집식서방님 인지오히려

<매일신보 기사>

원천자료	『매일신보』 1917. 4. 13.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34	일제강점기 동소문 밖 유흥공간 - 5	작성자	백외준
제목	동대문경찰서 김주임 인터뷰 - 동문 밖 사찰 정화	키워드	풍기문란, 사찰정화, 경산취체, 전시체제기, 동대문경찰서
이야기	‘데이트’라는 신풍속도의 훌륭한 배경이 된 홍천사에는 유흥을 즐기려는 도시의 남녀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외의 향락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해가 갈수록 식민 지배의 폭압성은 더욱 심해졌다. 1931년 만주침략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뒤이어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든 일제는 조선 사회를 전시총동원체제로 재편하기에 이르렀다. 1938년 일제는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조선총독부로 하여금 조선 내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 운영토록 하였다. 막대한 전비를 충당하기 위한 강압적인 법률이었다. 이런 시국에 홍천사 등 근교의 사찰로 몰려가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남녀들이 식민 당국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다. 근교의 사찰들은 ‘정화(淨化)’의 대상이 되었다. <음일(淫逸)의 소굴화(巢窟化)하는 경산취체(京山取締)는 지난(至難)>이라는 제하의 1933년 3월 8일 매일신보 기사는 당시 동대문경찰서의 관할 구역내 ‘사찰정화’ 방침과 1930년대 근교 사찰들의 실상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신성한 사찰에서 주식(酒食)을 판매한다는 것은 교화 풍기상 자못 좋지 못한 일이라 하여 일반의 그 물의가 높아왔으나 근교에 있는 청량사, 흥천사 등을 비롯하여 수십 개의 사찰은 본래 사원의 기본재산이 없음으로 사찰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음식점 영업을 하여 그 수입의 할인액으로 사찰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매상고 중 손님 한 사람에 대하여 5전 내지 7전씩을 떼어 사찰 유지비로 충당함으로 총독부 종교과(宗敎課)나 또는 그것을 취체(取締)하고 있는 경찰당국에서도 묵과하게 되었다. 연중에도 봄과 가을철 같은 때는 가장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 개중에는 탕자탕부(蕩子蕩婦)들의 밀회처로 화하게 되는 곳까지 있으므로 금년부터는 그 관할에 가장 사찰이 많은 동대문(東大門署)에서는 풍기에 대한 취체를 더욱 엄중히 할 터이라는 바 작년 1년 중에 동대문서 관내에 있는 12개소에서 유흥을 한 사람은 2만5천9백26인으로 그 매상고는 2만5천3백43원80전이라고 한다. 그 중 가장 유흥객이 많은 곳은 흥천사의 1만1천1백인으로 그 매상고 1만2천4백원이라고 하며 가장 적은 곳은 도선사의 50인으로 50원이라고 한다. 작년 중 각 사찰의 수입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명(寺名)	유흥인원수(명)	음식물매상고	사원수득액	음식영업자수(명)	승려 총수(명)
청련(靑蓮)	2,858	1,714원 80전	285원 80전	11	22
개운(開運)	5,200	5,200원	143원	21	65
보문(普聞)	800	500원	30원	5	23
미타(彌陀)	150	120원	10원	2	15
흥천(興天)	11,100	12,400원	2,200원	9	40
청룡(靑龍)	580	550원	100원	1	3
화계(華溪)	1,200	1,200원	60원	4	16
도선(道詵)	50	50원	4원	1	10
경국(慶國)	1,500	1,500원	100원	1	8
봉국(奉國)	450	500원	15원	1	13
청량(淸凉)	1,838	1,430원	373원	6	28
연화(蓮花)	200	115원	21원	1	13
계	25,926	25,342원 80전	4,619원 80전	63	256

사찰 풍기 문제에 대하여 동대문서 김(金) 보안주임(保安主任)은 말하되 "따스한 봄빛이 짙어오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교외출입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도 물론 늘게 될 것이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풍기 문제입니다. 근교사찰은 사찰유지비의 관계로 부득이 음식점을 허가한 것이나 때로는 그 절간에서 불량 남녀들이 추행을 감행하는 일까지 있게 되어 풍기를 문란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찰에 여인숙 영업을 허가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금침을 빌려 그곳에서 자게까지 하는 곳도 있다는 풍설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 점에 있어 더욱 철저히 취체를 할 방침입니다. 발견되는 때에는 그 영업자뿐만 아니라 주지에게까지 책임을 지워 엄중히 처벌을 할 예정입다.." 운운.

위 동대문경찰서 관할 구역 내 12개 사찰 가운데 광희문(光熙門) 밖 왕십리에 있었던 청련사(구 안정사)가 2010년 6월 경기도 양주시 장흥으로 불우를 이전했을 뿐 나머지 11개 사찰들은 아직도 옛 자리를 지키며 도량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중 흥천사가 당시 전체 유흥인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숫자인 1만여 명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그 시절 흥천사의 유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정릉동에 있는 봉국사와 경국사도 인기 있는 연회 장소였음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1910년대 절 앞마당에서의 운동회 개최를 금지한 일제가 대중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한다면 1930년대 일제는 절을 찾는 남녀들에게 풍기문란이라는 혐의를 씌어 단속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까지 규율하는 권력으로 진화했다. 1941년 7월 14일 매일신보 〈주주만취(晝酒滿醉)의 도당(徒黨)〉 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식민당국의 단속 방침 공표가 흰소리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전시하에 자숙을 부르짖고 더운 여름을 이겨가며 직역봉공의 총후훈련을 해야 하는 이 때 교외의 풍기가 문란해진다는 소문을 들은 동대문서에서는 어제 13일 일요일을 기하여 일제히 '숙청의 진군'을 하였다. 최근 동대문서 관내에 있는 각 절간에는 소위 더위를 피하여 나온다고 하는 신사숙녀가 매일같이 늘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오고 있든 터임으로 이 시국에 동떨어지는 풍기를 취체하고자 동대문서 보안계에서는 어제 13일 오후 우선 제일차로 신흥사 경내로 숙청의 경관대를 파견시켜 일제 검색을 한 결과 과연 소문과 같이 남녀가 어울린 불량배가 백주부터 술이 만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 60여 명을 일제히 동대문서로 인치하고 엄중설유를 한 후 일단 돌려보냈는데 이 중에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신사와 그 외에 기생까지도 들어 있었다고 하며 동대문서에서는 앞으로도 이 '숙청의 검색'을 계속하여 교외의 풍기를 취체하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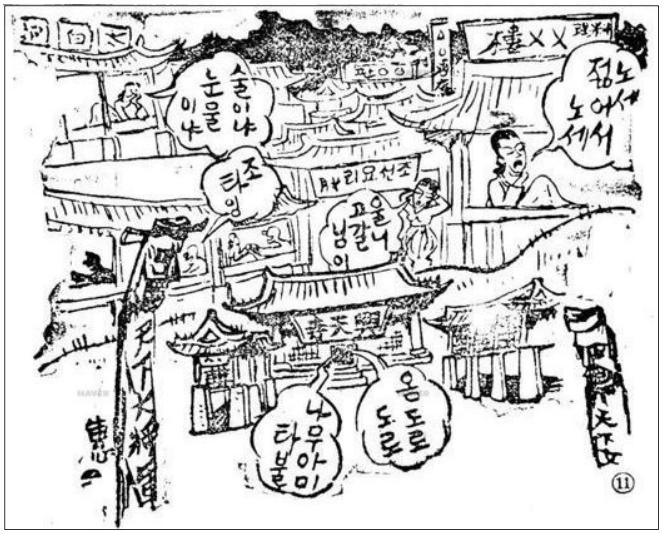
전시체제기 일제의 우리 민족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도를 더해가면서 동문 밖 절들을 향한 사람들의 행렬은 점차 잦아들 수밖에 없었다. 절의 문화재까지 공출 당했던 시대였던 만큼 웬만한 지위나 재력이 없고서야 교외의 절들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해마다 봄이 되면 상춘객과 취객으로 북적였던 정릉의 원찰들 즉 흥천사, 경국사, 봉국사의 경내도 한산해졌다. 전시체제기 일제의 폭압적인 인적·물적 수탈은 식민지의 개인에게 고작 한나절의 일탈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畫酒滿醉의徒黨

昨日, 新興寺境內서六十名檢擧

<매일신보 기사 (1941. 7. 14)>



< '철만난 사찰 주위의 요정'이라는 기사의 삽화 (경향신문 1947.4.17)>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서울 사람들에게 동소문 밖 정릉 일대는 유흥의 땅이었다.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도시의 때를 씻고 산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켜거나 질펀한 음주가무로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동소문 밖 사찰의 승려들도 이러한 도시인들의 욕구에 영합하여 자신들의 생계를 도모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이러한 사실들은 근대 한국 불교의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일 것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풍기문란한 사찰'이란 관념은 일제강점기 동대문경찰서 '김주임(金主任)'의 인식과 뭐가 다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시각을 넓혀서 이 시대 동소문 밖 사찰들의 역사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사회 변화의 산물로서의 '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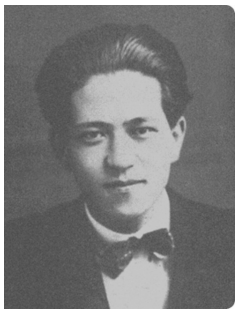
	에 주목한다면 동소문 밖 정릉 일대의 사찰들은 감옥 같았던 식민지 조선에서 대중의 정열과 노력, 휴식의 갈망 등을 차별 없이 받아주었던 열린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자 할 때 동소문 밖 정릉 일대의 사찰들은 저속한 유흥의 장소로만 머물지 않는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던 우리 근대사 속 이름 없는 중생, 즉 대중의 숨결이 서린 기억의 공간이다.
원천자료	『매일신보』 1923.5.5, 1931.4.28, 1933.3.8, 1935.6.13, 1937.1.14, 1941.7.14, 1941.7.15.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35	일제강점기 동소문 밖 유흥공간 - 6	작성자	백외준
제목	흥천사 어수통을 일본군에 헌납	키워드	흥천사, 공출, 어수통, 탄환
이야기	전시체제기 사찰 정화의 바람은 동문 밖 사찰에 다니는 불량남녀들을 단속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일제는 전쟁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조선 전체를 병참기지화했고 민간의 물자들을 강제로 공출했다. 1943년 4월, 전쟁이 한창일 무렵, 창씨개명한 흥천사 주지는 절에 약 백 여 년간 내려오는 어수통을 일본 해군에 헌납했다. 어수통이란 임금이 거둥할 때 임금이 마실 우물물을 떠서 보관해 두는 통으로 흥천사가 가까운 정릉의 원찰로써 기능할 때 만들어 보관해 오던 것이었다. 식민지의 조선인들이 모두 '총력전'이란 이름 아래 마구잡이로 끌려가던 시절, 시대의 매서운 바람은 흥천사도 비껴가지 않았던 것이다. 흥천사의 어수통(御水桶) - 격멸의 탄환으로 헌납 어수통도 헌납되었다. 부내 돈암정 흥천사에 있던 어수통은 이조시대 말엽에 이르기까지 약 백년 간 어수를 봉(封)하던 유서 깊은 수통인데 이것도 미영 격멸의 탄환으로 출정하기로 되어, 흥천사의 미쓰야마(光山明龍) 주지는 22일 오후 1시 철로 만든 25관이나 되는 수통을 수레에 싣고 해군 무관부를 찾아 헌납하였다. 무관부에서는 이 존귀한 헌납에 감격을 마지 않았다. (사진은 헌납한 어수통)  興天寺의御水桶 擊滅의彈丸으로獻納 <매일신보 기사 (1943. 4. 23)>
원천자료	『매일신보』 1943. 4. 23.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36	일제강점기 동소문 밖 유흥공간 - 7	작성자	백외준
제목	동소문 밖 임화(林和)의 여름 추억	키워드	임화, 정릉리 계록, 여름

이야기

정릉리의 계곡 - 임화(林和)


<임화>

듣건대 이즈음엔 정릉리의 아름다운 계곡이 신흥사로 몰려드는 한가한 남녀의 유흥지가 되었다하나 20년 전만해도 이곳은 아직 정결한 곳이었다.

여름이 될적마다 나의 어렴풋한 기억에 떠오르는 이곳의 소나무 우거지고 물과 돌이 맑은 골짝이란, 어머니의 품처럼이나 그리운 곳이다.

나는 철 알 때부터 열 두어살 때까지 매년 여름 삼복이면 어머님을 따라 정릉리 — 보통 "경능"이라 한다 — 로 놀이 겸, 목욕 하러 갔다. 어머님은 머리를 감아 풍을 제한다고 한다. 그곳 물이 약수라, 해마다 머리를 감고 멱을 감던 이는 한 해라도 빠지면 풍이 도진다고 동네 부인들이 이곳을 예찬한다.

아버지는 볼일이 있는 어른이라 해마다 못하고, 대개는 어머니를 주로, 일하는 부부와 시집간 누이와 조카들을 데리고 걸어서 간다.

쌀, 간장, 미역, 밀가루, 고추장 기타 참외 등속까지 지게나 구루마에 실려가지고 아침 일찍 떠나면 열시쯤 닿는다.

어렸을제 내가 그 중 먼 길을 걸은 것도 이곳 내왕이다. 그러나 태반은 업혀 다녔다.

자리 좋은 곳을 잡아 홑이불이나 방장 같은 것을 솔나무에 매어 둘러막고 목욕할 데를 만든다.

은골닥에 상당이 길고 여러 줄기건만 사람 천지다. 그러나 대개 순후한 서울 주민들이고 지금과 같은 놀량패는 어쩌다 섞이기는 해도 가뭄에 콩나듯 드물다.

목욕을 한 차례 하고 온 골짝을 돌아다니며 꽃나무도 캐고 매미도 잡다가 한낮에 밥 짓고 미역국 끓이고 수제비 뜨고 하여 굴비를 반찬해서 밥을 먹는다. 이때만은 어찌 밥맛이 있는지 투정할 여지가 없다.

어찌 나무가 울창하고 물이 좋은지 도무지 하루종일 더운 줄을 모른다.

해가 뉘엿뉘엿하여 돌아갈 때가 되면 짐을 지고 어머님은 손수건을 물에 축여 머리에 얹고 산을 내려와 동소문을 향하여 걷는다.

대개는 오는 길에 어머님은 신흥사에 들러 부처님 앞에 합장재배하고 나에게도 절을 시킨다. 동소문이 어찌된지 가까스로 먼빛으로나마 동소문 문루가 보이면 우리집 같았다.

이제는 그곳이 오입쟁이 놀이터가 되고 차츰 주택이 들어앉기 시작하며 여름철에 그 곳을 찾는 옛 부인들도 성게가나 그 전에는 옛 서울 시민이 한여름 동안 소창하던 곳이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1936. 6. 28.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37	일제강점기 동소문 밖 유흥공간 - 8	작성자	백외준
제목	홍천사의 자화상 - 홍천사 감로도(1940)	키워드	홍천사, 감로도, 일제강점기 사회상.

이야기



<감로도(甘露圖), 1940년, 綿 , 147×207.8, 1폭, 연화대>

일제강점기 홍천사는 임화가 '오입쟁이 놀이터'라고 부를 만큼 불교 사원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채 철저히 경성 사람들의 유흥 공간으로 쓰였다. 지금도 절 주변의 정릉동과 돈암동에 살았던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신흥사? 그건 절도 아니었지.'하면서 혀를 찬다. 그러나 최근 학계의 조명을 받고 있는 홍천사의 감로도를 보면, 그래도 홍천사가 그 엄혹하고 소란한 시절에도 끝까지 불교 도량으로서의 명맥만은 이어나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39년에 그려진 홍천사 감로도에는 다름 아닌 홍천사를 찾았던 대중들의 생활 모습과 당시의 사회상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법당 앞 마당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두 남녀가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도 보인다. 마치 홍천사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이 뜰에 오고 가는 인생들의 한순간을 포착하여 그대로 화폭에 옮긴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이 그림은 일제강점기 홍천사가 남긴 시대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장희정 씨 1939년 제작 흥천사 감로도 새 해석

전차, 자전거가 다니는 도심의 교차로, 가로변에 늘어선 전신주, 코끼리쇼가 진행되는 서커스장, 신식 법복을 갖춰 입은 법관들이 등장하는 재판.... 20세기 초 근대기 생활 모습을 담

	은 그림은 뜻밖에도 일반 풍속화가 아니라 '감로도(甘露圖)'라는 불화 중 일부다. 중생 교화를 목적으로 한 감로도는 현실의 희로애락을 다양하게 묘사하는 것이 특징. 그중에서도 1939년 제작된 서울 성북구 돈암동 흥천사의 감로도에는 일제강점기의 사회상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광복 직후 그림이 친일작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오해 때문에 그림 위에 흰색을 덧칠하거나 종이를 덧대는 등 수난을 겪었다. 제대로 된 연구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장희정 대청호미술관 학예사가 올 3월부터 정재문화재연구소와 합동으로 적외선 촬영을 이용해 그림을 상세 분석한 결과 새로운 의견이 제시됐다. 이 불화들은 일제의 잔혹한 식민통치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감로도는 일반적으로 전쟁 장면을 하나 정도 넣지만 흥천사 감로도에는 모두 5개나 된다. 내용도 폭격과 같은 전쟁의 참혹함과 잔혹상을 보여 주는 것들이다. 또 당시 조선인에게 원성이 높았던 일본식 재판이나 총독부 정경, 민간 경제 파탄의 주범이었던 전당포 모습 등 일제 강점 후 나타난 부정적 사회상들을 담고 있다. 그림을 그린 승려 남산병문이 일제강점기 당시 사회주의 계열 인사로 분류됐다는 점도 이 그림에 담긴 비판 의식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장 학예사는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투영했으며 시대 비판이라는 주제가 강도 높게 전달된 그림"이라며 "독특한 화면 구성 방식이나 19세기 말 서양화법의 수용 등 불교미술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성운 기자. <동아일보 2009년 7월 5일>
원천자료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서울특별시편 2』, 2013, 149쪽. 『동아일보』 2009. 7. 5.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38	정릉동의 주인들 - 1	작성자	백외준
제목	손가장 농민들 국왕 정조 앞에 나아가다 - 손가장 농민들과 강릉 김씨 가문 간 토지 분쟁의 전말	키워드	손가장, 손덕봉, 김상익, 김계명, 정조, 손의대, 토지, 격쟁, 정자, 별서

이야기

영조 재위 시 도승지와 강화유수를 지낸 김상익(金尙翼, 1699-1771)은 노년에 이르러 손가장의 빈 땅을 매입하여 정자를 지었다. 그리고 이 정자는 그의 손자 김계명(金啓溟, ?-?)에 이르기까지 이들 강릉 김씨 가문의 재산으로 대물림되었다. 이 시절 강릉 김씨 가문은 김상익을 포함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사람이 6인이나 되어 세간에서 복문(福門)이라 일컫는 명문가였다. 그러니 근교의 작은 농촌에서야 이 가문 사람들의 위세는 얼마나 당당했겠는가. 그러나 곧 문제가 생겼다. 이들이 손가장에서 땅을 얻어 지은 정자로 인해 손가장 사람들과 김계명 사이에 극심한 마찰이 생긴 것이다. 1789(정조13)년 음력 9월 19일 한성부에서 올린 계언에 당시 상황이 잘 나와 있다.

1789년 음력 9월 어느 날, 정조가 능행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갑자기 어가 앞에 웬 사람들이 나타나 징을 울리며 막아섰다. 이를 격쟁(擊錚)이라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이런 일이 간혹 있어서 관아에서 외면 받은 하층 평민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나마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하소연〔白活, 발괄이라고도 하였다〕했던 것이다. 그날 정조 앞에 징을 들고 나타난 사람들은 손가장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손가장 마을의 손덕봉(孫德奉)이란 자였다. 잠시 손덕봉의 말을 들어보자.

"이 전장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는 모두 손가(孫哥)들 사이에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들이어서 손가장이란 이름으로 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간에 고 봉조하 김상익이 정자 지을 터를 사길 원하여 저희와는 안면이 있는 터라 부득이하게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이 동네의 빈 땅은 경작을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어서 지금까지 조금도 횡침하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금에 와서 김상익의 양손 계명이 이 땅들을 자기 집이 입안한 토지라 하고는 새로 개간한 땅이나 예전부터 경작해온 땅을 막론하고 노비들을 풀어 위협하여 모든 토지에서 세를 거둬들여 지금 이후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를 몽땅 잃고 말았으니 실로 지극한 원한이 되었습니다."

손가장 일대는 논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은 아니었다. 사질 토양이라 물이 금방 빠져버려서 밭농사가 주가 되었다. 게다가 넓은 땅에 비해 상주 인구가 적었으므로 황무지로 내버려둔 땅도 많았다. 성 안의 고관대작들은 그 중 빈 땅을 사들여 정자를 짓고 정원을 꾸몄다. 말이 정자이지 실제로는 개인 별장이었다. 어찌되었건 처음에는 평화로웠다. 정자는 원래 용도대로 휴양을 위해 쓰였고, 그 옆 손가장 농민들은 빈 땅을 개간해서 밭으로 일구어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땅의 질서는 오래 가지 못했다. 김상익의 손자 계명이 정자 주위의 개간된 땅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김계명은 자신들의 노비를 풀어 '자기'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손가장 사람들로부터 소작료를 걷

기 시작했다. 김계명은 정자 주변의 농토를 개인 소유의 장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손가장 사람들은 억울했다. 그들은 손가장의 개간지나 황무지나 다 손씨들의 소유로만 알아서 능력껏 자유롭게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가계를 꾸려나갔던 것인데 하루아침에 성 안 고관대작의 자손이 들이닥쳐 개간한 땅은 이미 자신이 신고했다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니 어찌 할 것인가. 손가장 사람들은 막무가내의 권력 앞에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 왕은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 줄 유일한 권력자였다.

김계명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다음은 김계명이 한성부에 아뢴 내용이다.

"저의 조부 고 봉조하 신(臣) 상익(尙翼)은 터를 사서 정자를 세운 뒤 주인이 있는 땅이면 값을 지불하고 매득하였으며 주인이 없는 공한지는 성출입안(成出立案)하여 매년 나무를 심었더니 울창한 숲을 이루어 저희 집의 장원(莊園)이 되었으니 누가 이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조부가 살아계실 때에는 다만 신점두호(新占斗護)의 뜻으로써 노속과 동리 사람들을 막론하고 그 생애에 맡기어 토지세를 묻지 않았습니다. 근년에 와서는 인심이 옛날 같지 않아 손가들이 정자를 관리하는 노속과 더불어 몰래 협잡하여 정자의 앞뒤 땅을 점차 개간하기에 이르러 서로 매매하기를 전혀 거리낌 없이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그치지 않으므로 저희가 매득한 땅과 입안한 땅이 장차 간사한 백성의 손에 다 잃고 만 것이 매우 분통해 부득불 관부에 보고하고 세를 거두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김상익은 정자를 지은 뒤로 정자 주위의 주인 없는 빈 땅을 자기 이름으로 양안에 등록하여 자신의 소유지임을 문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손가장 농민들은 정자 앞뒤의 땅을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여느 황무지를 개간하듯이 개간했다. 처음에 김상익은 손가장 사람들이 농사를 짓든 말든 상관치 않았다. 그러나 그의 손자 김계명은 농민들에게 토지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했다. 예전처럼 빈 땅을 찾아 자유롭게 농사를 짓던 손가장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 쪽에서는 문서에 근거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한 쪽에서는 관습에 근거한 경작권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한성부와 국왕 정조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었을까? 다음은 그 판결 내용이다.

"김가(김계명 가)의 토지 매득 문서는 성출하여 입안한 것이니 다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저 손가장 마을은 본래 손가가 여러 세대 동안 살고 나는 땅이어서 개간하여 땅을 부쳐먹은 지가 이미 오래인데다 서로 땅을 사고팔고 하여 누차 그 주인이 갈리었습니다. 비록 김가가 정자를 짓고 입안한 후에도 일찍이 한 번도 손가장 사람들에게 수세한 일이 없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오직 한 장의 입안에 근거해 전에 없는 도세를 징수하여 거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마을 백성들은 비단 올해 가을에 실업하였을 뿐 아니라 토지마저 장차 영구히 세를 무는 땅이 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이 원망을 칭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입안 중인 토지는 민인들에게 돌려주어 전과 같이 지어먹도록 할 것이며 금년에 징수한 도세 역시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김가가 값을 치르고 매득한 땅은 이미 주인이 정해진 땅이므로 손가들이 이 땅도 섞어서 칭원(稱寃)하는 일은 매우 부당하니 구별하여 김가에게 주는 것이 사리에 합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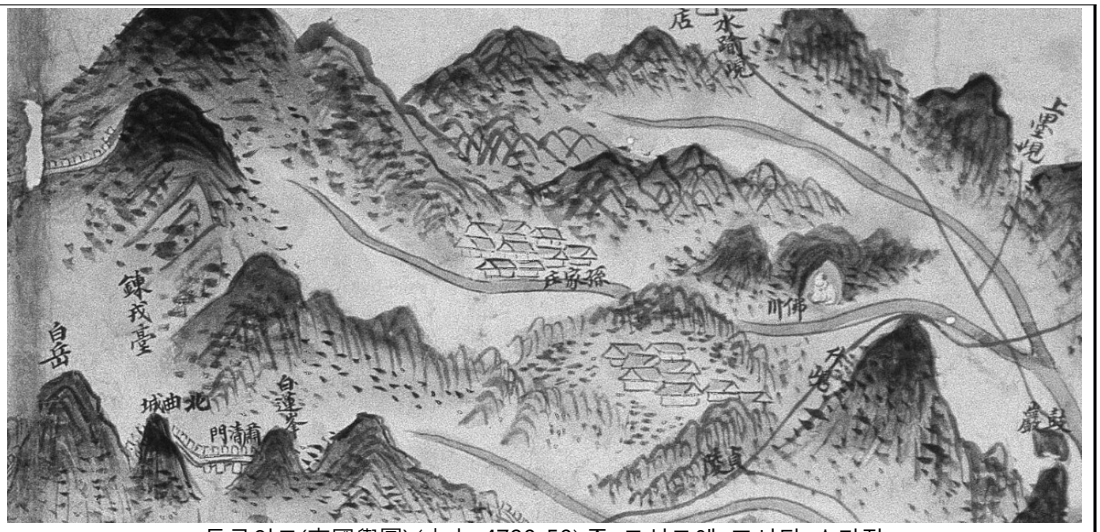
그러나 김계명이 자기가 매득한 땅 외에 돌연 백성의 땅을 침탈한 죄는 논하지 않을 수 없고, 손덕봉 등이 외람되게 작은 일로써 감히 이 때 전하의 행차를 막고 소리치며 발악하여 천청(天聽)을 놀라게 했으니 민습이 무엄하여 매우 비통하고 놀랍습니다. 김계명과 장두 손덕봉은 모두 유사로 하여금 법에 따라 엄히 처벌토록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해라."고 했다.

문서상 소유권보다 동성 마을의 관습을 존중하는 판결이었다. 비록 장두 손덕봉은 국왕의 행차를 가로막은 죄로 처벌을 받았겠지만, 손가장 사람들은 김계명에게 냈던 토지사용료를 돌려받았고 앞으로도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분쟁이 종결되기까지는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이듬해(정조 14, 1790년) 2월 손가장에 사는 손양택(孫良澤)이란 자의 아버지인 손의대(孫義大)가 김계명으로부터 끝내 땅을 돌려받지 못해 울분을 못이겨 스스로 목을 매 죽는 사건이 벌어졌다. 손의대의 모친 또한 아들이 비명에 죽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입안 중인 토지를 다시 농민들에게 돌려주라는 작년 9월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을 형조판서에게 보고 받은 국왕 정조는 불같이 화를 내었다. 정조는 이런 일조차 즉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송관(訟官, 송사를 맡은 벼슬아치)을 장차 어디에 쓰겠느냐며 형조판서를 엄히 꾸짖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자신에게 들려온다면 관계된 당상관들을 모두 중죄로 다스리겠다고 경고하였다. 영민하고 강력했던 군주 정조다운 판결이었다. 결국 반년 넘게 끌어 온 손가장 사람들과 강릉 김씨 가문 간 토지를 둘러싼 분쟁은 이렇게 끝이 났다. 그렇지만 한 모자(母子)의 안타까운 죽음이 없었다면 아마 싸움은 더 길어졌을지 모른다.

우리나라의 옛 정자는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추구한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정서가 반영된 훌륭한 건축양식으로 평가 받는다. 동시에 우리 옛 선비들이 모여 풍류를 즐기고 시문을 주고받은 공간으로서의 정자는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산실이라고도 일컬어진다. 그러나 정자가 엄연히 지배 계층이 스스로 여가를 즐기기 위해 조영한 사치물임을 생각하다면 그 폐해 또한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강릉 김씨 가문의 경우와 같이 농민들의 거주지나 농토 한가운데 땅을 사들여 짓는 정자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정부나 국가의 역할인 바, 당시 국왕이었던 정조는 정자의 소유자 김계명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한편 손가장 농민들의 오랜 관습을 인정해주는 선에서 갈등을 조정했다.

본래 땅은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그 땅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과 잠시 놀다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을 공평하게 풀기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땅에서 수익이나 즐거움을 얻으려는 외부인과 땅을 살림살이의 유일한 터전으로 알고 살아가는 원주민 사이의 대립은 어느 고장에서든 비일비재한 일이다. 조선시대 정조 연간 손가장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과 그 조정 과정이 혹시 오늘날 땅을 둘러싼 여러 갈등을 해소하는데 작은 교훈이 될지도 모르겠다.

	 <동국여도(東國輿圖)〈古大 4790-50〉중 도성도에 표시된 손가장>
원천자료	『승정원일기』 정조 13년(1789) 9월 19일, 정조 14년(1790) 2월 14일.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39	정릉동의 주인들 - 2	작성자	백외준
제목	‘돌일’ - 옛 손가장 사람들의 또다른 생업	키워드	돌일, 북한산, 화강암, 축대, 돌장사, 석수
이야기	손가장의 주인 밀양 손씨들은 조선후기까지 손가장 주변의 땅을 일궈 논농사와 밭농사를 주요 생업으로 삼았다.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부는 소작을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로 들어서면서 서울에 인접해 있는 손가장 주변의 땅값이 치솟기 시작하면서 땅을 팔기 시작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농업을 주요 생업으로 한 밀양 손씨들은 주변의 땅을 팔아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고, 서울 외곽의 땅을 사들여 농사를 지었다. ‘돌일’은 손가장 사람들의 또다른 생업이었다. ‘돌일’이란 ‘화약남포’를 터트려서 돌을 깨고, 돌을 쌓아 축대를 만드는 일을 말한다. 산을 등지고 있는 손가장 마을에서 돌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고, 돌이 많은 산에는 돌을 채취해서 가공하는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몰려들었다. 이옥(李鈺, 1760-1815)이 「중흥유기(重興遊記)」에서 교외의 천석(泉石)을 품평하면서 ‘손가장은 밝고 환하다’고 한 대목은 이 일대 화강암의 질이 겉보기에도 꽤 좋았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손가장 일대의 ‘돌일’에 관한 내용은 『승정원일기』 1704년(숙종30) 5월 17일 기사에 처음 등장한다. 북한산성 축성시 석재를 멀리서 운반해오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가까운 구준봉 밖 청수동에서 돌을 채취하자는 데 조정의 의견이 일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구준봉(狗蹲峯)은 현재 성북동 뒷산을 가리키며 청수동은 손가장 바로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1786년(정조10)에 편찬한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 제2책에도 ‘돌일’에 관한 내용이 등장한다. 이 의궤는 문효세자(文孝世子, 정조 후궁 의빈 소생)묘의 조성 절차를 기록한 것으로, 묘 조성에 필요한 총 1,665개의 석재 중 693개를 손가장에서 채취한 돌로 조달하고 손가장에 석재 채취를 위한 부석소(浮石所)를 설치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대한제국기 도로, 교량, 석축 건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개인이 일꾼을 고용하여 석재를 채취, 판매하는 이른바 ‘돌장사(石商)’들이 도처에서 활동했다. 당시 동서(東署)의 청수동, 서서(西署)의 사동(寺洞)이 채석장으로 유명해 이곳으로 돌장사들과 석수들이 모여 들었다. 따라서 대한제국 정부는 이들 돌장사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황성신문 1907년 6월 8일 기사) 손가장, 청수동 골짜기의 ‘쩡! 쩡!’ 돌 떼는 소리는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들려 왔다.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정릉에서 돌을 채취했던 기록이 있는데 1924년 7월 2일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산82번지에서 토석 화강함을 토목건축용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5년간 일본인에게 허가해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북한산 일대는 땔감을 위해 나무를 많이 베어내 민둥산이나 다름없어 돌을 채취하기가 용이했다고 한다. 손씨들도 농사를 짓는 가운데 틈틈이 '돌일'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돌을 깨는 기술자 돌을 쌓은 기술자 즉 석수(石手)가 되었다. 정릉천 양쪽의 축대도 모두 손가장의 밀양 손씨들이 공사를 맡아서 쌓은 것이라고 한다. 현재 손가장에 거주하는 손씨들의 대부분이 '돌일'을 생업으로 하여 살았다. 1920-30년대 일제시대에 태어난 세대들은 '돌일'을 하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둔 경우가 많았고 돌을 깨고 쌓는 일 외에도 서울의 궁궐 안에서 돌을 다듬어 기둥이나 석재를 다듬는 석공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세대들은 더 이상 '돌일'을 하지 않았다. 정릉 지역에서 더 이상 돌을 채취하지 않게 되면서 일이 줄었고, '돌일' 공사도 중장비가 대신하게 되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돌을 쌓아 축대를 만드는 일 자체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고 한다.
원천자료	김현경・박성연・이건욱, 『정릉3동 민속지 : 변화變化 공감共感 소통疏通』, 국립민속박물관, 2008, 236-239쪽. 『승정원일기』 1704년(숙종30) 5월 17일.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제2책. 『황성신문』 1906. 5. 14, 1907. 6. 8. 이옥, 「중흥유기」.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40	정릉동의 주인들 - 3	작성자	백외준
제목	정릉천 경국사 앞 돌다리의 내력	키워드	정릉천, 교량, 만세교, 이원우, 송덕비, 경국사 주지 김보경

이야기

정릉 만세교(萬歲橋) 예찬
— 이원우(李元雨)씨의 미거(美擧)

7월 3일. 하늘에는 백운이 떠돌고 송림에는 벌레소리. 맑은 계곡에서는 초하(初夏)의 졸졸 노래가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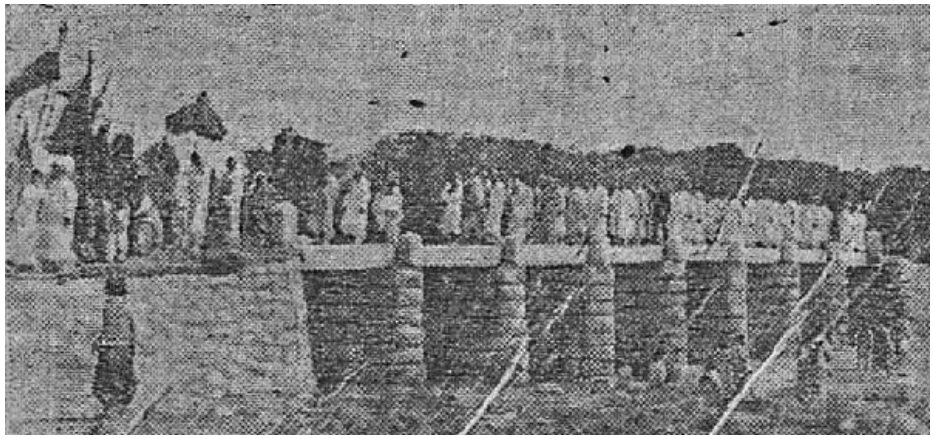
이곳은 경성서 동북으로 2리를 격한 별유천지! 이름하여 청암사(지금의 경국사)라 한다. 불각(佛閣)은 아담하며 산수는 마음껏 좋고 백병을 고친다는 약수와 선인이 배회할 것 같은 삼각산 뒷모퉁이를 지고 앉었으니 여름이 겨울 같고 꽃은 없어도 마음은 꽃다워진다.

모여 앉은 이는 숭인면장 윤석초씨와 전임 면장 김기택씨와 정릉리의 유지 4,5인! 법당 앞 너른 마루에 맛깔스러운 채반은 벌려졌다. 정릉리는 400여호가 정릉천을 사이로 하고 있으니 큰 홍수만 나면 그들은 월천(越川)할 길이 없어 농토를 바라만 보고 가고 오지를 못해 온지가 여러 해였다. 시시로 청암사에 선적(仙蹟)을 찾아 한아한 놀이를 꾀하던 경성부내 황금정(지금의 을지로 부근) 사는 이원우씨가 4,000여원의 사재를 기울여 일대석교(一大石橋)를 놓게 되니 그것이 곧 정릉천에 새로운 미관, 탐탁한 신생명인 만세교이다.

지난 봄부터 공사를 하던 이원우씨의 자선 석교 만세다리는 요사이 준공되어 면내 유지 수백인이 모여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그리하여 감격한 면민은 정릉고개에다가 이원우씨의 송덕비를 세워 이를 영원히 기념하였으며 신구면장 그래도 섭섭하다고 하여 다시 하루의 정유를 꾀한 것이었다.

청암사에는 이 절의 새힘을 잡고 있는 김보경(金寶鏡)씨가 있으니 일시 비운에 빠졌던 이 절에 오늘만한 번영책을 세워 날로 늘어 나아가는 것은 오직 김보경 스님이 있는 까닭이라 하여 동구 앞에는 기념비가 서 있었다.

돈은 모으기 어렵고 지키기 어렵고 쓰기가 또한 어렵다. 그러나 오늘 이원우씨의 미거는 가히 기다(幾多)의 수전노들에게 한 큰 충동을 주었을 줄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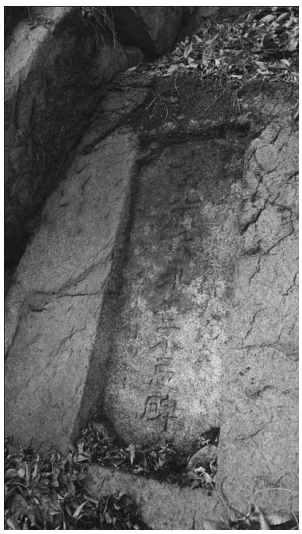
<낙성식날 만세교 (매일신보 1928. 7. 10)>



<이원우 씨 (매일신보 1928. 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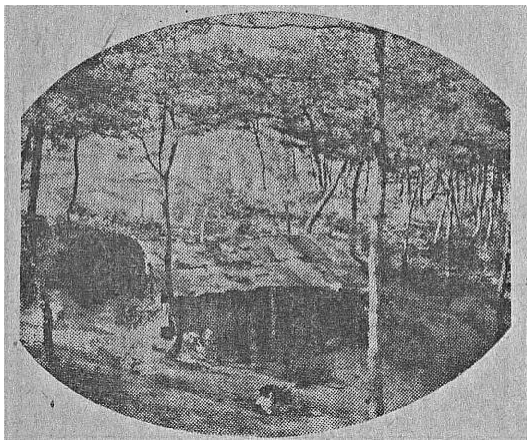


<만세교. 준공 당시 교각은 7개였으나 지금은 2개만 남았다. (2013) >



<이 다리가 만세교라는 사실은 다리 옆 암벽에 새겨진 '이원우씨 영세불망비(李元雨氏 永世不忘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끼가 덮였으나 큰 글씨는 육안으로 판독할 수 있다. (2013)>

원천자료	『매일신보』 1928. 7. 10. 『중외일보』 1928. 6. 18.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41	정릉동의 주인들 - 4	작성자	백외준
제목	정릉 일대 토막민의 생활상 ①	키워드	정릉리, 토막, 문화주택, 45전, 청춘남녀
이야기	호화경성 . 토굴비화(정릉리편 C.K.C 記) — 45전 가지고 여섯식구가 호구, 경치 좋은 것도 그들에겐 무용 창경원을 지나 박석고개를 넘어가니 문화주택이 양편으로 쭉 들어섰다. 바로 정릉리를 찾어드니 정릉리 뒷산으로 9미터의 도로가 뚫려있다. 이 길이 문안에서 쫓겨나오는 토막민이 통행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라 한다. 정릉리에는 동구 앞과 그 산너머로 8호의 토막이 있을 뿐이나 산꼭대기의 공사만 끝나면 1천호의 토막이 문안으로부터 옮겨 앉게 된다고 한다. 이 길을 더듬어서 우편으로 향하니 보기에도 처참한 토막이 보인다. 나는 바로 주인을 찾았다. 얼굴이 해쓱한 27-8세의 부인이 나온다. "댁에는 몇 식구나 되십니까?" "우리요, 4남매에 우리 두 내외 모두 여섯 식구지요."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문안은 너무도 멀어서버리 다닐 수가 없어 이곳에서 막벌이를 하는데 하루에 45전 밖에 못 벌어들이고 나는 어린 것 때문에 방안에 들어있을 뿐이지요." "조용하고 경치는 좋구먼요." "날마다 청춘남녀들이 몰려와서 이산저산으로 뛰놀고 다니나 나는 이곳으로 온지가 2년이 되어도 이 움 속에서 우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뿐이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45전을 가지고 여섯 식구가 살자니 참 기막히지요. 암만 절약을 하여도 더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정릉리의 토막 (매일신보 1936. 6. 6)>		
원천자료	『매일신보』1936. 6. 6.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42	정릉동의 주인들 - 5	작성자	백외준
제목	정릉 일대 토막민의 생활상 ②	키워드	안암정, 토막, 움집, 사업, 야채, 배추, 진주, 고향

이야기

호화경성 . 토굴비화(안암정편 C.K.C 記)

— 낮에는 배추행상, 밤에는 글읽기. 사업욕은 그들에게도 있다.

시골서 살 수 없으면 도회로 모여든다. 도회로 올라와서는 벌이가 없고 살 수가 없으면 문안이나 문밖으로 나가서 움집을 얽게 된다. 안암정 토막민도 128호에 853명이나 되는데 대체로 그들은 무엇을 하여 연명을 하게 되는가? 이 주민은 대개가 막벌이 장작패기 등인데 대부분 푸성귀 장사이다.

"배추드렁사우-."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부르짓는 그들! 하루종일 돌아다니면 얼마나 남는가? 맨먼저 안암정 첫골목으로 들어섰다. 바른편 산언덕 아래에 있는 토막 간수는 한간 반, 기둥은 흙, 문패는 양지에다 '김××'이라고 써 있다. 안으로 들여다보니 컴컴한 집에 '지카다비' 한켤레가 놓여있고 옆으로는 다 떨어진 바수거리(발채)에 배추 두어 포기 남은 지게 하나가 있을 뿐이다.

"주인 어른 계십니까?"

수염이 시커멓고 얼굴이 거무스름한 남자가 나온다.

"어째 댁에는 아무도 안 계십니까?"

"나 혼자 있소."

"그럼 적적하시겠구먼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줄이야 알겠습니까?"

"어째서 이리로 오셨습니까?"

"그거참 우습지요? 나도 20여년 전에 진주서 살 적에는 70여석 추수를 받고 동리에서 글방을 설치하고 많은 자녀에게 천자와 통감 같은 것을 가르치다 아들형제마저 죽고 하더니만 차차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그 재산이 어디로 간 줄 모르게 가버렸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동리에서 남의 집에 가서 한문선생으로 사랑 잠자리를 3년간 하였었는데 학교가 생기고나니 그나마 아이들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8년 전에 서울 놀러왔다가 할 일 없어서 이리로 와 살지요."

"사시는 것은 어떠합니까?"

"말 마시오. 비록 움집에서 살지라도 마음이라도 편안해야 할 터인데 돈이 없으니까 자연 나는 이 한숨이고 생기는 이 근심이더구먼요."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별 수 있나요? 저녁에 야채밭에 가서 돈 1원을 주고 한지게 사다두었다가 아침에 팔러나가는데 다 팔아야 쌀한되값 떨어지고 그나마 못팔고 남으면 삶아먹지요. 그리고 날이 궂은 날은 얼마 팔지를 못하여 쫄쫄이 굶는데 다른 날도 밥구경은 드물고 배추죽 쑤어먹지요. 나는 고향을 떠날제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마 하고서 올라왔으나 온 지 12년이 되어도 더 살기만 어렵고 아마도 서울귀신이 되고야 말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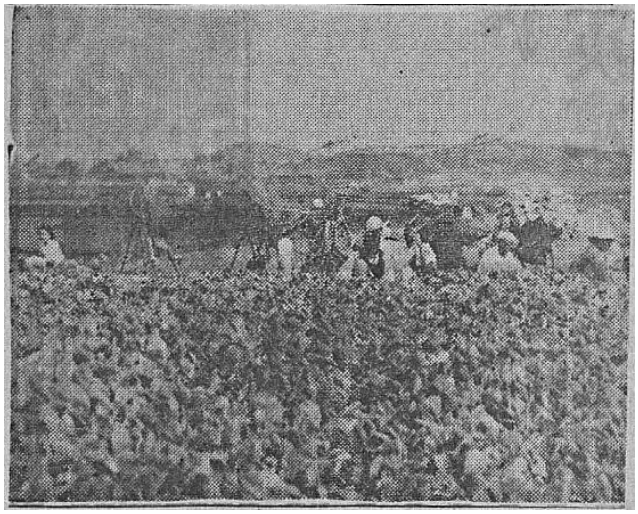
"재미있는 일은 없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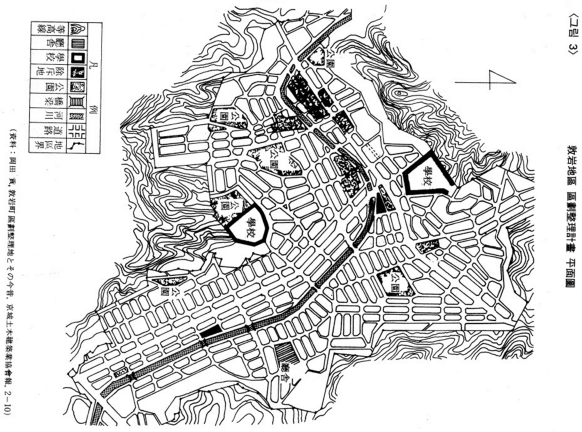
"재미가 뭐요. 저녁이면 한문 글을 들여다보지요. 그것으로나 취미라 할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향기로운 농촌을 두고서 내 어이왔던고. 하루면 하루 종일 한숨 쉴 것을. 고향에 살자면서도 쉴 수 없는 이내몸. 무엇이 이 몸을 토막으로 보냈는고.

늙어가는 이내몸 해놓은 것이 무엇인고. 자고깨면 사러갈 근심과 한숨 궁리뿐. 죽을 때까지 이러하니 부끄럽고나. 어이하리. 토막에서 시드는 이 신세야.

토막에 있으면서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이. 돈 벌어가지고 고향가마든 그 분. 그리고 늙어가는데 사회에 아무 사업 하나 못한 것을 한탄하는 그에게 왜 금전이 붙지를 않는단말인

	가. 만일 그에게 돈이 많이 있어선들 얼마나 빛나는 사업에 힘을 기울였으랴.  <안암정 토막민의 생활터인 야채밭 전경 (매일신보 1936. 6. 4)>
원천자료	『매일신보』1936. 6. 4.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43	정릉동의 주인들 - 6	작성자	백외준
제목	1930년대 후반 돈암지구 구획정리사업과 토막민들의 정릉리 이주	키워드	돈암지구, 시가지 확장, 경성부, 토막민, 정리, 정릉리, 홍제외리
이야기	1936년 일제는 경성부의 관할구역을 대대적으로 확장해, 1914년 이후 고양군 숭인면에 속해 있었던 돈암리(敦岩里), 성북리(城北里), 안암리(安岩里), 종암리(鍾岩里), 제기리, 신설리, 청량리를 각각 돈암정(敦岩町), 성북정(城北町), 안암정(安岩町), 종암정(鍾岩町), 제기정, 신설정, 청량리정으로 개칭하고 이를 경성부 동부출장소의 관할 내에 두기 시작했다. 1920-30년대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조선총독부는 경성부의 경계를 넓히고 시가지를 확장함으로써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행정 개편 후 일제는 돈암정 일대를 곧바로 '돈암지구'(오늘날 보문동 1-7가, 안암동 1-4가, 동선동 1-5가, 삼선동 1-3가, 동소문동 1-5가를 포함하는 지역)로 설정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주거지 블록(사방이 도로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여러 필지가 모여 형성된 구획의 단위)을 만들고 이 블록들에 필지를 분할하여 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오늘날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개념이다. 이를 통해 일제는 서울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주택지를 공급하고자 하였다. 돈암지구 외에도 1936년 새롭게 편입되어 확대된 서울의 경계 내(경성부)에 10개의 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였다.(영등포지구, 대현지구, 한남지구, 사근지구, 돈암지구, 번대지구, 용두지구, 청량리지구, 신당지구, 공덕지구) 1920년대만 해도 논밭상태로 남겨져 있던 돈암리 일대는 이 사업의 결과 고밀도 주거지로 변모했다. 신규 주택지에는 빽빽이 개량형 도시한옥들이 들어섰으며 그 외 전기,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졌다. 돈암지구는 1930년대 후반에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조선총독부의 의지가 반영된 선도적 사업지구였다. 조선총독부는 당시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하에서도 돈암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돈암지구는 '대경성'의 대표적인 외곽주택지로 떠올랐다.  <돈암지구 구획정리계획 평면도 (출처 : 『성북구지』)>		

그러나 이와 같은 경성부의 시가지확장이 아무런 저항이나 충돌 없이 순조롭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원래 돈암지구 일대에는 그리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193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의 동소문로 주변을 제외하고는 돈암지구 내부로는 집단취락지가 거의 없었으며 주로 과실이나 채소를 재배하는 구릉지였다. 앞서 『매일신보』의 안암정 토막민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일대의 토막을 짓고 생활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야채밭에서 야채를 떼어다 성안에 들어가 파는 것으로 생계를 잇고 있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려는 일제에게 이들은 '정리' 대상이었다. 토막은 강제로 헐렸고 토막민들은 다시 시외곽으로 떠밀렸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기사와 사진이다.

돈암정 일번지 일대의 200호를 강제철훼
— 경성부에 800 주민대표 진정, 800주민 가두방황

방금 경성부 당국에서 시공 중인 돈암지구 구획정리는 거의 완성을 보게 되었고 돈암정 1번지 일원 약 200호의 주택만이 이전되지 않아 부에서는 지난 4일부터 강제철훼를 행하였다. 수개월 전부터 이전명령은 있었으나 모두가 세궁민이어서 아직껏 다른데로 이전을 행하지 못하고 집을 헐리우게 되었으므로 주민 800여명은 당장에 갈 곳이 없어 어제밤부터 풍찬노숙을 하고 있는 참경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과 같이 물자가 결핍되어있고 자금이 융통되지 않은 만큼 당장 신축이 불능하고 또한 셋집 얻기도 곤란하여 이들의 수용은 또한 난사가 아닐 수 없어 당국도 머리를 앓고 있는 형편이라 한다. 집헐린 200여 가족 천여명은 비내리는 뜰에서 노숙하고 5일 오후 2시경에는 주민대표 80여명이 부에 출두하여 대토(代土) 주기를 진정하였다 한다.



<헐린 토막집 (동아일보 1939. 7. 6)>



<삼선교, 돈암동 거리 모습 (1930년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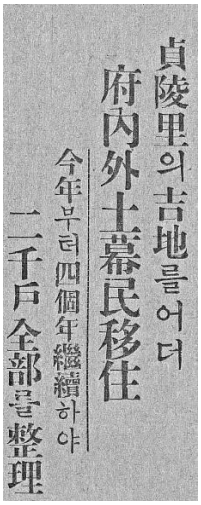


<보문동 한옥단지 (1990)>

1930년대 대대적인 경성부 시가지 정비 및 확장사업을 추진한 경성부 당국은 경성 시가의 미관을 저해하는 토막민들은 더욱 외곽으로 이주시킬 것을 결정했다. 경성 동북부의 정릉리와 서북부의 홍제외리가 토막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장소로 선정되었다. 경성부는 4개년에 걸쳐 토막민들을 이들 지역으로 이주시킨다는 대책을 수립했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의 기사에는 정릉리를 길지라고 부르며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1호당 15평의 대지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보인다.

정릉리의 길지를 얻어 부내외 토막민 이주
— 금년부터 4개년 계속하여 2,000호 전부를 정리

경기도에서는 경성의 토막민을 정리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궁리하던 중 경성부 내외에 있는 2,000호 약 10,000명의 토막민을 부외 정릉리로 4개년 계획사업으로 이주시키기로 이미 착수를 하였는데 소화 9년 5월말 현재의 토막민은 부내에 296호 1,480명 부외에 1,704호 8,520명인바 소화 9 . 10 양년도에 800호, 11년도에 700호, 12년도에 500호를 1호에 15평씩을 제공하여 정리하기로 되었는데 경성부 내외의 토막민은 용산 관내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서대문, 동대문, 종로 등이다.


貞陵里의 吉地를 어더
府內外土幕民移住
今年부터四個年繼續하야
二千戶全部를整理

<매일신보 1935. 6. 26>

	1천호 세민(細民) 이전 — 홍제외리와 정릉리로 보낼 경성부의 토막민 정리 경성부 사회과에서는 소화 10년도(1935)부터 4개년간 계속사업으로 부내 토막민을 홍제외리(弘濟外里)와 정릉리(貞陵里)에 이전 수용계획을 세웠으나 지방비 보조관계 등으로 10년도는 기정 계획의 1년 200호를 수용하지 못하였으므로 11년도에는 예산 1천원을 계상하고 도 지방비 1천원의 지급을 받아 합계 2천원으로 400호씩 800호를 홍제외리, 정릉리에 수용할 터이며 기정계획년도를 1년간 단축하여 소화 12년도에는 1천호의 수용을 완료하기로 되었는데 전기 800호는 금년 4월부터 이전에 착수할 터이라 한다. 그러나 경성부의 토막민 '정리' 계획은 원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아일보 1937년 6월 8일 기사를 보면 본래 계획했던 호수 중 겨우 30%만이 정릉리와 홍제외리로 이주했음을 알 수 있다. 경성부는 4개년 간 정릉리와 홍제외리에 각각 1,000호씩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2년이 지난 1937년 현재 수용수는 홍제외리 529호, 정릉리에 234호에 불과했다. 동아일보 기자는 이주율이 저조한 이유로 경성부가 토막민의 생활상은 고려하지 않고 무리강행했던데 있다고 꼬집고 있다. 즉 토막민들은 토지를 제공받아도 그 위에 주택을 건축할 만한 자금이 없고 또 경성부 외의 집단부락에는 노동시장이 없으므로 일단 수용된 토막민도 생계가 막막해 다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릉리에 이주한 토막민들이 234호에 불과하다지만 이 또한 마을 서너개를 합쳐놓은 호수이니 그 수가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럼 정릉리로 이주한 토막민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일단 정릉리로 이주한 토막민들에게는 각 호수마다 약속대로 15평의 대지가 주어진 듯하다. 그러나 이사에 필요한 이전비와 건축비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이주민들은 궁벽진 시외곽으로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또다시 토막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다. 정릉리와 홍제외리 모두 토막은 주로 하천변에 지어졌다. 그나마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식수와 생활용수를 얻기 쉬워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정릉천변의 토막은 무려 40년이 지난 1970년대 후반에야 자취를 감추었다.
원천자료	『성북구지 『동아일보』1937. 6. 8, 1939. 7. 6. 『매일신보』1935. 6. 26. 김영수 · 송인호, 「동소문동 4가의 도시한옥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998. 김영수, 「동대문 밖 돈암지구 주거지의 형성과 변천」, 『서울학연구』38호, 2009.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44	정릉동의 주인들 - 7	작성자	백외준
제목	김교신의 생애 - 김교신의 정릉리 개척기 ①	키워드	김교신, 무교회신앙, 성서조선, 함석헌, 송두용, 양정고보, 정릉

이야기

'한국의 흙으로 빚은 신앙'
— 식민지 조선의 사상가 김교신의 생애

김교신(金敎臣, 1901-1945)은 1901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1916년에는 함흥공립보통학교를, 1919년에는 함흥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세이소쿠(正則) 영어학교를 거쳐 1922년 당시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으로 최고 명문이던 동경고등사범학교에 나중에 벗이자 신앙 동지가 되는 함석헌과 함께 입학한다.

그런 그가 기독교에 접하게 된 것은 1920년 거리에서 설교를 듣고서였다. 하지만 다니게 된 교회에서 목사가 반대파에 축출되는 등의 병폐를 목격한 뒤 실망한 상태에서 무교회(無敎會) 신앙을 주창하는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의 성서 강의 청강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무려 7년에 걸쳐 지속된다.

1927년 귀국한 김교신은 함흥의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신앙 동지들인 함석헌, 송두용, 정상훈, 류석동, 양인성과 함께 발간하기 시작한 동인지『성서조선』의 간행을 돕기 위해 1928년 서울 양정고등보통학교로 전근, 이후 12년간『성서조선』의 간행과 양정학교 교사로서의 생활을 병행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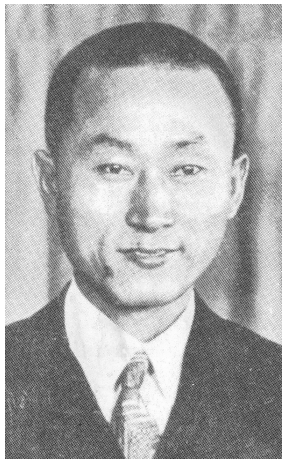
김교신은 1930년부터『성서조선』의 간행 책임을 혼자서 전적으로 맡게 된다. 낮에는 교사, 그 외의 시간에는『성서조선』편집자이자 필자, 제작 담당자, 발송 담당자, 판매 담당자, 경리 담당자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다. 김교신은 또 그런 짬짬이 기독교 선교 및 무교회신앙의 전파에도 적극 나선다. 김교신이 남강 이승훈, 기독교계 원로인 김정식, 다석 류영모, 춘원 이광수를 비롯 당시 농촌 운동을 벌이던 김주항과 군국주의를 비판하다 동경대 교수직에서 쫓겨난 야나이하라 다다오(전후 동경대 총장 역임) 등과 교분을 두텁게 하게 되는 것도 이런 과정에서였다.

하지만 1940년 김교신은 양정을 사임하게 되고, 1941년에는 서울 경기중학교에 6개월간 머물렀다가 바로 개성의 송도중학교로 자리를 옮긴다. 이 모두가 김교신의『성서조선』이 가진 민족적 색채로 말미암아 조선총독부에 요주의 인물 내지는 불온 인물로 낙인찍힌 탓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른바 '성서조선 사건'이 벌어진 것은 김교신이 개성의 송도중학교에 근무하던 1942년 3월 30일의 일이었다. 근대 한국을 만든 명 논설 33편(『신동아』1966년 1월호 부록『근대한국 명논설집』)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성서조선』의 권두언 '조와'(弔蛙)가 문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성서조선』관련자 및 독자들이 검속되는 이 사건에서『성서조선』관련 자료는 일제에 의해 철저히 압수·소각된다. 조선어학회 사건이 벌어지기 7개월 전의 일이었다.

구속되고 만 1년만인 1943년 3월 29일 불기소로 출옥한 김교신은 이후 전국 각지는 물론 만주까지 순회하며 신앙 동지들을 격려하고 기독교 전파에 몰두하다 1944년 7월 함경남도 흥남의 일본질소비료회사에 입사한다. 강제 징용당한 5,000여 한국인 노무자의 복리후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다. 이후 한국인 노무자들의 교육, 주택, 처우 개선에 골똘하던 김교신은 해방을 4개월여 앞둔 1945년 4월 25일 발진티푸스로 생을 달리 한다. 장례는 평소 김교신을 존경하던 일본인 간부의 주장에 의해 최초로 공장장(工場葬)으로 거행됐다. 향년 44세 때의 일이었다.

김교신의 벗 함석헌은 김교신을 추모하는 글에서 이렇게 외친다. "오늘에 와서 저를 생각함이 더 간절하다. 오늘에 저를 그리는 생각은 그 의미가 다르다. 나라의 미친 꼴을 보고,

	썩는 꼴을 보고, 생명의 말씀을 가진 참 산 인물이 그리워서다. 저로 하여금 이 나라에 있게 하라. 있어서 말씀하게 하라."  <김교신>  <성서조선 창간동인. 뒷줄 좌로부터 양인성, 함석헌. 앞줄 좌로부터 유석동, 정상훈, 김교신, 송두용>
원천자료	김정환, 『김교신 - 그 삶과 믿음과 소망』, 한국신학연구소, 1994.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45	정릉동의 주인들 - 8	작성자	백외준
제목	「정릉으로 이사하기로 결정」 - 김교신의 정릉리 개척기 ②	키워드	정릉리, 이사, 북한산 기슭, 찻길, 자전거, 전봇대, 전등

이야기

1936. 3. 21 (토) 흐린 후 맑음.

휴일이어서 전가족이 시외로 나가 북한산 기슭의 정릉리(貞陵里)를 산책하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을 짓는 것을 망설였었다. 그러나 얼음이 녹아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과 한적한 주위의 산과 숲의 매력에 끌려서 드디어 정릉리로 이사하기를 결정하다.

만일 여기까지도 발전한답시고 환경이 요란하게 된다면 북한산성 안으로 다시 이사할 각오로. 지금은 북한산에서 내려오면서 두 번째 집이다.

— 김교신의 일기

북한산 기슭의 집

북한산 기슭도 작년과 금년이 같지 않으니 내년과 내후년이 또 다를 것이다. 이에 요즈음의 형편을 기록해 두고자 한다.

세상에 견디기 어려운 일이 많지만, 도시의 수십 평도 안 되는 작은 주택에 살면서 한 뼘도 채 다 못 되는 땅을 두고 이웃집과 다투는 일도 어려운 일이다. 광활하게 살고 싶은 소원으로 말하자면 차일봉(遮日峯) 정상에 집을 짓고, 개마고원에 화초를 심고, 동해 바다에 고기를 기르며, 만주 벌판에 채소밭을 두고 싶으나 그렇지 못하는 신세다.

어찌할 수 없어 북한산 기슭에 거친 땅이 남아있고, 어루만지면 초목이 자랄 수 있는 개척의 재미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멀리하고 싶은 생각으로 말하자면 한라산이나 백두산 꼭대기에 홀로 살고 싶으나, 거기에는 인쇄소가 없다. 멀리 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까지 오고 보니 북한산 기슭이 되었다. 현재의 우리 집은 서울서 오는 찻길의 종점이자 마지막 전봇대가 서 있는 곳이다.

우리의 성미로 말하자면 곧게 뻗은 널찍한 아스팔트 길보다는 굽이굽이 숲 속의 작은 길을 택하고 싶다. 그러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부족하나마 자전거가 다닐 길은 되어야 하겠고 때로는 자동차와 마차가 다녀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 사람의 살림살이다.

우리의 취흥대로 살자면 강풍어화대수면(江楓漁火對愁眠, 강가의 단풍과 고기잡이 불빛이 근심 어린 잠을 대신한다) 에 나오는 '고기잡이 불'이 반짝 반짝하는 것이 마음을 그윽하게 하겠지만 발달한 인쇄술로 된 서적을 가까이 하는 데에는 역시 전등불이 고맙다.

자전거라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 곳, 전등불이 있는 곳. 이 두 가지가 주택을 정하는 요소였다.

청신입고사 초일조고림 곡경통유처 선방화목심 산광열조성 담영조인심 만뢰차구적 유문종경음(淸晨入古寺 初日照高林 曲徑通幽處 禪房花木深 山光悅鳥性 潭影照人心 萬籟此俱寂 猶聞鍾磬音, 상쾌한 새벽 옛 절에 들어서니 / 아침 햇살 키 큰 숲을 비추고 / 굽은 오솔길로 통하는 그윽한 곳에는 / 산 빛이 좋아 새들은 지저귀고 / 맑은 연못 사람 마음을 비우네 / 사방은 죽은 듯이 고요한데 / 문득 들리는 종소리) 이라는 상건(常建)의 시는 곧 우리가 약사사(藥師寺)를 거니는 모습이다.

작년 여름에 경묵도인(耕墨道人) 선생이 누추한 우리 집을 찾으신 때에 이 시를 읊으셨고, 올 가을에 선생이 직접 쓴 글씨를 얻어서 이 시를 책상 머리에 걸게 되었다. 실제 경치도 좋거니와 시도 아름답고 글씨도 귀하다.

우리는 음식에 관해서는 '물지게 장사'라는 별명이 있으리만치 가리는 것이 없이 모조리 먹고 잘 마신다. 그러나 귀로 듣는 일에는 심히 까다로운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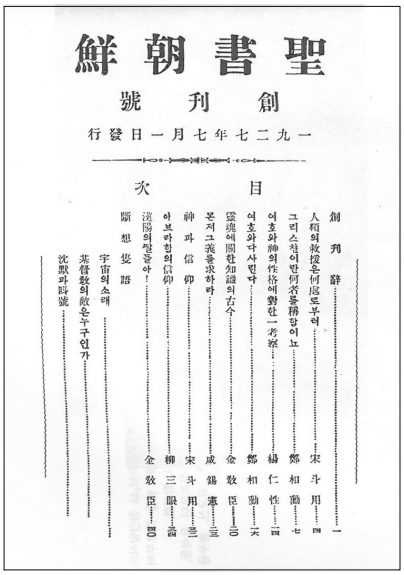
우리가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은 부흥회의 기도 소리와 확성기를 통해 들리는 라디오 소리이다. 무릇 확대한 것에는 참된 것이 없다. 라디오 소리를 집 밖에까지 들리게 놔두는 '문화인' 처럼 밉살스러운 것은 없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가늘고 고요한 소리뿐이다. 약사사의 퉁소 소리와 종소리는 우리의 이러한 경향에 잘 부합된다. 하물며 뜰에 흐르는 시냇물의 잔잔한 소리까지 고요하게 들려오면 그때의 마음의 침착함을 어찌 다 형용하랴.

때로는 소쩍새가 어둠을 깨트리고, 꿩의 나래 치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진동하게 하지만 이는 다 '움직임 가운데 고요함'이다.

어떤 이는 집 주위의 경치를 칭찬하기도 하지만, 마음 속에 주 그리스도를 모시는 때에만 자연의 경치도 산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한다.

— 성서조선 第 107 號 (1937年 12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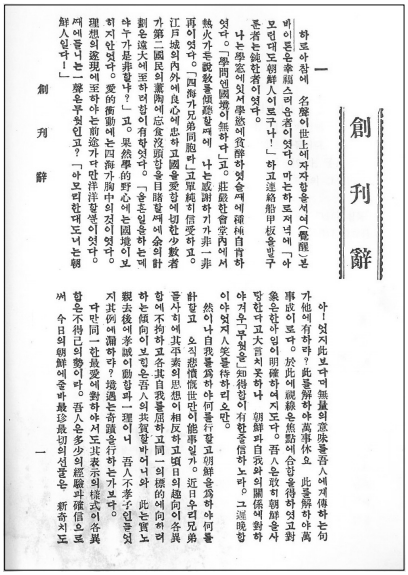

聖書朝鮮

創刊號

一九二七年七月一日發行

目次

創刊辭 …… 一 宋斗用
人稱의 救援은 何處로부터 …… 四 鄭相勳
그리스챤이란 何者를 稱함이뇨 …… 七 鄭相勳
예호와神의 性格에 對한 一考察 …… 一四 楊仁性
예호와라사셥다 …… 一六 鄭相勳
靈魂에 關한 知識의 右今 …… 二三 金敎臣
복지그 義를 求하라 …… 二三 咸錫憲
神과 信仰 …… 宋斗用 三二
하브라힘의 信仰 …… 柳三眼 三六
選民의 特權을 아! …… 金敎臣 四四
隨想 斐語
宇宙의 소래 …… 四五
基督敎의 敵은 누구인가 …… 四六
沈默과 聖號 …… 四七


創刊辭

一

하로아참에 名聲이世上에자자할줄세여(警醒)본바이돈을幸福스러운者이었다。마는하로저녁에「아모럿케도朝鮮人이로구나!」하고길거리船甲板을발로구르는者는錦衣還鄕이었다。

나는學窓에있서學窓에貧酵하였슬때에祖國自負하엿다。「學問은國境이無하다」고。壯敎한會堂內에서熱火가튼敎養을開陳할때에「나는感謝하기가非一非再이엇다。「四海가兄弟同胞라」고眞誠히信愛하고江戶城의內外에良心에忠하고國을愛함에切한少數者가第二國民의蔑視와壓迫에忘食忘寢하고目睹할때에金의計劃은成大에至하려함이有할것이다。「올흔일을하는데아누가是非할나?」고。果然學的野心에는國境이보히지안엇다。愛的衝動에는四海가眼中의것이엇다。理想의實現에至하야는前途가다만洋洋할뿐이엇다。

제에올나는」聲을부칠인고?「아모리한데도너는朝鮮人이닷다!」

創刊辭

아! 엇지此보다더甚量의意味을吾人에게傳하는句가他에有하랴? 此를解하야萬事休요 此를解하야萬事成이로다。於此에親線을焦點에合注을得하엿고對象은한아 엇이明確하여지도다。吾人은現하朝鮮을서망한다고大言치못하나 朝鮮의自我와의關係에對하야겨우「부쳣을」知得함이有할줄信하노라。그遲晩함이야엇지人笑를待하리오만은。

然이나自我를爲하야何를行할고 오직悲憤慨世만이能事일가。近日우리兄弟들사이에其가表露의思想이相反하고現日의趨向이各異함에不拘하고各其自我를屈하고同一의標的에向하려하는傾向이보힘은吾人의共賀할바어니와 此는實노親去後에爭訟이勃興할파一理이니 吾人不孝子인줄엇지其例에漏하랴? 境遇는各異을行하는가보다。

다만同一한最愛에對하야서도其表示의樣式이各異함은不得已의勢이라。吾人은多少의經驗과確信으로써今日의朝鮮에줄바最切의선물은 新奇치도

<성서조선 창간호와 김교신의 창간사>

원천자료	『김교신전집』, 부키, 2001.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46	정릉동의 주인들 - 9	작성자	백외준
제목	김교신의 정릉집 - 김교신의 정릉리 개척기 ③	키워드	북한산, 가족, 삼녀 김정혜, 사녀 김정옥

이야기

우리집

우리집은 북한산 아래 있읍니다. 집 앞에 개천이 있읍니다. 우리집 식구는 모다 아홉 분인데 어른은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다 세분이고, 아이들은 자근언니 하고 정혜언니하고 정손이하고 정복이하고 나하고 다섯이고, 보배는 심부름하는 아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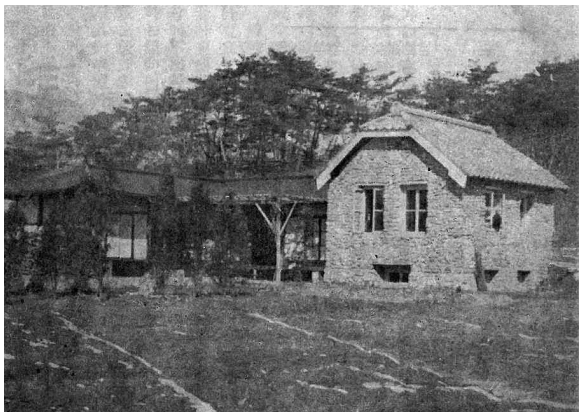
우리집은 절반은 개와집이고 절반은 함석집이오.

개도 있고 닭도 있는데, 개는 세 마리고 닭은 스물네마리오.

큰언니는 시집갔소. 우리는 언니가 보고싶소 아-멘.

編者曰 이것은 今年 小學校 一1年生인 우리집 넷째딸의 作文인데 北漢山麓의 光景이 보이는 듯함으로 이 餘白에 실는다.

— 성서조선 第 121 號 (1939年 2月)





<김교신의 정릉집과 그의 가족들. 가족들은 뒷줄 좌로부터 장녀, 김교신. 가운데줄 좌로부터 동거 순선, 모친, 부인, 앞줄 좌로부터 차녀, 삼녀 (1930)>

내가 일곱 살 때 우리는 정릉 집으로 이사갔다. 효심이 지극하신 아버님은 할머니의 물맞이 터를 찾아 다니시다가 당신의 이상향을 찾으신 것이었다. 부유하지 못한 처지라 대지 천 5백평을 간신히 사셨다. 서재는 손수 개울의 크고 작은 돌을 모아다가 양옥으로 지으셨다. 그런데 이 서재를 이중 유리창으로 하셨다. 새소리, 바람소리로 독서와 사색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라 하셨다. 어머니를 위하여 살림집은 한옥으로 지으셨다. 부엌에는 당시로는 아주 귀한 씽크대를 놓고 하수도를 마련하셨고, 안방과 부엌 사이에는 이 역시 당시로는 드물게 문을 내어 어머님이 상을 차려 들고 오시는 데 문을 여러 개 거치지 않게 해주셨다. 아버님은 이렇게 당시의 집구조나 생활방식을 개량·개선하셨다. 아버님은 이런 면에서도 참으로 선구자이셨다.

우리집은 당시 북한산 아래 첫 번째 집이었다. 둘째 집까지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말하자면 산중의 집이어서 우리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개울물을 마셨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별천

	지에서 자랐다. 겨울이면 아버님은 인근의 논에 물을 대어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우리들과 스케이트 놀이를 즐기셨다. 어린 동생들은 그 위에서 썰매도 타고 팽이도 굴렸다. 봄이면 북한산은 온통 진달래로 물든다. 우리는 꽃 가운데 헤매었다. 이른봄 얼음이 녹을 때면 아버님은 우리들과 함께 개울에 들어가셔서 바위를 들고 삼태기로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을 하셨다. 여러 번 추어탕을 먹던 생각이 난다. 장차 인구가 늘면 이웃집이 너무 가까이 생긴다며 아버님은 대지 한복판에 집을 지으시고, 집 주위에는 배, 복숭아, 감, 밤 등 여러 종류의 유실수를 심고 즐기셨는데 잣나무를 심으시면서 손자들이나 따먹을 것이라 하셨다. 그런데 끝내 그런 일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나셨다. 넓은 밭에는 계절에 따라 갖가지 채소와 곡식을 심고 가꾸어 자급하셨다. 덕택으로 어머님은 교외에 사시면서도 시장에 가시는 고통을 면하셨다. 아버님은 짬짬이 괭이를 들고 땅을 파는 본격적인 농사도 하셨다. 그런데 보통 농사꾼과는 역시 달라서 수십평의 넓은 땅에 백합화를 심어 온 동네에 향기를 가득 차게도 하셨다. 어느 때는 넓은 밭을 딸기와 도라지로 메우기도 했다. 그 도라지꽃이 만발할 때는 우리집은 참으로 외국 동화책에서나 보는 낙원 그것이었다. 더욱 집으로 들어가는 길다란 길과 밭의 주위는 코스모스로 메우셨다. 그래서 우리집은 먼 데서 보면 꽃밭 속의 한 채의 집이었다. 낮에는 종일 종달새와 뻐꾸기가 코러스 하였고, 밤이면 밤새도록 소쩍새가 울어댔다. 몇 년 전에 나는 추억을 더듬으며 이 옛집을 찾았다. 서재는 간데 온데 없고, 안채 일부와 오동나무 한 그루가 남아 있을 뿐 추억 속의 우리집은 없었다. '안 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하였다. 여름에는 미역감던 앞 개울도 복개공사로 없어졌고 노송이 우거지던 산사도 보이지 않아 도망치듯 돌아왔다. — 셋째 따님 김정혜 씨의 증언
원천자료	『김교신전집』, 부키, 2001. 김정환, 『김교신 - 그 삶과 믿음과 소망』, 한국신학연구소, 1994.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47	정릉동의 주인들 - 10	작성자	백외준
제목	정릉에서 출퇴근길 - 김교신의 정릉리 개척기 ④	키워드	정릉고개, 아리랑고개, 상현, 북한산, 자전거

이야기

1937년 1월 25일(월) 맑음.

印刷所를 거처서 달밤에 貞陵峴을 넘으랴니 달은 右편에 金星은 左편에 길은 銀盤같은 積雪이다. 이보다 더 아른다운 宇宙를 求하고 싶지 않다.

— 김교신의 일기

想峴

京城府 敦岩町으로부터 崇仁面 貞陵里로 넘어가는 途中에 조고마한 고개가 있다. 俗稱 아르랑고개라고하나, 이는 無識한 사람들이 無名한 고개에 부치는 常用의 名詞일뿐이오 何等 由來가 있어서도 아니오 이 고개에만 限한 名稱도 아니다. 그러므로 世俗에 反逆하기를 좋아할뿐더러 '아르랑'이라는 音波 좇아 耳殼에 담기를 거려하는 우리는 世俗에서 무엇이라고 부르거나 말거나 나홀로는 이 고개를 言必稱 貞陵고개라고 불러왔다. 이 고개는 貞陵里의 關門이오 이 고개 넘어서는 貞陵이 소재한 까닭이다.

그런데 日間 어떤 친구와의 會談中에 이 고개는 '생각하게 하는 고개, 即 想峴'이라고 이름할 것이라는 意見을 듣고 그 理由의 全無하지 않은 까닭을 깨다렀다. 想峴은 昨年 봄에 一丈 남어지 깎어내리우고 三間幅으로 自動車路를 닦엇으나 아직도 傾斜가 甚하여서 우리 自轉車군들은 自轉車를 끌고 넘나들어야만한다. 이 고개를 넘어서 聖書朝鮮社까지 初行길에 千辛萬苦로 찾어왔다가 主人도 못만나고 도라가는 黃昏길에 다시 넘으랴다가, 遊興別莊地帶로넘나드는 自動車의 몬지 를避하기위하야 北漢을 向하고 돌아서니 여러가지 생각이 솟아오르더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고개에서 무슨 생각이 났었던고. 첫재로 斷髮嶺에 올라서 金剛山 別天地를 바라본 때의 感慨가 없지 못한 일이다. 市內의 흐린 空氣가 이 고개에서 새 區域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世俗에서 靈界로 向하게한다. 路傍의 左右店鋪에 끌리던 우리 눈은 이 고개에서 道峯山과 三角山과 北漢山城을 바라보게 된다. 街路燈과 車의 頭燈에 휘황하던 우리 눈은 이 고개에서 大熊, 小熊星과 白鳥와 牧牛座들과 달빛과 惑星의 運行에 注意하게된다. 擴聲된 라듸오소리와 車輛의 磨擦소리에 神經을 傷하던 우리 귀는 이 고개에서 맑은 시내물이 바위에 부다처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우리고 비로소 傷處에 膏藥부친감을 얻는다.

아침에 元氣찬 몸으로 이 고개를 넘어 入市할 때는 自轉車를 밀면서 그날 行할 勇氣를 다시 한 번 가다듬고 그날 辨할 用務를 다시 한 번 記憶한다. 저녁에 疲勞한 몸으로 이 고개에 다다를 때는 롯이 서돔城을 떠날 때의 두러움이 없지 못하니, 하루 동안 有形無形의 危險에서 避한 일의 感謝와 무릇 天眞하지못한 일 寬厚하지못한 일 貪慾없지못한 일 等의 懺悔도 이 고개를 넘는 무거운 運步中에 자아낸다. 遊興自動車들이 警笛 울리며 다름질 할 때에 疲困한 聖朝誌配達군의 寂寞한 感慨와 잔에 넘치는 恩寵의 感激은 또한 各別한 것이 없지 않다.

— 성서조선 第 98 號 (1937年 3月)

1937년 1월 29일(금) 아주 맑음.

北漢山麓 一帶의 아침 雪景이 形言할 수 없이 아름다웁다. 해돋을 때의 陽光을 받은 北漢은 紫水晶 같기도 보이더니 이윽고 紫色은 물러가고 全山全洞이 白玉殿이오 水晶宮이다. 除雪하야 通路를 만들랴니, 외딴집이라 單獨負擔하는 區域이 많아서 全身에 땀이솟는다. 願

	컨대 終日을 이 雪景中에 앉어보내고 싶으나 職務에 끌려서 入市. 途中에 貞陵峴에서 自轉車 顚伏하니 此亦一興이다. 市內 아스팔트 道路도 모다 어름광판이라 處處에서 自轉車 친구들이 자빠지곤 서로 웃는다. — 김교신의 일기 1939년 1월 31일 (화) 맑음 山麓을 아침에 떠나 印刷所 - 總督府 - 貞陵里(原稿) - 印刷所 - 總督府 - 養正學校 - 印刷所 - 北漢山麓, 이렇게 뛰여다녔다. 二月號의 定期日 發送은 기어이 어그러지게 되였다. — 김교신의 일기 려퇴천 北漢山麓을 東南으로 흘러 貞陵里를 貫流하는 溪流를 淸水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輔國門쪽에서 흐르는 本流의 이름이오, 그보다 南쪽 補土峴편으로부터 큰골과 君子洞 골목의 물을 合하여 聖書朝鮮社의 前庭을 흘러 萬歲橋 우편에서 本流와合하는 南支流에는 이름이 없었다. 이 支流를 우리는 慮退川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름 없는 고개에 우리는 '想峴'이라는 이름을 주었거니와(本誌第九十八號參照), 이름 없는 시내에 무엇으로써 부를까고 우리는 오란동안 생각하였다. 水量이 많지 못하니 시내(小川)요, 앞에 흐르니 앞개천이라고 하였으나 그 맑게 흐름과 아름다운 물소리를 그 정도 俗된 稱號로 부르기는 未安스럽기도하고 合當치 못하기도 하였다. 지난 冬季集會에서 단테의 神曲을 工夫하다가 練獄을 지날 동안에 단테의 이마에서 七個의 P字가 消滅되어 淨罪山頂의 地上樂園에 들어설 때에 Lethe의 淸流에서 罪惡의 記憶까지 洗滌하였다는 場面에 臨하여 年來로 품고 있던 命名의 宿題가 閃光같이 解決되었다. 參席會員들의 協力으로써 Lethe에 漢字를 붙인 것이 慮退川이다. — 성서조선 第 145 號 (1941年 2月)
원천자료	『김교신전집』, 부키, 2001.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48	정릉동의 주인들 - 11	작성자	백외준
제목	정릉 북한학원(北漢學園) 설립 - 김교신의 정릉리 개척기 ⑤	키워드	정릉리, 북한학원, 참교육

이야기

1939년 10월 26일(수) 맑음.

새벽마다 다섯 시 못되여 藥師寺 중의 木鐸소리에 깨게 되니 고마운 警鐘이다. 오늘 새벽은 서리가 대단히 나리었다.
◦漢口突入의 號外 돌다. 監視 두 시간 外에는 全혀 聖朝誌校正에 沒頭하다. 夕陽엔 川邊雜草를 버이고 저녁엔 公廳에모여 靑年團員께 講話한 外 洞內 敎育問題 討議等. 敎育에 對한 洞民의 熱誠은 놀랄 만하다. 妨害하는 者만 없다면 山麓에서라도 참敎育을 해보련마는.

— 김교신의 일기

1939년 10월 31일(월) 맑음.

登校하야 처음에 漢口陷落祝賀式을 擧行하였다.
◦歸途에 明倫町에서 崔寶卿, 金順錦 두 姉妹와 會談. 貞陵里에 創立되는 北漢學園 先生으로 赴任하기로 承諾을받다. 이 重大한 責任을 敢當하려는 決心에 至하기까지의 心的(自我), 外的(骨肉親知) 苦鬪의 詳報를 듣고 感激을 禁치못하다. 이로써 余는 一個月 남은 동안 지고 있던 責任의 重荷를 벗은 것이오, 貞陵里 里民은 最低級의 學園에 最高級의 敎師 두 분을 모시게 되였다. 저녁에는 矯風會幹事會를 召集하고 承諾 얻은 報告를 하는 同時에 學園經營에 對한 確固한 決心을 가다듬게 하다.

— 김교신의 일기

1939년 11월 7일(월) 맑음.

洞內에 創立되는 北漢學園 開學日이어서 午前 九時 頃부터 崔, 金 두 분 先生이 大掃除하며 兒童의 入學手續, 接受하는일들을 助力. 養正學校에서는 今日부터 精神作興週間이 시작되여 五時間 授業後에 神宮 參拜.
◦저녁 七時半부터 北漢學園의 晝學夜學을 聯合한 開學式 擧行. 申込生徒 數 合計 四十名. 學父兄 及 洞民 多數 參席했으나 夜學婦人 大部分은 부끄러웁다고 不參. 余의 開會式辭 後에 學園 經營의 先輩인 宋斗用 兄의 祝辭 있은 것은 預期 못했던 幸福이었다.

— 김교신의 일기

1939년 3월 7일 (화) 흐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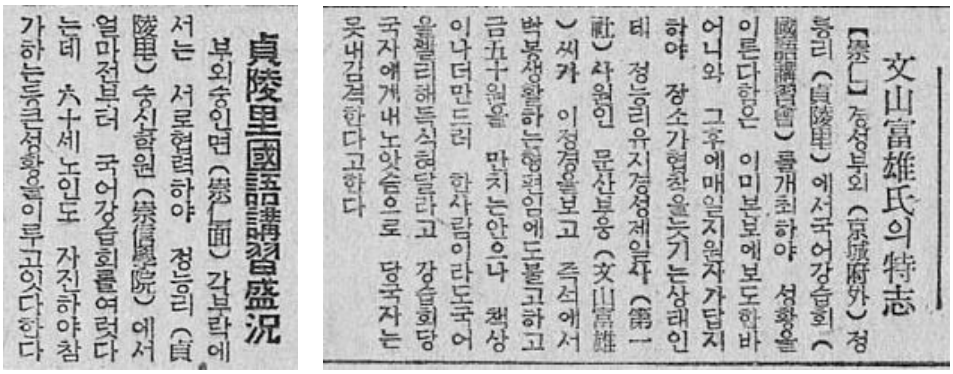
午前中은 北漢學園에서 臨時代理敎員 노릇하다. 算術敎授法도 알수없어서 敎師用 敎科書로써 一便 硏究해가면서 가르키랴니 어려웠거니와 아이들의 整頓이 안되여서 一時는 授業을 中止하고 天井을 바라보고 앉었기만 하였다. 이런 敎室에서 이런아이들을 가르키랴면 우리는 一週日도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四, 五個月 間이나 이 어려운 일 擔當해주신 두 분 先生께 깊이 感謝하지 아니치 못하다.

— 김교신의 일기

우리가 처음 이사갔던 시절의 이웃은 거의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은 소박한 경기도 본토배기 농부들이었다. 아버님은 농촌계몽을 위해 김 선생과 최 선생 두 분을 장기간 초빙까지 하셨고, 아버님 자신도 낮에는 동리 교회당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성인들을 모아 야학을 하셨다. 나는 아버님을 따라가서 아버님이 수업을 하시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였다.

— 김정혜 씨의 증언

원천자료	『김교신전집』, 부키, 2001. 김정환, 『김교신 - 그 삶과 믿음과 소망』, 한국신학연구소, 1994.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49	정릉동의 주인들 - 12	작성자	백외준
제목	‘참교육’과 ‘황국신민교육’ 사이에서	키워드	북한학원, 황국신민, 국어강습회, 숭신학원
이야기	김교신이 1939년 11월에 창립한 북한학원(北漢學園)의 신입생은 40명이었다. 김교신은 두 명의 여교사를 초빙하였는데 북한학원에 입학한 아이들은 두 교사로부터 한글과 셈법 같은 기초적인 교과를 배웠다. 김교신이 정릉리 주민들은 최저급 시설에서 최고급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쓴 것을 보면 북한학원에 대한 김교신의 만족감은 컸던 것 같다. 이와 같은 김교신의 헌신으로 정릉리 농촌에서는 심훈의 소설 『상록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서히 ‘배움’의 바람이 불었다. ‘방해하는 자만 없다면 이 정릉 산기슭에서라도 참교육을 해보’겠다는 김교신의 뜻이 곧 실현될 것처럼 보였다. 김교신의 의도한 것은 식민지 지배를 받는 한국인들을 일깨우기 위한 진정한 농촌계몽이었다. 그것은 김교신이 도시의 번잡과 식민당국의 간섭을 떠나 정릉리에 이사 온 목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정릉리에도 ‘방해하는 자’가 등장했다. 다름아닌 일제 식민 당국이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전쟁을 본격화하면서부터 일제는 한국인에 대한 교육 목표를 황국신민화로 정하고 민족말살교육을 강화했다. 모든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은 금지되었으며 오직 일본어만 사용해야 했다. 이러한 일제의 교육방침은 일반 성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초등교육을 받지 않아 일본어를 잘 모르는 성인 한구인들에게 일제는 일본어를 강습시켰고 이를 위한 ‘국어강습회’를 각 지역에서 열었다. 정릉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릉리 주민들은 반강제적으로 강습회에 나가 일본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자연히 북한학원과 같은 자립적 교육기관으로 향하는 발길은 뜸해질 수밖에 없었다.  貞陵里國語講習盛況 부외숭인면(崇仁面) 갑부락에서는 서로협력하야 정릉리(貞陵里) 숭신학원(崇信學院)에서 얼마전부터 국어강습회를여럿다는데 六十세노인도 자진하야참가하는등큰성황을이루고잇다한다 文山富雄氏의特志 【崇仁】 경성부외(京城府外) 정릉리(貞陵里)에서국어강습회(國語講習會)를개최하야 성황을이룬다함은 이미보보에도한바어니와 그후에매일지원자가답지하야 장소가협착을늣기는상태인데 정릉리유지경성제일타(第一社)사원인 문산보웅(文山富雄)씨가 이정경을보고 즉석에서 밤봉생활하는형편임에도불고하고 금五十원을 만치는안으나 첫상이나더만드러 한사람이라도국어을빨리해득식혀달라고 강습회당국자에게내노앗슴으로 당국자는 못내감격한다고한다		
원천자료	『매일신보』 1941. 5. 30, 7. 2.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국어강습회 소식을 전하는 매일신보 기사. 1941. 5. 30(좌), 1941. 7. 2(우)>

No. 50	정릉동의 주인들 - 13	작성자	백외준
제목	이남덕의 회고담 - 1950년 정릉의 여름 ①	키워드	손가장, 이남덕, 김성칠, 부부, 6.25
이야기	이남덕(李男德, 1920-2012)은 우리말 뿌리 찾기에 평생을 바친 국문학자로서, 1958년부터 이화여대 교수로 있으면서 국어의 어원을 계통적으로 정리하고, 국어와 일본어의 연관성을 밝혔다. 이 교수는 1993년 한국 전쟁 중 목숨을 잃은 남편 김성칠(金聖七, 1913-1951)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일기를 『역사 앞에서』(창작과비평사 펴냄)로 묶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역사 앞에서』는 해방 전후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의 점령을 받던 서울의 모습을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포착한 한 지식인의 에세이이자, 당시의 시대상을 증언하는 사료로 평가 받는다.  <『역사 앞에서』 초판 표지> 경성제대 재학 시절에 처음 만난 이남덕과 김성칠은 1944년 충북 봉양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해방을 맞아 상경한 후 1947년 봄 김성칠이 서울대 사학과 조교수 취임한 뒤 정릉리 362번지로 이사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피난길에 오르지 않은 이남덕과 김성칠의 가족은 정릉리에 남아서 북한군의 서울 점령을 목도하고 이른바 '인공치하'의 서울 생활을 경험하였다. 당시 김성칠은 강의마저 할 수 없게 돼 가끔 걸어서 서울대학교와 도심을 왕래할 뿐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손가장 자택에서 숨어지내야 했다. 김성칠은 이때 자신의 신변은 물론이고 정릉 일대와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 일기로 남겼다. 이것으로 우리는 오늘날 1950년 여름 정릉 일대의 대략적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사 앞에서』 뒷부분에 실린 추모의 글에는 김성칠의 아내 이남덕 교수의 회고담이 실려 있는데 이 교수의 기억은 김성칠이 기록하지 않은 사건도 많이 담고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유난히도 가물었던 1950년 여름, 손가장과 정릉리 사람들이 겪었던 한국전쟁의 실상이 눈으로 보듯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던 시절 정릉 사람들이 어떻		

게 참혹한 전쟁을 이겼냈는지 오늘 우리는 이남덕의 회고를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은 이남덕의 글 「조국 수난의 동반자」 중 일부이다.

이 돈암동 집에는 다음해(47년) 봄에 정릉리로 이사가기까지 1년 남짓 살았을 뿐이다. 농촌 출신인 그는 흙을 만질 수 없는 서울 거리의 생활은 견딜 수 없는 모양이었다. 둘째 기목이는 정릉리 아랫마을에서 그해 가을에 출산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 윗마을로 다으해 이사를 해서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났던 때는 통칭 손가장이란 마을(정릉리 362번지)에 살고 있었다.

손가장이란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손(孫)씨 성을 가진 동족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는데, 돈암동에서 북쪽 아리랑고개를 넘으면 북한산을 배경으로 남향판으로 앉은 마을이 멀리 보인다. 아리랑고개를 넘자 길가에 정릉 본동네가 나오고 그대로 냇물 따라 올라가면 지금의 북악터널 쪽으로 가는 길은 배밭골이지만 오른편으로 지서(파출소) 앞 냇물(沙斤川) 다리를 건너면 소위 청수장(淸水莊: 일제 때 요리집 이름) 계곡으로 가는 길이다. 맨처음 이사 온 집은 지서다리 건너자 몇 가호 사는 중에 한 집이고(우리는 여기를 아랫마을이라 불렀다. 우리가 살던 집에 나의 친정이 이사 왔기 때문에 자주 왕래하게 된다) 여기서 청수장 쪽으로 배밭을 지나 두갈랫길에서 다시 왼편길로 비스듬히 내려서면 사근천 냇물을 건너 손가장 마을로 들어서는 돌다리가 나타난다. 아랫마을에서 손가장 마을로 오려면 양옆으로 배밭들을 지나는데 오른편에 있는 한 과수원을 사고, 거기 방 두 개짜리 조그만 농막도 지었는데 일기에 나오는 '밭엣집'이란 이 건물을 말한다. 거기를 우리가 농막으로 지어서 썼지만 홍승기 씨 댁이 동란 전부터 9.28 수복 전까지 살았던 것은 일기에 나온다. 나는 지금도 홍씨 부인 윤자 어머니의 부드러운 인품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식구가 이사 온 손가장의 마을집은 크게 농사짓던 지주(?)의 집이라 했다. 안채, 사랑채, 문간방, 그리고 광채 이런 건물들이 입구(口)자로 된 전형적인 한옥이었다. 대문 앞에는 채마밭도 있고 담 안도 넓어서 우물도 있고 닭장도 넓게 자리잡을 수 있었다. 문간방에는 고향에서 올라온 김종옥(金鍾沃)과 그 학교 친구인 박순규(朴淳圭) 두 학생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는 전쟁이 나자 몰아세우듯이 각각 자기들 고향으로 내려보냈다(6월 27일).

건물이 컸던 이유로 해서 전쟁 중 덕을 본 점도 있었다. 보통때는 항상 대문을 열어놓고 살기에 초인종이 없어도 찾아온 손님이 대문 못 열어 되돌아가는 일은 없었지만 전쟁중 밤 시간에는 특히 9.28 수복 직전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마을 유지들을 개울가에서 총살한다는 소문(소문이 아니라 실지 처형인 경우도 있었다. 9월 24일자 참조)이 있을 때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9월 11일 밤에 인민군 장교 반찬을 위해 우리집 오리 공출이 있었는데 그때도 대문을 어찌나 요란하게 오래 두드리는지 안 열어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도안 그와 경희 씨(6촌 시동생) 두 남자가 마루 밑이나 댑싸리나무 그늘로 숨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집이 커서 인민군 소대 16명이 주둔하는 어려움도 겪었고(9월 17일~20일 사이), 수복 후에는 국군이 우리 집에 들어와 머무르기도 했다.

나는 이 넓은 집에서 양계도 한다고 씨름도 하고 염소·토끼·오리 등을 키운다고 눈코 뜰 새 없는 농가 생활에 골몰하던 중인데 전쟁을 맞이하여 내 사무는 보통 바쁜 것이 아니었다. 개를 위시한 위에 든 동물 가족들을 건사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직장에서 떨려난 남편과 육촌 시동생의 신변 보호에도 내가 방패막이 노릇을 안할 수가 없었다. 그해 2월에 낳은 셋째 기협이를 등에 업고 마치 그 아이가 내 수호신이나 되는 것처럼 마을에서 나오라는 무슨 회의·모임·작업 동원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쫓아다녀야 했다. 나는 그때 옛날식 낭자머리 쪽을 찌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내가 학교 공부를 한 신식여성(?)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만일 내가 똑똑한 신여성으로 보였다면 영락없이 여맹(女

性同盟)감어리였다.

인간 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은 전쟁 중에는 특히 필요한 일이다. 마을에서 인심을 잃는다던가 이웃과 화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결점이다. 나는 그를 따라 몇 군데 이사를 다니면서 이웃과의 화목의 길을 배웠다. 새로 이사를 가면 이웃집을 위시해서 근방 몇집에 약간의 선물(그때는 빨랫비누 같은 것이었다)을 돌리며 새로 이사 들어온 아무개네라고 아이들 이름을 대며 인사를 돌았다. 또 손가장 마을에 들어가서 첫해에 토끼 몇 쌍을 키웠는데, 새끼가 나오는 대로 좀 키워서 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어서 키우게 하였다. 마음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하는 중에 서로 가까워지고 음식도 별식만 있으면 오고가고 하게 되면 이웃사촌이 되는 것이었다. 앞집 한분네나 그 옆에 사는 광기네 할머니는 무시로 드나드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전쟁이 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날(그의 일기를 보니 7월 25일자), 우리 반 반장이자 일용품이나 찬거리를 사오는 가겟집에 정숙이가 채소 사러 나갔다 오더니 가겟집 부인한테 혼이 나서 들어와 울상으로 보고하는 것이었다. 반장집 가게에 가서 '다마네기'(둥근파・玉葱)를 달랬더니 "그런 말 쓰려거든 이승만이 따라가지 왜 안 갔는냐. 반동분자네 아이라 다르다"고 고함을 치더라는 것이다. 정숙이가 또 똘똘한 아이라 말대꾸를 했는데, 우리집이 왜 반동분자네 집이냐고 대들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잠깐 동안 생각을 했다. 그 때에는 '이승만'이나 '반동분자'란 단어는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말이었다. 마침 남편은 외출하고 집에 없고 그 반장네는 지금 이 동네에서 기세가 당당한 '민주가정'이고 앞으로 닥칠 박해를 생각하니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반동분자로 당할 바에야 가만히 있어서 당하나 나가서 싸워서 당하나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차라리 아주 첫밖에 이쪽에서 강하게 반격하면 안 당하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격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지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한만큼 김도 샐 것이고 그동안은 '반동분자'인 것을 용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즉각, 반격'으로 나가기로 했다. 내가 일조에 싸움패 철학으로 무장을 한 것이다.

정숙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보니 조금 전에 가겟집 소란이 꽤 컸던지 아직도 사람들이 가게 앞에 모여 있다. 거기에 이 반격의 장군이 등장을 한 것이다. 어디서 그런 야무진 소리가 나왔는지 "아이가 모르고 다마네기라고 했기로서니, 반동분자가 무슨 뜻이냐?" 고함을 치고 대들었더니 고만 뒤로 비슬비슬 물러나고 구경꾼들만 모여들었다. 본래 저쪽 말문을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는 치기만만한 개선장군이 되어 집으로 들어왔다. 그가 돌아오다가 보니 가겟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내가 자못 비분강개조로 사건의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한창 서슬이 푸른 반장댁 비위를 건드렸으니 큰일이라고 했다.

사람이 전쟁을 치르면 싸움패도 되고 거짓말쟁이도 되나보다. 반장인 이윤기 씨는 이제 이 마을 전체의 동장(洞長)으로 승격했고, 위의 반동시비가 있던 다음날은 우리 마을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동란 전에 지하운동으로 감옥에 들락날락했다는 그의 두 아우와 또 누이동생들의 후광으로 그는 나중에(9월 12일) 고양군 전체에서 한 사람만 뽑는 인민심판관(배석판사)으로 선출되기까지 했다. 사람은 무던한 편이라 하겠지만 이렇게 승승장구 출세를 하게 되니 자연히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았다. 길에서 만나면 그전보다 자세가 뻣뻣해진 듯하고 한마디 "김교수님은 통 못뵙겠어요" 하면 나는 천연스럽게 "요즘 집에 없어요. 평양으로 강습 갔어요" 하는 것이다. 아침저녁 출퇴근 때마다 길에서 만나던 사람이 통 만나지 않게 되니 저쪽에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다락에 숨어 지내는 사람을 평양 강습 갔다고 술술 거짓말이 나올 수 있는 나도 너무나 당연하다. 그들이 9.28 수복 전에 도망을 갔기에망정이지 그 기간이 더 길었더라면 탄로날 것은 자명한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야 했다.

나는 이런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식구들의 먹을거리를 찾아 헤맸다. 우선 농촌에 살고 있다는 게 서울시민에 비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해 호박 농사를 열심히 했던 덕택으로 시내에 살고 있는 친척이나 친지에게까지 나누어줄 수 있어서 여간 다행히 아니었다. 불문과의 손우성 선생님도 그 자제분을 이 호박 메신저로 보내시곤 했던 일이 생각난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박죽으로 연명했는데 말이 호박죽이지 호박잎을 주재료로 한 호박시레깃국에 혹간 쌀이 보이는 그런 멀건 죽이었다. 아이들이 이 호박죽이 상식(常食)이 되자 영 먹지 않고 먹으라고 강권하면 울음을 터뜨리는 데 애를 먹게 된다.

8월 18일 일기에서 나(이남덕)는 고구마가 대용식이 될까 해서 배오개(동대문)장에 다녀온 것을 기록하고 있다. 장에서 영식 어머니란 아는 사람을 만난 얘기. 남편이 이번 해방 직전에 화물자동차를 갖고 제천 방면으로 떠났는데 거의 두 달이 되는데도 안 돌아온다고 네 아이 먹여 살리려고 벌이를 나섰는데 그 벌이라는 것이 돈암동고개에 서서 서울장으로 들어오는 곡식을 맞받아 사가지고 장에 넘기는 일인데 잘해야 보리쌀 오홉 한되 벌이라 한다. 그거나마 가지고 들어가야 호박국에 한줌씩 넣어서 죽을 쑤어서 다섯 목숨을 이을 수 있다고 한숨짓는 것이었다.

그해 여름은 가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몹시도 길고 짜증스러웠다. 날마다 강습이요, 선거요, 시위요, 노래요 하면서 집회 때문에 안 모이는 날이 없었는데 가장 괴로운 것은 작업에 동원되는 일이었다. 집안식구 먹거리를 찾아서 조반석죽이나마 끼니를 이어나가는 일도 힘에 겨운데, 그리고 폭격이 계속되는 속에서 아이들 옷만이라도 보따리에 챙겨놓고 여차하면 (어디 정한 데도 없건만) 도망갈 준비에 정신이 없는 판에 작업 동원령이 내리면 가장 괴로운 일이었다. 폭격이 하도 심하니까 정릉(貞陵) 안에서 인민위원 선거를 한다는 때도 비행기가 안 뜨는 식전 새벽 시간에, 그리고 해가 뜬 다음에는 잔디밭에 사람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나무그늘에 숨다시피 해서 선거 회의를 가졌는데, 일선 장병들의 옷이나 붕대 작업은 그래도 집안에서 하기 때문에 징발된 '반동인사'(우리 마을에서는 장직상 씨네 별장이 충당되었다)네 집안에서 할 수 있었지만 의용군 나간 집의 농사는 마을 사람들이 대신 지어주어야 한다고 비행기 안 뜨는 밤중 시간에 동원되는 것이었다. 남자들은 지휘하는 완장 두른 책임자들뿐이고 대부분 부녀자들이 동원되었다.

(유엔군의 인천상륙설이 전해지자) 북으로 가는 사람들은, 주도로인 미아리 고갯길은 사람과 화물이 꽉 차 있으므로 정릉리 이 계곡을 빠져나가 우이동·의정부로 해서 북향하려고 그 며칠 동안은 밤에도 쉴새없이 대문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기척이 끊이지 않았다. 광기네 집 마루에서 하룻밤 쉬어간 이들 일행 중에는 의사들도 있는 듯 의학에 관한 외국어 책을 떨어뜨리고 가기도 했다. 기술자·의사·예술가 들은 강제로 납치된 경우도 많았다.

마을에선 마을대로 '반동인사'들의 총살설이 떠돌아 민심이 흉흉하더니 그 첫 희생자로 유치원댁 주인이 개울가에서 학살당했다. 죄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수가 많아서 모두 다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 밤이면 박격포 소리가 밤새 청수장 계곡을 박살을 내듯 터지는 소리가 계속되고 서울 시가전의 불길은 치솟아오르고, 그런 속에도 우리 마을을 지나서 북한산으로 빠져나가는 북향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서울이 수복되자) 정릉리 마을에는 이때에 인민군에 대한 미군의 소탕전이 벌어졌다. 우리는 꼼짝없이 길 위에서 변을 만난 셈이다. 나는 길가 밭언덕 밑으로 아이들을 엎드리게 하고 콩볶듯이 빗발치는 탄환 소리 밑에 몇 시간을 머리를 땅에 처박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내 목숨이 살아난 것이다. 아이들도 끽소리 안하고 참는 것이 신기했다. 집에 오니 그 역시 총알이 사랑방 벽을 뚫고 들어와 문갑 위에 놓았던 잉크병을 깨뜨리고 머리 위를 지나는 바람에 혼은 났겠지만 무사해서 목숨은 건진 셈이다.

	9.28 수복이 된 후에도 손가장 마을은 바로 북한산 밑이라 미처 북으로 도망가지 못한 인민군 유격대들이 밤이면 내려와서 총격전을 벌이고 미군들의 희생자도 내었다. 이 가까운 거리에서의 총격전 때문에 항상 이불을 바깥벽 쪽으로 쌓아놓고 식구들은 그 밑에 머리를 두고 잤다. 100만의 중공군이 남하한다는 뉴스에 온 장안이 물끓듯했다. 6.25 때에는 비행기 폭격이나 비오듯 퍼붓는 총알이나 안 맞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이지만 100만의 사람으로 내리밀리는 이번 전쟁에서는 학살과 능욕과 같은 것에 대한 공포감이 앞섰던 것이다. 우리는 사흘 뒤인 13일에 피란짐을 꾸리고 집을 두고 떠났다. 우선 서울시내에라도 나와서 차편을 기다려보자는 것이었으니 심란하기 이를 데 없었다. 손가장 마을을 떠날 때 겨울 맞은 북한산이 더욱 수려해보여 몇 번이고 되돌아보았다.  <김성칠, 이남덕 부부와 세 아들. 이남덕이 안고 있는 아이는 삼남 김기협(역사학자)>
원천자료	「원로 국문학자 이남덕 전 이화여대 교수 별세」, 프레시안 2012. 9. 7. 이남덕, 「祖國 受難의 同伴者」, 『역사 앞에서』, 창작과비평사, 1993.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51	정릉동의 주인들 - 14	작성자	백외준
제목	김성칠의 일기 - 1950년 정릉의 여름 ②	키워드	정릉리, 김성칠, 북한군 점령, 인민위원회
이야기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어도 김성칠은 미처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아니 빠져나갈 새가 없었다. 북한이 남침을 시작한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연신 서울은 안전하다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김성칠은 굳이 서울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북한군의 남하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기 때문에 더욱 오래 생각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집에 기거했던 제자 둘만 고향으로 떠나보낸 김성칠은 가족과 함께 정릉집에서 북한군의 서울 점령을 지켜봐야만 했다. 김성칠은 정릉과 돈암동을 오고 가면서 미아리고개를 넘어온 북한군의 탱크가 돈암동 시가지를 가로질러 동소문 안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정릉 자택에 돌아온 김성칠은 이웃집과 마찬가지로 직접 인공기를 그려 대문 앞에 달아야 했으며, 정릉 정자각에서 열린 인민위원회 선거에 참여해 투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해 여름, 김성칠 가족과 정릉 사람들은 꼼짝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된 때가 1950년 9월 28일이니 김성칠 가족과 정릉 주민들은 꼬박 석달 동안 북한 체제에 순응하며 살았던 것이다. 김성칠의 일기에는 그의 가족 뿐 아니라 당시 정릉동 사람들의 일상이 세밀화처럼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그의 일기 중 정릉동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인용한 것이다. 1950년 6월 27일 마을에 나가니 골목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술렁술렁하다. 모두들 전에 없이 긴장한 얼굴들이다. 강군의 가게에 들러서 외상값을 치르고 계란과 국수와 술과 담배와 과자를 얼마쯤 샀다. 마음 같아선 가게에 있는 물건을 많이 들여다놓고 싶었으나 남의 이목이 번다해서 조금씩 사렸는데 계란 같은 건 강군 내외가 권해서 많이 들여왔다. 농성(籠城)할 준비다.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한 시간 전까지도 골목길에 어슬렁거리던 사람들이 낮때가 가까워질 무렵엔 이미 파란 보퉁이를 꾸려들고 아이들을 들쳐업고 마을 앞 행길을 빠져나가고 있다. 미처 진지(陣地)를 구축할 겨를도 없이 앞산에선 대포를 걸어서 불을 뿜고 있고 전선(前線)에서 물러나온 병정들인 듯 모자에 풀을 담뿍 꽂은 군인들이 한두 사람씩 산골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보인다. 그들의 맥빠진 몰골로 하여 모든 것이 짐작이 가지만 북에서 수없이 밀려내려오는 탱크는 이쪽 대포알이 아무리 명중(命中)하여도 움쩍도 않는다는 그들의 보고 온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가슴에 불안의 납덩이를 던져주고 가는 것이다. 우리도 생각다 못하여 정용이 가는 편에 아이들을 붙여 보내고 아내도 겨우 백날이 지난 협아를 업고 나섰다. 아내는 떠나면서 부풀어오른 감정을 억제하고 강잉히 웃어 보여주었다. 나도 웃으면서 아이들을 조심하라 일렀다. 이때는 이미 산등성이마다 병정들이 진지를 다지고 지향을 잡을 수 없는 포화(砲火)가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나는 안어른에게 아이들을 가보아야겠다 하고 미처 붙잡을 사이도 없		

이 미끄러지듯 그곳을 빠져나와서 성북동임직한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산비알은 걷고 등성이에선 기고 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렬로 늘어선 총부리와 총부리를 사이를 더듬어서 겨우 성북동 골짜기로 접어들었다. 날은 이미 기울고 비조차 부슬부슬 내리어 나는 다급한 마음에 삼선평(三仙坪) 전찻길까지 한달음에 뛰어갔다. 전찻길에는 군용 자동차가 쏜살같이 달리고 길 양편에는 사람들이 성을 쌓다시피 모였다.

이윽고 자동차의 통행이 뜸하고 양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에 전찻길을 넘어설 양으로 앞으로 내달았더니 뜻밖에 길에 지키고 섰던 군인이 총자루로 내 옆구리를 힘껏 내지르고 서북(西北) 사투리로 무어라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너무 아파서 말이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고꾸라질 뻔하였으나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섰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사람의 성이 허물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전찻길을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물결에 밀리듯 그 틈에 끼여서 앞으로 내달았다. 걸리는 쪽으로 몸을 비틀어서 역시 달음박질로 정용의 집까지 닿았을 제는 기진맥진하였으나 그래도 가족들의 무사한 얼굴들을 대하니 저으기 마음이 놓이었다.

그러나 문득 치어다보니 맞은편 낙산(駱山) 성벽을 의지하여 아군(我軍)의 대포가 자리잡았고 산 위엔 병정들이 즐비하게 깔리어있다. 저편의 대포알이 필시 이 포진지(砲陳地)를 겨냥하여 날아올 것을 생각하니 그 바로 앞자락인 정용의 집으로 온 것은 그야말로 대포알 마중하러 온 것이나 진배없다. 아내와 이 일을 의논하고 경동중학 앞 이극원(李克垣) 씨 댁으로라도 옮아갈까 하는 참에 어디선지 대포알이 휭하니 날아와서 흙먼지를 말아올리고 그러고는 거리에 사람의 그림자가 끊어졌다. 우리는 마침내 이 위험지대에서 난리의 첫날밤을 새우게 되었다.

어둑어둑할 무렵부터 비는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고 대포알은 쉴새없이 머리 위를 날고 있었다. 휘잉 하고 하늘을 찢는 듯 공중을 나는 소리, 이어서 탕 하고 포탄의 터지는 소리, 저것이 백에 한번 추호라도 겨냥을 잘못하면 우리는 죽을 운명에 놓여 있다 생각하니 듣기에 그리 유쾌한 음성이 아니었다. 안권식은 아이들을 데리고 마루 밑 지하실로 들어가고 자형과 나와 정용이는 부엌바닥에 거적때기 깔고 누웠다. 메루(개)가 대포 소리에 놀라서 자꾸만 우리들 사이로 파고들어서 난처하였다.

1950년 6월 28일

낮때쯤 하여 아이들을 앞세우고 돈암동을 떠나 집으로 향하였다. 거리에는 이미 붉은 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학교 깃대엔 말로만 듣던 인공국기(人共國基)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되넘이고개를 넘어서 동소문을 향하여 탱크며 자동차며 마차며 또 보병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그들은 비록 억센 서북 사투리를 쓰긴 하나 우리와 언어 · 풍속 · 혈통을 같이하는 동족이고 보매 어쩐지 적병이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디 멀리 집 나갔던 형제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오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그들이 상냥하게 웃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적개심이 우러나지 않는다.

아리랑고개엔 국군이 버리고 간 대포가 미아리고개를 향하여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집에 돌아오니 비루가 내달아서 반겨 맞이할 뿐 별다른 이상(異狀)이 없었다. 길거리엔 더러 벽이 뚫어지고 유리창이 부서진 집들도 보였으나 밤새 볶아친 샘치곤 인명에나 가옥에나 그리 큰 피해 없음이 다행한 일이었다. 피란 갔던 마을 사람들도 한창 돌아오는 중이었다. 모두들 서로 죽었다 새로이 살아난 사람들처럼 무척 반가워하였으나 시국이라든가 정치에 대해선 입을 봉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저녁 무렵엔 이미 붉은 완장을 차고 거리를 왔다갔다 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어제까지 대한청년단(大韓青年團)의 감찰부완장을 차고 자전거를 달리던 청년도 섞여 있었다.

1950년 7월 2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반 반장집안이 인공국에 대하여 대단한 열성분자들이고 따라서 20호(戶) 반장에서 승격하여 2백호 온 마을 일을 보는 구장(區長)이 되었다한다. 그래서 그런지 동회(洞會) 사무실 앞을 지나다 보면 그전 구장(區長) 성윤길(成允吉) 씨는 보이지 않고 반장 이윤기(李允基) 씨의 얼굴이 언제나 보이곤 한다.

1950년 7월 3일

집마다 인민공화국기(人民共和國基)가 나부끼고 있다. 혁명(革命)과 해방(解放)을 상징한다는 붉고 푸른 바탕 속에 붉은 별이 반짝이는 이 기폭이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의 동경의 표적이었던가, 또 증오의 과녁이었던가.

나도 붉은 잉크와 푸른 잉크를 내어놓고 공화국기(共和國基)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우리 집 대문간에 달기 위하여서다. 윗집 기가 혹시 격식에 틀리지나 않았을까 해서 일부러 동회 앞에까지 가서 눈여겨보고 와서 그렸다. 그리면서도 아내와 서로 보고 멋없이 웃었다. 아침 저녁으로 국기를 고쳐 그려야만 하는 우리 신세를 자조(自嘲)함에서였다.

집마다 대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거니, "영명한 우리의 지도자 김일성 장군 만세"라거니, "세계 약소민족의 벗 스딸린 대원수 만세"라거니 하는 표어가 붙어 있다. 너무 판에 박은듯해서 이것마저 남의 것을 보고 베껴올 생각은 차마 나지 않는다. 꼭이 붙여야 한다면 어떠한 문구가 좋을까.

"우리의 힘으로 남북통일이 될 것을 기뻐한다"든가 "부지런히 일하면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을 기대한다"든가 하는 문구들은 어떠할까.

1950년 7월 11일

앞뒷집이 모두 굶는다는 소문이고 온마을이 그런 것 같다. 넉넉한 마을 같으면 미리 준비하여 갈무려 둔 곡식도 있고, 또 정 없으면 옷가지라도 들고 나가 팔아서 만 원짜리 쌀이라도 바꿔다 먹을 수 있을 터인데, 우리 마을같이 가난한 마을은 참으로 딱한 형편이다. 보리농사라도 조금씩 한 집이 더러 있어서 망정이지, 그렇지도 않았다면 이미 어느 지경에 갔을는지 모를 일이다.

1950년 7월 15일

경신(儆新)학교 뜰에서 농민조합 창립총회가 있다 하여 아내가 참석하였다. 이즈음은 무슨 모임이 있으면 부인네가 나서는 것이 버릇처럼 되었다. 다른 목적으로 모였던 회합이 곧잘 궐기대회로 변하여 그 자리에서 의용군을 뽑아 보내게 되므로 백성들은 이제는 다 눈치를 알아채고 무슨 모임이든지 집회에는 노인이 아니면 여자로 판을 친다. 젊은 남자가 몇 명씩 끼긴 하지만 이는 다 충분히 신분이 보장되는 사회자나 및 그 프락치들이다.

1950년 7월 26일

이른바 각급 인민위원회 선거라 하여 신문으로 라디오로 가두선전으로 또는 집회를 통하여 그토록 선전하던 인민위원회 선거가 우리 마을에선 오늘 있었다.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

	로 우리의 대표를 우리 손으로 선거한다 하여 민주선거, 민주선거 하고 이에 신물이 나도록 들어오던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내 눈으로 보아서 비로소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인민공화국 백성이 된 덕분이다. 얼마 전부터 정릉리의 선거는 27일에 행한다 하여 벽보도 붙고 임시인위(臨時人委)에서 계몽선전도 하고 다니기에 어떠한 사람이 입후보하는가 싶어서 자못 흥미를 가지고 보아왔는데, 입후보자가 미리 발표되기를 기대한 것은 내가 민주선거의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이요, 27일에 있다는 선거가 25일 오후에 가서야 26일 오전 다섯시에 당겨서 한다고 갑자기 발표되었다. 꼭두새벽에 그도 정릉의 산속에서 한다는 건 뙤약볕도 피하고 비행기도 피할 목적이라 수긍되지만, 시일을 이랬다저랬다 해서 무엇을 꺼리는 듯한 눈치가 보임은 무슨 까닭일까,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느니보다 치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느 영(令)밑이라 기권(棄權)을 할손가. 이날 새벽 아직도 어두울 무렵에 반장이 대문을 두드리고 얼른 나오라고 독촉이 성화 같다. 아직 잠도 안 깬 어린것들을 업고 안고 일가 총출동으로 나갔다. 마을이 모두 비다시피 하고 정릉의 산골로 향하였다. 이리하여 다섯시 정각 전에 일만수천 명의 유권자가 능 앞 풀밭에 모였다. 인원 점검이란 나올 때 반장이 이름 쓴 종이쪽들을 나눠주는 걸 갖고 와서 선거장 어귀에 내면 그만이다. 이 종이쪽을 내는 것이 선거권 행사를 표시하는 유일한 증좌인 듯, 회장은 아무런 질서가 없이 빽빽이 앉고 서고 하였을 뿐이다. 혹은 폭격이 염려스럽기도 하고 더러는 집에 아이도 두고 온 모양이어서 슬금슬금 뒤편으로 빠져나가는 축들이 있건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모양이다. 이리하여 유권자 전원 참집의 성황리에 역사적인 민주선거의 막은 열리다..... 이건 인민보(人民報)의 대서특필하는 문구다. 정자각(丁字閣) 앞에 무대가 설치되고 먼저 사회자의 인사가 있고 어떤 젊은 친구의 경과보고에 들어가 국제정세 해부의 기다란 허두에 비롯하여 조선의 최근세사에 관한 장황한 설명이 있고, 끝으로 강도 미제의 사주로 말미암아 6.25를 기하여 그 주구 이승만 매국도당이 동족상잔의 불집을 터뜨려서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인민공화국으로서도 마침내 이를 반격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 이때 내 주위에서 무심코 실소(失笑)하는 젊은이가 있었다 - 오늘날 영광스러운 이 선거에 이르렀노라는 긴 경과 보고서를 읽는 것이 장근 30분이 걸렸다. 인민가요의 합창이 끝난 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일성 장군과 스딸린 대원수의 만세삼창으로 역사적인 민주선거를 끝막았다. 선거 중에도 몇 번이나 미국 비행기가 하늘에 떴으나 다행히 폭격은 없었고 정자각의 기둥에 커다랗게 붙여놓은 김일성 장군과 스딸린 대원수의 초상이 종시 우리를 지켜주었었다.
원천자료	김성칠, 『역사 앞에서』, 창작과비평사, 1993.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52	정릉동의 주인들 - 15	작성자	백외준
제목	폐허 위 재건의 몸부림	키워드	전후, 1950년대, 공영주택, 동방주택, 무허가 판자촌

이야기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서울로 모여들었다. 전쟁 당시 한 때 60만명으로까지 인구가 감소했던 서울은 수복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1953년 휴전 이후부터는 매년 10만명 넘게 불어났다. 피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수리, 보수하고 정부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에게 주택을 지어주었지만 서울의 주택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당해 낼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1955년부터 이승만 정부는 늘어난 서울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영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이때 세워진 공영주택은 자금 출처 및 건축목적별로 부흥주택 · 재건주택 · 시범주택 · ICA주택 등 그 명칭도 다양했다. 공영주택은 주로 서울의 외곽 농촌 지역에 들어섰다. 성북구의 정릉동과 안암동이 대표적이었으며 서대문구 창천동, 홍제동, 행촌동, 동대문구 휘경동, 회기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성동구의 행당동 등에 공영주택이 들어섰다. 한적한 촌락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택이 들어서자 버스 노선이 신설되었고 상하수도가 들어갔다. 이에 따라 주변 산등성이에 다수의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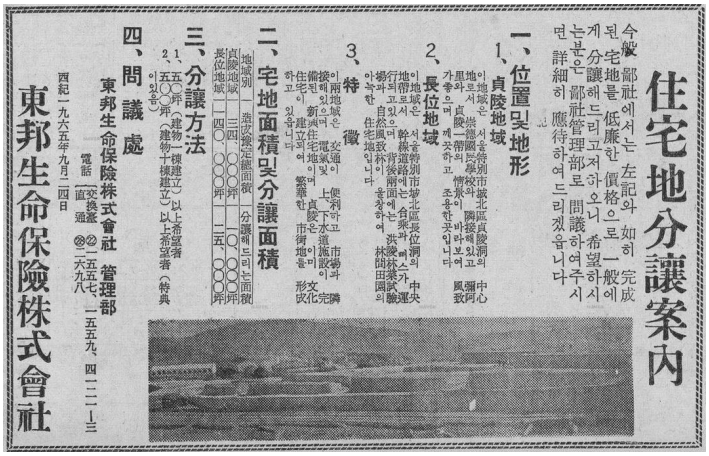
1950년대에 세워진 공영주택은 일제강점기 유행했던 개량한옥의 양식보다는 새롭게 고안한 주택양식으로 지어졌다. 부엌과 화장실 이용에 편리성을 더하고 침실과 거실을 분리한 서구의 주택양식을 따랐다. '문화주택'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불리게 된 새로운 주택양식은 곧 일반화되어 1960-70년대를 풍미하였다. 정릉동에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양식으로 지어진 집이 몇 군데 남아 있다.

정릉4동에 살고 있는 이종철 씨(이은숙 여사의 아드님)는 어린 시절 공영주택을 짓는데 고용된 인부들의 모습을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맨 처음에 정릉 여기는 전부 산이었어. 그리고 내가 태어난 데는 저 비탈, 길음시장 앞쪽 지금 정릉 1동에 집이 있었어. 거기 집들도 여기 AID차관으로 지은 집들이랑 비슷해. 거기서 태어나서 장교동에 있는 외할아버지집에 한 2년인가 살다가 61년쯤에 여기로 이사왔어. 요 근처에만 50가구 있었어. 요 앞에 보이는 집들을 동방주택이라 그래요. 2층 슬라브집들 쫙 있는거. 그거는 삼성에서 개발한 거야. 동방주택은 그 당시에 부촌이었어. 지금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 첨부터 2층 슬라브집에 대지가 200-300평 되는 저택들이 개발된 지역이야. 우리 어렸을 때는 산을 다 깎는 것을 봤지. 산 깎는 거 보면 불도저 가지고 산을 왼종일 깎아. 요새는 평탄작업 하는데 불도저, 포크레인만 가지고 미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사람이 했어. 동방주택 올라오는 길 있잖아. 그 길 저쪽은 삼양동 쪽 산동네야, 요즘말로는 달동네지. 거기에 무허가 판자촌들이 있었어. 거지들이 많았지. (동방주택 짓는) 인부들이 다 거기 사람이야. 철도레일을 이렇게 놔가지고 흙을 이렇게 해서 죽 밀고 와. 여자들은 바구니에다가 돌멩이 쫀 거 들고가서 붓고. 한쪽에서는 바위에 구멍 뚫어서 다이너마이트 터뜨리고. 그걸 우리가 구경했지.

— 이종철 씨의 증언

증언에 따르면 당시 공영주택은 중산층과 부유층을 위해서도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강남의 초고층 아파트가 부유층을 위한 집단 주거 양식이듯이 말이다. 그 뿐 아니라 공영주택을 지은 사람들은 공사장 부근에 산동네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였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도시 빈민들은 교통이나 수도시설 때문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공영주택이 들어서는 땅 옆으로 이사를 와야 했다. 당시 맨손으로 철도레일을 밀면서 정릉동의 반듯한 터전을 만들어주었던 그 분들의 노고가 아래 사진 속 축대의 세월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다.



住宅地分讓案內

今般 鄙社에서는 左記와 如히 完成된 宅地를 低廉한 價格으로 一般에게 分讓해 드리고저 하오니 希望하시는 분은 鄙社管理部로 問議하여 주시면 詳細히 應待하여 드리겠읍니다

一、位置및地形

1、貞陵地域

이 地域은 서울特別市 城北區 貞陵洞의 中心地로서 崇德國民學校와 隣接해 있고 貞陵一帶의 景觀이 바라보여 조용한 情趣가 감돌으며 空氣가 맑고 風致가 좋은 住宅地입니다

2、長位地域

이 地域은 서울特別市 城北區 長位洞의 行政區域에 있어 幹線道路에는 各種商店이 立並해 있고 南側에는 洪陵과 林間田園의 景觀이 아름다운 自然風致의 住宅地입니다

3、特徵

이 地域은 電氣와 水道施設이 完備되어 있으며 上下水道施設이 完備되어 있으며 貞陵市街地를 連結하는 交通이 便利하고 市場과 學校가 近接해 있어 生活이 便利한 新興住宅地로 繁華한 貞陵市街地를 連結하는 中央線이 通過하고 있읍니다

二、宅地面積및分讓面積

地域別	一坪當定價	分讓해 드리는 面積
貞陵地域	三四、〇〇〇圓	一、〇〇〇坪
長位地域	四〇、〇〇〇圓	二五、〇〇〇坪

三、分讓方法

1、五〇坪(建物一棟建立)以上希望者
2、五〇坪(建物十棟建立)以上希望者(特典이있읍니다)

四、問議處

東邦生命保險株式會社 管理部
電話 交換 (2)一五五七、一五五九、四一二一|三
直通 (2)一六九八

西紀一九五五年九月二四日

東邦生命保險株式會社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주택지분양안내 광고 (동아일보 1965. 9. 24)>



<정릉4동 동방주택 (2013)>

원천자료	『서울 육백년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동아일보』1965. 9. 24. 이종철씨(정릉4동) 구술자료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53	정릉동의 주인들 - 16	작성자	백외준
제목	1957년 정릉의 봄 풍경 - 소설가 계용묵의 수필	키워드	1957년, 계용묵, 정릉약수, 물할머니, 홍천사, 재건주택, 아리랑고개

이야기

소설『백치 아다다』(1936)로 유명한 작가 계용묵(桂鎔默, 1904 ~ 1961)은 피난지에서 돌아온 1954년부터 1961년 8월 9일 별세하기까지 정릉동(정릉 재건주택 85호)에 살았다. 계용묵도 정릉동과 서울 도심을 오고 갈 때는 김교신과 마찬가지로 정릉고개(아리랑고개)를 이용했다. 아래 글은 계용묵이 평소 정릉고개를 넘으면서 관찰한 재건주택들의 모습과 정릉약수를 지키는 '물할머니'에 관해 기록해둔 글이다. 전후 1950년대 정릉동의 풍경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내가 사는 주변 (원제 : 물할머니 푸념소리)



<계용묵>

버스를 타고 미아리고개를 터덕이며 넘다가 길음교를 접어들 때 시선이 왼편으로 쏠리게 되면 바로 눈 아래 시멘트 기와를 인 무슨 목장 지대 같은 납작한 건물들이 산으로 둘러싸인 오목한 골 안 일대에 지칠펀펀하게 깔려 있음을 내려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판에다 찍어낸 듯한 그 집이 그 집 같은 꼭같은 것을 무더기로 쏟아놓은 그래서 인가(人家)는 아닌 것 같은 생소한 건물임이 쏠린 시선에 좀더 주의를 깊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이 인가임에는 틀림이 없다. 환도 후에 집 잃은 전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베풀어진 그 수 삼백칠십이나 나마 세이는 소위 아홉 평짜리의 정릉 재건 주택이다.

이 목사(牧舍) 같은 아홉 평짜리의 집이나마 집이 그립던 전재민들에게는 궁궐보다도 소중하다. 게다가 명색이 양옥이라 입주자들은 이 양옥에 상부한 생활이어야 한다고 마치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내 집의 미화에 저마다 여념이 없다. 제멋대로의 취미에 장단이 되어 파아란 뺑키를 뒤집어쓰는 집, 하얀 뺑키를 뒤집어쓰는 집, 온갖 빛깔을 뒤집어쓰고 색채가 된 이 건물에다가 또 꽃이요, 상록수요, 기암 괴석까지 끌어다 정원을 꾸미는 등, 보기 드문 색다른 집으로 한 촌락을 이루었다.

나도 이 풍속에 휩쓸려들어서 하늘빛 뺑키로 대문을 단장하고 뜰에다는 라일락 한 그루와 장미 한 그루로 이 미화의 공동 보조에 인색하지는 않았으나 내 마음은 울타리 안에보다는 울타리 밖으로 늘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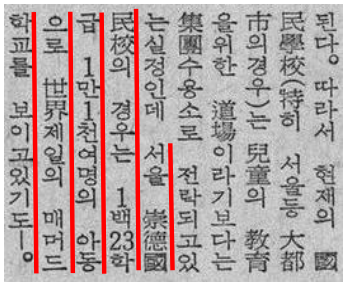
바로 집 뒤를 끼고 흐르는 개천, 이 개천가에서 날이면 날마다 진종일을 연이어 가며 후닥거리는 여인네들의 빨래방망이 소리, 이 소리가 풍기는 민족혼의 고유한 정서, 이 정서에 나는 살이 지고 싶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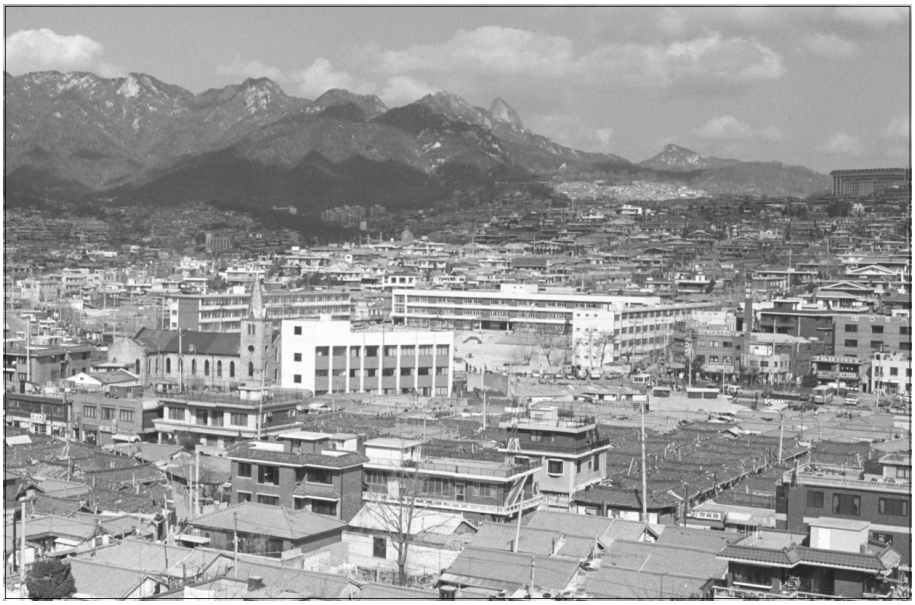
이 개천을 끼고 한 발자국만 산으로 더 내디디면 약수가 또 있다. 약수라도 신선한 새벽물은 더 효험이 있으리라. 해도 뜨기 전 자욱한 안개 속에 모여드는 수객들, 이 수객들이 모여들면 물할머니의 푸념이 정성스럽게도 그들의 건강을 빌어 준다.

이 물할머니는 처녀 시절에 신령이 내리어 이 약수를 맡게 되었다는 것으로 백발이 흩나는 오늘까지 하루도 쉬임없이 연일 연성으로 수객들의 건강을 위하여 빈다. 이 물로 병을 낫게 하고 자손 만대에 복을 주라고 산신에게 빌고 또 강씨마마-정릉의 유래를 말하는 태조고황제계후신덕성강씨(太祖高皇帝繼后神德星慷氏)로 정릉이라는 것은 정동(貞洞)에서 옮겨온 능이라는 이름-이 약수터 너머의 봉국사 보살에게도 빈다.

그리고 좀더 산골짜기로 올라가자면 산의 배를 가르고 바위를 차며 흐르는 맑은 물에다

	하반신을 늘리 잠그고 겨울난 무거운 몸을 헤우며 초여름 하루를 즐기는 젊은 남녀의 벌거벗은 몸에 벌거벗은 마음이 좋았다. 난잡을 욕할 리 없지 않을 것이나 삶이라는 속박에서 이 하루를 저대로 아무렇게나 놀아도 구속이 없고 자유의 풍속이 실로 진실한 그들의 것일 것임으로써다. 이 골짜구니에서 마음대로 터져 나오는 벌거벗은 마음 소리, 이 개천가의 빨래방망이 소리, 이 약수터의 물할머니의 푸념, 이 소리들이 내 귀에 멀었던들 나는 이 아홉 평짜리 울안의 소꿉장난 같은 어른들의 흉내로 아름다움을 만들려는 아름다움으로 정릉을 상 주고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다. (1957. 5.)  <정릉동 재건주택(1957)>  <정릉약수(2013). 정릉 안 매점 옆에 있다.>
원천자료	계용묵, 「내가 사는 주변」, 『계용묵 전집 2』, 민음사, 2004.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54	정릉동의 주인들 - 17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세계 최대 초등학교! - 숭덕초등학교	키워드	숭덕초등학교, 인구증가, 신흥주택지
이야기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공영주택 건설로 정릉동의 풍경은 해가 다르게 변해 갔다. 1965년 경에 이르면 정릉동은, 과장된 면이 없진 않겠지만 동아일보 광고에서처럼 '교통이 편리하고 시장과 인접해있으며 간선도로에는 합승과 뻐스가 운행되고', '전기 및 상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신흥주택지'가 되어 번화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정릉동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숭덕초등학교가 '세계 최대의 초등학교'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것도 바로 이 때였다. 당시 숭덕초등학교는 123학급에 1만 1천여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릉 참봉을 지낸 서재복의 아드님이신 서완석 씨는 당시 정릉 재실에 살면서 숭덕초등학교에 다녔는데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확실히 3부제 수업을 실시했다고 기억한다. 그리고 당시는 정릉천이 복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정릉천이 불어나면 정릉천 남쪽에 사는 아이들은 등교도 못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당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한 기사 중 숭덕초등학교의 학급, 학생수를 예로 든 부분 (동아일보 1967. 4. 12)> 유독 숭덕초등학교만 학생 수가 폭발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서울 중간변두리의 신흥주택지에 설립된 초등학교들 대부분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당시 100학급이 넘는 초등학교들로는 숭덕을 비롯해 창신(109), 전농(116), 홍파(114), 장충(114), 청구(108), 무학(101), 동명(114), 금호(108), 돈암(104), 미동(101), 은로(100) 초등학교 등 12개교가 있었다. (괄호 안은 학급수) 정부와 서울시가 초등학교를 더 짓고 강남 개발에 착수한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학급과밀 현상은 조금씩 완화되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초등학교가 일약 '세계최대 초등학교'라는 어울리지 않은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은 1960년대 전국적인 이농향도에 뒤따른 서울 동부 지역의 인구폭발, 주택폭발 현상에 전후 한국의 교육열이 겹쳐져 발생한 시대적 증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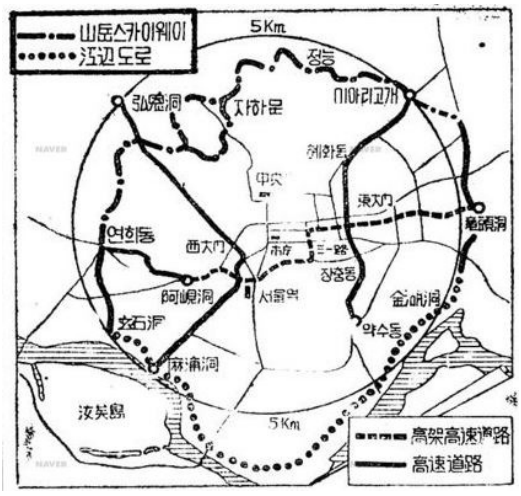
	 <숭덕초등학교(중앙 ㄷ자 모양)와 주변의 주택지대 (1990)>  <북악산로에서 본 정릉동 (2013)>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7. 4. 12. 서완석 씨(정릉2동) 구술자료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55	정릉동의 주인들 - 18	작성자	백외준
제목	정릉2동 교수단지와 북악스카이웨이, 그리고 정릉3동 배밭골 스카이아파트	키워드	교수단지, 북악스카이웨이, 배밭골, 스카이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	1960년대 정릉동을 비롯해 돈암동, 길음동 등에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도 정릉고개와 정릉 입구 사이의 산비탈은 여전히 개발되지 않은 임야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 일대는 옛부터 정릉 능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해방 후에도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동안 주택이 들어설 수 없었다. 그래서 한여름이면 서울 시민들이 가까운 이곳 숲을 찾아 더위를 식혔고 동네 아이들은 계곡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았다. 1960년대 후반까지 정릉 재실에 살았던 서완석 씨는 당시 풍경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흥천사에서 (정릉) 넘어오는 길이 완전 숲속길이었어요. 어머니가 살아야 되니까, 동대문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어와야해요. 그러면 동대문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와서 돈암동에 내려서 흥천사 길을 넘어와야 했어요. 그때는 산길, 숲속이어서 무서워요. 나무가 빽빽하니 밤에는 여우 우는 소리도 나고 뭐, 아주 뭐 늑대 소리도 난다고 그랬어. 그렇게 숲이 우거졌고. 그 다음에 아리랑시장에서 정릉 올라오는 길도, 마지막 집이 그 보국사. 보국사가 오래된 집이에요. 그 집 하나 있고 밑에 삼거리 있는데 집이 있었고. 그 위쪽에는 집이 없었죠. 보국사가 마지막 집이에요." — 서완석 씨의 증언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여우소리'가 들려왔던 정릉 주변의 임야가 민간에 불하된 것은 1965년 무렵이었다. 문화재관리국의 토지 불하 소식을 접한 당시 서울대 교직원들은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불하받고 이를 '교수단지(敎授團地)'(대학교 교직원 주택단지)로 개발했다. 민간에서 조합이 결성되어 주택단지를 개발한 첫 사례였다. 정릉동 559번지 일대의 땅을 매입한 조합원들은 곧 집터를 닦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공대 교수진도 참여함으로써 산비탈에 층층이 세워진 축대는 어느 곳보다도 튼튼히 시공되었다. 당시 서울 변두리에 우후죽순 세워진 여느 공영주택단지와 마찬가지로 색색깔 지붕을 뽐내는 신식 주택이 즐비한 마을 하나가 이곳에도 뚝딱 들어설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 일어난 돌발사태는 교수단지 개발에 잠시 제동을 걸었다. 바로 1.21사태였다. 1.21사태는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124군부대 무장게릴라 31명이 청와대 기습을 노린 사건으로, 군과 경찰은 김신조를 생포하고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수색전을 전개해 도주한 2명을 제외한 게릴라 28명을 사살함으로써 마침내 동월 31일에 종결되었다. 그러나 수도 서울이 이처럼 쉽게 북한 무장 게릴라에게 뚫려다는 소식은 많은 서울 시민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였다. 박정희는 이 사건 후 서울의 도시계획을 크게 수정했다. 주택건설에서 수도 방비로 도시계획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무장간첩의 침투로였던 북악산에 집중적으로 부대와 초소를 배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서울 시내와 외곽에는 고가도로,		

순환도로를 대거 건설함으로써 청와대를 원점으로 한 원 모양의 서울 도심을 이들 자동차 도로가 감싸게 했다. 당시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었던 김현옥 서울시장은 이러한 도로건설계획을 가차없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서울에는 1.21사태 후 2년만인 1970년에 이르러서는 북쪽으로 북악산과 정릉, 동쪽으로 용두동, 남쪽으로 용산, 서쪽으로 연희동을 잇는 총연장 40km가 넘는 환상(環狀) 도로망이 구축되었다. 1970년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고작 12만대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때 건설된 환상도로의 용도가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군 게릴라 침투나 전쟁에 대비한 군사용 도로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이 무렵 박여병 씨는 한창 교수단지 조합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 북악스카이웨이(현 북악산로) 건설공사에는 당시 수도경비사령부(현 수도방위사령부)가 관여하고 있어서 주택 건축에 대한 사항을 서울시가 아닌 수도경비사령부 측과 협의해야만 했다고 한다. 현재 교수단지 옆을 통과하는 북악스카이웨이의 고도와 교수단지 주택의 지붕 높이가 거의 일치하는 것은 북악산과 북악스카이웨이 주변에 들어선 초소와 진지의 감시망과 사각(射角)을 확보하기 위해 이 일대 주택의 고도를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1976년에 교수단지에 집터를 사서 들어온 고(故) 손영을 장군도 주택을 짓는데 애를 먹었다. 다음은 손장군의 아드님 손성수 씨의 기억이다.

"이 터가 원래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땅이었어요. 저희 원래 집은 성북동 쪽에 있었는데, 아버님이 구청 가서 문의를 하니까 건축허가 다 나온다고 건축설계를 집어넣었더니 구청에서는 된다 이거죠. 근데 수경사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왜 그러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여기 산꼭대기 여기가 높은데 정릉 이쪽 능선에 기관총 초소가 설정되어 있어서 집이 들어서면 저쪽(북쪽)이 안 보인다고 건축허가를 안내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친이 군대 쪽으로 잘 아시고 그러니까 수경사령관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4.5m 이상으로 안 짓는다는 조건으로 우리집하고 요 앞에 몇 군데가 허가가 난거죠. 그래서 억지로 지었어요.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수경사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이 땅을 판 분도 하다가하다가 안돼서 아무 얘기 안하고 넘기고, 아무 얘기 안하고 넘기고 하다가 저희가 산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일이 닥치니까, 우리 부친이 수령사령관하고 잘 아시고 이래서 최저고도로 해가지고 건축심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은거죠."

— 손성수 씨의 증언



<경향신문 1968. 9. 25>

『새벽의 붉은 奇襲』 그로부터 2年

首都防衛 異狀없다

31명의 북괴무장공비들에게 수도서울의 '허'를 찔렸던 「1.21」 사태 —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시민들의 자각과 군의 노력으로 그 '허'를 겹겹으로 다져가며 수도방위는 철통같이 굳어졌다. 수도경비사등이 지키고 있는 수도권 북방에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곁들여진 철책이 물샐틈없이 쳐졌고 그 뒤엔 산병호와 순찰로가 엇갈려 이제 무장공비들의 침투는 어림도 없게 되었다. 또한 북악을 가로지르는 스카이웨이도 평시에는 시원스런 관광지로 되가지만 은밀한 침투를 꾀하는 공비들에게는 험한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외곽 요소요소에는 검문소와 초소가 증설되었고 무장공비의 대거 침투에 대비, 철근과 콘크리트로 구축된 진지들은 웬만한 포탄에는 끄떡도않는 영구요새로 화해 수도관 방어는 문자 그대로 '철옹성'이 되었다. (하략)

<동아일보 1970. 1. 21>

이러한 주변의 어수선한 상황 때문인지 교수단지에는 대지만 매입해놓고 건물은 짓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아예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손을 뗀 사람도 있었다. 그래도 서울이고 정릉의 푸른 숲과 맑은 공기가 좋았기에 이를 좇아 매년 여기에 살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있어서 빈 대지들은 점차 집들로 꾸역꾸역 메워졌다. 단독주택과 4층 이하의 야트막한 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선 오늘날 교수단지의 경관은 그렇게 1980년대 후반까지 천천히 이루어졌다.

2008년 10월 평화롭던 교수단지에 소란이 더해졌다. 정릉2동 506-50번지 일대가 정릉 6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되었고 이듬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났다. 2010년 1월에는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7층에서 15층 규모의 아파트 16개동 710세대가 들어선다는 재건축 계획이 발표되었다. 재건축 소식을 접한 마을은 두 파로 갈라졌다. 찬성하는 편에서는 '정릉2동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재개발을 추진했고 반대편에서는 '정릉을 사랑하는 모임'을 조직해 재건축을 저지하는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2011년 1월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유산 훼손이 우려된다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신청을 보류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2013년 12월까지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정릉6구역은 거의 해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북악산로에 있는 교수단지 입구의 표지판 (2013)>


<정릉과 정릉2동 교수단지 전경 (2003)>



<정릉과 정릉2동 교수단지 전경 (2010)>



<북악산로에서 본 교수단지 (2013)>



<정릉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제시한 조감도 (2010)>



<교수단지 재개발을 반대하는 집에선 대문 앞에 화분을 달아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2010)>

북악스카이웨이가 지나간 마을은 교수단지만이 아니었다. 교수단지는 주택이 들어서기 전이어서 기껏 고도제한을 받았을 뿐이지만, 정릉3동 배밭골의 앞산을 가로질러 가는 북악스카이웨이는 오래 전부터 이곳 산비탈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사는 빈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1.21사태라는 연초의 충격적 사건이 1월 31일에 종결되고, 2월 9일 서울시는 '스카이웨이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착공일은 2월 21일이었다. 가파른 경사에 암반으로 이루어진 북악산의 허리를 무너 7km가 넘는 자동차 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불과 10일 만에 작성되었고 또 계획 발표 후 불과 10일 만에 착공에 들어갔던 것이다. 놀랍다 못해 광포한 속도였다. 연이어서 도로가 들어설 주변의 무허가 주택의 철거 계획이 발표되었다.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성북동 뒤편의 구준봉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들어선 무허가 주택이었다. 신설 예정 도로는 성북동 산25번지 및 산18번지 일대와 정릉3동 산87-1번지 및 산1번지 일대에 들어선 판자촌 사이를 가로질러 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성북구청은 4월 25일과 26일에 배밭골과 성북동 판자촌에 계고장을 보내 주민들에게 자진 철거를 종용했다.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살던 집을 스스로 허물도록 강요받은 주민들은 연일 데모를 벌여 거세게 저항했다. 또 주민들은 철거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김현옥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일간지 실어 철거의 억울함을 온 국민에게 알렸다. 철거대책위는 성북구청과 서울시청 공무원 32명과 경찰관 12명 등이 5년 전부터 1967년 12월까지 정릉동 산87-1 무허가 판자촌 주민들에게 집을 헐겠다고 위협, 또는 상부에 상납해야한다고 수백차례에 걸쳐 1천여 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뜯어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배밭골 주민들은 무허가 판자집이나마 정부의 약속대로 곧 양성화되어 떳떳이 살 날을 기다리며 꼬박꼬박 보이지 않은 '세금'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바쳤던 것인데 좋은 소식은커녕 난데없는 자진철거 계고장이 날아든 것이다. 연일 성북구청 철거반과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다가 급기야 5월 11일에는 철거반과 배밭골 주민 사이에 투석전이 벌어져 주민 12명이 머리가 깨져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북악스카이웨이 공사는 중단될 줄 몰랐고 서울시와 성북구청은 같은 해 6월 13일 철거반을 보내 배밭골 판자집 360여 동을 모두 강제철거했다. 다음날 일간지에는 '서울시는 그동안 말썽 많던 정릉동 산87-1 일대 속칭 배밭골의 불량건물 360여 동을 13일 완전정리했다'는 기사가 승전보처럼 나갔다.



住民·警察投石戰

정릉山無許철거 26명이 重輕傷

十一일오후一시반 서울시 성북區정릉동산一·산八七 구청철거반및 경찰기동대 와一월대의 무허가건물三 百六十二동 四百八十가구 에 철거해나선 서울시 (二三三) 등 十二명과경 찰관 尹錫榮경감(四二) 등 모두十四명이 머리가 터 지고 다쳐 부상했다。

이날 아침九시부터 시작된 이철거작업은 철거반원들이 철거민들의 투석을 피하면서 건물을 한채씩 부수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철거민들은 지붕위에 올라가 기왕장을 떼어내리는 등 철거작업을 방해하였다。

이지역은 대지가 모두 국유지로 되어있어 철거민들은 시가 이곳에 시민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철거작업을 벌여왔다。



서울特別市長貴下

조국근대화과정에 진력하시는 귀하의건강과 대서울건설에노고하시는 귀하의 영달을축원합니다。 호소인은 城北구정陵3동 배밭골 철거민 총회에서 채택된 이호소문을 귀하에게 올려서 저희들의안식처가 마련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귀하에게 듣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설 때 관계관에게 금품이수여되지않을수있겠읍니까? 과거 수년간 재산세를징수했고 양성화 운운하다 결국 계몽도 대책도없이 무자비한 철거가 있을수있겠읍니까? 철거반이란 이름의 폭력배를 고용(?)하여 철거민을 상해할 수 있습니까? 건물철거가 요구된다하더라도 건물내의 가축, 가구가 파괴될 수는 없는것이 아니겠읍니까?

아무런 대책도없이 깡패로 편성된 철거반에 의해 건물 가구 등이 멸렬되어 안식처는 상실됐고 생존권이 말살됐읍니다。 저희들 처작식은 풍찬노숙을하고 갈곳이없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귀하의 동정도 지원도 못 받는다면 이곳에 스스로 묻힐 결심을 했읍니다。

순환도로공사가 중단된채 스카이웨이의 신설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 이룩됐다면 이에 수반한 사회대책도 강구돼야할것이 아니겠읍니까? 우리만이 희생될 수는 없읍니다。

(서울城北區 貞陵三洞山87 의1및山1 배밭골주민총 회대표)

<동아일보 1968. 5. 11>(좌) <경향신문 1968. 5. 18>(우)

서울특별시장 귀하

조국근대화과정에 진력하시는 귀하의 건강과 대서울 건설에 노고하시는 귀하의 영달을 축원합니다. 호소인은 성북구 정릉3동 배밭골 철거민 총회에서 채택된 이 호소문을 귀하에게 올려서 저희들의 안식처가 마련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귀하에게 듣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설 때 관계관에게 금품이 수여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수년간 재산세를 징수했고 양성화 운운하다가 계몽도 대책도 없이 무자비한 철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철거반이란 이름의 폭력배를 고용(?)하여 철거민을 상해할 수 있습니까? 건물철거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건물 내의 가축, 가구가 파괴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깡패로 편성된 철거반에 의해 건물 가구 등이 멸렬되어 안식처는 상실됐고 생존권이 말살됐습니다. 저희들 처작식은 풍찬노숙을 하고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귀하의 동정도 지원도 못 받는다면 이곳에 스스로 묻힐 결심을 했습니다.

순환도로공사가 중단된채 스카이웨이의 신설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 이룩됐다면 이에 수반한 사회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만이 희생될 수는 없습니다. (성북구 정릉동 산 87-1 및 산1 배밭골주민총회대표) <경향신문 1968. 5. 18>

배밭골 주민들이 마냥 진 것만은 아니었다. 철거과정에서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서울시는 판자집 철거 후 '주민들의 협조만 있다면 같은 지역 내

	에 주민 공동으로 영구적이고 현대적인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를 건립하여 입주시키겠다’ 고 약속했다. 순조로운 철거 작업을 위한 당국의 주민회유책이었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오늘날까지 배밭골 한가운데 남아 있는 ‘스카이 아파트’ 이다. 아파트가 처음 준공되었을 때 이름은 ‘스카이웨이 아파트’ 였던 것 같다. 북악스카이웨이 건설과 함께 부수적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내력이 이름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스카이 아파트를 짓는 데 걸린 기간이다. 산 87-1번지 일대 판자집들을 철거하고 한 달 여만인 7월 23일에 착공한 아파트는 같은 해 12월 30일에 준공식과 입주식을 가졌다. 대지 3370평에 연건평이 9동 2530평이나 되는 규모에 253가구가 입주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아파트인데 고작 6개월도 못되어 완공을 본 것이다. 이 또한 놀랍지만 같은 해 9월 28일 세검정 ~ 미아리고개를 잇는 북악스카이웨이도 단 6개월만에 개통된 것을 보면 당시 박정희와 김현옥이 ‘다스리던’ 서울에서 이런 짧은 공사 기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스카이 아파트의 붕괴조짐이 보인 것은 완공 후 6년여가 지난 1975년 봄이었다. 4호동의 벽에 균열이 가고 기초의 구조물이 약해 비가 새고 건물이 흔들리는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주민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기본적인 조사와 절차도 무시한 채 날림으로 시공한 건물이 겪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미 1970년 마포구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를 겪은 서울시는 스카이 아파트 입주민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새로 지은 천호시영아파트로의 이주를 통고했다. 하지만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부실 시공된 스카이 아파트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바였다. 완공 당시 9호동까지 있었던 스카이 아파트는 그동안 5개 동이 철거되고 4개 동만이 질긴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1968년 253가구가 입주했던 아파트에는 이제 25가구만이 남아 있고, 그나마 남은 아파트도 재난위험시설 D, E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담당부서인 성북구청 주택관리과에서는 거주자의 이주를 권고하고 아파트에 지지대를 덧대거나 시멘트가 탈락된 곳을 보수하면서 붕괴를 막고 있지만 거주자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살림을 이어가고 있다. 2005년 정릉 3구역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지만 배밭골 일대가 여전히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어서 재개발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원천자료	서완석 씨(정릉2동) 구술 자료 박여병 씨(정릉2동) 구술 자료 손성수 씨(정릉2동) 구술 자료 「정릉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발간 자료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신문기사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56	슬픈 경종 - 1	작성자	배경식
제목	어마마마, 왜 날 낳으셨나요?	키워드	의릉, 경종, 숙종, 장희빈
이야기	의릉은 조선 제20대왕인 경종과 그의 두 번째 왕비 선의왕후의 무덤이다. 경종의 미미한 존재감만큼 의릉은 서울 도성 안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왕릉이다. 경종은 서른둘에 왕위에 올라 서른여섯에 죽었다. 짧은 4년의 재위기간 만큼이나 드러난 공적도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런지 경종은 조선의 27명의 왕 가운데 그 존재감이 가장 약한 왕 중의 한 명이다. 사연 없는 무덤 없다고 했다. 의릉을 보면서 살아생전 경종이 제대로 된 왕노릇을 하지 못한 불행한 왕이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도 있다. 상상은 사실이다. 경종과 의릉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로맨틱하거나 아름답지 않은 이 비극적인 상상으로부터 출발한다. 조선 왕실에는 비극의 주인공이 많다. 경종과 그의 부인 선의왕후 또한 그러한 비극의 주인공들이다. 그렇다면 경종은 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했을까? 경종의 비극은 본인의 정치적 폐단보다는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잘 알다시피 경종의 어머니는 조선 최고의 '악녀' 왕비로 알려진 희빈 장씨이다. 그것이 경종의 원죄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녀를 악녀로 만들었나? 남편인 숙종의 잘못은 없었나? 사극의 단골 메뉴인 희빈 장씨의 파란만장한 삶은 숙종과의 개인적인 애증관계가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숙종은 장씨의 미모에 농락당해 당파싸움을 일삼은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용해 정치적 국면을 돌파하려고 했다. 숙종은 노론과 남인의 정치적 갈등인 당파싸움에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녀도 당쟁의 희생자였다. 희빈 장씨의 삶은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와 비슷한 듯하다. 두 여인은 후궁으로 아들을 낳아 세자가 되어 왕비의 자리에 까지 올랐으나 부덕한 행위로 남편인 왕으로부터 사약을 받는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지막 행동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윤씨는 아들 연산군에게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신하들에 대한 복수를 기대했다. 남편인 성종에 대한 원망이나 보복은 하지 않았다. 반면 희빈 장씨는 아들에게 복수를 기대한 대신 자신이 직접 복수에 나섰다. 그것도 신하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숙종을 상대로 한 복수이다. 일설에 따르면 장희빈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한번만 만나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마침내 아들을 만난 장씨는 갑자기 아들 경종의 사타구니를(하초) 잡아당겨 기절시켰고, 그는 성불구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경종은 실제로 자식을 낳지 못했고, 그 때문에 왕위는 그의 배다른 동생인 영조에게 넘어가면서 또 한번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57	슬픈 경종 - 2	작성자	배경식
제목	경종을 불행하게 만든 아버지 숙종	키워드	의릉, 경종, 숙종, 장희빈
이야기	경종을 불행하게 만든 또 하나의 원인은 아버지 숙종이었다. 조선시대 최대의 비극으로 알려진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 못지 않게 숙종과 경종 사이도 불행했다. 숙종과 경종의 사이가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었다. 적장자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숙종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느 왕보다 왕세자의 탄생을 기다렸다. 그러나 첫번째 부인 인경왕후는 딸 둘을 낳고 숙종 6년(1680)에 스무 살의 젊은 나이에 천연두로 세상을 떠났다. 이듬해 인형왕후 민씨를 두번째 부인으로 맞이했으나 그녀 또한 아들을 낳지 못했다. 노심초사하던 상황에서 장희빈을 만났고 그녀는 숙종 14년(1688)에 아들 균(경종)을 낳았다. 혼인한지 15년 만에 얻은 첫아들이었다. 숙종은 아직 왕비의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새로 태어난 원자를 곧바로 왕세자로 책봉하려고 했다. 보통 7-8세가 되어서야 공식적인 왕위계승자로서 왕세자로 책봉되는 관례를 깨려는 것이다. 여기에 노론 집권층이 벌떼같이 일어나 반대했다. 중전인 인현왕후가 스물세 살로 아직 젊으니 더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반대의 선봉장은 노론의 총지휘자인 원로 송시열이었다. 하지만 젊은 왕은 증조할아버지뻘의 원로 대신의 강력한 반대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원자를 왕세자로 책봉했고, 끝까지 반대하던 송시열에게는 사약을 내리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이와 더불어 집권 노론을 대대적으로 숙청했고, 그 빈틈은 남인이 매웠다. 그리고 노론 집안에 속하던 인현왕후를 폐비시키고 남인이 지지하던 희빈 장씨를 왕후로 책봉했다. 이를 기사환국(己巳換局)이라고 한다. 그러나 숙종의 장희빈에 대한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숙종의 사랑은 새로 들인 후궁 숙빈 최씨에게 옮겨갔다. 숙빈 최씨는 숙종 19년(1693)에 첫아들을, 이듬해에는 둘째 아들을 연이어 낳았다. 비록 첫 아들은 오래 살지 못했지만 둘째 아들이 뒷날 영조가 되는 연잉군(延礽君)이다. 경종과 여섯 살 차이다. 연잉군이 태어나던 바로 그 해에 숙종은 희빈 장씨를 지지하던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을 다시 등용했다. 이를 갑술옥사(甲戌獄事)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서인의 지지를 받던 폐비 민씨가 다시 왕비로 복위되고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다. 그러나 사가로 내치지 않고 별궁인 취선당에 거처를 옮겨서 살도록 했다. 장씨가 궁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세자의 생모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세자는 어머니를 두 분 모시게 되었다. 세자로서는 무척 처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세자는 환궁한 인현왕후를 원망하지 않고 어머니의 예우로 깍듯하게 대접했다고 한다. "세자는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조석으로 내 곁을 떠나지 않으며 사모하고 공경함이 사친(私親 : 생모)에게 하는 것보다 낫다. 그가 그의 사친에게 가서 뵐 때에도 반드시 나에게 고하여 혼자서 마음대로 하지 않았으며, 내가 병든 뒤 혹 더욱 위중한 날에는 나한테 감히 '가서 뵙겠습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내가 그 연유를 알고 나서 반드시 가 뵈라고 시킨 후에야 비로소 가 뵈었다." (민진원, 『단암만록』)		

	이처럼 세자는 성품이 온순하고 효성스러웠다. 그러나 희빈 장씨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했다. 희빈 장씨는 인현왕후에 대한 질투심으로 아들에게 심한 매질까지 했다. "듣건대 그의 사친이 그의 귀에다 대고 비밀리 말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나 세자가 갑자기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구타당하게 되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다고 하니 더욱 사랑스럽고 가엾다."(민진원, 『단암만록』) 인원왕후가 죽기 전에 민진후에게 한 말이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장씨는 인현왕후에 대한 질투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것 같다. 궁중에는 장씨가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차려 놓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면서 매일같이 중전이 죽기를 빌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이 이야기는 결국 라이벌인 숙빈 최씨를 통해 숙종의 귀에 들어갔다. 숙종은 냉정했다. 세자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용서하자고 한 소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장씨에게 자결을 명했고, 결국 장씨는 사약을 마셨다. 이때 그녀의 나이 마흔세 살이었고, 세자의 나이 열네 살이었다. 경종은 생모인 희빈 장씨가 인현왕후를 모함하려다가 사약을 받고 죽는 비극을 직접 목격한다. 열네 살의 사춘기에 어머니의 불행한 죽음을 지켜 본 세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장씨가 죽기 전까지 경종은 총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원래 병약한 체질에 생모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갔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울화증과 화병이 심해졌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보다 세자를 더 불행하게 만든 것은 아버지 숙종의 태도였다. 숙종은 세자를 꾸짖을 때면 죽은 장씨의 이름을 들먹이며 "누구의 자식인데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장씨가 죽은 뒤로 숙종의 마음은 세자가 아니라 다른 왕자들에 쏠렸다. 숙빈 최씨 소생인 연잉군을 비롯하여 명빈 박씨가 연령군을 낳자 더 이상 세자에게 집착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세자의 건강마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숙종은 세자를 신뢰하지 않았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민진원, 『단암만록』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58	슬픈 경종 - 3	작성자	배경식
제목	경종은 어떤 왕이었나?-당파싸움의 희생양	키워드	경종, 연잉군, 질병, 당쟁
이야기	‘다병무자’(多病無子), 곧 병이 많고 자식이 없다는 것이 실록에 기록된 경종의 건강명세서이다. 그렇다면 경종의 병 증세는 어떤 것이었을까? 인현왕후의 오빠인 민진원은 세자 시절 경종의 병 증세를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세자는 점차 병이 빌미가 되어 때때로 벽을 향하고 앉아서 조그마한 소리로 중얼거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였다. 혹은 한밤중에 계단과 뜰 사이를 방황하거나 앉아 있었고, 먹고 자는 행동이 매우 이상함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정신도 안정되지 못하였고 지각도 불분명하였다. 또 하체의 기운이 마비되고 약해서 남녀의 일을 알지 못하므로 춘추 30에도 여색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비록 궁녀들과 애들처럼 장난을 하긴 했지만 여색을 가까이할 뜻이 없었다. (『단암만록(丹巖漫錄)』)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실록에는 그의 병 증세에 대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상이 동궁에 있을 때부터 쌓인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침내 형용하기 어려운 질병을 앓았다. 해가 지날수록 고질이 됐으며 더운 열기가 위로 올라와서 때로는 혼미한 증상도 있었다. (...) 곤담환과 우황육일산 등의 처방을 썼지만 효험이 없었다." (재위 4년 8월 2일) 결국 경종은 여러 병으로 고생했지만, 가장 중요한 질병은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다. 여기에 더하여 현종 때부터 본격화된 당파싸움으로 경종은 세자시절부터 심한 정치적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특히 이복동생 연잉군의 탄생과 함께 겪었던 경종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상황에서 숙종이 덜컹 사망하고 말았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라고 할까? 그런 상황에서 뒤를 이을 아들도 없었다. 신하들이 가만있지 않았다. 그의 나이 아직 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복동생인 연잉군(뒷날 영조)을 왕위를 계승할 ‘왕세제’로 임명하라는 신하들의 상소와 항의가 빗발쳤다. 이들이 바로 연잉군을 지지하는 노론이다. 이 모든 것이 당파싸움으로 인한 힘겨루기였다. 하지만 경종은 신하들의 이런 청을 방어할 힘이 없었다. 병약한데다가 아들이 없는 그로서는 이복동생 연잉군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었다. 결국 노론의 힘에 밀려 연잉군을 왕세제로 임명했다. 그러나 신하들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연잉군을 왕세제로 임명했더니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아예 연잉군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라고 요구했다. 이쯤되면 경종더러 아예 왕 노릇을 그만하라는 ‘협박’이나 마찬가지였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분통이 터질 일이었을 것이다. 결국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의 강력한 반발로 대리청정은 무산되었으나 노론의 힘을 꺾을 수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소론의 반격으로 노론 4대신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노론이 처벌을 받았다. 그렇다면 경종은 과연 처음부터 병을 달고 살았던 무능한 군주였던가? 짧은 재		

	위기간으로 두드러진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정치를 그르친 왕은 아니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종의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조선왕조 통치시스템의 문제, 곧 왕권보다 신권이 강했던 당파싸움이었다. 신하로부터(노론) 양위를 요구받고 왕위 후계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불행한 왕이자 당파싸움의 희생양이었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민진원, 『단암만록』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59	슬픈 경종 - 4	작성자	배경식
제목	경종은 독살되었는가?	키워드	독살설, 영조

이야기

경종은 1724년 8월 25일 재위 4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항상 병을 달고 살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왕이 죽었는데도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경종의 이복동생인 왕세제 연잉군이 경종을 독살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러하다.

8월 경종의 병이 위급해지자 왕세제인 연잉군이 병구완을 총지휘했다. 어의들의 약제가 효험이 없자 대비전에서 게장과 생감을 올렸다. 어의들은 게장을 올리지 말라고 권유했으나 연잉군이 이를 무시하고 경종에게 먹였다. 경종은 게장 덕택에 입맛을 조금 되찾아 수라를 들었으나 그것도 잠시 뿐이었다. 그날 밤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심하게 했다. 어의들의 처방이 별 효험이 없자 연잉군이 왕의 기운을 회복시키기 위해 인삼을 올리라고 했다. 이번에도 어의들이 반대했으나 연잉군의 명령으로 인삼을 올렸다. 경종은 인삼을 복용하고 나서 잠시 기운을 차리더니 결국 숨을 거두었다. 경종을 지지하던 소론으로서는 당연히 연잉군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경종이 죽은 뒤에 영조는 끊임없이 경종 독살설에 휩싸였다.

그렇다면 과연 경종은 독살된 것일까?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경종의 독살설은 허구이다. 우선 경종의 병세는 연잉군이 권한 게장과 생감을 먹기 전부터 심각한 상태였다. 『경종실록』에는 경종 사망 23일 전인 8월 2일부터 경종의 병환이 매우 심각했다고 적혀 있다.

> 임금의 병환이 계속 여러 날 동안 낫지 않아 수라(水刺) 올리는 것마저 싫어하였는데, 이에 이르러서는 또 한열(寒熱)의 징후가 있어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고 약(藥)을 의논하여 시진탕(柴陳湯)을 지어 올렸다. 임금이 동궁(東宮)에 있을 때부터 걱정과 두려움이 쌓여 마침내 형용하기 어려운 병을 이루었고, 해를 지낼수록 깊은 고질이 되었으며, 더운 열기가 위로 올라와서 때로는 혼미(昏迷)한 증상도 있었다.

건강했던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급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록이 말해주고 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경종의 옆에는 연잉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선 최고의 의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잉군이 공개적으로 독살을 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게장과 인삼이 상극이라서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어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삼을 경종에게 먹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가만히 두어도 금방 사망할 것이 뻔한 왕을 반대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독살할 이유가 있을까? 영조는 총명한 왕이었다.

그렇다면 경종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경종은 평소에 병약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질병으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과도한 정치적 스트레스는 언제든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의 죽음은 예견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왜 끊임없이 경종의 독살설이 제기되는 걸까?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영조가 이복형인 영조를 독살했다는 주장은 반대파인 소론이나 남인이

	영조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인좌의 난이다. 영조의 즉위로 정계에서 물러난 일부 소론들은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인좌의 난은 진압되었으나 '경종 독살'이라는 정치적 명분마저 제거하지는 못했다. 이후 소론은 노론과 영조를 공격할 때마다 그 명분으로 경종 독살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유포시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조 31년(1755)의 나주벽서사건이다. 나주 객사인 망화루 기둥에 거병을 촉구하는 게시물이 붙은 것이 발단이 되어 수많은 소론들이 체포되어 국문을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신치운은 국문을 당하면서도 영조의 면전에 대고 "나는 갑진년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소!" 라고 말했다. 갑진년은 경종이 사망하던 해이다. 영조를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고 대놓고 따져 물은 것이다. 분노한 영조는 철저하게 보복을 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남인은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렇다고 '경종 독살'이라는 정치적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영남지방의 남인들이 조정에 등용되지 않는 동안 영조의 경종 독살설은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의해 전파되었다. 경종 독살은 영조의 정통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치적 무기였다.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민진원, 『단암만록』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60	의릉 수난사 - 1	작성자	배경식
제목	명당 중의 명당, 하늘이 숨겨놓은 땅 천장산	키워드	천장산, 명당, 정만석, 회릉

이야기

1724년(경종 4) 8월 25일 경종이 승하하자 같은 해 12월 16일 양주 중량포의 천장산(天藏山) 기슭 언덕에 예장하고 능의 이름을 의릉이라 하였다. 그로부터 6년 후 1730년(영조 6) 6월 29일 26세의 젊은 나이로 계비 선의왕후가 승하하자 같은 해 10월 19일 경종 왕릉 아래에 능을 조영하였다. 의릉은 왕과 왕비의 봉분을 한 언덕의 앞뒤로 배치한 동원상하봉(同原上下封) 능이다. 조선왕릉 중 효종의 영릉과 더불어 두 곳이 이런 형식이다. 곡장을 두른 것이 경종의 능침이며 그 아래 곡장이 없는 것이 선의왕후의 능침이다. 의릉은 능의 주인인 경종이 당쟁 속에 순탄치 못한 짧은 삶을 살다간 것과 같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

천장산은 동대문구 회기동·청량리동·석관동에 걸쳐 있는 해발 140m의 야트막한 산이다. 천장산은 풍수지리설이 널리 유행한 고려시대부터 불교적으로 명당터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천장이라는 한자이름에는 하늘이 숨겨놓은 곳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불교적인 의미로 부처님이 꽁꽁 숨겨놓은 보물 같은 땅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이곳은 길지로 널리 알려져 절이 지어졌다. 지금도 천장산 기슭에 남아있는 연화사의 삼성각 상량문에는 "진여불보의 청정법신이 시방삼세에 두루하지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천장산이라 하였다고 산 이름의 유래를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천장산이 왜 천하의 명당터로 지목되었을까? 순조의 맏아들 효명세자가 죽었을 때 묘를 천장산 좌측 언덕에 쓰기로 하면서 산의 지세를 둘러보고 온 도제조(都提調) 정만석(鄭晩錫)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여러 지사(地師)들과 다시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지사 박상발(朴祥發)·이현(李玹) 등이 모두 말하기를, '양주(楊州) 천장산(天藏山) 유좌(酉坐 :유방을 등지고 묘방을 향해 앉은 자리, 곧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한 자리)의 땅은 내룡(來龍)이 삼각산(三角山)에서부터 나누어진 맥(脈)으로 전지(田地)를 뚫고 골짜기를 지나 별도로 성봉(星峰)을 솟아오르게 하였으니, 기세는 마치 말이 달리는 것 같고 모양은 용(龍)이 내려오는 것같이 더욱 벗겨지고 더욱 바뀌어지면서 그 변화가 극도에 이르러서는 다시 천장산을 솟아오르게 하여 문득 구천(九天)에 호랑이가 날아가는 형국(形局)을 이루었으며, 몸을 뒤집어 형세를 거스리려고 머리를 돌린 기운이 순(順)하며, 뒷쪽에 배치되어 있는 겹겹의 산세는 개송(介送)이 분명하고 혈성(穴星)이 풍후(豊厚)하며 청룡(靑龍)과 백호(白虎)가 겹으로 감싸고 있고 당국(堂局)은 평평하고 반듯하며 수성(水城)이 가로로 걸쳐 있고 사안(砂案)이 손을 마주 잡고 조회하는 듯하니, 실로 크게 쓸 곳이다.'라고 하였습니다."(『순조실록』30년(경인, 1830년) 6월 27일자)

정만석의 말을 듣고 순조는 그곳에 묘소(墓所)로 정하도록 명하고, 이어서 봉표(封標)하고 역사를 시작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작 의릉이 위치한 곳은 천장산의 가장 좋은 명당터는 아니었다. 가장 좋은 위치에는 연산군의 생모 윤비의 묘인 회릉이 있었다. 그렇다면 영조는 경종을 왜

	이곳에 묻었을까?  <이문동에서 본 천장산과 석관2동 전경>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61	의릉 수난사 - 2	작성자	배경식
제목	의릉의 위치 선정에 얽힌 불편한 진실	키워드	의릉, 위치, 조선왕릉, 왕권
이야기	의릉(懿陵)의 의미를 한자로 풀이하면 크고 아름다운(懿) 무덤(陵)이란 뜻이다. 의릉을 직접 둘러보지 않은 이들은 일단 의릉이 묘명 그대로라고 느낀다. 왕릉이라면 왠지 우리는 크고 웅장할 것이라는 상상을 하기 쉽다. 그것은 왕이라는 절대권력자의 힘의 상징이 왕릉에 그대로 묻어나 있을 것이라는 상상력과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의릉은 다르다. 직접 의릉을 찾아본 사람이라면 의릉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얼마나 위선적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의릉은 왕릉치고는 참 초라한 무덤이다. 영릉이나 광릉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 세종의 영릉이나 세조의 광릉, 정조의 융건릉 같은 무덤을 가 본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의릉이 초라하다는 것은 무덤의 규모 등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짜 초라한 이유는 의릉의 위치 선정이다. 다시 말해서 의릉이 지금의 위치에 자리하게 된 사실 자체가 경종이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잘 말해준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보통 왕이 죽으면 제일 먼저 고려되는 부분이 왕의 장례지 선택이다. 조선 왕조 최고의 풍수전문가가 동원된 가운데 왕이 직접 왕릉 후보지를 선택한다. 하지만 이 경우도 사망한 왕이 살아생전 어떤 왕이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곧 살아생전 왕이 막강한 권력과 업적을 남긴 왕이냐, 그리고 그 후계자인 새 왕이 그 유산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왕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조선왕릉 가운데 최고의 무덤으로 꼽히는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 태종의 헌릉, 세종의 영릉, 세조의 광릉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왕릉은 후계자 왕들인 태종, 세종, 문종, 예종 등의 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선택한 조선 최고의 명당터이다. 왕이 직접 찾아가서 고르고 고른 명당터이다. 심지어 왕이 아닌 마마보이 왕으로 잘 알려진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의 능인 태릉은 왕비 단독 능인데도 웬만한 왕릉의 규모를 압도한다. 살아생전 문정왕후의 우먼파워를 짐작케 한다. 조선왕조의 국가법령인『경국대전』에는 왕릉은 한양도성에서 10리밖에서 100리 안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의릉은 당시 궁궐로 사용하고 있던 창덕궁으로부터는 약 6.4킬로미터, 사대문 중 하나인 동대문으로부터는 약 5.5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남한에 남아 있는 40기의 조선왕릉 가운데 현재의 서울시(한강 북쪽) 강북지역에 남아 있는 왕릉은 정릉, 태릉과 함께 의릉 3곳 뿐이다. 정릉과 태릉이 왕비의 무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릉은 도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정릉을 빼고는 역대 왕릉 가운데 도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장지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가깝다는 것은 배려나 권위의 차원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조선왕을 대표하는 건원릉, 세조의 광릉, 성종의 선릉, 숙종의 헌릉, 정조의 융건릉 등이 모두 의릉보다 훨씬 먼 도성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왕릉의 위치를 선정하면서 명당터를 찾아 도성에서 최대한 멀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도 살아생전 왕권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멀리 갈수록 그만큼 백성이 고달프고 장례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신하들은 왕릉을 되도록이면 도성 가까이 두고서 장례비용을 줄이려고 했다. 그러나 왕권이 강했던 왕이 사		

	망하면 그 권위에 밀려 신하들의 그런 발언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대로 왕의 권위가 약하고 후계자가 왕의 장지를 선택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정은 다르다. 신하들의 뜻에 따라 장지는 대충 선정된다. 경종의 무덤인 의릉이 바로 그렇다. 실록에는 후계자인 영조가 이복형인 경종의 장지를 선택하느라 고민한 흔적인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살아서도 슬펐던 경종은 죽어서는 더 슬펐을 것이다.  <의릉의 홍살문과 정자각 (출처 : 문화재청)>   <선의왕후릉과 무인석 (출처 : 문화재청)>
원천자료	『조선왕조실록』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62	의릉 수난사 - 3	작성자	배경식
제목	5·16 군사쿠데타로 의릉을 불법 점거하다	키워드	5.16 군사쿠데타, 중앙정보부
이야기	흔히 우리는 궁궐과 왕릉을 비롯한 문화재수난사하면 일본의 침탈에 의한 수난과 훼손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해방이 된 후 대한민국정부나 기타 다른 요인의 의한 수난이나 훼손도 적지 않은데, 의릉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왕릉이 훼손되는 이유는 다양한데, 왕릉이 국유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가기관에 의한 훼손이 가장 많다.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된 이후에는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식민 권력에 의한 훼손이 심했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통일정부가 들어서지 않고 남북 분단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한차례 훼손되었다. 휴전선과 가까운 파주, 양주와 서울 동북부 지역에 있던 왕릉들은 군사정부 시기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크게 훼손되었다. 태강릉은 선수촌, 사격장 등에 의해 좌청룡과 우백호가 훼손되었고, 기타 여러 능에 군부대 등 국가기관이 능역 내에 위치하여 능을 훼손하고 있어 시급히 이전하고 복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서삼릉은 조선왕릉 토지 매각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아 토지매각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서삼릉은 1960년대 수차례에 걸친 토지 매각으로 능역이 7개소로 분할되어 관리조차 어렵게 되어 있어 조속히 능역을 복원해야 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의릉은 5 · 16 군사쿠데타 직후부터 심하게 훼손되기 시작했다. 중앙정보부는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부터 능역 전체를 접수한 뒤 1962년 1월부터 무상임대로 사용하다가, 1972년 7월부터 중앙정보부가 정식으로 관리위임했다. 의릉은 조선왕릉 중 원형이 가장 많이,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왕릉이다. 중앙정보부는 왕릉의 우측 능선을 깎아서 넓은 축구장을 조성하고 콘크리트 청사 건물을 세우는가 하면, 좌측 능선 역시 청사를 짓기 위해 산허리를 잘라냈다. 1972년경에는 정자각 앞과 홍살문 사이에 땅을 파서 인공으로 연못을 파고 다리를 놓고 각종 관상어를 기르며, 온갖 외래 수종을 이식하여 일본식 조경 시설물들을 설치했다. 연못 주변에는 단풍나무와 향나무를 비롯하여 값비싼 정원수를 심고,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까지 가져다 놓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이 곳에 들러 연못에서 낚시를 즐겼다고 한다. 그 덕에 의릉은 조선시대 왕릉 가운데 가장 예쁜 왕릉으로 뽑히는 영광 아닌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고 한다.		
원천자료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63	의릉 수난사 - 4	작성자	배경식
제목	의릉,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의 현장이 되다	키워드	중앙정보부, 남산, 이문동, 7·4 남북공동성명
이야기	중앙정보부는 남산과 이문동(당시 지명)에 나뉘어져 있었는데, 본부는 이문동에 두고 국내 파트가 남산에 있었다. 남산 청사는 대지 2만5천여 평에 각종 지하비밀시설과 취조실을 비롯 5층 미만의 41개 건물로 구성되었다. 이문동에는 이보다 넓은 13만평의 부지에 국가정보연수원을 비롯하여 1,2,3,4,5별관 건물이 들어섰다. [동아일보]1995.9.26. 그렇다면 이문동 중앙정보부의 내부 구조는 어떠했을까? 안기부 정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의릉이 잘 정돈된 채 자리잡고 있고 오른쪽에 나지막한 안기부 본관 건물이 나타난다. [1993년 사진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흰색 페인트칠을 한 3층 건물이다] 본관 건물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층마다 창문이 높게 설치돼 있다. 1층 복도 등에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안기부의 부훈이 적혀 있다. 안기부 부훈은 김종필씨가 미국 중앙정보국의 신조인 '익명에의 정열'을 본따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에의 정열'은 치열한 국제정치의 뒷면에서 오로지 국가이익을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상대국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자국의 외교적 승리를 얻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서도 모든 공적은 정치인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정보기관의 구실을 상징화한 것이다. 이문동에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제한적이지만 외부인의 방문이 허락되었다. 1년에 한차례씩 열리는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나 외신기자 등을 위한 브리핑도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제한적이나마 본부 건물이 개방되고 있는 것은 이문동 건물이 대북한 정보분석 공작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홍보 차원에서 부분적인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기부 남산 건물은 한번도 외부에 개방된 적이 없다. 국내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남산안기부는 안기부 권력의 핵이다. 국내의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정치판단국과 이른바 '간첩수사'를 전담하는 대공수사국이 남산안기부를 이끌어가는 사실상의 쌍두마차이다. 안기부의 악명 높은 고문과 도청이 자행된 곳도 바로 남산안기부이다. [한겨레]1992.3.20. 이런 이유로 이문동 중정본부 건물에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대외적인 행사가 종종 열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분단 이래 남북당국자 간의 첫 대화로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이다.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입니다. 실은 제가 지난 5월 초 박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 흑백 TV를 통해 온 국민에게 평양을 방문했다고 깜짝 성명을 발표한 장소가 이문동 중앙정보부 종합청사 강당이다. 1961년 창설된 중앙정보부의 첫 번째 청사로 중정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잡은 곳이었다. 지금 이 건물은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역사성 때문에 등록문화재 제 92호로 지정되어 옛 중정 건물 중에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다.		

南北 공동 성명 全文

最近 平壤과 서울에서 南北關係를 改善하며 갈라진 祖國을 統一하는 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會談이 있었다.

서울의 李厚洛中央情報部長이 1972年 5月 2日부터 5月 5日까지 平壤을 訪問하여 平壤의 金英柱組織指導部長과 會談을 進行하였으며 金英柱部長을 代身한 朴成哲第二副首相이 1972年 5月29日부터 6月 1日까지 서울을 訪問하여 李厚洛部長과 會談을 進行하였다.

이 會談들에서 雙方은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共通된 念願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意見을 交換하였으며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키는데서 큰 成果를 거두었다.

이 過程에서 雙方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南北사이의 誤解와 不信을 풀고 緊張의 高潮를 緩和시키며 나아가서 祖國統一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들에 完全한 見解의 一致를 보았다.

外勢依存없이 平和的으로 統一

1、雙方은 다음과같은 祖國統一原則들에 合意를 보았다。

첫째、統一은 外勢에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받음이 없이 自主的으로 解決하여야한다。

둘째、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依據하지 않고 平和的方法으로 實現하여야한다。

세째 思想과 理念、制度의差異를 超越하여 우선 하나의民族으로서 民族的大團結을 圖謀하여야한다。

相互中傷않고 軍事衝突적극防止

2、雙方은 南北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信賴의 분위기를 造成하기위하여 서로 相對方을 中傷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것을 막론하고 武裝挑發을 하지 않으며不意의軍事的衝突事件을 防止하기위한 積極的인 措置를 取하기로合意하였다。

多方面的인 諸般 交流실시

3、雙方은 끊어졌던 民族的 連繫를 回復하며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키고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위하여 南北사이에 多方面的인 諸般交流를 實施하기로合意하였다。

南北赤회담成事되도록 적극協調

4、雙方은 지금 온民族의 巨大한 期待속에 進行되고있는 南北赤十字會談이 하루빨리 成事되도록 積極協調하는데 合意하였다。

서울~平壤間 常設直通電話설치

5、雙方은 지금突發的 軍事事故를 防止하고 南北사이에 提起되는 問題들을 直接、신속正確히 處理하기 위하여 서울과 平壤사이에 常設 直通電話를 놓기로 合意하였다。

統一위한 南北調節委員會구성

6、雙方은 이러한 合意事項을 推進시킴과 함께 南北사이의 諸般問題를 改善解決하며 또 合意된 祖國統一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할 目的으로 李厚洛部長과 金英柱部長을 共同委員長으로하는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運營하기로 合意하였다。

合意事項성실履行 民族앞에約束

7、雙方은 以上의 合意事項이 祖國統一을 一日千秋로 갈망하는 온겨레의 한결같은 念願에 符合된다고 確信하면서 이合意事項을 誠實히 履行할것을 온民族앞에 嚴肅히約束한다。

서로 上部의 뜻을 받들어

李 厚 洛　　金 英 柱

1972年 7月 4日

<7.4 남북공동성명 전문 (동아일보 1972. 7. 4)>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1972)>

	 <의릉 안에 있는 구 중앙정보부 강당 건물 (출처 : 문화재청)>
원천자료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64	의릉 복원과 시민 개방 - 1	작성자	배경식
제목	왕릉으로 인한 지역 사회(석관동 일대의 지역 공간)의 변화	키워드	석관동, 원주민, 도당, 수호군, 접근금지구역
이야기	유교적 세계관을 가진 조선시대 왕릉은 궁궐, 종묘와 함께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신성한 공간이다. 그곳은 또한 내로라하는 풍수들이 모두 동원되어 고른 천하의 명당이다. 그렇다면 왕릉으로 낙점된 지역 주민 입장은 어떨까? 한마디로 재앙 그 자체이다.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왕릉으로 지정된 곳은 외부인 절대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된다. 무자비한 철거가 시작되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강제로 떠나야만 한다. 무덤도 이장해야 한다. 왕릉으로 지정된 곳에는 사방 10리 안에 민가 하나 들어설 수 없다. 왕릉 주변으로 조성된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등은 땔감이나 집짓기로 좋은 나무들이었지만 벌목은커녕 낙엽 한 장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었다. 왕릉은 인공보다는 자연의 조건을 이용하는 구릉지의 산릉 위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왕릉 조성에 막대한 비용과 인원이 동원되었다. 작게는 3천에서 많게는 6천 명 정도가 3개월 동안 노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사람과 마을, 무덤을 옮긴 곳에 왕릉이 들어서면 새로운 마을이 조성된다. 능을 지키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곳, 이른바 능말이다. 의릉이 들어서면서 천장산 아래 살던 원주민들은 지금의 석관동 쪽으로 집단 이주했다. 천장산 아래 있던 산신을 모시는 도당(都堂)도 지금의 석관동 쪽으로 옮겼다. 그리고 의릉 주변에도 능을 지키는 능말이 만들어졌다. 의릉이 있는 천장산 주변은 조선시대 양주에 속했던 곳이다. 양주는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해 왕릉이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이었다. 태조의 건원릉을 비롯하여 왕과 왕비의 능만 모두 45개나 몰려 있었다. 여기에 대군이나 공주 등 왕실 가족의 묘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무덤이 양주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양주는 왕릉의 소재지라는 이유로 왕실로부터 특별한 은택을 입기도 했지만, 백성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컸다. 양주지역 백성들은 능침 부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왕릉 조성에 필요한 각종 요역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왕이 능행을 하기라도 하면 강제로 환경미화 작업에 투입되거나 능행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받쳐야만 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군 묘 공사에도 강제로 동원되기도 했다. 숙종 때에는 능원대군 묘에 세울 비석을 운반하는데 양주 백성 2천 명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왕릉을 지키는 산릉수호군으로 차출되어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 수호군은 왕릉에 배속되어 능 주변의 청소와 땔나무 벌채 감시 등의 일을 했다. 수호군은 왕릉을 조성하는 양주지역에서 차출되었기 때문에 천장산 주변에 살던 백성들도 당연히 산릉수호군에 편입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왕릉을 지키는 수호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태조 건원릉 수호군이 100명, 세조의 광릉을 지키는 수호군이 70명이었다는 기록을 통해 왕릉 수호군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양주 백성은 언제나 왕릉 수호군으로 차출되거나 언제든지 수호군으로 편입되어야만 하는 예비 수호군의 역을 지고 살아야 했다.		

	양주로 가는 국장 행렬이 지나는 곳이 동대문이고, 그 동대문 밖에서 제일 가까운 동구릉 가는 길목에 천장산과 의릉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의릉 주변에 살았을 백성들의 고충이 어떠했는지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정성스럽게 조성된 왕릉도 조선왕조가 멸망한 뒤에는 그대로 방치되었고, 의릉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 묘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일반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천장산의 나무는 땔감으로 벌목되기 일쑤였다. 그렇게 방치된 채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맞이했다. 1960년대까지도 천장산과 의릉 주변은 농사를 짓는 한가한 농촌지역이었다. 중앙정보부 건물이 의릉 안에 둥지를 틀면서 의릉은 다시 국민들의 접근금지 구역이 되었다. 해방 후 서울의 인구가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한가한 농촌지역이었던 석관동과 이문동 일대도 도시개발로 주변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나 천장산 일대는 개발제한과 고도제한 등 각종 정부 규제로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다. 경희대 평화의 전당 건물을 짓다가 안기부의 반대로 공사를 중단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천장산에 둥지를 튼 안기부 건물보다 높아서 보안의 위험을 느낀다는 것이 공사를 중단시킨 중요한 이유였다. 그래서 평화의 전당 건물은 안기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난 뒤 공사기간 20년 만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과 격리된 채 원형을 잃고 궁궐의 후원처럼 변모해 버렸던 의릉은 약 34년 만인 1995년 중앙정보부의 이전으로 접근 금지 구역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의릉은 어떻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원천자료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65	의릉 복원과 시민 개방 - 2	작성자	배경식
제목	34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키워드	안기부, 문민정부, 열린 음악회
이야기	국민 위에 군림하던 안기부의 위상이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이후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안기부의 개혁을 시사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안기부 개혁 문제가 불거지면서 안기부가 불법점거하고 있던 의릉의 국가 환수문제가 제기되었다. 1993년 봄, 김영삼 대통령 안기부 이문동 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모아 놓고 연설을 했다. “안기부는 과거 정치공작의 오명을 벗고 거듭나야 한다. 정치공작 등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요지였다. 김 대통령은 두 시간 동안 본부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식당 아주머니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하는 등 자상한 면을 보였으나 직원들은 뼈있는 대통령의 말에 긴장을 풀지 못했다고 한다. 김 대통령은 그 해 정기국회에서도 “안기부와 기무사의 기구를 축소하고 정치사찰을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1994년 1월 18일에도 안기부 이문동 청사를 방문하여 김덕 안기부장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안기부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이문동 안기부 청사 방문이 언론에 보도되고, 안기부 관련기사를 보도할 때 배경자료용으로 사용하도록 안기부 이문동 청사 사진을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때 공개한 사진은 『동아일보』 1993.3.23. 참조] 그런가 하면 1993년 6월 28일에는 평화의댐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으로부터 이문동 청사에서 창설 이래 첫 감사도 받았다. 그동안 안기부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안기부법 제12조에 따라 창설 이래 줄곧 감사 사각지대의 대명사였다. 이런 분위기에 속에서 야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안기부 청사가 무단점용한 채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이문동의 의릉 사적지의 일반 공개를 촉구했다. 1993년 7월 7일, 국회 상임위에서 박지원, 박계동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재 안기부 본부가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의 땅 20만 평 가운데 13만평은 문화재관리국 소유로 사적 204호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안기부가 62년 이곳에 건물을 지으면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이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군사독재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은 “안기부와 협의해 문제가 된 사적지를 문화재관리국으로 환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94년 9월 23일 열린 국회 상임위 대정부 질문에서 문화체육공보위에서 박계동 민주당 의원은 다시 “안기부의 이문동 부지는 사적지 의릉으로 문화재관리국의 소유인 이문동 부지를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일주일 뒤 김덕 안기부장은 안기부에 대한 국회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강남 내곡동에 신축중인 안기부 청사가 내년에 완공되면 의릉 일대의 녹지 등 7만7천 평의 부지를 문화재관리국에 이전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청사가 이전되면 부근 지역의 건물고도제한이 해제되는 등 그동안 보안시설과 관련해 민원의 대상이 돼 온 각종 규제가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5년 9월 안기부는 청사를 내곡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국가정보연수원으로		

이용되던 건물을 제외한 7만 7천여 평의 부지가 문화재관리국으로 이전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이문동 주변의 건물고도 제한이 없어지는 등 각종 규제도 철폐되었다. 1995년 9월 15일 문화체육부는 이문동 안기부 일부 부지에 영상예술종합센터를 세울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마침내 안기부는 1995년 9월 25일 강남 내곡동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보안 문제를 이유로 이사도 한달 동안 주로 밤에만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동안 청사가 남산과 이문동 등지에 분산되어 있어 예산 및 인력낭비와 업무의 비능률성으로 애로를 겪어온데다 서울정도6백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에 따라 신청사를 건립, 이전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1995년 10월 3일 저녁 바뀐 세상을 실감하는 KBS 열린음악회 공연 녹화가 구안기부청사 본관 앞 광장에서 열렸다. 안기부 이전 후 첫 공개행사로 사실상 '안기부 개방공연'의 의미가 두드러진 것은 출연진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날 공연에는 귀순 가수 김용과 조영남, 노래를 찾는 사람들 등이 출연했는데, 곡 선택에 안기부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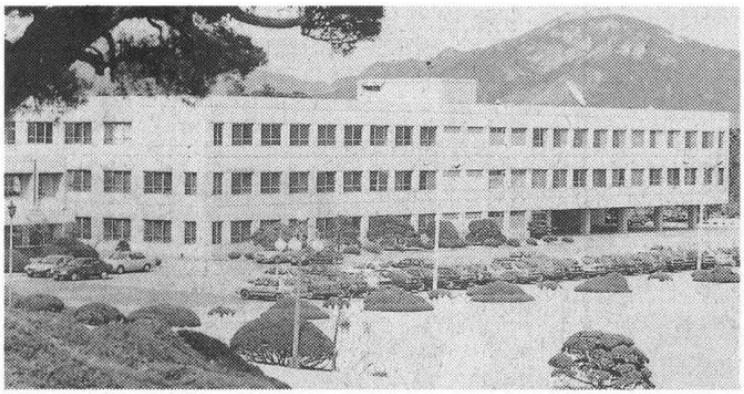
"안기부 측에서는 곡을 고르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운동권의 노래를 가능하면 피해달라느니 또는 곤란하다느니 하는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흡족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영남은 '아침이슬'을 불렀는데, 조영남이 새시대에 맞는 곡을 불러야 된다며 골라 부른 노래였다고 한다. 특히 노찾사는 당초 '사계'를 부를 예정이었으나 공연 직전 스스로의 선택으로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로 레퍼토리를 바꾸었다. 바뀐 세상을 실감하게 하는 장면이다. "살아서 만나리라"는 가사가 의미심장하다. 이날 공연을 TV로 시청한 사람들은 "안기부 청사에서 운동권 가요로 공연을 갖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이 기막힌 공연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열린음악회 총책임자 김승종 KBS주간의 말을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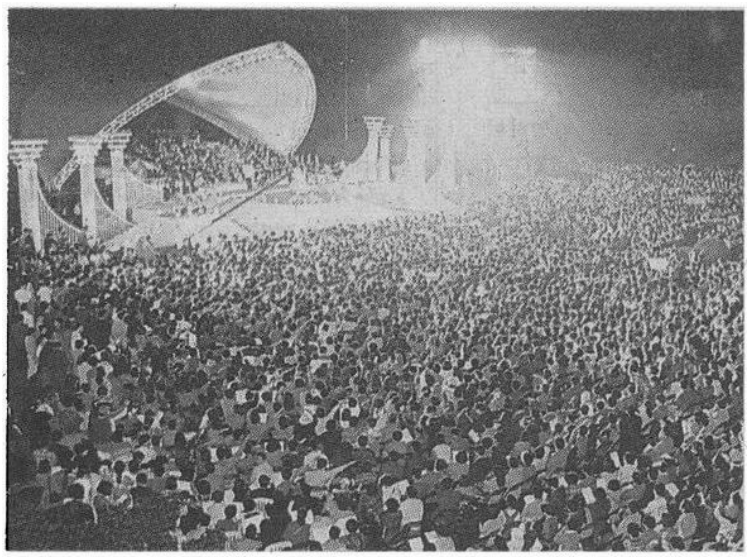
"안기부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안기부를 옮기면서 조선조 20대왕 경종의 묘가 있는 그곳을 문화재로 복원하고 한국종합예술센터도 만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회를 통해 이를 많이 알리자는 의도였겠지요."

무소불위의 권부를 공개했다고 해서 시중에 상당한 점수를 딴 행사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안기부는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흔적만 보여주면서 문을 연 흉내를 낸 것이다. 권영해 안기부장은 그날 열린음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원래는 참석하기로 약속했으나 다른 행사 때문에 오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이 역시 안기부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카멜레온 같은 안기부의 공작정치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영상문화의 산실로 탈바꿈할 안기부 이문동 청사.

<『동아일보』 1995. 9. 16>



이문동 안기부 청사앞 광장에서 3일밤 열린 「열린 음악회」. 〈崔東植〉

<『동아일보』 1995. 10. 4>

원천자료	『동아일보』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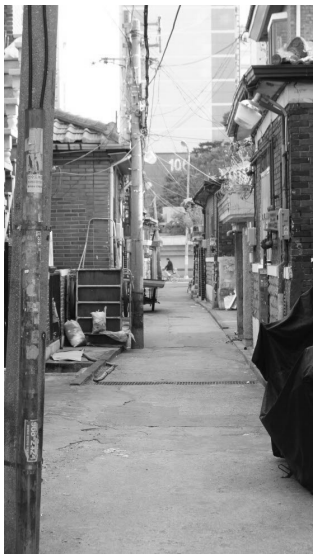
No. 66	의릉 복원과 시민 개방 - 3	작성자	배경식
제목	안기부는 떠났지만 안기부를 등에 업은 권력 횡포는 여전	키워드	내곡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념비, 퍼포먼스
이야기	안기부가 내곡동으로 이전하고 의릉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은 아니었다. 안기부의 일부 부서와 연수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건물의 잔영과 함께 안기부를 등에 업은 권력 횡포는 여전했다. 안기부를 드나드는 공익요원의 횡포에 분노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의 신문 투고를 한번 읽어보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중인 나는 14일 오랜만에 학교를 방문했다. 교문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안기부에서 당직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 인도로 올라가라고 했다. 그래서 그쪽을 쳐다보니 그는 대뜸 "뭘봐, 이○○야 하면서 욕과 반말을 계속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이었다. 그곳은 학교가 있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쉼터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그곳 안기부 직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계속할 것인가. 요즘 한총련 사태와 안기부법 개정 논의로 기세가 등등한 안기부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안기부 안의 분위기와 직원의 교육 상태가 어떻길래 말단 공익근무요원이 그저 지나가는 시민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안기부는 그 본래의 역할을 넘지 말아야 한다.(임우철,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겨레]1996.9.21. 그런 의미에서 안기부 기념비를 허무는 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역사인식 퍼포먼스가 의미 있다. 1998년 9월 28일 오후 옛 안기부 청사 터 중앙정보부기념물을 허무는 행위예술(퍼포먼스)이 열렸다. 공연의 제목은 '장군바위와 음지못', 공연자는 안기부 터의 새 주인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학생들이었다. 이날 학생들이 부순 기념물은 중앙정보부가 지난 71,72년 이곳에 '양지못' '음지못'이라는 두 개의 연못을 판 뒤 세운 가로 1.5미터, 세로 1.2미터 크기의 돌로 된 기념비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부훈에 맞춰 이 연못을 판 뒤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라고 새긴 기념물을 세웠다. 더욱이 이 연못은 사적 204호인 의릉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던 중앙정보부는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문화재보호구역을 마구 훼손한 셈이다. 이날 공연은 오후 4시 40분께 검은 옷을 입은 학생들이 기념비에 씌워놓은 천을 찢은 뒤 망치로 기념비의 모서리를 힘차게 부수면서 절정에 올랐다. 행사를 기획한 배요섭(29, 연출과)씨는 "옛 안기부 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만큼 여기가 어떤 역사의 현장인지 알고 과거를 새롭게 인식하자는 뜻에서 공연을 마련했다"며 "안기부로부터 고초를 겪었던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자는 뜻도 씻김굿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한겨레]1998.3.30.		

	 28일 오후 옛 안기부 자리인 서울 이문동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이 학교 연극원 학생들이 '음지못' 기념물을 깨뜨리고 있다. 이종근 기자 <『동아일보』 1998. 3. 30>
원천자료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67	의릉 복원과 시민 개방 - 4	작성자	배경식
제목	안기부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다	키워드	부지활용, 성북구
이야기	민간에 반환된 의릉 내 안기부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1999년 6월 14일 성북구는 최근 문화관광부가 석관동 산 1의5 일대 4,446평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지는 국가정보원이 차량정비소로 사용해왔으나 지난해 10월 이전한 후 성북구가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해왔다. 성북구는 석관·장위동에 학교가 3개에 불과해 학교당 학급수가 50개가 넘고 학급당 학생 수도 41~48명에 달하는 등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이 일대를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문화관광부가 국정원 정비소 부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문화관광부는 이 곳을 한국종합예술학교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성북구는 "초등학교를 짓기로 하고 이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부가 뒤늦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 3월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통해 초등학교 건립계획을 밝혔는데 문화부가 도시계획입안권을 가진 구청장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문화부는 "해당 지역이 왕릉이 있는 곳으로 엄연한 국유지"라며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기존 학교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마당에 지자체가 국유지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천자료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68	의릉 복원과 시민 개방 - 5	작성자	배경식
제목	마침내 제 모습을 되찾은 의릉	키워드	의릉 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야기	의릉 복원 사업은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되었다. 2002년 국자정보원으로부터 환수 받은 건물을 철거하고 전 능역을 복권한다는 기본방침을 수립했다. 2003년 발굴조사 당시 남아 있던 고 건축물은 정자각과 비각, 홍살문 뿐이었으며 수복방, 수라방, 재실은 멸실되어 남아 있지 않았다. 복원방법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에 걸쳐 복원 공사를 진행했다. 연못을 메우고 그 자리에 신도와 어구, 금천교 등을 복원했으며 강당 앞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흙으로 덮고 소나무를 심었다.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왕릉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이러한 관심에 부응해서인지 문화재청은 기존에 공개하였던 왕릉 이외에 비공개하고 있던 왕릉들도 서둘러 정비를 마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의릉은 과연 '아름다운 무덤(懿陵)'이라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한때는 금기의 장소였던 의릉도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평화로운 공원이자 쉼터로 바뀌었다. 소풍을 나온 근처 놀이방 유아들과 배드민턴을 치는 노부부, 나무에 툭툭 등을 부딪혀가며 운동을 하는 아주머니….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오늘 우리에게 조선왕릉은 도시 서울에 사는 후세들의 휴식을 위한 조상들의 선물이 아닐까?		
원천자료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69	석탄동에서 석관동으로 되돌아오기까지 - 1	작성자	문일웅
제목	개발시대 도시 거주 서민의 난방 문제와 연탄	키워드	연탄, 공급, 수요, 월동준비
이야기	오늘날에야 '월동준비'라는 말이 옷장 깊숙이 넣어둔 겨울옷을 꺼내는 정도로밖에는 인식되지 못 하지만, 산업화 시대 서민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을 의미했다. 월동준비는 크게 식구 수에 맞춰 수북하게 담은 김장김치와 광에 그득하게 쌓아올린 연탄으로 대표되었는데, 김장을 담그거나 연탄을 부리는 날은 식구들 가운데 한 두 사람쯤은 몸살이 날 정도로 고된 작업을 해야 하는 날이었다. 김장 김치를 담그는 것이야 전국이 매한가지였지만 도시 생활을 하는 서민에게 있어서 연탄은 각별한 것이었다. 시골의 경우 연탄을 구할 수가 없으면 근처 산지에서 나무를 베어올 수가 있었지만 도시의 경우, 특히 서울의 경우 나무를 구해 난방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60-70년대 도시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연탄에 얽힌 사연 하나 쯤은 대개 지니고 있을 것이다. 동네 어귀마다 미끄러운 곳에는 연탄재가 뿌려진 모습을 보거나 간혹 연탄가스를 마셨을 때는 어머니가 독에서 꺼내온 동치미 국물을 들이켜 답답한 가슴을 달래본 적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연탄이 서민의 난방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은 1960년대 초부터였다. 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석탄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연탄의 원료가 되었던 무연탄의 생산량을 늘렸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서민 입장에서는 값싸고 구하기 쉬운 연료인 연탄의 사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서울의 경우 1962년의 1977년까지 연탄 수요가 4배 이상 증가했으니 가히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탄의 수요가 팽창하여 그 생산이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무연탄의 생산은 강원도 탄광촌에 국한된 것인지라 지역마다 연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1962년 6월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연탄가격을 동결하여 19공탄의 공장도 가격을 6원 45전, 소매가격을 7원으로 동결하였고 연탄 1개당 무게는 4.5kg으로 동결 고시하였다. 아울러 그해 9월에는 쌀, 보리, 비료, 연탄, 석탄 등 5개 품목에 대해 정부에서는 민정(民政)으로 이양할 때까지 가격제한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1960년대 초 서울시 연탄수급사정은 매우 원활한 편이었다.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연탄의 공급은 부족하기 시작했다. 그 주된 원인은 무연탄의 생산량에 있었다기보다는 무연탄 산지에서 서울로 공급하는 철도 운수편의 부실에 있었다. 1966년에 발생했던 연탄파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해 가을 기습적인 한파로 연탄 수요가 다른 때보다 증가했는데 당시 서울로 무연탄을 실어 나를 화차의 감축으로 연탄의 공급량이 몹시 부족하여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켰던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연료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는데, 가정용, 발전용, 관수용, 상업용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연료를 무연탄에서 유류로 전환하도록 하는 에너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이 유류로 전환되었더라도 서민들에게는 값비싼 석유나 가스로 난방연료를 곧바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었다. 1973년 말 석유파동이 발생하자 안 그래도 높았던 석유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더욱이나 도시 서민들은 쉽사리 연탄 이외의 난방연료를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나 서울시 당국에서는 연탄에 대한 수급을 조절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은 석관동이 한때 '석탄동'으로 불리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석관동 골목 풍경 (2013)>  <석관동 골목 풍경 (2013)>
원천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김정숙, 2011,「서울특별시 연탄제조업의 입지특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70	석탄동에서 석관동으로 되돌아오기까지 - 2	작성자	문일웅
제목	연탄공장과 '석탄동'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석관동	키워드	철도, 수송정책, 석탄동
이야기	연탄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이에 대한 안정적인 연탄공급을 위해 정부는 연탄공장 단지 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책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연탄공장이 들어서게 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석관동과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였다. 1968년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서울의 연탄수요를 맞추고, 또 당시 문제가 되었던 서울 시내 중심가의 연탄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서울 외곽이었던 이곳에다 연탄제조업 단지를 조성한 것이었다. 무연탄 수송을 원활하게 만들고자 망우선 철로를 연결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당시 서울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연탄공장은 17곳이 있었다. 한강 이북지역에 14개가 입지해 있었는데 이는 강남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까지 인구가 강북에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석관동에 연탄공장에 설치된 것도 이때였다. 연탄은 주된 원료인 무연탄을 수송해와 공장에서 가정용 연탄을 성형하게 되는데, 부서지기 쉬운 연탄의 특성상 교통 및 수요가 많은 곳에 공장이 밀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탄제조업 단지의 조성은 석관동 일대의 주민들에게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지금처럼 공기정화시설이나 혹은 각종 매연에 대한 규제가 완비되지 않은 시절이었던 터라 석관동 일대의 주민들에게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일례로 1983년 1월 31일자 『중앙일보』 10면의 「희망취재란」은 제목부터가 「도심의 탄광촌……10여년째 수난」으로서 거주민들의 불만이 집단민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과정을 다루고 있었다. 당시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던 석관동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네를 "탄광촌과 다를 게 없습니다. 탄가루와 씨름하는 것도 이젠 지쳤어요"라면서 석관동이 흡사 '석탄동'이라고 푸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민들은 서울시와 연탄공장에 최소한 방진망을 설치해 주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누차 호소했으나 앞서 지역적 요인 및 수요공급의 편이성 때문에 이러한 청원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눈병과 피부병에 시달렸고 가옥은 매매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등 심각한 피해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서울시 측에서는 임시방편으로 검게 변한 저탄장 주변의 폭 12m, 길이 1.2km의 진입로를 새로 포장해주고 살수차를 가동하여 탄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석관동 일대의 연탄 공장은 그 수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시 수요의 41%의 연탄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서울의 난방수요가 석유 및 가스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기존의 연탄 난방의 연료 공급을 위한 공장들이 계속하여 석관동 일대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주민들은 저탄장에서 날아오는 석탄가루로 밤새 널어놓은 빨래가 검게 말라있는가 하면 대야에 물을 담아놓으면 까맣게 변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연탄의 수요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거스를 수 없었다. 1994년초 무렵 석관동 일대의 저탄장은 경제적 이유로 급감하던 연탄공장을 대신하여 버려진 공장부지에 중대형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김정숙, 2011,「서울특별시 연탄제조업의 입지특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71	석탄동에서 석관동으로 되돌아오기까지 - 3	작성자	문일웅
제목	석탄가루가 없어지자 철가루가 왠말이냐?	키워드	철도, 수송정책, 석탄동,
이야기	1994년 석관동 일대에 위치했던 연탄공장 가운데 동원연탄이 없어졌다. 연탄사업은 계속하여 사양산업화 되었기에 빈 땅이 된 그곳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개발될 것이 예상되었다. 성북구에서는 이 땅에 대규모 아파트촌을 계획하였다. 연탄 분진 등의 공해로 인한 30여년 간의 고질적인 민원 해소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게다가 그동안 중앙정보부가 지금의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지에 있을 때는 고도 제한에 걸려 인근 동네가 개발도 안 되었기에 동네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았다. 이에 성북구에서는 총 2만 1천 9백 10평의 부지에 16~25층 아파트 25동 1천 9백 98가구를 98년 3월까지 건립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은 당시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서울 4차 동시분양 계획 가운데 가장 큰 단위의 아파트 단지로서 석관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1996년에 접어들자 철도청에서는 이 지역에 전동차 기지창을 설치하고자 하여 석관동 일대 주민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 철도청에서 석관동 일대에 전동차 수리공장을 건립하고자 했던 것은 석관동 일대가 경인전철과 경원선, 중앙선이 지나는 요충지인데다 서울 시내에서 철도청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지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경인전철의 복선화와 중앙선의 전철화, 경원선 편성 증가 등으로 2002년까지 600여대의 전동차가 늘어가게 되어 기지창 건설은 절실한 문제였다. 그러나 석관동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석관동은 60년대 석관동 일대에 연탄공장단지가 조성되어 탄가루 때문에 고생했으며, 연탄공장이 없어지기 시작한 90년대 무렵에는 고물상과 재생공장 등, 이른바 '공해공장'들만 들어서 있었던 상태였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서울의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차별받고 있었던 와중에 또다시 공해시설인 철도기지창이 들어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게다가 기존의 연탄공장과 고물상 등에게서 매년 수십억원대의 임대수입을 챙겨왔던 철도청이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기지창 건설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석관동 일대 주민들은 차량기지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투쟁을 벌였으며 1996년 7월 31일에는 1만여 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철도청,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주민대표는 "우리는 동원연탄 등 연탄공장으로 인해 30년 동안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불편을 겪으며 살아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의 환경이 개선되어 갈 찰나 철도청의 갑작스런 결정은 주민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기에 주민들은 기지 건설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기지창을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은 체육시설이나 공원녹지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석관동 주민들과 철도청 사이의 대립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1999년에는

철도청이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재차 전동차 기지창 건설을 강행하려고 하자 주민들의 반대의사는 다시 들끓게 되었다. 주민들은 철도청의 강행 의지를 확인하자 곳곳에 플래카드를 걸고 기지창 건설을 막고자 하였다. 당시 석관동 일대 주민들이 내건 대표적인 구호는 "석탄가루 없어지니 철가루가 웬 말이냐!" 로서 주민들의 편의와는 상관없이 관청의 임의대로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잘 드러내는 구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삼천리 연탄공장 (2013).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58길, 석관이문 전동차량기지 바로 옆 중랑천변에 있다.>



<삼천리 연탄공장 옆 도로변 연탄을 적재한 화물차량 (2013)>

	 <차량에 실린 연탄들 (2013)>  <한국철도공사 석관이문 차량기지 (2013)>
원천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김정숙, 2011,「서울특별시 연탄제조업의 입지특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72	석탄동에서 석관동으로 되돌아오기까지 - 4	작성자	문일웅
제목	석탄동에서 석관동으로	키워드	녹지조성, 개발, 휴식공간
이야기	지금의 석관동 일대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탄공장은 이제 삼천리 연탄공장 하나만이 가동되고 있으며 그나마 무연탄은 방진시설이 구비된 공장 안에서 연탄으로 가공되고 있다. 그리고 철도청과 마찰을 빚었던 전동차 기지창은 석관이문전동차기지라는 이름으로 결국 건설이 되었다. 이러한 지금의 석관동 주변의 환경은 연탄이라는 서민의 필수 연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석관동은 도심지와 가까우면서도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기에 연탄공장이 입지하게 되었고 아울러 탄수송을 원활하게 하고자 부근에 저탄장까지 입지하게 되었다. 연탄사업이 사양산업화 되었을 때도 남은 서울시 연탄 공급을 위해 한동안 연탄공장이 계속 가동되었으며, 그 연탄 공장이 하나 둘 문을 닫자 저탄장 지역에는 철도청이 서울시 전체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전동차 기지창을 설치했다. 그러나 석관동 주민들의 노력으로 동네는 서서히 발전해 나가게 되었다. 일례로 지금 석관동 주민들의 좋은 휴식처인 석관동 104-4번지 일대의 녹지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다. 2000년대 이후 석관이문전동차량기지 부근에 7098㎡의 녹지조성을 위해 성북구에서는 낙락장송 38주, 스트로브잣나무 175주, 감나무 21주, 살구나무 14주, 왕벚나무 48주, 청단풍 53주, 덩쿨나무 700주, 병꽃나무 510주, 산철쭉 7530주, 영산홍 7680주, 자산홍 5150주, 맥문동 1만6564주, 중사철 6570주 등 26종 5만387주 등을 심었다. 아울러 이곳에는 우배수 집수정 4곳, 녹지경계석 등을 설치하고 녹지대 밑으로 중랑천 이용편의를 위해 폭 20m(왕복4차선 및 한쪽편 인도설치), 길이 150m의 지하보차로도 조성되었다. 이 녹지대의 조성은 아파트단지와 차량기지 사이의 소음 및 각종 공해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할 뿐더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전의 '석탄동' 이라는 이미지, 즉 저개발되고 소음 공해에 찌든 동네라는 이미지에서 지금의 석관동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시대의 추세도 아니요 정부의 시혜도 아니었다. 자신의 동네에 대한 애착을 가진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한 결과물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그런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 석관동 개발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도 동네 곳곳에서는 아파트 건설과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면서 이곳은 예전의 검고 칙칙했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주민들의 동네에 대한 애착이 '석탄동' 을 다시 석관동으로 바꾸었듯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발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김정숙, 2011,「서울특별시 연탄제조업의 입지특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73	쇠고랑 찬 “꿈 속의 학사님” - 1	작성자	문일웅
제목	장위동이란 마을의 유래	키워드	동명유래, 개발, 장위산
이야기	장위동(長位洞)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로 마을 뒤의 장위산(獐位山)의 이름을 따되 훗날 한자를 변형시켜 장위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실제로 이 동네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줄곧 농민들이 살았으며 별다른 특산물 없이 벼농사와 조, 수수, 고추 등의 작물만 재배되었다고 전해진다. 거주민들의 생활이 전통시대 한국의 보통사람들과 차별성이 없었다는 점은 자연스레 마을의 특징적인 자연물로 마을 이름을 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의 마을 이름 대다수가 그 주변의 산, 강, 바위처럼 두드러진 자연물에서 따왔다는 점은 이러한 추론에 개연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오래 전에 이 마을에 명신(名臣)이 살았었기에 장위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보는 견해이다. 마을 이름 장위(長位)의 한자 뜻을 풀어본다면 ‘높은(長) 관직(位)’이라는 뜻이다. 자연촌으로 이루어진 행정단위인 리(里)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조선초부터 이 마을 이름이 장위동이었다는 점은 앞서의 한자 뜻풀이와 함께 결부시킨다면 조선 이전의 시기, 즉 고려시대 언젠가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이 마을에 살았기에 장위동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이 마을에는 조선 후기 이조판서를 지냈던 윤용구(尹用求)가 살기도 했다. 윤용구의 호(號) 가운데 장위산인(獐位山人)은 바로 장위동, 혹은 장위산을 염두해 둔 것이었다. 첫 번째 추론은 이 마을이 전통시대 한국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두 번째 추론은 반대로 사회적으로 입신양명(立身揚名)한 인물을 기반으로 하여 추론한 것이었다. 평범한 사람들과 사회적 명망가의 이미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장위동이라는 마을 이름의 개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성은 어쩌면 장위동이라는 마을 사람들의 개성일 수도 있겠다. 요컨대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추론을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삶과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에 대한 소망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구비한 마을이 바로 장위동이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장위동의 시간은 머물러 있다. 말도 많았고 또 탈도 많았던 뉴타운 개발 방식 관련 논의는 아직도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지만 사실 양쪽 모두 장위동의 발전이 더뎠다는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 지금껏 장위동은 행정구역상으로도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며 한국의 장삼이사들이 오늘 내일 꿈을 향해 한 발 자국 내딛고자 노력해 왔던 동네였다. 그것이 비록 시대적 제약이나 각종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 했을지라도 그 꿈만은 포기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계속 지닌 것이 바로 장위동이었다. 앞서의 뉴타운 개발 방식에 대한 논의는 큰 틀에서 보자면 가족의 행복을 위하고자 하는		

소박한 각자의 소망이 그 방식을 두고 고민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해방 이후 장위동 사람들의 면모는 그 이전 시기와 연속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개발로 인한 마을의 발전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도 그 개발의 수혜는 장위동을 살짝 비껴갔다. 그 때 장위동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어느 청년의 사례는 장위동 사람들이 느꼈던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 청년의 선택 자체야 개인적인 것이며 젊은 혈기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청년이 느꼈던 감정 자체는 장위동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공유해 왔던 것은 아닐까?



<장위동 김진흥 가옥(서울시 민속문화재 제25호)으로 가는 골목 (2013)>



<장위동 김진흥 가옥 (소재지: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34길 4-11)>



<장위동 김진흥 가옥 안뜰 (2013)>



<장위동 김진흥 가옥 담장의 빗물 구멍(좌)과 축대, 계단(우) (2013)>



<고 김진흥 부도탑 (2013)>



<장위동 김진흥 가옥 앞뜰의 향나무 (2013)>

원천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74	쇠고랑 찬 “꿈 속의 학사님” - 2	작성자	문일웅
제목	복면강도 사건과 60년대 장위동	키워드	복면강도사건, 거금, 서민생활
이야기	이야기의 배경은 1960년대이다. 1961년 11월 19일 장위동에는 복면강도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당시 주소로 성북구 장위동 64번지였으며 최광진(崔光鎭)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다. 세 명의 범인은 새벽 3시 30분쯤 집에 침입한 뒤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두 명은 후래쉬로 잭 나이프를 보이며 최광진 내외를 협박하여 당시 돈 21만환과 각종 귀금속 등 총 30여 만환어치를 탈취하고 도주했다. 당시 30여 만환은 지금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녔을까? 당시 쌀값이 상당히 폭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 1만 5천환 정도였고 보릿고개가 찾아오는 봄 무렵에는 정부에서 비축미를 방출해도 쌀 가격이 2만환정도로 육박했다. 당시 다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던 창고지기의 월급이 6만환 가량이었고 고위직이었던 육군 대령의 월급은 18만환 가량 되었다. 이를 놓고 본다면 당시 돈 30만환 정도는 서민들에 있어서 5달치 월급에 해당했으며 고위직 공무원, 혹은 좋은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 2-3달치 월급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절 서민들은 대개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현금을 집에다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당시 돈 21만환과 9만환어치의 귀금속은 피해자 최광진의 전재산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경찰의 수사에 의한다면 강도들이 최광진의 집에서 탈취해 간 귀금속의 내역이란 것이 반지 하나, 은수저 하나, 손목시계 따위의 것이었다.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지극히 소박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 복면강도는 장위동 거주 서민의 전재산을 턴 것이었다. 1960년대 한국 사회는 곳곳에서 강도, 도둑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다. 당시 신문에 의한다면 신문의 사건 사고 란에는 연탄가스 중독 사례와 비견될 정도로 강도, 도둑, 절도사건에 대한 기사가 빈번하게 게재되었다가 새로운 사건으로 대체되곤 하였다. 당시 대다수 가정의 난방연료가 연탄이었으며 동네마다 빈번하게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시 사람들은 곳곳에서 범죄가 일어나 흡사 ‘무법천지’라 느낄만 했다. 당시 『경향신문』 1961년 1월 10일자 1면의 「지의천어(地意天語)」(당시의 세태를 풍자하는 고정코너였다)에서는 강도, 절도가 부쩍 늘어가는 현상에 대해 “못 먹고 사는 인간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못 먹고 사는 인간이 많다는 것은 국민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물가에서 쌀 한 가마니가 서민들의 월급 3분의 1 정도에 육박했다는 사실은, 당시 쌀의 가치가 높았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시의 서민 살림살이가 몹시도 쪼들렸다는 것을 방증한다. 장위동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전재산 30여만환을 보유했던 최광진이라는 인물의 경우 역시 대한민국의 장삼이사, 아니 장위동 거주 주민의 흔하디		

	흔한 사정 살림이었을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는 장위동 일대를 서울의 '변두리'로 묘사하고 있었고, 기존의 토박이 주민들과 여기저기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기본적 물화를 공급받을 수 있게끔 막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서민들의 동네가 바로 장위동이었다. 당시 어려웠던 경제 환경 속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던 장위동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소식을 들었다면 자신의 일처럼 분개하며 눈먼 욕을 해댈만 했을 것이다.  西紀1961年11月24日 (陰曆十月十七日 辛酉) 뉴스의 뉴스 쇠고랑찬 꿈속의 學士님 가난이 良心불태워 얼음풍子장수로 大學까지갔건만 자릿잘못으로 犯行 <'쇠고랑 찬 꿈속의 학사님' (동아일보 1961. 11. 24)>
원천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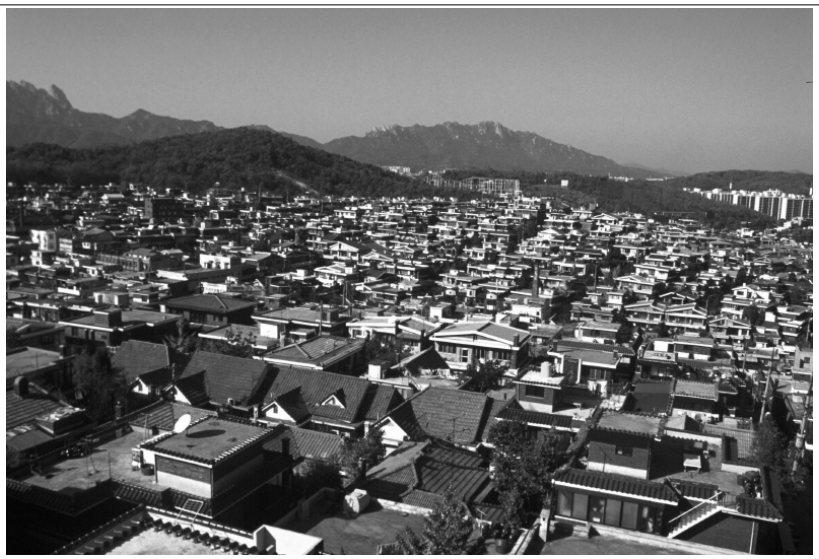
No. 75	쇠고랑 찬 "꿈 속의 학사님" - 3	작성자	문일웅
제목	복면을 벗은 강도의 맨얼굴	키워드	체포, 대학등록금, 생활고
이야기	최광진의 신고를 접했던 성북경찰서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틀 후였던 21일에 '시내 모처'에서 강도 용의자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그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장물들은 고스란히 최광진 가족들이 장롱 깊숙이 묻어둔 전재산이었음은 물론이었다. 강도들 가운데 한 명은 장위동에서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두 명은 장위동 부근인 숭인시장쪽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었다. 경찰의 조사에 의한다면 장위동 3인조 복면강도단의 면면은 앳된 청년들이었으며 범죄와는 인연이 없는 모습이었다. 특히 장위동에 거주했던 범인인 황인철(黃仁哲)의 경우 검거 당시 21세에 불과한 청년이었으며 누가 봐도 평생 범죄라고는 저질러 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 점에서 검거된 강도의 면모는 사람들의 고정 관념을 깨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의문은 단순한 분노에서 자연스레 강도단의 이력으로 옮겨졌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장위동 주민이자 같은 동네 사람 집을 습격한 범인 황인철(黃仁哲)이라는 인물이었다. 당시 『동아일보』 1961년 11월 24일자 2면에서는 황인철이라는 인물의 이력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여 뭇 사람들의 궁금증에 답을 하고 있었다. 범인인 황인철의 고향은 황해도 연백군이었다.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해 고향의 부모를 남긴채 형과 누이를 따라 월남한 인물이었다.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지만 악착같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이스 께끼' 장사를 해가면서 시내 B야간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때때로 그는 그의 형 집에서, 또 때로는 그의 누이 집에서 기거를 해가면서 여름이면 '아이스 께끼' 장사, 겨울이면 담배 장사를 해 가면서 푼푼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소 형편이 어렵긴 했지만 숙식을 형과 누이의 집에서 해결했고 딱히 부양해야 할 그의 가정도 없었던 만큼 황인철은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야간 중학을 마친 황인철은 곧바로 주간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큰 뜻을 품고 학교가 파하기만 하면 밤늦게까지 다방가를 찾아다니며 담배장수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피로에 지친 몸에 채찍질을 해가며 공부에 열중하였다. 그는 비록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낙담하지 않고 계속 학업과 일에 정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내딛어가고 있었다. 그는 1958년에 서울의 S대학교 법대를 지원하였다. 첫 시험은 낙방이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담배팔이를 하면서 매일같이 도서관에 들려 입시 준비에 열중하였다. '또 다시 실패한다면..'이라는 초조감에 뒤쫓기면서도 그는 매일같이 담배를 팔아 남은 약간의 이익금을 저축하였다. 이는 그가 법대에 합격했을 때의 입학금을 위한 것이었다. 그의 뜻은 이듬해, 즉 1959년 봄에 이루어졌다. 그는 당당히 S대학교 법대에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이었다. 그의 형과 누이의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던 것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때 목 놓아 울기까지 했다고 했다. 황인철은 푼푼이 모은 돈과 형과 누이가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보태주는 돈으로 의젓하게 새교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다. 그는 이때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가난의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계속 그를 뒤따랐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76	쇠고랑 찬 "꿈 속의 학사님" - 4	작성자	문일웅
제목	꿈속의 학사님	키워드	대학등록금, 입신양명, 서민 생활
이야기	1959년 9월, 즉 S대학교 법대의 1학년 2학기 과정이 시작되었지만 황인철의 꿈만 같은 세월은 여기까지였다. 그는 등록금이 없어 학교에 휴학계를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서울대학교의 등록금은 6만 5,900환 정도였다. 예나 지금이나 국립대의 등록금은 저렴했으므로 당시 서울시내의 사립대학 입학금은 이를 상회했을 것이다. 당시 사립대학교 등록금은, 당대 신문기사를 참조한다면 10만환을 상회했다. 지금 서울 시내의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일반 서민의 2-3달치 월급을 상회하는 450만원 전후인 것을 감안한다면 1960년대 전후 한국의 대학 등록금도 지금 못지않게 비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모아둔 돈이 대략 얼마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첫 학기를 마치고 재차 높은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했을 때 느꼈을 좌절감은 상당했을 것이다. 자포자기 상태가 된 그는 이때부터 길거리를 헤매게 되었다. 얼마간 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도서관에 나가 보았다. 그는 이 무렵 머릿속에 실망만 가득하여 도서관에 가도 책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고단한 현실과 그 나름의 꿈을 위해 넘어야 할 벽이 아직도 많았다는 사실은 그를 자연스레 밖으로 나돌게 만들었다. 사건을 일으키기 20일 전 그는 형과 누이의 꾸지람을 듣고 욱하는 마음에 집을 뛰쳐나왔다. 그는 당시 동대문 밖에 위치하였던 숭인동 시장가 친구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진술을 하면서 그 친구집을 찾아간 것이 잘못이었음을 후회하였다. 할 일도 딱히 없었을뿐더러 머릿 속에는 허탈감만 가득했던 그는 자연스레 친구 집 앞의 무허가 이발소에서 하루 종일 소일하게 되었다. 이 이발소에서 그는 공범이자 비슷한 처지였던 윤 아무개, 이 아무개라는 청년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는 이들과 공모 끝에 "용돈을 벌자" 하고 19일 새벽 장위동의 최광진 집에 난입하여 강도행각을 벌였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떨립니다. 한 없이 내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그는 진술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가슴 속 깊이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다. 이 황인철 청년의 행동은 뭇 사람에게 단순한 일탈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의 강도 행각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을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쉽사리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청년의 한때 범죄가 과연 우리와 별도의 세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것으로는 볼 수 있을까? 그의 범죄는 당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혈기 왕성한 청년이라면 쉽게 빠져들 그런 유혹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청년이 거주했던 장위동 일대의 사정을 살펴보자. 대표적인 서민 거주지였		

	던 장위동의 경우 숱하게 황인철 같은 청년이 살았을 것이다. 어렵고 힘든,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입신양명을 꿈꾸며 혈기왕성한 젊음을 유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범죄는 차라리 하나의 '실수'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비록 죄는 저질렀어도, 또한 같은 동네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하고자 했던 소박한 꿈을 모아둔 그런 금전을 갈취했지만 그 역시도 소박한 꿈을 이루고자 했던 장위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 기억할 수는 없을까?
원천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77	쇠고랑 찬 "꿈 속의 학사님" - 5	작성자	문일웅
제목	서민의 애환과 장위동의 미래	키워드	長位, 개발
이야기	장위동은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이 주로 사는 동네다. 대한민국의 장삼이사(張三李四)가 장위동이라는 공간 속에서 오늘도 분주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의 행복, 아울러 자신의 동네 발전을 염원하는 소박한 희망을 품고 살고 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 장위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이 동네가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을 품고 있는 형상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위동이라는 이름이 꽤 유서 깊은 것이라는 점은 장위동이라는 공간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면면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몇 년 전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뉴타운이라는 분쟁이 등장했다. 각기 뉴타운에 대해 대립했던 것도 결국은 그 방법에 있는 것이었지 내 가족과 동네의 발전이라는, 꽤 유서 깊은 동네 사람들의 정서는 서로가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앞서 황인철 청년의 사례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볼 수 있겠다. 이 청년의 사례에서 범죄는 하나의 일탈이자 실수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의 힘든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은 그 당시 동네사람들이 공유했던 희망과 그리 차별적인 것은 아니었다. 황인철 청년의 사례는 사려 부족하고 혈기 왕성한 청년이 잘못된 방법으로 저지른 하나의 실수였지만, 이는 소박한 희망을 이루고자 한 장위동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난 실수였다. 누가 그에게 무턱대고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앞서 우리는 장위동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황인철 청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마을 사람의 소박한 희망이 때때로 좌절되거나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많았다. 그럼에도 장위동은 계속하여 장위동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장위동의 한자 이름은 '길 장(長)' 자에 '자리 위(位)' 자다. 한자의 묘미는 그 맥락에 따라 뜻이 변하는 데 있다. 장위동 사람들의 삶과 이 한자의 뜻을 결부시켜 본다면 또 하나의 장위동 유래에 대해 써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길 장' 자에 '자리 위',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다. 어쩌면 이 장위동에서 오랫동안 함께 같은 자리를 지지고 볶고 살면서 각자의 소박한 희망을 나누고 격려해 주는 그런 동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고 아울러 미래 역시도 그렇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타나내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장위동이라는 이름은 이 마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이름이라 할 수 있겠다.		



<석관동에서 바라본 장위동 (1997). 멀리 드림랜드(현 북서울꿈의숲)도 보인다.>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장위동 (2013)>



<장위동 거리에 걸린 현수막들 (2013)>

원천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78	성북구의 동제(洞祭) - 1	작성자	백외준
제목	정릉3동 배밭골 산신치성제	키워드	정릉3동, 배밭골, 산신제

이야기

◦ 일시 : 2013년 11월 3일 오전 11시 (음력 10월 1일)
◦ 장소 : 정릉3동 배밭골 북한산 숲체험장 내에 마련된 제단
◦ 주관 : 정릉3동 시립북악노인정

정릉 입구 삼거리에서 북악터널 방면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다 국민대학교 조금 못 미쳐 왼편으로 시선을 옮기면 널따란 소쿠리 같이 움푹 파인 지형에 집들이 빼곡히 들어찬 마을 하나가 보인다. 정릉3동 배밭골이다. 마을은 정릉로와 내부순환로가 지나는 북쪽을 제외하면 동서남쪽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남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가는 북악산 줄기와, 서쪽의 북한산 보현봉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배밭골을 둥지처럼 감싸고 있다.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 아침에 들른 배밭골은 10시가 넘었는데도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전부터 동네 입구에 내걸린 현수막은 이 날이 배밭골 산신제 날임을 알려 주었다. 현수막을 지나 몇 걸음 올라가니 길 옆으로 작은 개천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작은 다리를 건너자 오르막길이 시작되었는데 산 공기가 상쾌하다. 기슭까지 단풍이 물든 가을산은 간밤에 내린 비에 젖어 있었고 간간히 산새의 울음소리가 골목까지 들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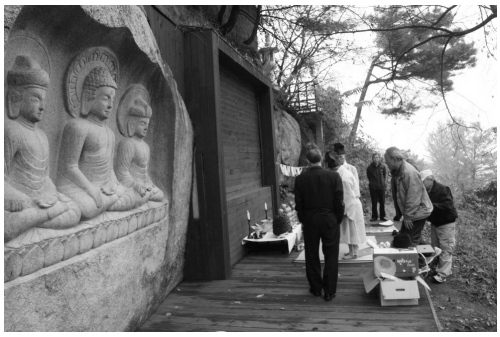




<산제단 올라 가는 길 (2013)>

산제단은 북한산 숲체험장 안에 있었다. 성북구가 2009년 6월에 정릉동 산87-1번지 일대에 조성한 북한산 숲체험장은 야생화 단지와 작물 재배지 등이 있어서 어린이들과 시민들에게 항시 개방되어 있는 곳이다. 산제단은 숲체험장의 가장 안쪽 둔덕 위 커다란 바위 절벽 아래에 설치되어 있었다. 바위에는 결가부좌한 불상 세 구가 고부조로 양각되어 있었고, 그 오른편에 목재 데크로 만들어진 단이 있었는데 이를 산제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필자가 도착한 때는 10시 30분경이었는데 제단 위 상차림은 이미 끝난 상태였고 막 제복을 차려 입은 제관들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다. 제복을 입지 않은 분들은 찬조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소지를 끈에 매달아 제단 옆에 걸고 있었고 다

른 분들은 뒤쪽에서 제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어르신이 필자더러 어디서 왔냐고 하시기에 성북문화원에서 산신제 취재차 왔다고 하니 “기자 양반 사진 좀 잘 찍어줘” 당부하신다. 산신제를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배밭골에 있는 시립북악노인정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라고 한다.

<산신제를 준비하는 모습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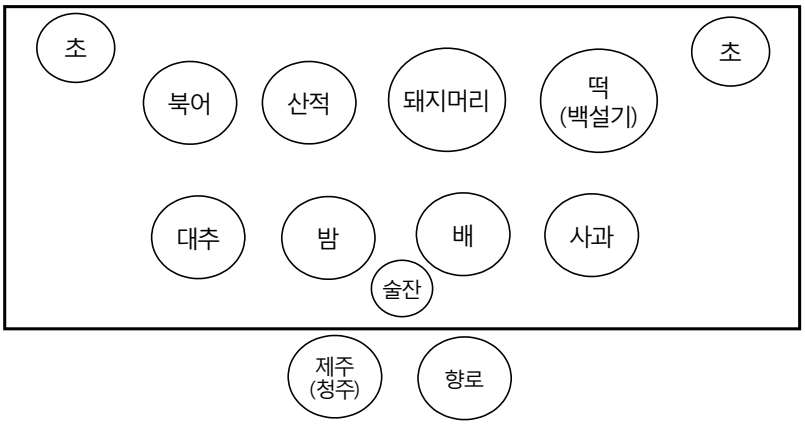





<산신제를 봉행하는 모습 (2013)>

원래 11시에 시작하기로 된 산신제는 조금 앞당겨진 10시 40분에 시작되었다. 산신제에 차려진 제물은 돼지머리와 떡, 산적, 북어, 사과, 배, 밤, 대추, 술이었다. 제물 차림은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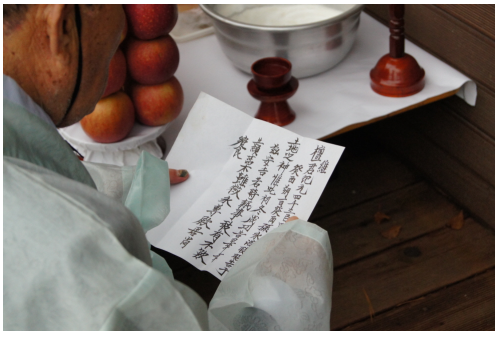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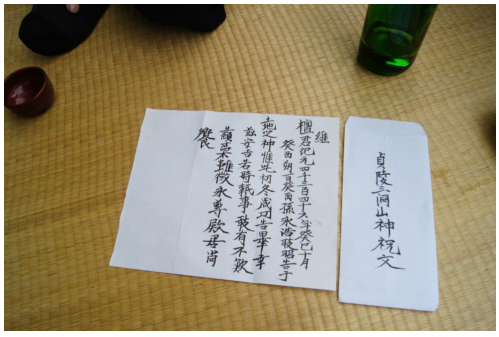


<배밭골 산신제의 제물차림 (2013)>

산신제 절차는 간명했다. 진설이 끝난 뒤 초헌관이 분향을 하고 첫잔을 올린 다음 재배했다. 이어서 독축이 끝나면 아헌관과 종헌관이 차례로 나아가 잔을 올리고 재배했다. 마지막으로 음복례를 행한 뒤 제를 마쳤다. 소지는 특별한 의식 없이 제단 앞 공터에서 살랐다. 축문은 집례자이자 독축관을 맡은 이진용(78) 어르신이 직접 지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 4346년 10월 1일 계유일에 손영호(孫永浩)가 감히 토지의 신에게 고합니다. 이 초겨울 한 해 수확이 끝났는데 다행히 편안하고 길하였음을 고합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하는데 감히 공경치도 못하고 제수도 비록 미약하지만 그 계신 곳에 영원히 바치오니 흠향하시옵소서. (維 檀君紀元 四千三百四十六年癸巳十月癸酉朔一日癸酉 孫永浩敢昭告于土地之神 惟此初冬 歲功告畢 幸玆安吉 若時報事 敢有不欽 蘋藻雖微 永尊厥居 尙饗)





<독축하는 모습과 축문 (2013)>

제사를 마치고 어르신들이 둘러 모여 진설한 음식과 술을 드시고 계시는 사이 갑자기 산 아래쪽에서 스님 한 분이 제단 쪽으로 올라 왔다. 산제단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이 앞 대덕사에 계시는 스님인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오늘처럼 부처님(바위에 부조한 세 불상을 가리킨다) 앞에다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 지내는 것은 보기에 안 좋으니 다음번에는 이 위에 또 단이 하나 잘 꾸며져 있으니까 거기 올라가서 제사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부탁이었다. 북악노인정 어르신들은 스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니 내년에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는 음식과 제수 용품을 챙겨 하산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산신제가 끝난 뒤 북악경로당에서는 큰 상을 차려 산신제에 오신 손님들과 마을 주민들을 대접했다. 제사가 남자들이 주도해서 치러지는 것과 달리 경로당에서의 음식 대접은 모두 여자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상마다 육개장, 전, 도라지무침, 김치, 황태찜, 떡 등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소주도 내주었다.

이번 산신제를 주관하신 정릉3북악경로당 회장 조화연 어르신은 산신제가 제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배밭골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금은 주로 노인들만 참여하는데 남녀노소와 종교를 불문하고 온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동네 한마당 잔치로 바꾸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저기서 오신 손님들 대접하느라 부산스러운 와중에도 직접 성북문화원 직원들이 앉아 있는 밥상 옆으로 오셔서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는 조화연 어르신의 음성은 부드러웠다.

> 이날은 배밭골 8개통 주민의 날이야. 옛날부터 무사안일, 무사태평을 기원하려고 산신제를 지내 왔던 거지. 선배들이. 요걸 배밭골 남녀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 그럴라면은 장수상(長壽賞), 모범통장상 수여식이나 민속놀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꽹과리도 치고, 젊은 사람도 참여하고, 착한 어린이상도 주고 그러는 행사를 만들어야지. 의논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해볼까 생각 중이야. 옛날식대로 산신제 지내고 먹고 떡 나누고 소지 올리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산신제 끝나고 난 뒤에 그런 행사도 해서 주민 한마당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구청의 지원도 좀 많이 받아야 하고 주민들의 협조도 필요하지. 예산이 천만원 정도는 들 거야. 주민들 협조 받고 구청 지원 받고 해서 그렇게 해야지. 산신제는 배밭골 주민의 무사안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민속문화지. 북한산 산신에게 고하는 거지. 좋은 일이지만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 옛날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배밭골에) 교회가 둘이나 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해. 그니까 고것을 바꾸어 나가야 해. 산신제 지내는 날에 산제 지내는 사람은 지내고 그 후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노는 배밭골 주민 한마당으로 바꿔 나가야지. — 정릉3동 북악경로당 회장 조화연

온 동네 사람들이 참여하는 마을 축제. 그 장면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았다. 일요일 오전 배밭골에서 청년과 아이들의 얼굴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을이 삶의 단위이자 범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그나마 가족만이 유일한 생활공동체로 남은 오늘날 도시인들의 상황은 이곳 정릉3동 배밭골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듯했다. 그렇지만 정릉3동 배밭골 어르신들에게 온 동네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벌이는 축제로서의 산신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오랜 시간 마을을 감싸고 있는 북한산의 따뜻한 품에서 알토란같은 삶들이 지속되는 한 이웃들 간의 순수한 유대의 끈은 끊어지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원천자료	조화연 씨(정릉3동 북악경로당 회장) 구술 증언 자료 현장 취재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79	성북구의 동제(洞祭) - 2	작성자	백외준
제목	정릉2동 산신제	키워드	정릉 안 산제단, 정릉2동 공청회
이야기	◦ 일시 : 2013년 11월 3일 오후 2시 (음력 10월 1일) ◦ 장소 : 정릉2동 정릉 안 약수터 옆 산제단 ◦ 주관 : 정릉2동 공청회		



<산신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정릉2동 아리랑시장에 걸렸다. (2013)>



<정릉2동 공청회관 앞에 내건 산신제 현수막 (2013)>



<산신제 찬조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가 정릉2동 공청회관 앞에 걸려 있다.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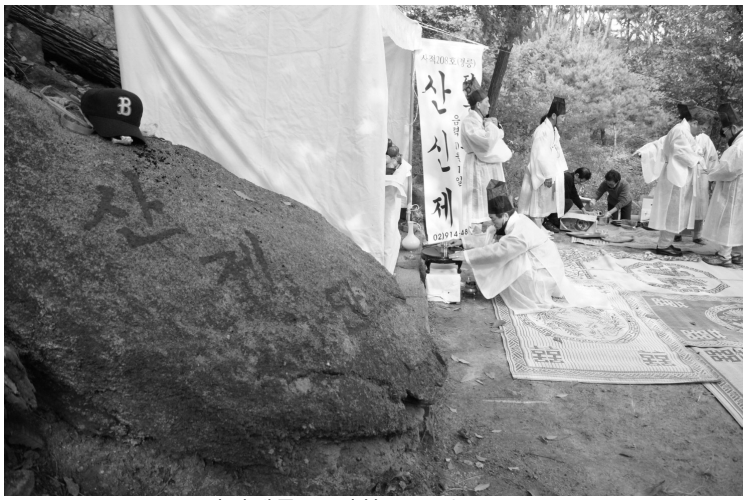
<아리랑시장에 걸린 청사초롱 (2013)>



<산신제 날 정릉 정자각 (2013)>



<산제단 옆에 피워놓은 향 (2013)>



<산신제를 준비하는 모습 (2013)>


<제상을 차리는 모습. 돼지머리가 가운데에 놓인다. (2013)>



<초헌관이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모습 (2013)>



<헌작 후 재배 (2013)>


<독축 (2013)>


<소지 (2013)>

원천자료	현장 취재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80	성북구의 동제(洞祭) - 3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석관동 도당제	키워드	석관동, 도당제, 신주, 도당 할머니

이야기

◦ 일시 : 2013년 11월 3일 오후 5시 (음력 10월 1일)
◦ 장소 : 석관동 도당 (화랑로32길 146-20 / 석관동 산1-5)


<독축 (2013)>


<아헌례 (2013)>


<아헌례 후 재배 (2013)>



<종헌례 (2013)>





<지역기관장들의 헌작 (2013)>



<소지 (2013)>



<신주 (2013)>



<음복례 (2013)>



<제사를 끝마치고 도당을 나가는 제관들 (2013)>

성북구 석관동의 도당은 현재 4번째 이전된 상태로, 중앙정보부 건물 옹벽 밑에 위치한다. 약 5-6평 정도의 시멘트 건물에 기와로 덮었으며 당내에는 항아리에 벼를 가득 넣고 짚으로 땋은 주저리로 덮어 두었는데 항아리가 이 신당의 신주이다. 구전에 의하면 도당신 내외분이 있는데 현재 중화동 봉화산신은 도당할아버지이며 천장산신은 도당할머니라고 한다. 원래 경종의 능인 의릉이 들어오기 전에 천장산 아래에 살면서 산신으로 받들다가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동신으로 받들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의 평안과 길복추구를 위해 제를 지낸다.

제일은 음력 10월 초하루이고 해가 지면 제사를 시작한다. 제수는 도가에서 준비한다. 제물은 황소, 수탉, 삼색과일, 제주(탁주), 콩, 팥, 소적, 시루떡, 백설기, 건대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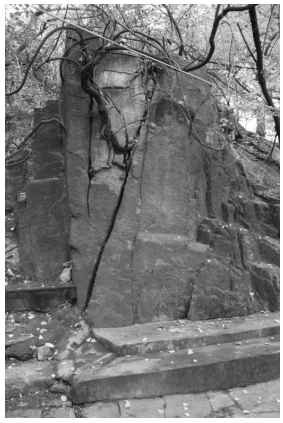
	특히 황소는 흰점이 있거나 검은 점이 없는 깨끗한 소를 개인에게 부탁하여 구입해서 당 뒤 소나무에 매어 놓았다가 잡아 올린다. 신체는 2개로 각각 벼와 술을 담는 항아리이다. 벼를 담는 항아리에는 벼를 담고 주저리로 덮어두는데 주저리 앞에 폐백을 건다. 주저리와 폐백은 제를 지내기 전 새것으로 갈아주고 헌 주저리와 폐백은 당 밖에서 소각한다. 그런데 제주를 빚는 항아리가 신체로 여겨지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다. 제주를 담는 항아리는 당 근처에 묻어 두었다 제사 당일에 술을 짜서 올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기이다. 제기 자체가 신체로 여겨지게 된 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어 어떻게 해서 제주항아리가 신체가 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겠다. –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제2권』, 서울역사박물관, 2005
원천자료	현장 취재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제2권』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81	성북구의 동제(洞祭) - 4	작성자	백외준
제목	종암동 북바위 산제사	키워드	종암동, 북바위, 산제사

이야기

◦ 일시 : 2013년 11월 3일 오후 6시 (음력 10월 1일)
◦ 장소 : 종암동 극동아파트 뒤편 개운산의 산제단 (북바위)
◦ 주관 : 종암동 향사회(享祀會)





<종암동 극동아파트 앞 산제사를 알리는 현수막(좌)과 개운산 산제단(우) (2013)>




<산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좌)과 제상 차림(우) (2013)>



<초헌 (2013)>



<독축 (2013)>



<소지 (2013)>



<산제사 후 잔칫상를 준비하시는 분들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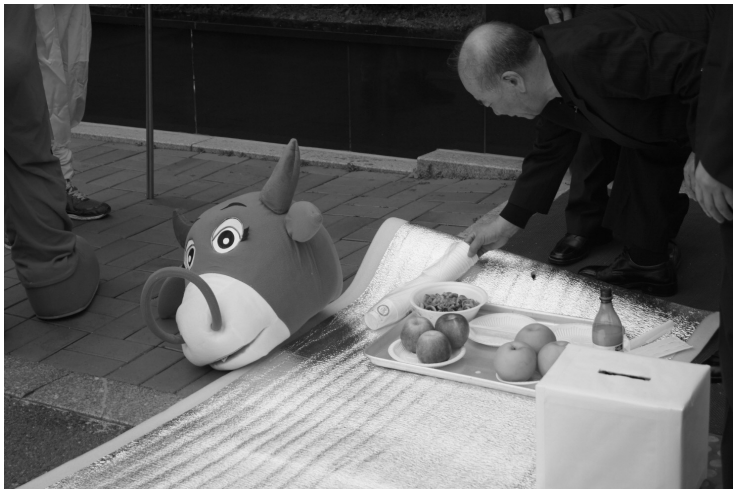
維
歲次壬辰十月己卯朔初一日己卯
幼學 金 沃 洋 敢昭告于
鍾岩山神 神其保佑 順風好雨
民生 安寧 事業 繁昌
萬事 亨通 俾無 後艱
謹以 淸酌 脯醢 祗薦
于神 尙
饗

"임진년 10월 초하루 기묘일 유학(幼學) 김옥양(金沃洋)은 감히 종암산신령께 밝히 아룁니다. 신령께서는 우리를 보우하사 순풍과 단비를 보내주소서. '민생안녕', '사업번창', '만사형통'하여 훗날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해주소서. 삼가 맑은 술과 정결한 음식을 공손히 신령께 올립니다. 흠향하소서."

<종암동 산제사 축문 (2013)>

원천자료	현장 취재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82	성북구의 동제(洞祭) - 5	작성자	백외준
제목	보문동 동망봉 산신제	키워드	보문동, 동망봉, 산신제, 지신밟기, 산신각
이야기	◦ 일시 : 2013년 11월 7일 낮 12시 ◦ 장소 : 보문동 산신각 (보문동6가 209) ◦ 주관 : 보문동 동망봉산신제례보존위원회, 보문동 주민자치위원회, 보문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세차
27머 3965




8


양곡센타
6083-9500 6085-9500















<동망봉산신제 전날 지신밟기 현장 풍경 (2013. 11. 6 오후 2시~6시 보문동 일대)>



<동망봉 산신제 전날 지신밟기 경로 (2013)>



<동망봉 산신각 (2013)>



<동망봉 산신각 일대 보문동 풍경 (2013)>



<동망봉 산신각 입구 (2013)>



<제상차림 (2013)>



<'동망산신령신위(東望山神靈神位)'(좌), '정순왕후여산송씨신위(定順王后礪山宋氏神位)'(우) (2013)>



<왼쪽부터 집례자,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2013)>



<초헌례 (2013)>



<퇴주그릇과 모사기 (2013)>





<종헌례 (2013)>



<소지 (2013)>



<제사가 끝난 뒤 기념촬영 (2013)>

	  <동망봉 산신제 (1995)>
원천자료	현장 취재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83	성북구의 동제(洞祭) - 6	작성자	백외준
제목	한산대동산신제(漢山大同山神祭)	키워드	북한산(한산), 초정일, 전승문화번영회, 한산신위, 한성신위

이야기

◦ 일시 : 2013년 11월 7일 오전 11시 (음력 10월 初丁日 巳時)
◦ 장소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앞 한산신 제단 (정릉동 산1-1)
◦ 주관 : 전승문화번영회



<정릉4동 입구 산신제를 알리는 현수막과 청사초롱 (2013)>



<북한산 정릉 입구에서 준비 중인 풍물패 (2013)>



<북한산 제단의 비석 (2013)>





<소지 접수 (2013)>





<제단으로 향하는 풍물패와 제관들 (2013)>





<제사 드리기 전 풍물마당 (2013)>



<제상차림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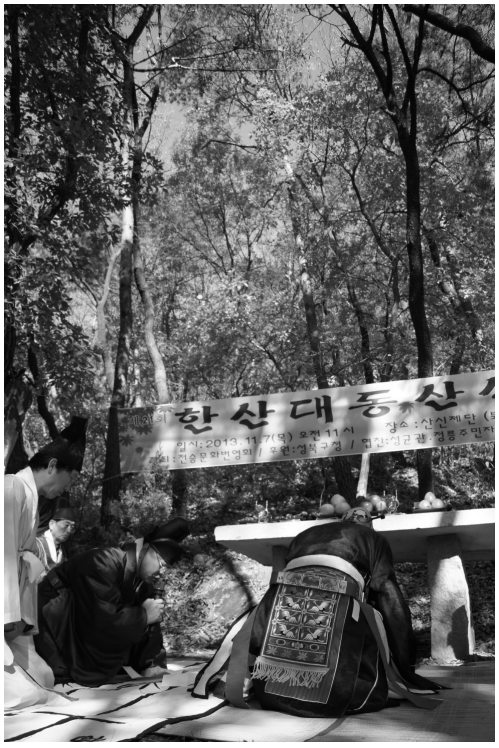
<제사에 앞서 재배하는 집례자들 (2013)>



<제례에 앞서 손을 씻는 제관들 (2013)>



<초헌례 (2013)>



<독축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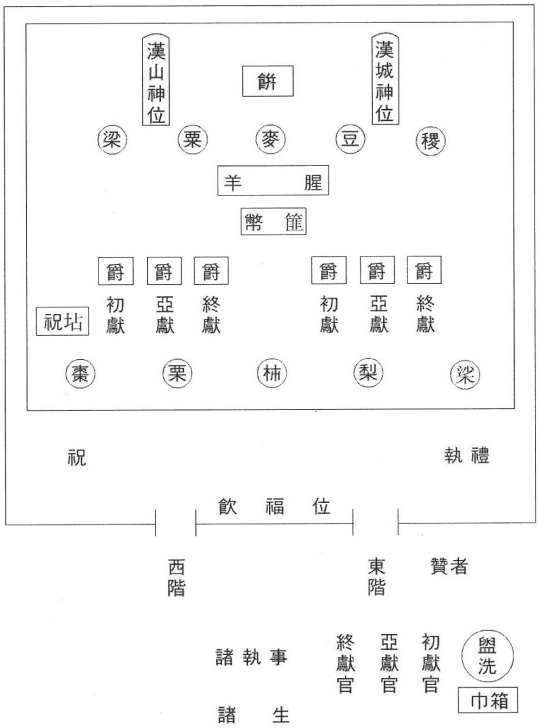



<제례를 지켜보는 사람들. 아래 지팡이를 짚고 계신 분은 윤종철 옹이다. (2013)>



<제단 옆에 세워 놓은 산신제 깃발 (2013)>

진 설 도(陳設圖)



<진설도>

維 歲次 ○○十月 ○○朔 ○○○日 ○○ 侍生 ○○ 后人 ○○○은 감히 밝혀 고하나이다.

顯漢山神 (현한산신) 한산신은 나투소서
顯漢城神 (현한성신) 한성신은 나투소서
今爲十月 (금위시월) 지금 시월이옵니다.
白頭大幹 (백두대간) 백두의 큰 줄기가
悠悠南馳 (유유남치) 유유히 남으로 달리어
弋削千丈 (익삭천장) 천 길이나 깎아
雪嶽峻峰 (설악준봉) 설악의 큰 봉우리 되더니
自起西馳 (자기서치) 다시 일어 서쪽으로 내달아
頭流道峰 (두류도봉) 도봉으로 흐르면서
若驚若怒 (약경약노) 혹은 놀라고 혹은 성난 듯이
餘勢蜿蜒 (여세원연) 남은 기운을 꿈틀어서
爲名漢山 (위명한산) 이름 하여 한산이 되었도다.
石築城砦 (석축성채) 돌로 쌓은 성채
北漢山城 (북한산성) 북한산성이라
漢水相沖 (한수상충) 한강물과 서로 맞아
山澤通氣 (산택통기) 산기운 물 기운이 상통하여
實賴神休 (실뢰신휴) 신의 은혜를 받아
吾居漢陽 (오거한양) 우리가 한양에 살고 있음에

	每歲十月 (매세시월) 매년 상달에 涓吉禱誠 (연길도성) 좋은 날을 잡아 정성을 모으고 기도함은 三國角逐 (삼국각축) 삼국의 각축에도 期於統一 (기어통일) 통일이 되었듯이 如前願成 (여전원성) 원컨대 그때처럼 國土統一 (국토통일) 나라를 통일되게 하시기를. 啓我明靈 (계아명령) 나의 밝은 영혼으로 玆以齊浴 (자이제욕) 이제 목욕제계하고 百拜獻敬 (백번헌경) 백전 절하며 공경하여 伏願尊靈 (복원존령) 신령에게 엎드려 원하나이다. 精奉犧牲 (정봉희생) 정성으로 희생을 올리오니 伏願尊神 (복원존신) 엎드려 신령께 원하옵니다. 仰止敬止 (앙지경지) 우러룸과 공경함이 끝이 없겠사오니 尙 (상) 바라옵건대 饗 (향) 흠향하소서 <축문>
원천자료	현장 취재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84	독립운동가의 아내, 이은숙 - 1	작성자	박수진
제목	우당 이회영의 삶 ①	키워드	우당, 이회영, 신흥무관학교, 신민회
이야기	우당 이회영. 그는 김구, 안창호, 이승만, 여운형만큼 널리 알려진 독립운동가는 아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그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고, 지금은 종로에 '우당 기념관'이 있을 만큼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알만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다. 그는 명문가 출신이다. 아버지는 이조판서를 지낸 이유승(李裕承)과 어머니 동래 정씨 사이에서 1867년 4월 21일 태어났다. 아버지가 이조판서 출신이라 명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직계 조상들이 영의정, 좌의정 등 정승을 지냈으며, 어머니 역시 이조판서를 지낸 정순조(鄭順朝)의 딸이었다. 이정도 집안은 당시 조선을 통틀어도 몇 되지 않았다. 그는 7남매 중 넷째였다. 위로는 건영(健榮), 석영(石榮), 철영(哲榮)이 있었고, 동생으로는 초대 부통령을 지낸 시영(始榮), 그리고 여동생 둘이 있었다. 남동생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일찍 죽었다고 한다.  <우당 이회영> 많은 조선의 명문가 출신들이 친일을 했지만, 이회영의 독립운동은 조선이 일본에게 국권을 강탈당하기 전부터 시작됐다. 농장을 경영하며 의병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고, 독립운동을 위한 만주 서전서숙(瑞甸書熟) 건립에 참여하였으며, 안창호, 윤치호, 신채호, 이시영 등과 함께 신민회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헤이그 밀사 사건도 그의 건의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이런 노력에도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게 되자, 이회영의 주도로 6형제는 6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한다. 1912년에 그는 만주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위한 신흥강습소(후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다. 이후 그는 그의 큰아들 규학(圭鶴)과 고종 조카의 혼례를 틈타 조선에 잠입하여, 고종과 접촉, 망명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은 고종의 갑작스런 붕어로 무산된다. 이후 그는 임시정부임시의정원 회의에 참여하나, 분열될 것이라 여기고 떠난다. 이후 그는 무정부주의에 투신한다. 1924년에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1925년 비밀결사 다물단, 1931년에는 한중일 아나키스트들이 합작한 항일구국연맹과 일본측의 기물파괴와 인물을 암살을 목적으로 하는 흑색공포단을 결성했다. 이회영은 흑색공포단을 직접 지휘했는데, 실제로 중국의 친일 인물들을 암살하고, 일본 영사관과 일본 기선 등을 폭파시키기도 했다. 그는 1932년 11월 더 활발한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다롄(大連)으로 이동하는 도중 일본 밀정 등의 밀고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미 당시 60이 넘었던 그는 체포 후 얼마 되지 않아 11월 17일에 순국한다. 일본 경찰은 사인을 자살로 보도하였지만, 딸이 시신을 찾으려 했을 때 바로 화장을 시킨 경황 등으로 보아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그의 독립운동 활동을 높게 산 정부는 1962년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을 추서했고, 우당 기념관을 건설해 주었다. 2000년에는 중국에 항일혁명열사 증서를 추기도 했다.		
원천자료	이은숙, 1981『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김삼웅, 2011『이회영 평전』, 책으로 보는 세상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85	독립운동가의 아내, 이은숙 - 2	작성자	박수진
제목	우당 이회영의 삶 ②	키워드	이은숙, 뒷바라지, 독립운동가의 아내
이야기	이회영 일생의 공로는 비록 사후이긴 하지만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아내 이은숙에 대해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녀는 '독립운동가' 이회영과 함께 같이 낯선 간도로 이주해서 고생했고, 그의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했다. 그녀가 있었기에 이회영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의 독립운동에 그녀의 지분은 분명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다. 솔직해지자. 그녀 말고도 독립운동가의 가족들의 삶에 관심을 갖은 사람은 많지 않다. 더욱이 그들은 기록도 거의 남기지 않았고, 그 때문에 그들의 삶을 아는 것은 더 알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은숙의 역사는 마이너의 역사이다.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은 독립운동가의 아내로는 드물게 자서전을 남겼고, 이를 통해 우리는 독립운동가의 아내로 산다는 것, 나아가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는지를 추체험 할 수 있다.		
원천자료	이은숙, 1981『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김삼웅, 2011『이회영 평전』, 책으로 보는 세상.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86	독립운동가의 아내, 이은숙 - 3	작성자	박수진
제목	우당 이회영의 삶 ③	키워드	이은숙, 이회영, 신식 결혼, 두 번째 부인
이야기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할 때, 흔히 그 가문을 먼저 소개한다. 이은숙은 한산 이씨이며 목은 이색의 후손으로 1889년 충남 공주에서 무남독녀 외동딸로 태어났다. 그녀가 이회영과 결혼한 것은 1908년 10월 20일, 만19살 때 일이다. 당시 이회영은 첫째부인 서씨(徐氏)와 사별한 뒤였고, 슬하의 두 아들이 있는 만41살의 중년 남자였다. 심지어 첫째 아들은 그녀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 시대가 그랬듯 이 결혼은 이은숙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다. 다만 상동교회에서 전덕기 목사의 주례로 치러진 결혼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결혼식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신식결혼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형적인 유교적 교육을 받은 여자였다. 남편을 가군(家君, 집의 주인)으로 부르고, 또 그렇게 여기며 그것을 운명으로 알고 살아갔던 듯하다. 22살이라는 나이차는 부부의 나이 차이라기보다는 부녀의 나이차에 가깝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남편을 '하늘 같이 앙망(仰望, 우러러 바라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집안에서 결정한, 22살이나 많은 남편과의 결혼이었지만, 그녀는 운명이라 여기고 남편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려고 했다. 하지만 평탄한 시대도 아니었고, 그의 남편 이회영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아내가 되었고, 그것이 그 이후 그녀의 삶을 결정했다.  <이회영과 이은숙이 결혼식을 올렸던 상동교회>		
원천자료	이은숙, 1981『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김삼웅, 2011『이회영 평전』, 책으로 보는 세상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87	독립운동가의 아내, 이은숙 - 4	작성자	박수진
제목	마적에게 총을 맞다!	키워드	마적, 총상, 납치, 만주, 출산, 투옥
이야기	이은숙은 결혼 2년 만에 남편을 따라 만주로 가게 된다. 자식이라고는 그녀 하나 밖에 없는 부모는 조선에 남겨두고 가야 하는 길이었다. 남편도 없이 그녀 혼자 갓 낳은 딸을 데리고 떠나야 했다. 겨울의 만주는 혹독했다. 그녀 스스로도 ***'차 속에서 고생하던 말을 어찌 다 적으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다. 황도촌에 도착했다고 고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원주민들의 냉대와 의심도 삶을 힘들게 했다. 집도 땅도 팔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다행히 원세개의 도움에도 처음 마음먹었던 황도촌이 아니라 합니하(지금의 서간도)에 자리 잡았다. 살 곳이 정해져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첫 아들 규창도 타국에서 낳았다. 1913년 3월 28일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은숙은 곧 더 큰일을 겪게 된다. 아이를 7달도 되지 않아 시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하여 큰댁에 갔다, 마적을 만난 것이다. 마적 때는 총을 쏘며 마을을 습격하였고, 사람들을 납치 했다. 그 와중에 이회영의 바로 위의 형인 이석영이 납치당하고, 그녀 자신은 총에 맞아 어깨가 관통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총을 맞은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간신히 깨어나긴 했지만 응급처치라고 한 것은 상처에 치약을 넣는 것이었다. 의사도 없어 통화현까지 가서 불러와야 했다.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그녀는 40일을 입원해 있어야 했고, 퇴원해서도 4~5달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이럴 때,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도 즐거우면 덜 고생스러운 법이다. 하지만 일제치하 독립운동가의 아내에게는 차라리 무소식이 희소식일 경우가 많았다. 1915년 8월 남편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녀에게 남편은 자신의 동반자 그 이상의 존재였다. 그녀에게 이회영은 스승이었고, 힘든 타향살이를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었다. 그런 그의 투옥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다. 투옥 소식을 듣자, 총상 이후에도 혼자 잘 생활하던 그녀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조선으로 들어갈 생각까지 한다. 하지만 다행이 이회영은 곧 출소하고 이 소식은 곧 이은숙에게 전해진다. 밖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 이번엔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 홍역에 걸린 것이다. 27살까지 걸리지 않았던 홍역이, 아이들이 걸리면서 같이 걸렸다. 아이들은 열흘 만에 쉬이 나았지만 그녀의 홍역은 한 달이 넘게 지속되었다. 고된 날들의 연속이었다.		
원천자료	이은숙, 1981『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김삼웅, 2011『이회영 평전』, 책으로 보는 세상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88	독립운동가의 아내, 이은숙 - 5	작성자	박수진
제목	온가족이 함께한 짧은 서울 생활	키워드	가족, 3.1운동, 평범한 삶
이야기	1917년 그녀는 드디어 남편을 만나러 조선으로 갈 마음을 먹는다. 그녀는 ***'가군은 오신다는 소식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리가 없는지라 가군에게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고 적고 있다. 자신의 정신적 지주인 남편의 부재하는 고된 타국 살이가 드디어 한계에 부딪친 것이다. 마침 사위 박창서와 셋째 동서가 조선으로 간다고 하니 남매(규숙과 규창)를 데리고 자신도 조선으로 가기로 한다. 하지만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녀는 5월에 봉천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서울로 갈 것을 두 달 만에 허락 받고서야 조선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서울에 도착해 드디어 남편을 만났을 때의 소감을 그녀는 이렇게 적고 있다. ***'딸 규숙은 저희 부친을 뵙고 반겨 좋아하고, 규창은 난지 5세에 부친을 승안(承顔)하나, 천생지친인지라 천륜이 지중한지 저희 부친께 안기며 좋아하건마는, 나는 5년 만에 만나니, 처음 시집온 것처럼 부끄럽고 새삼스러이 조심스러워지는데, 생각하면 부부지정이 근중하지만 남이라 이같이 냉정함을 느낌이로다.'*** 만감이 교차하는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그래도 행복한 나날이었다. 아들 이규창은 이 시기를 인생에 가장 평범한 날들 가운데 하나로 꼽을 정도였다. 누이와 개천에서 송사리와 가재도 잡고, 살구도 따먹는 평온한 일상을 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가지 않았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승하했다. 이회영은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독립선언서 작성에 가담한 이후, ***'인산(因山) 구경 가지 말고 대문 단단히 걸고 있으라.'*** 는 말을 남기고 북경으로 떠났다.		
원천자료	이은숙, 1981『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김삼웅, 2011『이회영 평전』, 책으로 보는 세상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89	독립운동가의 아내, 이은숙 - 6	작성자	박수진
제목	북경생활	키워드	어머니, 죽음, 무더위,
이야기	1919년 2월 15일 이은숙은 남매를 데리고 남편이 있는 북경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 당시 이회영은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 중이었다. 남편을 다시 만난 것은 3월 20일이었다. 남편과 같이 하는 삶이 시작되었지만, 그렇다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망명객 가족의 처지로 자주 이사를 해야 했고, 남편의 명망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접해야 했다. 집에 여자라고는 임신한지 8달이 된 그녀와 9살 된 딸 뿐이었다. 음식을 하는 일도, 청소를 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더욱이 어려운 살림에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야 하는 것은 고역이었다. 하루 한 끼를 먹으면 다행이었고, 굶는 날도 많았다. 날씨도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이번엔 더위였다. 그녀는 이를 '기막힌 더위'라고 표현하고 있다. 조선에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이 더위는 이회영까지 지치게 만들었다. 화불단행이라 했다. 이런 힘든 삶 속에, 그녀를 더욱 슬프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1921년 6월 14일이었다. 무남독녀인 이은숙이었다. 조선에 두고 온 부모님은 늘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의 부고를 들었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결국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나서 지내는 제사에나 겨우 참석할 수 있었다.		
원천자료	이은숙, 1981『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김삼웅, 2011『이회영 평전』, 책으로 보는 세상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90	독립운동가의 아내, 이은숙 - 7	작성자	박수진
제목	비밀문서를 갖고 조선으로	키워드	제사, 비밀서류, 체포
이야기	독립운동가의 아내는 단순히 어머니의 제사에 참석만을 목적으로 조선에 입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지만 남편을 대신해서 전달한 비밀서류를 몸에 지니고 떠나야 했다. 결국 그녀는 백마역에서 신발 밑창에 숨긴 서류를 발각당하고, 일본 경찰에 의해 신의주까지 압송된다. 4살짜리 딸과 함께... 그녀가 이회영의 부인인 것은 금방 밝혀졌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신의주 경찰서장은 그녀에게 호의를 베푼다. 신의주 경찰서장은 정인형이란 사람과 친분이 있었고, 정인형은 그녀의 시외삼촌이었다. 그녀는 경찰서가 아닌 여관에서 잘 수 있었고, 비록 일본 형사의 감시 하에서지만, 다음날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떠날 수 있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나고, 고향에 내려가 제사를 지냈다. 그 와중에 같이 간 딸이 학질에 걸렸다. 비록 회복하긴 하였으나 잠시 들린 조선 땅에서도 그녀에게 평온한 삶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5~6달을 조선에서 지낸 후 그녀는 다시 북경으로 돌아왔다.		
원천자료	이은숙, 1981『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김삼웅, 2011『이회영 평전』, 책으로 보는 세상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91	독립운동가의 아내, 이은숙 - 8	작성자	박수진
제목	신채호와 김창숙의 멱살을 잡다	키워드	신채호, 김창숙, 멱살, 오해, 김달하 암살사건
이야기	북경에 돌아와 그녀는 곧 아들을 낳는다(1922년 8월 17일). 입은 늘어났고, 해도 바뀌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식객은 계속 찾아왔고, 굶는 날도 심심치 않게 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1924년, 큰아들 규창이 친구들과 놀다 다리가 부러진다. 먹고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아이가 다쳤으니 그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규창은 완쾌 되고 곧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300리가 넘는 천진까지 심부름을 가게 된다. 그때 규창의 나이 11살이었다. 이은숙은 여기에서 처음 남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자 곧 원망을 접었지만, 그녀는 당시 상황을 '어린 것을 보냈다고 원망을 하였더니(후략)' 이라고 적고 있다. 남편을 하늘 같이 받들던 그녀에게는 극히 드문 일었다. 생활고에만 시달린 것이 아니었다. 감달하(金達河)라는 사람이 암살되었는데, 여기에 이회영 가족이 연루된 것이었다. 김달하는 심산 김창숙 등과 함께 북경에 와서 독립운동을 하며 이회영, 신채호 등과도 교분을 쌓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곧 일제의 회유에 넘어갔고, 그 때문에 다물단에 의해 암살되었다. 이때 그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김달하의 장례식에 문상을 가게 되고, 이것이 김창숙과 신채호의 오해를 샀다. 김창숙과 신채호는 곧 이회영에게 절교를 선언하는 편지를 보낸다. 이회영은 이 편지를 보고 다만 '허허' 웃었다고 한다.   <단재 신채호> <심산 김창숙> 누차 언급하지만 그녀에게 남편은 하늘과 같은 존재였고, 그가 하는 독립운동은 그녀의 고된 삶을 지탱해주는 명분이었다. 김창숙과 신채호의 절교 편지는 바로 그 명분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를 참을 수 없었다. 결국 가슴에 칼을 품고, 규창을 데리고 이 둘을 찾아간다. 수기에 따르면 그녀는 그 둘을 휘어잡고 사과하지 않으면 둘 모두 죽이겠다고 하였다. 결국 그녀는 이 둘의 사과를 받아냈다. 아마 자신이 오해를 받은 것이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천자료	이은숙, 1981『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김삼웅, 2011『이회영 평전』, 책으로 보는 세상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92	독립운동가의 아내, 이은숙 - 9	작성자	박수진
제목	아들・손녀의 죽음, 남편과의 영원한 이별	키워드	유복자, 전염병, 줄초상
이야기	이러던 와중에 집안에도 불행이 겹쳤다. 그녀의 3살 된 아들과 작은 손녀(규학의 딸) 당시 유행하던 병에 걸린 것이다. 처음에 모두 입원시켰으나, 결국 손녀는 죽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의 아들도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당시의 상황을 '목불인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7살 딸도 뇌막염에 걸렸다. 다행이 딸은 서양 자선 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었고 회복 되었다. 하지만 어린 아들과 손녀를 하루걸러 보내야 했던 당시의 상황은 참혹하다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참으로 잔인한 세월이었다. 1925년이 되었다.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해가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조선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아들 규창과 딸 현숙, 그리고 남편을 두고 떠나는 길이었다. 이 헤어짐을 끝으로 이은숙은 더 이상 남편을 보지 못한다. 당시 이은숙은 막내아들이 되는 이규동을 임신 중이었다. 이회영은 이후 독립운동을 하다 1932년 11월 17일에 옥사하는데, 26년 2월에 태어난 이규동은 아버지와 같은 시대를 살았음에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은숙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복자 아닌 유복자'가 된 것이다. 시대가 낳은 비극이었다.		
원천자료	이은숙, 1981『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김삼웅, 2011『이회영 평전』, 책으로 보는 세상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93	독립운동가의 아내, 이은숙 - 10	작성자	박수진
제목	조선에서 남편의 독립운동 자금을 대다	키워드	서울, 송금, 여공생활, 삯바느질
이야기	서울에서의 삶도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1926년 2월 규동을 낳았다. 여자 혼자 갓난아이를 데리고 살아나는 것은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그녀는 민적(지금으로 말하면 호적)이 없었다. 편히 머물 집이 있을리 만무했다. 처음 신세를 진 곳은 큰 댁이었다. 아이도 아파 급히 머물 곳이 필요하기도 했다. 이은숙을 그곳에서 아이를 치료하고 여름을 지냈다. 이후 시외가 댁과 대고모 댁에서 신세를 졌다. 아이는 금방 크는 법이다. 나날이 커가는 아이를 데리고 남의 집을 전전하는 생활이 계속 되었다. 거기에 이회영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그녀는 경찰의 요시찰 대상이 되었다. 이 때문에 남의 신세를 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남편에게 보낸 돈도 화근이 되었다. 처음 서울에 와 이회영과 결의형제 한 이진사(進士)에게 받은 100원을 바로 남편에게 송금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사실 대로 이야기 하면 호의를 베푼 이진사가 곤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한다. 1919년 북경에 갈 때, 며느리가 조선에 남겨둔 옷이 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팔아 돈을 마련했다고 한 것이다. 며느리가 옷을 남겨둔 것은 사실이었고, 그것을 알리바이로 만들었다. 세월은 흘러갔다. 이은숙은 남편에게 가고 싶었다. 남편과 막내아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북경에서 남편의 삶도 매우 고단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올 리 없었다. 며느리가 죽었다는 소식, 딸이 아프다는 소식 등 슬프고 복잡한 소식만 들려왔다. 하지만 이것은 기막힌 소식의 시작에 불과했다. 1928년 여름, 이회영은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로 가야했다. 돈이 없어 무전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들 규창은 이 힘든 여정에 참여 시켰지만, 두 딸까지 함께하긴 어려웠다. 결국 이회영은 규숙·현숙 두 자매를 천진의 부녀구제원에 맡긴다. 하지만 부모가 모두 살아 있는데 두 딸을 부녀구제원에 맡긴 행위를 이은숙은 큰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이 소식이 담긴 편지를 읽고 혼절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회영은 상해로 가던 중간에 도적을 만나 얼마 있지도 않던 여비도 빼앗기고 다시 천진으로 돌아왔고, 두 딸과 재회한다. 이은숙은 살기 위해 일을 시작한다. 고무 공장의 여공생활, 삯바느질과 삯빨래 등등 닥치는데로 일을 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매달 이회영에게 송금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나마 이회영에게 송금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녀는 이를 이와 같이 표현했다. '매달 한 번씩은 무슨 돈이라는 건 말 아니하고 보내드리는데, 우당장께서는 무슨 돈인 줄도 모르시면서 받아쓰시니, 우리 시누이님하고 웃으며 지냈으나, 이렇게 해서라도 보내드리게 디는 것만 나로서는 다행일 뿐이다.' 참 대단한 순정이었다.		
원천자료	이은숙, 1981『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김삼웅, 2011『이회영 평전』, 책으로 보는 세상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94	독립운동가의 아내, 이은숙 - 11	작성자	박수진
제목	아들・딸을 만주로 보내고 홀로 남다	키워드	이별, 만주사변, 만남
이야기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도중에 편지가 왔다. 딸 규숙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다. 이은숙은 20살이 된 딸이 출가하는 것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딸의 혼인을 자신과 아무런 상의 없이 결정한 남편에 대한 원망도 생겼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원망을 단지 답장을 며칠 늦게 쓰는 것으로 풀었다. 1930년 말에는 막내아들 규동과도 해어졌다. 이은숙은 아들이 크자 교육을 위해 장단(長湍)의 큰 집으로 보낸다. 5살 된 아들을 홀로 남의 집에 두고 돌아오는 길이 오죽했을까! 1931년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킨다. 이은숙의 두 딸, 그리고 사위는 당시 만주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고생은 끝날 줄 몰랐다. 그녀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한기악(韓基岳)을 찾아가 사정 하여 15원을 얻어 딸에게 보냈고, 그 돈으로 딸 규숙은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다. 5년도 더 지나 만난 딸이었다. 만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만나지 못한 것이었으니,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는 이은숙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원천자료	이은숙, 1981『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김삼웅, 2011『이회영 평전』, 책으로 보는 세상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95	독립운동가의 아내, 이은숙 - 12	작성자	박수진
제목	남편의 부고를 듣다	키워드	이회영, 부고, 화장, 장례
이야기	1932년이 되었다. 초겨울 받은 남편의 편지는 짧았다. ***"지금 신지(新地)로 가서 안정이 되면 편지한다. 지금 떠나니 답장 말라."*** 짧은 편지는 그 자체로 긴박함을 표현할 때가 있다. 내용에도 무언가 급박함이 묻어 있다. 이 편지를 받고 이은숙은 불안감을 느낀다. 그 불안을 그녀는 ***'마음이 산란하기가 한량없어 그날부터 침식이 불안하였다.'*** 고 표현하고 있다. 그 불안감은 틀리지 않았다. 10월 19일 장춘에 있던 딸 규숙에게서 온 편지에는 이회영이 대련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1일은 잔칫날이었다. 의당의 큰손자 돌잔치였다. 이은숙을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하루 전 의당의 집에 갔다. 하지만 바로 그 잔치에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송편을 만들고 있었는데 전보가 왔다. 그리고 그 전보의 내용은 남편의 사망이었다.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그녀는 ***'미친 사람같이 낭떠러지 구렁텅이에 빠져 가며 간신히 몸을 이끌고 사직동으로 나와서'*** 효자동 우관선생 집을 찾아가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그날 밤은 시외가에서 보냈다. 다음날 시외가에서 유해도 없는 초종(初終 : 초상이 난 뒤부터 졸곡까지 치르는 온갖 일이나 예식)을 치렀다. 동지들이 모여들었다. 가족 중에는 규숙이 아버지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대련으로 향했다. 규숙은 아버지가 고문을 당하다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신문지국장들을 만나려 하였으나, 일본인 형사들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규숙은 일본인 형사들과 같이 아버지의 유해를 볼 수 있었다. 이회영은 눈을 뜬 채로 운명을 달리했다. 22살 먹은 딸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일본인 형사들이 재촉하는 데로 바로 화장을 했다. 후에 언론은 이회영이 자살 했다고 보도하는데, 고문을 숨기기 위해 빨리 화장을 종용하는 것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일이다. 이로 인해 이은숙은 남편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막내아들 규동도 이로 인해 아버지 얼굴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다. 이회영의 유해는 딸 규숙의 품에 안겨 장춘으로, 그곳에서 규룡과 합류하여 장단역에 도착하였다. 29일 남은 가족들도 장단 역으로 향했다. 거기에서 영결식을 치렀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많은 사람들이 원통한 이회영의 원혼이 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다. 유해는 11월 1일에 도착했고, 그날 장지에 장사를 지내었다.		
원천자료	이은숙, 1981『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김삼웅, 2011『이회영 평전』, 책으로 보는 세상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96	독립운동가의 아내, 이은숙 - 13	작성자	박수진
제목	만주로 돌아가다	키워드	만주행, 딸의 결혼, 장춘
이야기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런 소식은 1938년, 작은 딸 현숙이 조선으로 돌아와 함께 지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을 시집보낼 걱정이 또 생겼다. 2년 만인 1940년에 현숙을 다시 장춘으로 보냈다. 9월말에는 광주에 내려가 규창을 면회했다. 7달도 넘어 보는 아들이었다. 여기서도 교도소 측의 배려로 긴 면회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0월에 장춘으로 이사하여 딸 둘과 규동, 그리고 사위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아버지도 모시고와 같이 살게 된다. 장춘에서 1942년 말까지 생활을 한 그녀는 42년 말에 다시 조선에 들어와 43년 봄, 3년 만에 아들을 면회하게 된다. 1945년 드디어 작은 딸 현숙의 혼처를 정했다. 정월 27일 혼례를 치르기로 했다. 김씨라고 하고 했다. 하지만 이은숙은 그것이 마냥 좋지 많은 않았던 것 같다. '내 생각 같아서는 파혼하고 돌아서고 싶은 생각이 걸, 그래도 인륜대사를 무단히 그럴 수 없어(후략)' 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생각인지, 현숙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후의 감정이 겹쳐저서인지는 알 수 없다. 뒤에 '잘 해로(偕老)나 하고 살았으면 이런 말을 하리요.' 라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그해 규동은 졸업을 하고 드디어 형 규창을 면회하러 간다. 형제가 얼굴을 처음 보게 된 것이다. 이때 이규동의 나이가 19살이었다. 친 형제가, 그것도 서로의 존재를 아는 친형제가 19년 만에 얼굴을 처음 보게 되는 운명을 무어라 표현해야 할 것인가?		
원천자료	이은숙, 1981『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김삼웅, 2011『이회영 평전』, 책으로 보는 세상.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97	독립운동가의 아내, 이은숙 - 14	작성자	박수진
제목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키워드	해방, 달의 죽음, 규창의 결혼
이야기	그해 8월 만주의 사정이 급박해지자 많은 조선인이 조선으로 피난을 갔다. 이때 이은숙도 조선으로 향했다. 규동을 두고 떠나는 길이었다. 그 피난길에서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들었다. '나 역시 바라던 해방이 되고 청년들이 군인을 면하게 된 것이니 어찌나 기쁜지 모르겠더라. 우리 조국에 다시 태극기가 날리는 걸 원통히 가신 분들 원혼이라도 보시고 얼마나 상쾌하실까 상상되도다.' 그녀는 그날의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다. 거기에 규창이 출옥할 것을 생각하니 해방은 이래저래 기쁜 일이었다. 그녀는 조선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규숙·규동 등 가족이 아직 모두 만주에 있었다. 급박한 상황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났으니 서두를 이유도 없어졌다. 하지만 해방이 되었어도 그녀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다. 1946년 5월 외손녀 현덕과 딸 현숙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것이다. 모두 폐병이었다. 자식을 잃은 심정을 이현숙은 ***'울부짖으며 통곡을 하'*** 면서 딸을 보냈다. 참으로 비극적인 가정사였다. 1946년 7월에 온 가족이 그리던 조선으로 향했다. 조선으로 가는 도중 길림에 들렀는데, 거기에서 팔로군을 만났다. 이들은 조선으로 돌아가는 사람 중 젊은 사람을 차출하려고 하였다. 길림뿐만 아니라 이런 일은 귀국하는 동안 자주 일어났다. 이은숙은 규동이 군대에 끌려갈까 또 노심초사해야 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두 달이 지난 후였다. 조국은 해방되었지만 서울로 향하는 길을 쉽지 않았고, 도착하자 만주에서의 고생, 떠나보는 딸과 손녀 생각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1947년 12월 17일에는 아들 규창이 정이형의 딸과 혼인을 했다. 정이형 역시 독립운동을 하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했던 사람이다. 독립운동가 집안끼리의 혼인이었다. 고생하며 살아온 아들의 결혼, 그리고 손녀의 출산은 그녀에게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가져다주었다.		
원천자료	이은숙, 1981『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김삼웅, 2011『이회영 평전』, 책으로 보는 세상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98	독립운동가의 아내, 이은숙 - 15	작성자	박수진
제목	전란 속에서	키워드	한국전쟁, 피난살이, 이시영의 죽음
이야기	그러나 곳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규창은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북한군에게 잡혀가 취조를 당했다. 다행이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다 옥살이 한 것을 알고 풀어주었다. 규동은 의용군에 끌려갈 나이었다. 이은숙은 규동이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머무는 곳을 옮겨다니다, 결국 양주 봉선사까지 가서 숨어 살았다. 그리고 그곳도 안심이 되지 않아 다시 남으로 피난을 갔다. 규동과 여든살 노친과 함께 가는 피난길이었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규동이 군대에 차출될 위기도 넘기며 친정으로 향했다. 친정에서 피난살이를 하다 서울이 수복되자 서울로 돌아왔고, 1.4 후퇴를 맞아 다시 대전으로,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갔다. 그리고 부산에서 다시 피난살이를 했다. 전쟁 중인 1951년 12월 이은숙의 아버지는 대전에서 별세하게 된다. 1953년에는 이회영의 동생이자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시영이 별세했다. 이회영 남매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다. 한국전쟁은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불행이었고, 이은숙도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원천자료	이은숙, 1981『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김삼웅, 2011『이회영 평전』, 책으로 보는 세상.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99	독립운동가의 아내, 이은숙 - 16	작성자	박수진
제목	정릉에서 편안한 만년을 보내다.	키워드	정릉동, 만년, 일상, 보통사람
이야기	한국전쟁이 끝났다. 비록 전쟁기간 중 아버지와 이시형이 운명을 달리했지만, 규창과 규동 모두 무사했다. 1954년 11월에 다시 상경하여 큰아들 내외와 규동과 함께 지냈다. 이후의 삶은 과거의 고난이 꿈처럼 느껴질 만큼 무난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하여 손자・손녀를 7명이나 보았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았다. 막내 사위가 정릉에 집을 구해준 후에는 큰아들 규창과 함께 정릉에 살았다. 이웃들은 그녀가 이회영의 부인인지 알지 못했다. 아니 이회영도 당시에는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만큼 그녀의 삶도 평범했다. 그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녀는 건강했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그녀는 정릉에서 꽤나 거리가 있던 경복궁 근처에 있던 법륜사에 다녔으며, 안양의 둘째 아들 집에도 자주 갔다고 한다. 80대 후반까지 걸어 다녔다고 하니 그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자연히 몸이 건강해 진 것일까? 1975년 1월. 정릉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기록한『서간도시종기(西間島侍從記)』를 집필하기도 한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이미 80이 훌쩍 넘었다. 손자인 이종철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만년까지 기억력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 80이 넘어 쓴 수기의 내용은 그녀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으로 그녀는 1975년에는 제1회 월봉문학상(月峰文學賞) 수상한다. 생활도 어렵지 않았다. 큰 아들 규창이 해방 후 계속 해서 공직에 있었기 때문이다. 신채호와 김창숙의 멱살을 잡았던 성격도 그대로 남아 있어 며느리들과 싸우기도 했지만, 손주들에게는 자상한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다. 이렇게 평범한 말년을 보내던 그녀는 1979년 12월 12일 91세의 나이로 눈을 감는다. 그녀는 꿈에도 그리던 남편을 만났을까?		



<이은숙 여사>

원천자료	이은숙, 1981『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 인물연구소. 김삼웅, 2011『이회영 평전』, 책으로 보는 세상.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00	운명적 독립운동가의 삶, 이규창 - 1	작성자	박수진
제목	프롤로그	키워드	이용노, 이규동, 이규호, 이규창, 22살
이야기	탕탕! 1935년 3월 25일, 중국 상해시 홍구(虹口) 거류민회관 3층에서 두 발의 총소리가 들렸다. 총에 맞은 사람은 즉사했다. 암살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두 사람은 속히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한 여인이 암살자 가운데 한 명의 머리를 칼로 내리쳤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칼에 맞지 않은 어려보이는 한 명은 차마 죄 없는 여인에게 총을 쏠 수 없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다. 그는 하늘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그 틈에 칼을 맞은 다른 한명은 간신히 여인을 뿌리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이 모였고, 중국 경찰에게 포위된 상황이었다. 두 암살자는 곧 체포되었다. 암살된 사람은 겉으로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일본에게 정보를 팔았던 이용노(李容魯), 그에게 직접 총을 쏘았고, 여인에게 칼을 맞은 사람은 엄형순(嚴亨舜), 그리고 차마 엄형순에게 달려든 죄 없는 여자에게 총을 쏘지 못한 어려보이는 인물은 이규호(李圭虎)였다. 조선인이었던 엄형순은 곧 일본에 인도되었고, 중국 호적을 갖고 있던 이규호는 중국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일본은 곧 중국인 이규호가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셋째 아들 이규창(李圭昌)임을 밝혀냈고, 그의 신변도 중국으로부터 인계 받는다. 체포되었을 당시 이규창은 3일전 22번째 생일을 지낸 후였다. 무엇이 22살의 젊은이에게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일 마음을 먹게 하였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추적해보자.		
원천자료	이규창, 2004『運命의 餘燼』, 클레버.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01	운명적 독립운동가의 삶, 이규창 - 2	작성자	박수진
제목	최고의 명문집안에서 태어나 가난한 삶을 살다	키워드	가난, 밀항, 추위, 학교
이야기	이규창은 1913년 3월 28일 만주 통화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이회영, 어머니는 이은숙이었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앞의 두 아들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조선 최고의 명문가라해도 손색없는 가문 출신이어서 힘든 생활이 처음이었지만, 그에게 고된 삶이란 태어날 때부터 예정된 운명이었다. 해방직전까지 그의 생활은 굶지만 않으면 다행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도 그에게 쉬이 허락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 본 것도 태어나고 5년이 지나서였다.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쫓아다닐 때에는 어머니와 함께 하지 못했다. 그런 그였기에 아버지를 만나 가족이 모여 살던 서울에서의 기억은 비록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평온한 나날'이었다.  <이을규 선생> 하지만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둔 사람의 운명이 계속 평온할 수는 없었다. 독립운동을 위해 아버지가 북경으로 떠나자 가족들은 같이 떠나야했다. 처음 북경에 도착했을 땐 그나마 살림이 괜찮았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식객을 맞이하느라 빚을 갚지 못하는 일도 생겼다. 그뿐 아니었다. 식구들,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어나가도 변변한 치료조차 해줄 수 없었다. 학교를 갈 형편도 못되었다. 그런데 마침 상해에서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중국동지들이 노동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규창을 그곳에 입학시키라는 편지가 상해에 있는 이을규(李乙圭)선생으로부터 왔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으로 갈 차비조차 없어 12살에 몰래 배를 타고 상해로 갔지만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돌아와야 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 하루는 심산 김창숙의 사촌인 김창국(金昌國)이 이회영에게 권총 한정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당시는 단칸방에서 다섯이 살며, 3~4일씩 굶기를 예사로 하던 때였다. 굶주림을 참지 못한 김사집이 그 권총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와 수일 간 끼니를 채운 일이다. 그러나 곧 김창국이 돌아와 권총을 돌려받으려 했고, 당장 되찾을 돈을 구하지 못한 이회영은 김창국에게 폭언을 당하고 말았다. 이후 겨우 돈을 빌려 총을 찾아주긴 하였지만, 당시 이회영 식구들의 비참한 삶은 이와 같았다. 겨울은 더 큰 문제였다. 하북(河北)의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맹추위를 자랑했다. 오랜 타지 생활로 몸이 약해진 이회영에게, 난방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맹추위는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옆에서 모시던 사람이 바로 이규창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실까 염려가 되어 주인집에서 홑옷을 빌려 입고, 부잣집에서 버리는 매탄을 주어, 쓸만한 것을 골라 아버지 방에 불을 때곤 했다.		
원천자료	이규창, 2004『運命의 餘燼』, 클레버.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02	운명적 독립운동가의 삶, 이규창 - 3	작성자	박수진
제목	독립운동을 하다	키워드	독립운동, 항일구국연맹, 남화한인연맹, 변절자
이야기	비참한 생활은 계속되었지만 독립운동을 멈추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인 이회영과 동지들의 심부름을 계속하였다. 의열단과 다물단 등 단체 사이의 연락을 맡아 하기도 했다. 1930년, 이규창은 아버지 이회영과 함께 상해로 갔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상황은 비참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버스·전차 검표원으로 번 돈을 보조 받아 생활했다. 이규창 역시 약방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 생활비를 보태며, 아버지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젊은 시절(1954년)의 이규창, 왼쪽에서 세 번째> 1932년 2월 일본이 상해사변을 일으켰다. 상해의 독립운동가들도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했다. 이규창이 참여한 남화한인청년연맹은 이런 분위기에서 결성되었다(의장 유자명). 그리고 중국의 항일운동가들과 함께 기관파괴와 요인암살, 친일분자의 숙청, 비항일 선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항일구국연맹도 결성했다. 이들의 활약은 나름 성과가 있었다. 친일 행위를 하는 자의 부관을 암살하고, 일본 영사관을 폭파했으며, 일본의 군수물자를 싣고 오는 배에 폭탄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상해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1932년 4월 29일 승전축하와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는데, 이때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다. 이 사건으로 상해의 독립운동가들은 다시 시련을 맞는다. 안창호는 프랑스 조계지에 위치한 한 집의 돌잔치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경찰에게 잡힌다. 이회영 역시 몸도 피하고,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대련으로 향하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고 곧 순국한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체포는 독립운동가들 내부의 배신자들 때문이었다. 독립운동 진영은 내부 변절자들 제거에 나섰다. 가장 먼저 살해당한 사람은 옥성빈(玉成彬)이었다. 그가 살해당한 혐의는 안창호 선생의 체포를 도운 것이었다. 다음으로 제거된 사람들은 이태공(李太公)과 연충열(延忠烈)이었다. 이들은 이회영 선생의 행로를 일본에 알린 것이었다. 옥성빈의 사촌으로, 역시 일본과 내통하고 있던 옥관빈 역시 제거됐다. 옥관빈을 제거한 것은 이용노를 암살한 엄형순이었다. 처음 소개한 이용노 암살도 이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22살의 생일을 막 지난 젊은이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총을 들었던 것이다.		
원천자료	이규창, 2004『運命의 餘燼』, 클레버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03	운명적 독립운동가의 삶, 이규창 - 4	작성자	박수진
제목	고문 속에서	키워드	서대문형무소, 고문, 미결수
이야기	이용노를 암살하고 체포된 이규창은 5월에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들이 처음 가서 취조를 받은 곳은 종로경찰서였다. 말이 취조지 고문이었다. 그가 당한 고문은 물고문이었다. 나무 침대에 손발이 묶이고 배에 형사 한 사람이 올라타 얼굴에 물을 부었다. 숨을 쉴 수 없어 기절하면, 인공호흡으로 물을 토하게 한 후 다시 이것을 반복했다. 그뿐 아니었다. 형사가 국어(國語)를 할 줄 아냐고 물었다. 이규창은 할 줄 안다고 대답하고 지금 하는 말이 국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형사는 피고 있던 담배를 이규창의 손등에 비벼 껐고, 그 상처는 그가 죽을 때까지 손등에 남았다. 그들은 고문을 통해 모든 일을 엮으려했다. 하지만 아무리 고문을 해도 하지 않을 일까지 자백할 수는 없었다. 더 이상의 혐의가 찾아지지 않자 이규창은 서대문구치소로 이감되었다. 그의 수감번호는 661번이었다. 미결수 생활을 하며 간수 몰래 통방(通房)하는 것도 배웠다. 통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 손으로 책을 들어 독서 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벽을 쳐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한 번 치면 '가' 였고, 연거푸 두 번을 치면 받침 'ㄴ' 이, 세 번 치면 '다' 가 되는 식이었다. 능숙한 사람들은 이것으로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했다. 이를 알려준 것은 아이러니하게 조선인 간수였다. 그의 이름은 채영식(蔡榮植). 그는 후에 성북경찰서장이 되어, 홍천사에서 이규창을 융숭하게 대접한다. 그는 그곳에서 감옥의 생리, 수감자들의 특성 등 감옥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을 배웠다.		
원천자료	이규창, 2004『運命의 餘燼』, 클레버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04	운명적 독립운동가의 삶, 이규창 - 5	작성자	박수진
제목	공판과 서울에서의 감옥살이	키워드	사형, 13년형, 공판, 엄순봉 열사
이야기	 <엄순봉열사 기적비> “피고 엄형순에게 사형, 이규창에게 13년 형을 언도한다. 불복할 때는 일주일 이내에 상고(上告)하도록. 탕탕탕!” 1936년 2월 18일 판결이 내려졌다. 2월 4일 1차 공판이 있었고, 2주 후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엄형순은 판결 후 이규창에게 웃으며 ‘몸 건강히 있다가 좋은 세상 만나면 어머니 잘 모시고 살라’고 이야기 했다. 일본 검찰은 이규창의 형량이 낮다고 항소한다. 그들은 이규창의 죄목에 옥관빈 살해 공모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엄형순은 옥관빈 살해사건 역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말하고 모든 죄를 혼자 감당했다. 결국 이규창에게는 13년 형이 확정되었다. 형이 확정되고 이규창은 당시 10년 이상 장기수를 수용하던 마포형무소로 이감 됐다. 그곳에서 그는 인쇄공장으로 사역을 나갔다. 마포 형무소에서 밥은 콩밥과 국, 그리고 무 겉절이, 그리고 특찬으로 명태 조린 것이 나왔다. 특찬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소위 ‘개과천선하였다고 인정되는 죄수들에게 주는 상장에 대한 포상으로 주어졌다. 어느 것 하나 몰래 가져나올 수 없게 공장은 나체로 출입하여야 했을 뿐 아니라, 입속까지 검사했다. 그러던 1937년 9월 어느날, 이규창은 공산주의자 박세영(朴世榮)과 함께 인쇄소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강령이 담긴 팜플릿을 인쇄하여 배포한다. 하지만 곧 둘은 주모자로 발각된다. 박세영이 먼저 불려갔는데, 그는 모든 사건의 지휘를 자신이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덕분에 이규창은 비교적 ‘혹독하지 않은 처벌’을 받는다. 그 ‘혹독하지 않은 처벌’은 수갑을 차고 암실 독방 3개월, 감식 벌 2주였다. 독방은 발을 펴고 잘 수도 없을 만큼 좁은 곳이었다. 그뿐 아니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이 추가되었으며, 독방 생활도 41년까지 만 4년을 하게 된다. 이후 41년 10월 독방에서 나온 그는 고려청자 공장에서 사역을 하게 된다.		
원천자료	이규창, 2004『運命의 餘燼』, 클레버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05	운명적 독립운동가의 삶, 이규창 - 6	작성자	박수진
제목	생과 사의 순간을 목격하던 광주형무소 생활	키워드	광주형무소, 의무대, 죽음, 출옥
이야기	1942년 3월, 간수가 이규창을 불렀다. 간수장은 곧 그가 광주(光州) 형무소로 이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몇일 후 그는 광주로 이감됐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이동하는 동안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용수를 써야했다.  <광주 형무소> 광주 형무소는 경성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수용인원은 5~600여명이었고, 대부분 5년 이하의 단기수들이었다. 뜻밖의 이감이었지만, 그에겐 행운이었다. 의무과장 장재성(張在性)이 그를 특별히 의무실 사역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의무실은 가장 편한 사역장 가운데 한 곳이었고, 의무과장은 형무소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의무실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엔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겪게 되었다. 의무실에 오는 죄수들은 대개 고문을 받고 굶은 상태에서 왔다. 이규창은 이곳에서 처음 사람의 시신을 염하게 된다. 이후 그는 해방을 맞아 출옥할 때까지 352구의 시신을 염하게 된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게 된 것은 죄수들이 군항(軍港) 사역을 나가면서부터였다. 고된 사역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이질이 돌게 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 결국 죄수들이 죽기 시작했다. 일본 당국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결국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중환자들은 병보석으로 가족에게 보냈다. 하루에 9명이 죽기도 했다. 건체 수감인원이 5~600명이라는 것과 많은 중환자를 병보석 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람이 죽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당시 중환자를 돌보고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고역'으로 기억한다. 몰래 울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건강했고, 시간은 흘렀다. 1944년 봄에는 동생 규동(圭東)이 면회를 와서 만나기도 했다. 18살 동생을 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1945년 8월 15일,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던 그는 오늘 중대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정오가 됐다. 라디오에선 15분에 걸쳐 일왕의 항복발표가 흘러나왔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 옆에 있던 환자들이 진정하라고 할 정도였다. 곧 독립운동가, 사상범, 전시법 위반자는 가출옥이란 형태를 빌려 출옥시키자는 방침이 정해졌다. 8월 17일 정오, 그는 형무소를 나왔다. 만 9년, 횟수로 10년 만이었다.		
원천자료	이규창, 2004『運命의 餘燼』, 클레버.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106	운명적 독립운동가의 삶, 이규창 - 7	작성자	박수진
제목	건국 이후 (정릉에서의 삶)	키워드	정릉, 감찰위원회, 체신부, 국사편찬위원회
이야기	1948년 건국이 되자 그는 공무원의 위법 또는 비위의 소행에 관한 조사와 정보의 수집하고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감찰위원회 주사로 임명된다. 이후 그는 계속 공직(公職)에 머문다. 한국전쟁 직전은 1950년 3급 공무원 전형에 합격하였고, 감찰위원회 조사과장까지 승진한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5년에는 체신부에 들어가 서대문, 광화문 철도 우체국장을 역임하고 1974년 정년퇴직을 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1990~1993년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독립운동사 기술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규창 선생> 그가 어머니 이은숙 여사를 모시고 정릉에 자리 잡은 것은 1961년경이었다. 그는 막내 매제의 도움으로 정릉에 터를 잡았다. 당시의 집은 '재건주택'으로 불리는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주택이었다. 이규창 선생의 아들, 이종철씨에 따르면 아버지(이규창)가 공직에 있어 어렵게 살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랬듯, 이웃 누구도 그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존경 받을 만한 삶이었지만 국가도, 이웃도 그를 기억해주지 않았다. 1968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은 것이 건국 20년 만에 그에게 해준 유일한 보답이었다.		
원천자료	이규창, 2004『運命의 餘燼』, 클레버.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07	운명적 독립운동가의 삶, 이규창 - 8	작성자	박수진
제목	에필로그	키워드	독립운동, 이분법
이야기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독립운동의 길에 나섰다. 이봉창 열사도, 윤봉길 의사도 모두 자신의 선택으로 죽음을 각오했다. 하지만 이규창에게 독립운동은 운명이었다. 그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의 자서전 제목은『運命의 餘燼』이다. 운명이 남긴 나머지란 뜻이다. 그의 어머니 이은숙 여사와 같이, 그 역시 자신의 힘든 운명에 도망가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도, 그의 아들 이규철씨도 그렇게 기억해주길 바랬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독립운동가 아버지와 그 동지들을 기억하는 이종철씨의 인터뷰 내용 일부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냥 근데 내가 그 되게 재밌는 게, 독립운동한 분들에 대해 너무 신화적으로 얘길 해서 접근성을 차단 시켜. 다 거짓말이야. 다 이웃집 아저씨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고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지. 독립운동한 분들 중에서도 성격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사람도 많아. 친일파들도 성격 좋은 사람도 많고. 그건 다른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보면 이분적으로 나눠놔서.. 웃기는 얘기지. 무슨 항일 테러 했던 분들 얘기 나오면 미화시키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 그냥 사실대로 해서 젊은 애들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거지. 신화처럼 해 놓으면 그런 사람을 누가 따라."		
원천자료	이규창, 2004『運命의 餘燼』, 클레버 이종철 씨 (정릉4동) 구술 증언 자료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108	남겨진 자의 이야기, 유우석 - 1	작성자	박수진
제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5길	키워드	정릉동, 유우석, 가난
이야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5길 128(옛주소는 정릉동 604-16번지), 지금 이 주소에 집에 가서 노크를 해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변 많은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곳은 여전히 가난한 마을이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해방까지 독립운동을 했고, 해방 후엔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았던 백노(白奴) 유우석(柳愚錫) 선생이 만년을 보낸 곳이다(2013년 다시 방문하니 집은 헐리고 없었다)..  <유우석 선생이 살던 정릉 주소지의 집> 백노 유우석 생소한 이름이다. 하지만 그의 동생 유관순은 누구나 기억한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의 만세 시위에 참여한 그녀는, 4월 1일(음력 3월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의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곧 체포된다. 그리고 고문 끝에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한다. 그리고 그녀는 3.1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만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 대부분이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더러는 죽고, 더러는 고초를 겪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그녀가 가고 남겨진 자의 이야기다.		
원천자료	이정은, 2004『불꽃 같은 삶, 영원한 빛 유관순』, 유관순 기념사업회.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09	남겨진 자의 이야기, 유우석 - 2	작성자	박수진
제목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 그리고 유관순의 가족들	키워드	유관순, 순국, 유중권, 이소제, 유중무
이야기	2013년 11월,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19년 4월 1일 희생자 가운데 유관순과 주소가 같은 '이씨(李氏)'가 등장한다. 이 '이씨'는 바로 유관순의 모친인 이소제(李少悌)여사로 생각된다. 그간 증언에 의해서만 알려졌던 이소제의 죽음이 처음 기록으로 증명된 것이다. 같은 날 그녀의 아버지 유중권(柳重權) 열사도 일본군에 총에 맞아 순국한다.  <유관순 열사 수감 기록표 사진> 1919년 4월 1일, 음력으로 3월 1일인 이날 천안 아우내 장터는 '대한독립 만세'라는 소리와 태극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달 전,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일제는 '강경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일경은 군중과의 거리가 가까워 발포를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칼로 사람을 베고, 총검으로 찌르기 시작했다. 유관순도 이때 총검에 찔렸고, 그 상태로 일경에게 끌려갔다. 그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제는 끌려가는 딸을 따라간다. 그 둘이 총에 맞은 것은 이때였다. 어떤 이는 총살(銃殺) 당했다고 기억하나, 동생에 기억에 따르면 총검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촌인 유중무(柳重武)도 이때 체포됐다. 혐의는 치안을 방해하고, 헌병을 폭행하였으며, 시위에 앞장섰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4월 1일 시위 당시, 총검에 찔려 빈사 상태에 빠진 형 유중권을 업고 살리기 위해 주재소 등을 뛰어돌아 다녔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형은 사망했고, 그도 체포됐다. 그는 유관순과 같이 재판을 받고, 유관순과 같이 징역 3년이라는 같은 형량을 선고 받는다. 일경에 체포되어 가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이 글의 주인공인 유우석이다. 유우석은 이 모든 계획을 주도한 사람 중 한명이었다. 당시 영명학교(永明學校)에 재학 중이던 그는 '학생대표' 자격으로 교사들과 함께 시위 날짜를 정하였으며,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배포를 위한 독립선언서 천여 장과, 대형 태극기를 만들었다. 4월 1일 시위에서 동생과 함께 그도 체포됐다. 동생 유관순과 다시 만난 것은 5월 법정에서였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동생 유관순은 비정상적으로 과한 7년 형을 선고 받았지만(3년 형이라는 설도 있음), 그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언도 받고 8월 29일에 출옥한다.		
원천자료	이정은, 2004『불꽃 같은 삶, 영원한 빛 유관순』, 유관순 기념사업회.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10	남겨진 자의 이야기, 유우석 - 3	작성자	박수진
제목	출옥 이후	키워드	원산, 결혼, 아나키즘, 7번의 구금
이야기	유우석은 출옥한 후 서울로 갔다. 1920년 4월 1일 배재보통고등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학업도 지속했다. 1922년 졸업 후 그는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진학했다. 언뜻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는 독립운동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경성법학전문학교에서 조국수호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역시 일본 당국에 의해 포착·체포된다. 이번엔 종로 경찰서에 끌려갔다. 고문이 이어졌다. 동지들을 밝히라는 것이었다.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그는 퇴학을 당한다. 1923년 그는 조화벽(趙和璧)과 결혼하고, 그녀의 고향인 양양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무정부주의 사상 연구에 몰두하다, 아내가 원산 루시여학교에 취직이 되자 같이 원산으로 자리를 옮긴다. 1926년 그는 그곳에서 무정부주의 운동가들인 이향, 조시원, 김연창, 한하연등과 무정부주의운동 비밀단체인 본능아연맹(本能兒聯盟)을 조직하고 계몽운동을 한다. 다시 독립운동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당시 원산은 공산주의 각 계파가 세력 확장을 하던 곳이었고, 무정부주의 세력과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었다. 갈등은 표면화 됐다. 1927년 4월 25일 동아일보에는 “『아나』系와 靑年黨派 亂鬪끗에 八名重輕傷”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1927년 2월 10일 원산여자청년회 주최 강연회에서 두 세력이 부딪친 것이다. 무정부주의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의 강연을 방해했고, 이에 공산주의 세력에서 방해하는 자를 데리고 나가 구타했다. 무정부주의 세력은 이를 다시 복수하기 위해 청년당 발기인인 장기욱(張基郁)의 집을 급습했다. 다시 싸움이 붙었고, 유우석은 이 과정에서 곤봉에 머리를 맞고, 구세병원(救世病院)으로 실려 간다. 이 사건으로 그는 상해치사혐의를 인정받아 구속된다. 같은 해 9월 15일 이전에 병보석으로 풀려난다(기왕에는 9월 27일로 되어 있지만, 1927년 9월 18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이미 유우석이 보석 중이라고 나온다). 이후 재판이 계속된다. 처음엔 혐의가 인정되어 3년 형을 언도 받았다. 그러나 1928년 7월 27일 정당방위로 무죄가 선고된다. 당시 상고해서 무죄가 된 경우는 드문 경우였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이를 특이하게 생각했다. 다만 장기욱이 고소한 상해죄 부분으로 벌금 30원의 판결을 받았다(동아일보에는 20원으로 기록). 이후 그의 이름은 신문 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갔다. 1929년, 32년, 34년, 36년 그는 계속해서 항을 활동을 하다 구속된다. 1936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무려 7번이 구금당하기도 했으니, 그동안 겪은 고초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나』系와靑年黨派 亂鬪 끗에 八名重輕傷 元山에 大不祥事突發 <『동아일보』 1927. 4. 25>
원천자료	이정은, 2004『불꽃 같은 삶, 영원한 빛 유관순』, 유관순 기념사업회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111	남겨진 자의 이야기, 유우석 - 4	작성자	박수진
제목	해방을 맞이하여	키워드	해방, 노농당, 정릉동, 가난한 삶
이야기	그의 이름이 신문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해방 이후이다. 1946년 4월 13일 기사에는 유우석이 대한민주청년동맹(大韓民主青年同盟)의 사업부장이 되었음이 나온다. 같은 해 4월 30일에는 대한독립촉성청년동맹전국대표자대회에서 부원장으로 뽑힌다. 같은 해 대한노동총연맹을 결성하고 위원장에 피선되어 통일운동, 신탁통치반대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전국혁명자총연맹 결성 과 중앙집행위원으로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민의회 산업분과 위원장에 선출되기도 한다.  <유우석> 하지만 그는 이기붕 체제로 개편되는 이승만 정권에 남아있지 않았다. 자유당에서 탈당한 그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소시민층을 기반으로 노농당(勞農黨)을 창당하였으며, 심산 김창숙과 함께 유도회 활동을 하기도 했다. 1961년 5·16군사정부에 의해 노농당이 해산되자 조경한, 임의탁, 서병철, 김희남 등과 독립운동자동의회(獨立運動者同義會)를 결성하고 순국선열유족회장에 피선되어 독립운동 유가족 구호에 힘썼다. 1962년 성균관 상무전의에 선출됐다. 1968년 5월 28일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604의 16호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그의 장례식은 6월 5일 예총회관 광장에서 사회장 치러졌다. 해방 후 그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해방된 나라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썼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가난했다. 매년 3월 1일,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유관순을 기렸는데 너무 가난해서 초 한 자루를 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국가가 그에게 해준 것은 사망하고 22년이 지난 1990년에 이르러서야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것 뿐이었다.		
원천자료	이정은, 2004『불꽃 같은 삶, 영원한 빛 유관순』, 유관순 기념사업회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12	어느 여학생의 4월 혁명, 진영숙 - 1	작성자	문일웅
제목	어머니의 술회	키워드	진영숙, 4.19, 돈암초등학교, 한성여자중학교
이야기	1960년의 ‘어머니날’ 이었던 5월 8일, 당시 동대문구에 속했던 보문동 218번지의 가정집에 신문 기자가 방문했다. 그 집에는 얼마 전 딸을 여읜 어머니 한 분이 남은 자식들을 키우고 살고 있었다. 기자가 찾았을 무렵은 죽은 딸의 열다섯 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어머니는 마음을 추스르고 기자를 향해 딸을 키워온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본래 이 가족은 만주 하얼빈에서 거주했었다. 해방이 되자 가을 무렵 남편의 고향인 경기도 수원을 향해 귀국하다가 해방 이듬해 함경북도 청진에서 이 딸을 낳았다. 그러나 1948년 남편은 죽고 또 얼마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에게 끌려가 이 딸을 앉고 갖은 고초를 다 겪었었다. 1.4 후퇴 때 어머니는 자식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하였고 전쟁 직후 줄곧 수원에서 일을 하며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했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리고 성북구에 온 것은 이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던 1955년이었다. 어머니는 동대문시장에서 피복상을 하면서 자식들을 길렀다. 이번에 죽은 막내 딸이 입학한 학교는 돈암초등학교였다. 어머니의 정성이 지극했던지 모진 환경 속에서도 딸은 구김살 없이 잘 자랐던 것 같다. 그 친구들의 말에 의한다면 딸은 학교에서 성격이 명랑하고 쾌활하며 씩씩한 학생으로 인식되었고 상급생들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했다. 발육상태도 좋았던지 수원에 있을 때도 매년 학교 무용반에 뽑혔으며 돈암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한 한성여자중학교 시절에는 학교 농구 선수를 했었다. 딸은 친구들 사이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일 정도로 키가 크고 몸도 건강한 학생이었으며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했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곱게 잘 자란 딸이었기에 어머니의 슬픔은 상당했을 것이다. 딸이 죽던 날은 꼭 20일 전인 4월 19일이었다. 그 무렵 딸은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바다에서 떠올랐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뒤 딸은 책상에 엎드려 우는 날이 잦았다고 한다. 딸은 울면서 공산당 나쁘다더니 공산당 같은 짓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머니는 똑똑하게 들었다. “죽은 당일 날도 딸은 학교에 나가면서 혼잣말처럼 “오늘 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고등학생들이 안하면 우리 클래스 친구들을 선동해서 나설 테야” 라고 중얼거렸던 것을 어머니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소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이러한 말을 중얼거리는 딸이 염려스러워 “너는 공부나 할 일이지 그런 말 하지 말라” 고 단단히 말하면서 딸의 돌출행동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모습이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는 집안일을 도와주던 친척 아주머니만 있었다. 대문 밖 골목에는 딸이 데리고 온 학교 친구 50-60명이 서성대고 있었다. 친척 아주머니가 차려준 저녁상		

	을 밀쳐놓은 채 딸은 어머니를 보기 위해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한참이 지나도 어머니를 볼 수 없자 딸은 무엇인가를 바쁘게 연필로 적고는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 편지는 딸의 유언이 되었다. 그날 밤 딸은 미아리 고개에서 버스를 타고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었던 것이다. 딸의 이름은 진영숙(陳英淑)이었다. 당시 한성여자중학교 2학년 2반에 재학중이었다. 이 무렵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아가 시위 대열에 합류하였고 더러는 죽음을 당하거나 혹은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진영숙의 사례는 그 일부에 해당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상철, 2011, 『내가 쓰는 한국 근현대사』, 우리교육.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13	어느 여학생의 4월 혁명, 진영숙 - 2	작성자	문일웅
제목	4월 혁명과 학생들 ①	키워드	부정부패, 학생시위, 부정선거
이야기	진영숙이 죽었던 1960년의 한국 사회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국전쟁으로 기간산업 시설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국민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물자가 부족했고 부정부패는 사회에 만연하였다.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의 원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었음에도 이승만 정권은 이러한 어려움을 외면하고 장기 독재만을 추구하여 국민들의 불만은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자유당 정권은 1960년 3월 15일에 계획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고자 공무원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정치 깡패를 동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경찰을 이용하여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28 대구 학생의거가 발생했다. 일요일이었던 1960년 2월 28일은 대구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장면의 유세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당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민주당 유세장에 못나가도록 등교 지시를 내린 것이 학생의거의 발단이 되었다. 대구의 고등학생들은 “학원의 자유 보장하라”, “독재정치, 부정부패를 물리치자”를 구호로 내걸고 시위를 벌여나갔는데 당시 경상북도 도지사는 학생들에게 “이놈들은 모두 공산당”이라고 매도하였고 경찰들은 시위 학생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이후 전국적으로 자유당 정권에 항거하는 학생 시위의 발단이 되었다. 대통령선거 당일이었던 1960년 3월 15일은 당시 사회 각계에서 우려했던대로 자유당 정권의 선거 부정이 전국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국이 일정 비율의 표를 사전에 투표하여 미리 투표함에 채워넣기도 하거나 3인조, 7인조 투표라 하여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혹은 이미 죽은 사람이 버젓이 선거인 명부에 추가되어 자유당에 투표한 것으로 위장되었다. 또한 선거장에서는 야당 참관인의 입회가 거부되거나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는 도중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개표 당시에도 다른 사람의 표를 이기붕의 표로 집계하기도 했었다. 3.15 부정 선거에 최초로 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일어났던 곳은 마산이었다. 그러나 당시 내무부장관 최인규는 마산에서의 시위를 강경진압하도록 명령하였고 마산 시민들의 분노감은 극도로 치닫게 되었다. 이 와중에 마산시위 당시 행방불명되었던 마산상업고등학교 학생 김주열의 시체가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 마산의 학생들, 더 나아가 신문을 통해 고등학생 김주열의 죽음을 알게 되었던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은 고무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대통령 이승만은 학생들의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고무되고 조종된” 것으로 매도하면서 학생들은 점차 거리로 나서 독재정권의 타도를 외치기 시작했다. 앞서 진영숙이 김주열의 죽음에 대해 책상에 엎드려 우는 날이 잦았던 것도 당시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느꼈던 분노의 단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된 4월 11일 이후 시위는 서울에서도 대대적으로 일어		

	나기 시작했다. 4월 18일에는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던 고려대생이 정치깡패들에게 피습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는 그 다음날 서울 시내 각 중고등학교생들과 대학생들이 궐기하여 “이승만 타도”, “부정선거 다시하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통령 이승만과 담판짓기 위해 무리지어 경무대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4월 19일에 내무부 장관 최인규의 지시로 경찰은 시위대에게 발포하기 시작했고 당국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고자 하였다. 진영숙이 미아리고개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절명했던 것도 이러한 당국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상철, 2011, 『내가 쓰는 한국 근현대사』, 우리교육.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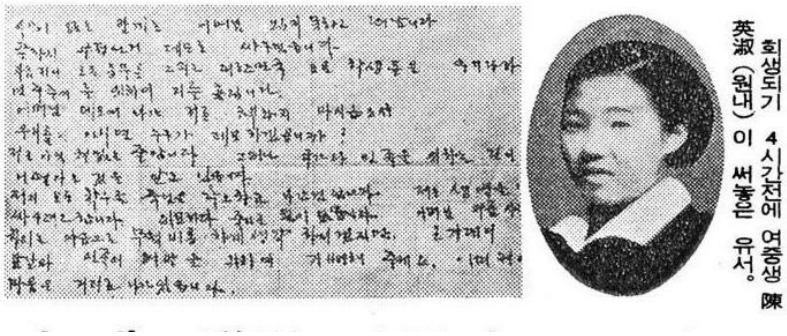
No. 114	어느 여학생의 4월 혁명, 진영숙 - 3	작성자	문일웅
제목	4월 혁명과 학생들 ②	키워드	고등학생, 민주주의, 발포, 죽음

이야기

요즘에도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진영숙이 중학교를 다니던 1960년 역시도 당시의 교육열이 매우 높았다. 교육을 통해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학구열이 높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한국전쟁 이후 서구,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과 이상에 대한 교육이 초등-중등 교육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실시되고 있었다.

앞서 진영숙이 어머니를 기다리며 남긴 편지는 당시 시위대열에 동참했던 중고등학생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단초로 볼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본다면 다음과 같았다.

"어머님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 합니다. 데모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님,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뻐해 주세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회생되기 4시간전에 여중생 陳英淑(원내)이 써놓은 유서。

<동아일보, 1960년 6월 2일자 5면>

한성여자중학교 2학년생이었던 진영숙에게도 당시 사회 세태에 대해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자각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혀 있었던 것 같다.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이상이 현실 속에서 무너져 내려가는 상황을 조국과 민족의 위기로 파악하고 학생으로서 "생명을 바쳐" 이 현실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바로 이 진영숙의 편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진영숙은 김주열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명감을 행동으로 옮긴 김주열의 죽음에 대해 일종의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진영숙이 이러한 유서를 쓰고 있던 4월 19일 오후는 이미 중고등학생들이 시내 곳곳에서 자유당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나가고 있을 때였다. 또한 주로 고등학생들은 대학생 선배들에게 시위대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중고등학생을 필두로 대학생 및 사회 각계각층이 봉기하자

	발포명령을 내렸다. 1960년 4월 19일은 ‘피의 화요일’이라 지칭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경찰의 발포로 진영숙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죽거나 다쳤다. 강제적인 진압으로 시위는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날의 학생들의 희생은 결국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서울 시내 교수들의 시위에서 내걸었던 구호가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상철, 2011, 『내가 쓰는 한국 근현대사』, 우리교육.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15	어느 여학생의 4월 혁명, 진영숙 - 4	작성자	문일웅
제목	딸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	키워드	명예졸업, 망우리묘지, 어머니
이야기	진영숙의 어머니인 김명옥(金明玉)은 기자를 향해 죽은 딸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았다. 죽은 딸을 생각하며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영숙아. 엄마는 이젠 울지 않으련다. 너와 너의 동지들이 뿌린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동 터오르는 제2공화국의 새아침을 너는 보고 있느냐? 네가 간지도 벌써 꼭 20일이 되는구나. 나는 거듭 결심했다. 어미로서 너의 오빠와 언니를 너의 참된 죽음에 부끄럽지 않게 길러야겠다는 결심이다." 이는 집을 방문한 기자가 어머니의 말을 옮겨 적은 것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기자가 당시 시대 분위기에 맞게 어느정도 가필한 흔적이 느껴지지만 어쨌거나 어머니 입장에서 딸의 희생을 고귀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기사화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의 희생은 이승만 정부를 몰락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제2공화국의 '새아침'을 여는 원동력이 되었다. 딸의 죽음이 아무리 고결하였더라도 어머니의 슬픔을 대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영숙의 어머니 김명옥은 죽은 딸 이외에도 딸의 오빠와 언니를 키워내야만 했다. 인터뷰 말미에 딸과 이별한 슬픔을 다른 자식들을 잘 키우겠다는 결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노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딸의 친구들이나 지역 주민들 역시도 진영숙 가족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진영숙이 죽은 후 모교였던 한성여자중학교 측에서는 그녀의 묘비를 기증하고, 1주기에는 교직원과 학생 대표들이 망우리 묘지를 찾아 넋을 위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 무렵 그녀의 모교에서는 진영숙의 초상화를 제작하여 학교에 걸어두기까지 하였다. 물론 지역 사회 뿐만이 아니라 진영숙 가족에 대한 관심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컸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성동여중 2학년생 대표들이 어머니날을 맞아 진영숙의 집을 방문하여 어머니께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위문금을 전달한 사례로 있었기 때문이다. 1962년 2월 6일에는 한성여자중학교에서 진영숙의 명예졸업장이 수여되었다. 교장은 특별히 진영숙의 어머니를 초청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명예졸업장을 수여하였다. "이 사람은 4.19 혁명 대열에 뛰어들어.....그 공적을 찬양하여 중학교 전 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는 학교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졸업식장은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곳곳에서는 진영숙의 '의거'에 대해 칭송하는 말과 선후배로서 애도하는 말이 자자했다. 그러나 이를 취재하러 온 기자가 진영숙의 어머니 김명옥에게 소감을 묻자 그녀는 "가슴이 메어 말을 못하겠다"라는 말만 하며 죽은 딸의 영정만을 쳐다보았다고 한다. 아무리 주변에서 딸의 의거를 칭송하더라도 혈육을 잃은 슬픔에 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원천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상철, 2011, 『내가 쓰는 한국 근현대사』, 우리교육.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116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맑은 날을 보다, 신동엽 시인 - 1	작성자	문일웅
제목	시인이 성북구에 자리 잡은 과정	키워드	신동엽, 이승만정권, 단국대, 돈암동

이야기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중에서


<신동엽 시인>

우리가 기억하는 시인(詩人) 신동엽(申東曄)은 참여시인이요, 저항시인이다. 그러나 그가 본격적으로 사회의 썩고 어두운 곳을 후벼파는 시어를 원고지에 적어 내려간 곳에 대해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 한다. 신동엽의 시 세계는 4월 혁명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시인이 4월 혁명을 목도한 곳은 바로 우리고장에 위치한 동선동이었다. 동선동은 시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녔던 것일까? 먼저 시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시인에게 강한 영감을 제공했던 공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신동엽(申東曄)은 1930년 8월 18일에 출생하여 1969년 4월 7일에 작고한, 한국의 현대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충청남도 부여 출생으로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하여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당선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시를 쓰게 된 것은 그의 부친이 일찍부터 그의 재능을 발견하여 뒷바라지를 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시인의 아버지는 성정이 차분한 자신의 장남을 보면서 글을 가르쳐야 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6살 때부터 글을 가르쳤으며 없는 살림이었지만 책과 필기구를 마련하여 아들이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다. 아들 역시도 어릴 적부터 독서에 힘써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갔다고 한다. 그는 숙식을 제공해 주었던 전주사범학교에 진학하여 부친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시인은 1948년 11월 토지개혁 미실시와 친일파를 제대로 처단하지 않은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동맹휴학에 참여하게 되어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그러나 교원자격만은 없어지지 않았기에 그는 이듬해인 1949년 부여 주변에 있던 국민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시인은 3일 만에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의 잇따른 실정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것 같은데, 그러한 까닭에 그는 서울에 올라와 단국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친은 밭을 처분하여 학문을 하겠다는 장남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시인은 고향인 부여로 다시 낙향했다. 인민군이 부여를 점령하자 인민군은 그를 그해 9월 말까지 부여 민주청년동맹의 선전부장에 앉혔다. 시인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앞서 교사직을 그만두고 역사학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 역시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 바꾸겠다는 공산주의자의 생각에 잠시나마 동조를 했기 때문에 얼결에 민주청년동맹의 선전부장직을 맡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부여에 국군이 들어오고 난 뒤 시인은 국민방위군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점은 인민군의 실정에 점차 환멸을 느꼈고 그 때문에 다시 국민방위군에 입대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에 참여했을 때 굶주림 때문에 디스토마에 감염되기도 하였다. 시인은 1953년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이후 제1차 공군학도간부 후보생에 지원했으나 발령은 받지 못 했다. 시인은 할 수 없이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 무렵 그는 성북구 돈암동에 자취방을 얻어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해 나갔다. 친구의 도움으로 당시 돈암동 네거리에 헌책방을 열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그는 당시 이화여고 3학년이었던 부인 인병선을 만났고 1957년 그녀와 결혼하였다. 결혼 이후 시인은 잠시 부여로 낙향했으나 이내 다시 부인과 자녀를 서울로 올려 보내고 홀로 요양하면서 독서와 글쓰기에 빠졌다. 그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던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이후 그는 등단도 하였고 아울러 건강도 회복되어 처자가 있는 성북구로 재차 올라왔다. 시인과 가족의 거처는 성북구 동선동에 마련되었다. 시인은 교육평론사라는 잡지사에 취직을 하여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원천자료	조강석, 2012,「신동엽 시의 민주주의 미학 연구: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한국시학연구』35, 한국시학회. 강계숙, 2004,「신동엽 시에 나타난 전통과 혁명의 의미」『한국근대문학연구』5, 한국근대문학회.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17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맑은 날을 보다, 신동엽 시인 - 2	작성자	문일웅
제목	시인의 눈에 비친 맑은 하늘	키워드	4.19, 아사녀, 삼선교
이야기	부인 인병선의 증언에 의하면 시인은 1960년 4월 어느 날 하루 종일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시인은 저녁에 들어왔는데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반짝 반짝 빛나고 있었다. 온 몸과 구두에는 먼지 투성이었는데, 부인은 이를 통해 시인이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녔음을 알았다. 시인이 서울에서 삶의 터전을 이룬 곳은 돈암동과 동선동 일대였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시인이 재직했던 직장인 교육평론사는 종로구 내수동 168번지였다. 1960년 4월 19일 시인이 집을 나와 회사로 가는 길 일대는 온통 학생들과 민중들이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를 곳곳에서 벌여나가고 있었다. 학생을 예로 들자면, 삼선교 부근의 한성여자중학교와 지금의 혜화로타리 부근의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를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목도하고는 온 몸이 먼지투성이가 되는 것도 잊은 채 이 자발적 시위를 정신없이 목도하며 거리를 돌아다녔던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민중의 봉기를 어떻게 보았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시인이 4월 혁명에 쓴 시인 「아사녀」에 잘 나타나 있다. 시인은 시에서 “학원(學園)에서 도시(都市), 도시 너머 궁궐(宮闕) 아래, 봄따라 왁자히 피어나는 꽃보래 돌팔매”라는 구절은 그날 시인이 목도했던 시위 장면들이었다. 시위대열은 먼저 각급학교에서 강렬하게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시위는 도시에 확산되었고, 그렇게 확산된 도시의 봉기는 곧바로 궁궐 아래, 즉 효자동 너머 경무대에까지 확산되었음을 시인은 똑똑히 보았던 것이다. 또한 거리 곳곳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은 주로 구호를 외치거나 혹은 정치깡패, 경찰에 맞서 돌팔매를 날리며 저항했던 것 역시 시인의 시선에 강렬하게 포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인은 이러한 시위의 모습들을 보며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4월 19일, 그것은 우리들의 조상이 우랄고원에서 풀을 뜯으며 양달진 동남아 하늘 고운 반도에 이주오던 그날부터 삼한으로 백제로 흐르던 강물, 아름다운 치마자락 매듭 고운 흰 허리들의 줄기가 3.1의 하늘로 솟았다가 또 다시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 솟구쳐 오른 아사달, 아사녀의 몸부림, 빛나는 앙가슴과 물구비의 찬란한 반항이었다.” 즉, 대규모로 시위가 터져 나왔던 4월 19일에 대해 시인은 한국 역사의 큰 궤적 속에 위치시키고 있었다. 또한 이날의 민중봉기에 대해 시인은 3·1운동과 연결된 자발적 시위로 보았으며 그 민중운동의 계보는 아사달, 아사녀, 즉 단군 이래로 순수하게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역사 발전의 거대한 물줄기로 보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 시위의 현실적인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는		

	다음의 구절에서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광화문 앞마당, 효자동 종점에서 노도처럼 일어난 이 새피 뿜는 불기둥의 항거..... 충천하는 자유에의 의지..... 이 시구에 의한다면 시인은 광화문 거리를 넘어 경무대가 바라다 보이는 효자동 전차 종점에서 불의한 정권에 사자후를 날리는 시민의 모습은 “충천하는 자유에의 의지”였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결국 이날의 항거의 최후의 목표를 시인은 ‘자유’로 보았으며 항거 자체는 바로 이 자유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는 매개였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시인은 훗날 다른 시에서 4월 혁명 때만 한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맑은 하늘이 빛났던 날이라 회상한다. 이는 시인의 뇌리에서 4월 혁명이 모든 정치사회적 현실을 판단하는 잣대로 남았기 때문이었다. 바꾸어 말한다면 시인이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할 유토피아적인 시적 세계는 4월 혁명 이후에는 볼 수 없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시인은 4월혁명 이후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가?  <신동엽 시인의 시작(詩作) 노트>
원천자료	조강석, 2012,「신동엽 시의 민주주의 미학 연구: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한국시학연구』35, 한국시학회. 강계숙, 2004,「신동엽 시에 나타난 전통과 혁명의 의미」『한국근대문학연구』5, 한국근대문학회.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118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맑은 날을 보다, 신동엽 시인 - 3	작성자	문일웅
제목	시인의 기억 속에 남은 4월 : '갈아엎는 달'	키워드	껍데기는 가라, 갈아엎은 달

이야기

앞서 우리는 시인이 1960년 4월 19일 당일에 보고 또 느낀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인은 당시 직장이었던 교육평론사에서 『학생혁명시집』의 간행을 맡아보면서 부단히 4월혁명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예리하게 다듬어나갔다. 이후 그의 현실 참여시는 모두 4월혁명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후 4월 혁명에 대해 어떻게 기억했으며 더 나아가 현실에 어떻게 적용시키고자 했을까? 그것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시 「4월은 갈아엎는 달」과 「껍데기는 가라」를 들 수 있다.

먼저 「4월은 갈아엎는 달」을 살펴보자.

강산을 덮어, 화창한
진달래는 피어나는데,
출렁이는 네 가슴만 남겨놓고, 갈아엎었으면
그 균스러운 부패와 향락의 불야성 갈아엎었으면
갈아엎은 한강연안에다
보리를 뿌리면
비단처럼 물결칠, 아 푸른 보리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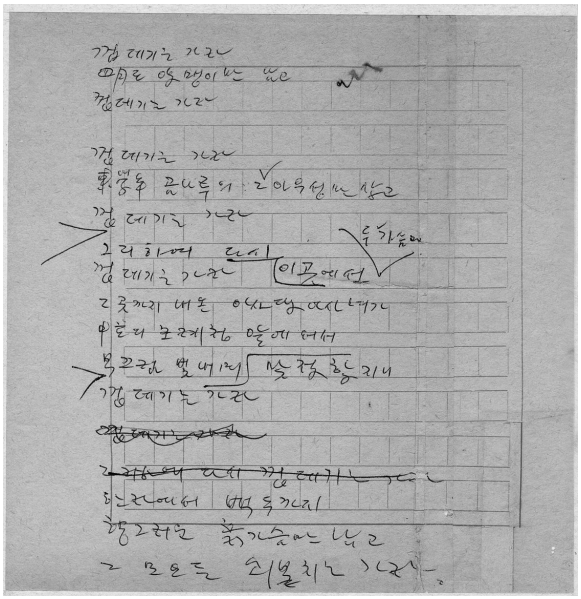
강산을 덮어 화창한 진달래는 피어나는데
그날이 오기까지는, 4월은 갈아엎는 달.
그날이 오기까지는, 4월은 갈아엎는 달.

이 시는 시인의 현실인식이 4월 혁명을 통한 자기성찰에서 나아가 현실에 적용하고자 하는 고뇌가 묻어나 있다. 4월 혁명의 자발적인 민중봉기는 부패한 정권을 타도하는데만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었다. 시인은 4월 혁명 이후 아직도 "균스러운 부패와 향락의 불야성"인 점은 그대로임을 직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4월 혁명의 기세로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재차 일소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시인의 기억 속에서 4월은 역사에서 이어져내려 온 부패의 고리, 향락, 즉 타락하는 사회 자체를 처음으로 '갈아엎어' 본 달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후에 그의 대표적인 시였던 「껍데기는 가라」에서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라고 일갈하는 것 역시도 4월 혁명 이후 한국사회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비록 국민의 뜻으로 이승만정권이 붕괴되었지만 그와 비슷한 혼란상이 계속 남아있

	었던 당시 현실을 비판하는 시인의 사자후였다. 이는 4월 혁명이 구체적 준비 없이 이루어진,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에 착안하지 못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 것을 직시한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말하자면 다시 1960년 4월로 돌아가 사회의 근본적인 부조리를 시민의 자발적 힘으로 혁신시켜야 한다는 반성, 혹은 주장이었던 것이다. 결국 시인 신동엽은 4월 혁명을 통해 묵묵히 땅을 가는 민중들이 역사의 주체라는 신념을 굳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사회의 모순을 근절하고 민중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의 참된 발전이라고 보게 된다. 이는 1960년 4월 19일 그가 살았던 동네에서 시작하여 광화문, 효자동 앞거리에서 목도했던 장면 장면들이 이후 그의 시 세계를 규정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돈암동, 동선동 일대의 당시 풍경은 시인의 삶의 거처이자 그의 시 세계의 원천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된다. 그렇다면 시인은 4월혁명 이후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가?  <「껍데기는 가라」 초고>
원천자료	조강석, 2012,「신동엽 시의 민주주의 미학 연구: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한국시학연구』35, 한국시학회. 강계숙, 2004,「신동엽 시에 나타난 전통과 혁명의 의미」『한국근대문학연구』5, 한국근대문학회.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19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맑은 날을 보다, 신동엽 시인 - 4	작성자	문일웅
제목	신동엽의 시인이 살았던 동선동의 현재	키워드	돈암동, 동선동, 인병선
이야기	그가 서울에서 첫 삶을 살게 되었던 곳은 앞서 말했듯 돈암동, 동선동 일대였다. 지금은 그와 그의 가족이 살았던 동네는 옛 모습을 잃은 지 오래이다. 그가 경영했던 고서점도 정리된지 오래이며 그가 1960년 보았던 길거리와 지금의 길거리는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 그날의 기억의 자취를 찾기란 쉽지 않다. 물론 그의 부인 인병선은 현재 성북구가 아닌 종로구 명륜동 일대에 짚풀생활사박물관을 열어 시인의 유지를 계승·발전시키고 있지만 본래 살았던 곳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앞서 시인은 4월 혁명이 한국 역사의 발전 궤적 속에 위치시켰다. 한국 근현대사로 특정짓는다면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서 3·1운동의 궤적을 이어 다시금 자발적 민중운동으로 불의한 정권에 맞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4월 혁명은 시인의 시 세계를 일신시켰을 뿐더러 이 혁명을 단순히 서울이라는 지역을 넘어 전국, 아니 한국 전체 사회를 바꾸는 일대 혁신이었다. 따라서 4월 혁명을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보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하며 시인의 예리한 관찰처럼 한국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튼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가 4월 혁명의 시인이 되게끔 한 공간이, 그 첫 시발점이 성북구 돈암동, 동선동 일대였다는 사실만은 변함없다. 그가 처음으로 민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불의한 정권을 쓰러뜨리는 것을 목도한 곳도 성북구였으며 아울러 혁명의 혈기에 넘친 청년학생들의 시 원고들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교정을 보았던 곳도 그의 집이 위치했던 성북구였다. 그가 시인은 민중의 자발적 혁명을 통해 사회가 변혁되는 것을 갈망했으므로 그의 지역을 놓고 본다면 1960년 4월 19일 시인이 새로 태어난 그 거리와 지금의 거리가 외양적으로 꼭 같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칫 단편적 사건, 혹은 일시적인 민중의 흥분상태로 기억될 수 있었던 4월 혁명을 어느 시인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혁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공간, 비록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더라도 우리는 시인의 정신 속에 남아있는 그 공간이 어디라는 것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원천자료	조강석, 2012,「신동엽 시의 민주주의 미학 연구: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한국시학연구』35, 한국시학회. 강계숙, 2004,「신동엽 시에 나타난 전통과 혁명의 의미」『한국근대문학연구』5, 한국근대문학회.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20	수난의 미아리 : 일제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미아리 일대 개발사 - 1	작성자	문일웅
제목	미아리라는 지명의 유래	키워드	미아리, 적유현, 되넘이고개

이야기

미아리는 지금의 성북구 길음동과 하월곡동 그리고 강북구 미아동 일대를 말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북구 돈암동에서 길음교로 넘어가는 길, 즉 미아리고개를 넘어서 미아삼거리를 지나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길을 말한다. 현재 종로구와 성북구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혜화문(惠化門), 즉 동소문(東小門) 밖의 지점인 삼선평(三仙坪)을 지나 아리랑고개에서부터 시작하는 지명이 바로 미아리라는 곳이다.

이 미아리라는 지명의 유래는 현재 옛 문헌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다만 1984년에 서울시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동명연혁고IX(도봉구편)』에서 이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책에서는 미아리의 유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8세기경 겸제 정선이 그린 <도성대지도(都城大地圖)>에는 적유현(狄踰峴) 북쪽 바로 아래에 사아리(沙阿里)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미아리(彌阿里)란 동명은 사아리에서 전음된 것 같다. 즉 전에는 정릉동(貞陵洞) 지역을 사을한리(沙乙閑里)라고 칭하였으므로 사아리는 사을한리의 약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아리가 미아리로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기록을 의지하여 미아리라는 지명의 유래를 추측해 본다면 본래 미아리라는 곳은 적유현(狄踰峴), 즉 '되넘이고개'의 북쪽 지방을 뜻한 곳으로 추정된다. '되넘이고개'라는 의미는 병자호란 당시 '되놈', 즉 오랑캐가 넘어온 곳이라는 의미로서 돈암동 일대에 자리잡은 아리랑 고개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현재 행정구역상의 미아리 이름을 딴 곳은 강북구 미아동이 유일하지만 역사적으로 미아리를 지칭하는 공간은 앞서 이야기 하였듯 성북구 길음동, 하월곡동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 미아리라는 지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지방제도상의 커다란 변천이 있었던 1894년 갑오개혁 이후였다. 당시 미아리는 한성부 동부 숭신방 동소문외계 미아리로 지칭되었다. 그러나 1911년 4월 일제는 서울의 행정구역을 도성안은 5부, 도성 밖은 8개 명으로 나눈 후 혜화문을 기점으로 도성 안쪽은 숭신방, 도성 밖은 숭신면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어서 1914년 경기도 도내 각면의 명칭과 구역이 새로 제정될 때 미아리는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미아리로 편입되었다. 이는 일제시대 줄곧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는 이 지역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미아리라 지칭되는 원인이 되었다.

본래 미아리 일대의 거주 인구는 100호 정도로서 한 호(戶) 당 5명으로 계산한다면 대략 500명 정도가 거주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앞서의 갑오개혁 이후 서울의 발전과정 속에서 대거 인구 유입이 있었다. 1936년 일제 경성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한다면 1936년 1만명을 상회했고, 1937년부터 진행된 돈암정 구획정리사업의 완공으로 더 많은 인구가 미아리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 지금의 아리랑 고개를 넘

	기 전에 있는, 지금의 성신여대입구 역 부근에는 당시 전차 종점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아리 지역에 대거 인구가 유입되는 한 원인이었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 의하면 1943년 미아리, 정릉리, 월곡리에는 총호수가 6천호, 인구가 6만 명이나 되고, 매일4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곤 했다고 한다. 이곳으로 몰려든 이유는 주택신축이 자유롭고, 집세도 싼 편이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생활은 농업이나 축산업보다는 대개 서울 안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원천자료	『매일신보』,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동아일보』 서울시사편찬위원회,『동명연혁고』IX: 도봉구편, 서울특별시, 1984. 김희식, 「동소문 밖의 사람들-미아리일대의 역사, 공간, 삶」『로컬리티 인문학』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안창호, 「강남개발과 강북의 탄생과정 고찰」『서울학 연구』4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0.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121	수난의 미아리 : 일제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미아리 일대 개발사 - 2	작성자	문일웅
제목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공간: 일제 시대의 미아리	키워드	공동묘지, 총독부
이야기	앞서 언급하였듯 갑오개혁 및 일제강점기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경술국치 이후에도 서울의 인구는 급속도로 팽창하는 추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서울 시내에 대두되었던 것이 공동묘지 문제였다. 본래 서울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이태원 등지에 시신의 매장이 집중되는 편이었는데 1910년 무렵부터 그 수용 능력에 한계가 다다르기 시작했다. 아울러 일제 당국에서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공동묘지들은 도시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의 주변부에 공동묘지를 신설하고자 하였다. 1913년 일제 당국에서 지정한 신설 공동묘지의 지역을 참고한다면 현재의 강북구 오패산 일대와 함께 길음동 일대가 모두 공동묘지로 지정되었다. 특히 길음동 일대의 공동묘지는 현재 길음 3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공동묘지의 입구는 현재 길음 119 안전센터 자리였고 삼양동 산을 중심으로 묘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총독부 당국에서는 아예 미아리 일대를 집중적으로 공동묘지가 입지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서울과 가깝고 접근성도 좋으며 아울러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 바로 미아리였기 때문이었다. 총독부 당국에서는 1940년에 신사리, 망우리 공동묘지 확장공사를 완료시키고 아울러 미아리 공동묘지 역시 확장시켜 서울의 공동묘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앞서 말했듯 당시 미아리 지역은 서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기에 거주민의 수는 많았으며 이들은 공동묘지가 확장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미아리 주민들은 1943년 총독부 당국에 진정서까지 내면서 공동묘지 및 그에 딸린 화장자의 이전을 요구했다. 당시 주민들의 주장에 의한다면, 미아리는 서울 동부의 신설주택지구인 돈암동과 언덕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현재 인구도 2만여명이라 인구가 무척이나 조밀함에도 이 공동묘지와 화장장은 인가와 너무 붙어있어 위생상으로나 동네 미관상 좋지 않기에 공동묘지 및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였던 것이다. 1943년이라면 태평양전쟁이 격렬했던 시기로서 총독부 당국의 조선인 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 엄혹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민들의 요구는 그만큼 강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는 총독부 당국으로 하여금 길음동 일대 화장장 설치를 철회시켰을 정도였다. 어쨌거나 이 미아리 지역은 한동안 공동묘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이 지역에 주로 공동묘지가 위치했던 일제시기의 미아리 고개는 삶과 죽음이 나뉘게 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까닭에 미아리 고개를 넘으면 고인과 이별하게 되는 것이 슬퍼 상주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애잔하게 울었다고 전한다. 이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울러 장마철이 되면 씻겨나는 흙 속에서 끔찍한 송장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주택가		

	가 인접한 탓에 공동묘지는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또한 그곳으로 통하는 길목마다 관곽과 장의용품을 전시하는 가두 전시장처럼 되어 지역 주민들은 이 공동묘지의 존재에 대해 대단히 불만스러웠을 것이다. 비록 주민들은 총독부 당국의 공동묘지 확대안을 철회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그렇다고 공동묘지가 즐비한 동네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지는 못 했다. 당시 일제 당국은 지역민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고 앞서의 공동묘지 확대 철회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저항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었겠지만 태평양 전쟁 말기에 재원 조달이 쉽지 않았던 총독부 당국의 일시 계획 보류도 원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미아리는 한동안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동네로 인식되었다. 거대하게 조성된 공동묘지를 중심으로 장례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거주하기도 했으며, 서울 시내를 출퇴근 하고자 전차 종점이 위치하였다는 지역적 이점으로 이사해 온 사람도 있었다. 무덤가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볼 수도 있었을 것이며,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과 공동묘지로 향하는 장례행렬이 빈번하게 마주치는 그런 동네로서 미아리는 해방 직후까지도 그렇게 인식되었다. 지금도 자주 불려지는 노래인 ‘단장(斷腸)의 미아리 고개’는 어쩌면 이때부터 이름붙여진 미아리의 별명일지도 모른다.
원천자료	『매일신보』,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동아일보』 서울시사편찬위원회,『동명연혁고』IX: 도봉구편, 서울특별시, 1984. 김희식, 「동소문 밖의 사람들-미아리일대의 역사, 공간, 삶」『로컬리티 인문학』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안창호, 「강남개발과 강북의 탄생과정 고찰」『서울학 연구』4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0.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122	수난의 미아리 : 일제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미아리 일대 개발사 - 3	작성자	문일웅
제목	대표적인 서울의 달동네 지역: 해방 이후 미아리	키워드	달동네, 토막민, 도시개발
이야기	앞서 이야기했듯 미아리 지역의 발전은 총독부 당국의 시책으로 좌절되었다. 이는 일제 당국이 조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 컸다. 따라서 해방 이후가 되어서야 미아리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을의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앞서 지역 주민에게 골칫거리였던 미아리 공동묘지는 정부 수립 이후인 1950년 4월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전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곧바로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물거품이 되고 마는데 이는 미아리가 또다른 수난의 역사를 맞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 한국전쟁 이전에도 당시 서울의 외곽지역에는 토막민이라는 이름으로 묘지나 유곽, 화장장 부근, 강바닥이나 다리 밑, 하천변, 성벽 옆, 언덕 밑 임야 등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무허가 주택이 건립되어 있었다. 동대문 밖 안암천, 정릉천 등의 하천부지에는 무려 1,238호에 달하는 토막이 밀집분포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은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켰다. 서울로 밀려드는 피난민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열악하나마 임시로 전쟁유출물자인 목판, 아연철판, 아스팔트 루핑, 미군이 쓰던 가병사 퀀셀 등을 사용하여 판자집을 지어 거주하게 되었다. 당시 미아리는 구로구 번동과 더불어 대표적인 피난민 정착촌이 자리잡게 되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난민정착사업을 위해 미아리 공동묘지 이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에 미아리는 공동묘지와 피난민촌이 뒤섞여 있는 곳으로 변모해버렸다. 게다가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게 되었다. 피난민의 정착자로서 역할을 하던 미아리는 다시 경제개발로 인한 대대적인 인구유입에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서울시내의 도시미관을 좋게 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시 당국에서 시내의 판자촌을 대대적으로 일소하였기에 발생한 것이었다. 이때 철거당한 사람들은 시내에서 가까운 곳이었던 미아리 일대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1967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월곡동 일대에 7,000여 가구가 무허가 촌이 새롭게 형성되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미아리 거주민과 달리 주로 서울 시내에서 철거당해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당시 미아리의 인구가 얼마나 대책 없이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는 초등학교 문제였다. 이 지역의 초등교육기관은 본래 숭인초등학교 한 곳만이 있었는데 인구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신설은 무척 더뎠다. 이주민들 가운데 초등학생을 둔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숭인초등학교로 자녀들을 통학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숭인초등학교는 하룻밤 자면 학생이 10여명씩 불어나 1967년 4월 초 무렵에는 총 1백 49학급에 1만 2천 1백 34명의 학생이 다니게 되		

	었다. 이는 당시 동양최대의 초등학교라는 불명예를 이 학교에 선사했는데 당시 수업 상황을 보면 1학년은 1학급에 거의 1백명을 육박한채 3부제 수업, 2학년~5학년이 2부제, 6학년만이 1부제 수업을 했다. 특히 3학년의 경우는 5학년이 정상수업을 마친 뒤 하오 2시 이후부터 5학년 교실서 수업을 하게 되어 '고정 2부'란 별명까지 생길 지경이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인구유입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동시에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1960~1970년대 길음동, 미아동, 삼양동, 하월곡동에 도시개발이 조금씩 시도되고는 있었다. 앞서 숭인초등학교의 사례가 나타나던 1960년대에 공영주택 입주 신청, 길음교 확장 공사, 미아리 고개 도로 개통 등이 이루어졌고, 1970년대에도 주요 간선 도로의 확장과 미아삼거리 입체 교차로 건설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1970년대에는 앞서 숭인초등학교의 학생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숭곡초등학교를 필두로 각급학교가 신설되기 시작했다. 주거공간도 점차적으로 쾌적화의 길을 걸었다. 1950년대부터 정릉천 일대에 자리잡기 시작한 매연, 공해 업소는 80년대 이르러서는 서울시 밖으로 대거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 대다수는 현재 시화공단으로 이전한 상태다. 아울러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정릉천 복개공사는 미아리 지역의 주거지를 확대시키는데 일조하였으며 1985년 지하철 4호선 개통으로 길음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또다시 그늘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원천자료	『매일신보』,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동아일보』 서울시사편찬위원회,『동명연혁고』IX: 도봉구편, 서울특별시, 1984. 김희식, 「동소문 밖의 사람들-미아리일대의 역사, 공간, 삶」『로컬리티 인문학』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안창호, 「강남개발과 강북의 탄생과정 고찰」『서울학 연구』4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0.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123	수난의 미아리 : 일제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미아리 일대 개발사 - 4	작성자	문일웅
제목	개발시대의 그림자: 점집과 미아리 텍사스	키워드	미아리점성촌, 미아리 텍사스 집창촌
이야기	1960년대부터 서울은 도시화 바람이 거셌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김현옥 서울시장은 세운상가 건설을 계기로 서울시 도시재개발 계획을 설정하고 종로지역을 표준거리로 확정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었다. 이 무렵 서울 시내에서, 특히 종로지역에서 미아리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급증한 것 역시도 앞서 말한 그대로이다. 미아리는 그동안 서울시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모든 것들이 위치하는 동네였다. 멀리 일제시대에는 공동묘지, 화장장 등이 설치되었고, 해방이후 및 한국전쟁 이후에는 피난민촌이 주로 들어섰다. 아울러 개발시대에 있어서도 주로 서울 시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미아리에 무허가 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했다. 한국의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룩되기 시작했던 1960년대부터 미아리 지역에 점집과 집창촌이 건설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미아리 점집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 1960년대 서울의 도시화 계획이 추진되면서 서울 곳곳에 위치했던 점집들이 이주해온 경우였다. 미아리는 서울의 도심지역과 변두리를 연결해 주는 주요지역이면서도 집값이나 방값이 그리 비싼 지역이 아니었으며, 비탈진 미아리고개를 오르내리는 버스들의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 찬 공해지역이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는 적당치 못 했다. 예나 지금이나 점복과 무속신앙은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세상살이가 힘겨운 사람들이 쉽게 지나쳐야 하는 길목이어야 했다. 예전에는 주로 서울의 남산에 위치하였던 점집들은 서울시의 미관을 위해 대거 철거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점집은 앞서 말한 지리적 이점에 근거하여 미아리 지역에 밀집하게 되었다. 아울러 1968년에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창 구실을 해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던 종로 3가의 집창촌을 철폐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조처는 미아리에 집창촌이 들어서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1960년대 후반 서울시내의 집창촌은 종로구 낙원동의 납작 술집에서부터 그 일대인 인의동, 돈의동, 봉익동, 훈정동, 묘동, 원남동, 예지동, 장사동, 관수동으로 종로3가에서 원남동 로터리를 지나 종로4가 로터리에 이르는 동서남북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속칭 '종삼'으로 불렸던 집창촌은 서울의 노른자위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데 도시질서와 시민도덕을 혼란케 하는 주범이라는 인식과 지역의 이미지를 갉아먹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종삼'에는 1,600명의 매춘여성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기습적으로 기곳을 철거하였고 이에 매춘여성들은 대대적으로 서울의 부도심 및 신흥개발지구로 이주하게 되었다. 당시 조사에 의한다면 '종삼'의 철거 3일전에 이미 많은 매춘여성들은 정릉, 미아리, 상계동, 양동, 전농동으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종삼'에 밀집해 있었던 매춘지역은 1971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26개 지역으로 분산되었다고 조사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월곡동 88번지 일대의 월곡천변, 동대문 중화동 420번지, 중랑천변, 영등포구 구로 2동에 밀집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하월곡동 88번지, 훗날 ‘미아리 텍사스’라는 곳은 종삼 철폐 직후만 하더라도 서울의 대표적인 집창촌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종삼’ 철폐 이후 4대문 안의 지속적인 집창촌 정화운동은 매춘여성들을 도시외곽으로 이주하게끔 만들었는데, 미아리는 서울의 도심과 비교적 가깝고 아울러 각종 인구의 유입이 빈번했던 곳이라 단속이 심하지 않았기에 매춘여성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미아리 일대의 집창촌은 처음에 정릉천 개천가를 따라서 500여m에 늘어서 있는 속칭 ‘하꼬방’ 같은 선술집의 형태였다. 1970년에 70여 개 무허가 대포집이 밀집되어 있었고, 1976년에는 30동의 건물에 100여 개의 무허가 주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1978년부터 시작된 월곡천 상류부터 진행된 복개공사는 하류 쪽의 정릉천으로 진행해갔고, 처음에는 천변 좌우로 있던 술집들이 하천 복개로 인하여 종암동 쪽 술집들은 철거되고, 월곡동 쪽으로만 남게 되었다. 1980년 후반부터 개발이 진행된 길음역 주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화는 집창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정릉천 복개공사가 끝나고 난 후 길음역 10번 출구 쪽으로 1989년 환승주차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지하철 개통과 사람들의 잦은 왕래는 개발에 관한 기대감이 커져갔었다. 그 동안 4대문 안의 개발호재로 개발바람에 밀려나있던 이 지역은 주변지역이 빠르게 변모하면서 다른 인상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집창촌은 급격하게 개발되는 주변지역에 비해 흡사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낡은 건물과 함께 다른 삶의 방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아주 이색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타지사람들이 집창촌의 대명사처럼 미아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도 불만이 팽배했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서울 시내의 미관과 발전 문제는 그에 수반된 부정적인 것들의 도시 외곽으로 이전으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미아리 텍사스촌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아리라는 이미지에 부정적 역할을 미쳤던 것을 심화시켰다. 일제시대 이래로 공동묘지가 존재하는 곳, 아울러 피난민에 철거민들이 지저분하게 거주하는 동네로서 미아리가 인식되어 왔던 것에서 다시 집창촌의 존재는 미아리라는 이름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집창촌은 특히 지역주민에게 골칫거리였는데, 이를테면 집창촌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한 어느 학부모는 7살 난 딸아이가 “저기[집창촌] 언니 공주 옷 입었다”며 자기도 같은 옷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뺐다고 하소연 하는 사연은 그 정도가 어땠는지를 가늠하게 해 준다.
원천자료	『매일신보』,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동아일보』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 IX: 도봉구편, 서울특별시, 1984. 김희식, 「동소문 밖의 사람들-미아리일대의 역사, 공간, 삶」『로컬리티 인문학』 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안창호, 「강남개발과 강북의 탄생과정 고찰」『서울학 연구』 4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0.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24	수난의 미아리 : 일제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미아리 일대 개발사 - 5	작성자	문일웅
제목	미아리의 오늘날: 개발의 미래	키워드	뉴타운, 종암경찰서, 갈등
이야기	2002년 이후 미아리 일대는 뉴타운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따라 기존의 공동묘지 지역은 대거 철거되어 타지역으로 이전된 상태이다. 아울러 그간 미아리 주변의 수많은 무허가 건물과 달동네들도 대부분은 개발의 흐름을 타고 없어지거나 대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앞서 언급한 미아리 집창촌도 종암경찰서의 김강자 총경의 노력으로 예전에 비한다면 많이 개선되어 오늘에 이른다. 미아리라는 이름이 현재는 예전과 달리 인식되는 것은 사실이다. 미아리라는 공간은 과거 어렵고 힘든 서민, 아니 서민보다도 처지가 열악한 도시 빈민들이나 사는 곳, 아울러 집창촌과 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미아리의 개발은 사실 본래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처지가 나아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재개발 사업을 통한 타지인의 대거 유입과 함께 원거주자들의 재차 타지 이주의 방식으로 미아리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거주민과 새거주민 간의 암묵적인 갈등 양상은 일소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미아리 지역을 일궈왔던 도시민들의 공간적 유산은 단순히 잊혀지고 제거되어야 할 기억에 불과한 것일까? 적어도 미아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대대로 미아리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이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 미아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의대로 미아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 것임에도 미아리를 터전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편견을 고스란히 받아왔다. 미아리는 현재 개발 중이다. 예전에 타지인들로부터 불결하고 더러운 공간으로서의 미아리는 이제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미아리 지역은 감추어야만 하는 부끄러운 삶의 흔적은 더더욱 아니며, 한시라도 재개발을 통해서 공간의 기억을 지워야만 하는 비도덕적 공간이라는 낙인 대신 수십 년 동안 인생의 고비고비와 함께 해왔던 도시민의 생활문화의 터전의 바라볼 수 있을 때라야 그 공간 속에 본래 배태되어 있던 역사성과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원천자료	『매일신보』,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동아일보』 서울시사편찬위원회,『동명연혁고』IX: 도봉구편, 서울특별시, 1984. 김희식, 「동소문 밖의 사람들-미아리일대의 역사, 공간, 삶」『로컬리티 인문학』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안창호, 「강남개발과 강북의 탄생과정 고찰」『서울학 연구』4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0.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125	정릉동의 예술가들 - 1	작성자	백외준
제목	정릉동의 시인들	키워드	박재삼, 고은, 신경림, 김태정, 박정대

이야기

박재삼(1933～1997)은 1968년 고혈압으로 쓰러진 후 요양차 정릉동 배밭골에 집을 얻어 이사했다. 그의 시 「貞陵 살면서」는 그가 병세를 회복한 후 배밭골의 맑은 자연이 주는 평안을 노래한 시이다. 시를 읽다보면 정릉 배밭골이 품은 맑은 바람소리와 시냇물 소리가 우리 귀에도 들려오는 듯하다.

貞陵 살면서

솔잎 사이사이
아주 빗질이 잘 된 바람이
내 腦血管에 새로 닿아 와서는
그 동안 허술했던
목숨의 運營을 잘해 보라 일러주고 있고……

살 끝에는 온통
금싸라기 햇빛이
내 잘못 살아온 서른여섯 해를
덮어서 쓰다듬어 주고 있고……

그뿐인가,
시름으로 고인
내 肝腸 안 웅덩이를
세월의 동생 실개천이
말갛게 씻어주며 흐르고 있고……

친구여!
이 눈물 나게 넘치는 資産만은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

비길데 없는 자연의 안온 - 얼마 전부터 정릉 배밭골 골짜기에 집을 얻어서 이사를 했다. 이사를 하고 보니 그동안 멀리했던 산바람과 공기, 그리고 시냇물소리들이 훨씬 더 친근해진 것 같아 좋다. 1년 남짓을 고혈압으로 앓고 지냈던 내게는 무엇보다 자연이 주는 비길데 없는 안온함에 흠뻑 젖을 수가 있어 좋다. 인사(人事)에 너무 치우쳐 그런 것과 담을 쌓다시피 하고 지냈지만, 그동안의 소원(疏遠)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섭섭히 대해주는 법이 없는 것이 이 자연의 품이다. 남들은 손쉽게 현실도피라 해도 내게는 자연 그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자체도 하나의 뚜렷한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1968. 4. 25.

고은(1933～)은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정릉동에서 살았다. 1970년 고은은 북한산 정릉 골짜기에서 음독자살을 시도했다가 당시 정릉 일대 취약지구에서 특별훈련을 받던 예비군들에 의해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 의식을 회복했다. 아래 시들은 고은이 정릉 시절에 쓴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고은의 시들은 허무주의 시의 대표격으로 통했다.

貞陵에서

나 혼자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것으로
기쁜 나머지
貞陵一帶에
비 오는 것을 보는구나.
저만큼 드높이 普賢峰은 자욱할 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재우고
종일토록 비 맞아 재우는구나
이렇게 서 있는 것으로
기뻐서
비에 젖는 나무 잎새도 사람도 재우고
어떤 사람의 넋도 와서
젖은 몸으로 우는구나.
아직도 이 세상인 줄 모르고
이 세상도 비 오면 다른 세상이다.
— 시집『문의마을에 가서』(1974)

淸水莊에서

내가 더 무엇이 되어 여기에 남았는가
淸水莊 數年을 보낸 빈 마음
때로는 모르는 것을 너라고 불러
물소리 이루어 앉아 있어도
살아온 것만큼 헛되이 오래인 것이
다만 물소리로 물을 흐르게 한다.
네 앞에서 낯익으면 익을수록 슬프구나
어둑어둑한 나무잎새 저마다 잠들어서
네 몸 안에 둔 느티나무도 잠이 든다
이제 내가 더 무엇이 되어 남았는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여기저기 살아온 것은 없고
남은 것은 여기서 몸 하나로 남았는가
깊은 밤 돌아다보면 더욱 깊어서
물소리는 저혼자 흐르는 물을 제법 따라가는가
— 시집『문의마을에 가서』(1974)

신경림(1935～)은 1978년부터 지금까지 정릉동에 살고 있다. 신경림이 1988년에 출간한 시집 『가난한 사랑노래』(실천문학사)에는 1980년대 서울 산동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담겨 있다. 당시 정릉, 길음동 산동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의 핵심적인 모티프였다.

산동네에 오는 눈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라서
눈도 제일 먼저 온다
깁고 꿰매고 때워 누더기가 된
골목과 누게막과 구멍가게 위에
눈은 쌓이고 또 쌓인다
때로는 슬레이트 지붕 밑을 기웃대고
비닐로 가린 창틀을 서성대며
남 볼세라 사랑놀음에 얼굴도 붉히지만
때와 땀에 찌든 얘기
피멍든 노래가 제 가슴 밑에서
먹구렁이처럼 꿈틀대는 것도 눈은 안다
이 나라 온갖 잘난 것들이 모여들어
서로 찢고 발기고
마침내 저네들 발붙이고 사는
땅덩이마저 넝마로 만든
장안의 휘황한 불빛을 비웃으면서
눈은 내리고 또 내린다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라서
눈도 제일 오래 온다

— 시집『가난한 사랑노래』(1988)

길음시장

여기는 서울이 아니다
팔도 각 고장에서 못살고 쫓겨온
뜨내기들이 모여들어 좌판을 벌인 장거리
예삿날인데도 건어물전 앞에서는 한낮에
윷이냐 샅이냐 윷놀이판이 벌어지고
경로당 마당에서는 삼채굿가락의
좌도 농악이 흥을 돋군다
생선장수 아낙네들은 덩달아 두레삼도 삼고
늙은 씨름꾼은 꽃나부춤에 신명을 푸는데
텔레비전에서 연속극이라도 시작되면
일 나간 아낙들이 돌아올 시간이라면서
미지기로 놀던 상쇠도 중쇠도 빠지고
싸구려 소리가 높아지면서
길음시장은 비로소 서울이 된다

— 시집『가난한 사랑노래』(1988)

김태정(1963~2011)은 생전에 단 한 권의 시집을 냈다. 1991년 《사상문예운동》으로 등단한 시인은, 중심에서 소외된 채 주변부의 일상을 견뎌내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는 시를 썼다. 다음의 두 시에서 시인은 1980년대 정릉동 사람들의 고단한 일상을 따뜻한 음성으로 노래했다. 그 옛날 서울에서도 청정함을 자랑했던 정릉천은 그녀의 시에서 이제 비린내를 풍기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정릉천은 고단한 하루 일과를 끝내고 돌아오는 정릉동 사람들의 둘도 없는 벗이 되어준다.

정릉천 1

너에게 가는 길을 안다
까맣게 숯이 되어 부려진 마음들이
낮게 아주 낮게 포복하는 곳
너는 내 발치에 엎드려
버러지로 한참을 울고 싶다 하지만

부은 눈 들어 잠시 돌아보면
정릉천 너의 비린내로 살져가는 개천밭
고단한 이웃들은 흙 묻은 장갑을 털고
더러 빈 리어카로 쭈그려앉아 담배를 나누면
산다는 것도 별게 아니어서
허드렛불 한점에도 따뜻해지는 저녁나절인데

너에게 가는 길은 나는 안다
시장바닥을 돌아나온 악다구니들이
그만큼씩만 서러움의 멱살을 쥐고 주저앉는 곳
너는 문둥이로 문둥이로 숨죽이고 싶다 하지만
정작 부끄러운 것은
비린내 한방울 안 묻히고 건너려 했던 마음이니
이제 그만 숨 한번 크게 쉬고 일어나 따귀라도
아귀차게 때려다오

—『창작과 비평』1993년 여름호.

해창물산 경자언니에게

설거지를 마치고 개천가에 나와 앉으니
널어놓은 빨래들 사이로 모람모람
밤티꽃 닮은 별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정릉천 비린 몸내에 취해 텀벙텀벙
금시라도 뛰어들 것 같은 별무리를 헤치고
하늘번지를 더듬어 거문고자리를 찾아갑니다
어쩌면 오늘밤 저 비린 물소리는
밤하늘이 연주하는
깊고 푸른 거문고산조가 아닐는지요

개천 건너엔 여직 환한 공장의 불빛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실밥을 따고 아이롱을 달구는 당신
늦게 나온 별처럼 깜박깜박
고단한 두 눈이 졸음으로 이울고
숨차게 돌아가는 미싱 소리에 이 밤은
끝도 없을 것 같아도

오늘밤 무슨 불꽃놀이라도 있는지
잔치라도 한판 걸게 벌이려는지
물 위에 드리워진 불빛을 밟고
가만 가만히 다가가서는
당신의 창가에서 펑펑 터지는 별들
그러나 당신은 아랑곳없고
미싱은 숨차게 돌아가고
실밥은 하나 둘 쌓여가고

보세요 당신
그 거친 손에서 달구어진 아이롱처럼
이밤사 순결하게 달아오른 별들을
따버린 실밥들이 하나 둘 쌓여갈 때마다
활발해지는 이 어둠의 풍화작용을
보세요, 땀방울 하나 헛되이 쓰지 않는 당신
누구의 땀과 폐활량으로 오늘밤
하늘의 사막에 별이 뜨는지

— 시집『물푸레나무를 생각하는 저녁』(2004)

박정대(1965～)는 1965년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나,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문학사상>에 '촛불의 미학' 외 여섯 편의 시가 당선되어 등단한 시인이다. 시집 <단편들>, <내 청춘의 격렬비열도엔 아직도 음악 같은 눈이 내리지>, <아무르 기타>, <사랑과 열병의 화학적 근원>, <삶이라는 직업>, <모든 가능성의 거리>를 출간했다. 다음 소개할 시는 1980년대 후반 또는 1990년대 초반 정릉동 산비탈 동네의 골목 풍경과 그 골목들을 사랑하는 시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절창이다.

貞陵에는 별이 많다

貞陵에는 별이 많다, 아직
재기발랄한 그대 바람 부는 날에는 정릉으로 오지 말라
산비탈에 달라붙어 있는 아픈 세월의 부스럼 같은 월셋방들
바람 부는 날이면 위험스럽게 허공에 둥둥 떠다니고
아카시아 숲에서 자란 별빛들이 밤하늘의 가시로 돋쳐 있다
아무리 빠른 劍도 자신이 슬픔은 버히지 못하는 법, 정릉의
개들이 발로 차버린 찌그러진 양재기 같은 밤하늘에선

	무더기로 슬픔이 쏟아진다, 슬픔에 면역성이 없는 그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정릉으로 오지 말라 슬픔은, 아주 전염성이 강한 인생이라는 질병을 몰고 오는 거 각성은 가끔 투명한 소주잔 속에서 일어나는 거, 거리에서 마신 막소주가 그대의 食道를 거쳐 內臟의 진실에 닿을 때까지 푸르게 펼쳐져 있는 밤의 페이지마다 슬픔의 脚註를 달며 默秘권을 연마하라, 이곳은 쓸쓸하고도 향그러운 사랑의 바이러스들이 날아다니는 희망의 고산지대, 이곳은 나뭇잎마저 엽서가 되는 바람의 우체국, 별들의 펜 끝이 밤새도록 그대를 찌를까 두렵다 발랄하고 경쾌한 行步의 그대여, 맨발의 폭설이 떨어지는 날에는 정릉으로 오지 말라 정릉의 눈발 속에서 적수공권의 그대 속수무책으로 하얗게 얻어맞나니 非命과 橫死는 가끔 낯익은 언덕을 오르지 못하여 일어나는 거 그대의 아무리 빠른 발도 정릉의 가파른 언덕에선 미끄러지기 십상 오호, 진실로 바라노니 그대여 바람 부는 날에는 정릉으로 오지 말라 가슴 아픈 사람들 기침으로 바람 부는 날이면 은하수들 스스로 베틀을 돌려 貞操를 무덤처럼 가리나니, 성의 북쪽 貞陵에는 별이 많다 — 시집『단편들』(1997)
원천자료	『동아일보』 1968. 4. 25. 고은, 『고은시전집 1』, 민음사, 1983. 신경림, 『가난한 사랑노래』, 실천문학사, 1988. 김태정, 『물푸레나무를 생각하는 저녁』, 창비, 2004. 박정대, 『단편들』, 세계사, 1997.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26	정릉동의 예술가들 - 2	작성자	백외준
제목	정릉동의 소설가들	키워드	최정희, 김지원, 김채원 박경리, 김지하

이야기

최정희(1906～1990)는 함남 단천에서 태어나 숙명여고보와 중앙보육학교를 졸업하고 1932년 『시대공론』에 「명일의 식대」를 발표하며 문단에 나왔다. 대표작으로 여성의 불행한 운명을 다룬 소설「지맥」, 「인맥」, 「천맥」 3부작이 꼽힌다. 남편은 서사시 「국경의 밤」으로 유명한 시인 김동환이며, 두 딸 김지원, 김채원도 모두 소설가이다. 특히 김지원(1942～2013)과 김채원(1946～) 자매는 각각 1997년과 1989년 모두 그해 최고의 단편소설에 주어지는 영예인 이상문학상을 수상해 세인들을 놀라게 했다. 이들 세 모녀는 1970년대 남양주 덕소에서 정릉으로 이사 왔는데 이제하, 서영은, 김영태, 양문길, 김청조 등과 자주 정릉에서 모였으므로 문단에서는 이들을 '정릉클럽'이라고 불렀다. 최정희가 말년을 보낸 정릉동 780번지 산장아파트는 이들 세 모녀와 정릉클럽 문인들의 '아지트'인 셈이었다. 다음에 소개할 글은 김채원이 정릉동에서 살아가면서 본 것들과 일상의 느낌을 적은 수필이다. 1990년대 정릉동에서 살아가는 한 주부의 일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아 흥미롭다.

포장마차

요즈음은 잘 가지 못하지만 한동안 포장마차에 자주 가던 때가 있었다. 밤이 늦어, 집을 빠져 나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와 혹은 이웃 주부와 함께 포장마차에 간다. 버스를 타고 세 정거장 내려가면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 골목이 나오는데, 그 어귀에 포장마차가 몇 대 느런히 늘어서 있고 그 중 한 대가 우리의 단골집이다. 그곳에는 우리 집에서 칠년 동안 일하던 파출부 아줌마가 우리 집을 그만두면서 일하고 있다. 밤이 늦었음에도 그곳에는 이제부터 밤을 새울 양으로 있는 포장마차들과 손님들이 있다. 그 동네를 주름잡는 자칭 양아치들, 노동자들, 기술자들, 동네 빠아에서 일하고 있는 여급들 그리고 간혹 산 넘어 대학에 나가고 있는 교수와 학생들이 오기도 했다. 나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글 쓰는 사람도 한 사람 오고 있다고 했다. (하략)

골짜기의 두 개의 창

정릉 골짜기 어느 한구석에 두 개의 창이 있다. 하나는 9층 높이의 내가 살고 있는 곳이고, 하나는 3층 높이의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이다. 그 창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은 각기 다르다. 실제 보이는 부분도 다르지만 느낌도 다르다. 9층 높이에서는 산동네 마을 전면이 보인다. 6 · 25후에 생긴 무허가 주택들로서 집 사이사이로 난 소로들이 보이고, 작은 집집의 창들이 보이고 나무가 보인다. 꼭 우리들 어린 시절의 동네와 같다. (하략)

등교시간

(상략) 학교버스는 그 동안 길 위쪽으로 종점까지 올라갔다가 돌아 내려오고, 아이가 뛰어서 길 이쪽 정류소까지 가는 시간과 맞먹는 것이다. 11층 복도에 서면 학교버스의 행방을 훤히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뛰어가는 아이의 머리꼭지에 대고 조금 더 빨리 뛰라느니 이미 학교버스가 가 버렸으니 시내버스를 타고 가라느니 코치한다. 아이도 어느새 습관화되어 엄마에게 버스가 갔는지 안 갔는지 살펴 달라고 부탁하며 아파트 머리 꼭대기에서 외치는 엄마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기를 즐기는 것 같다. 마치 아파트 꼭대기층에 서서 연줄을 풀고 감으며 연을 날리는 것과 흡사하다. 조금 미리 나가면 안전하련만 아슬아슬하게 시간에 대어가는 이 습관을 아이도 나도 만끽한다. 조금이라도 일찍 나가서 기다리면 어쩐지 시간의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출근하고 등교하는 이른 아침의 풍경. 그 풍경을 감싸듯 내려다보며 위풍당당히 서 있는 북악의 줄기, 문득 고개를 돌면 산의 정기가 이마에 부딪쳐 오는 것을 느끼며 나는 학교버스가 아슬아슬하게 아이를 태우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본다. 그리고 내게 남아 있는 연줄을 전부 풀어 버린다. (하략)

—『그들이 떠난 행복의 피난처 : 정릉에 내리는 비』(1991)



<최정희>



<김지원>



<김채원>

박경리(1926～2008)가 정릉동에 들어 온 것은 1950년대 말이다. 이후 박경리는 정릉동에 머무르면서 장편소설 『성녀와 마녀』, 『김약국의 딸들』, 『파시』, 『시장과 전장』 등의 작품을 펴내고, 1969년부터 대하소설 『토지』의 집필에 착수했다. 1980년 원주 단구동으로 이사하기까지 약 20년 간을 정릉에서 보낸 것이다. 정릉동은 국민 작가 박경리의 작품세계가 완성된 장소라 할 수 있다. 박경리가 살았던 정릉4동 768-6번지 집에는 한국의 내노라하는 문인, 화가들이 드나들었다. 박경리의 사위 김지하가 1975년 3월 성북경찰서에 연행된 것도 이 집에서였다.

박경리의 다음 수필은 1960년대 정릉생활의 작은 단면을 소개한 글이다. 당시 서울 시민들의 가장 인기 있는 피서지 정릉유원지의 풍경을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정릉 '풀(pool)'의 고독

주변에 아쉽지 않게 있으면 귀한 줄 모르고 없으면 갈망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서향방에서 하늘구경도 못하고 더위와 싸워야했던 나는 마치 피서지같은 정

릉골짜기에서 옮아오면서부터 그렇게 갈망하던 개울물, 솔바람, 그리고 푸른 하늘을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나대로의 고통에 싸여 지내고 있다. 어쩌다가 시내에 나가면 참 정릉은 좋구나 새삼스럽게 생각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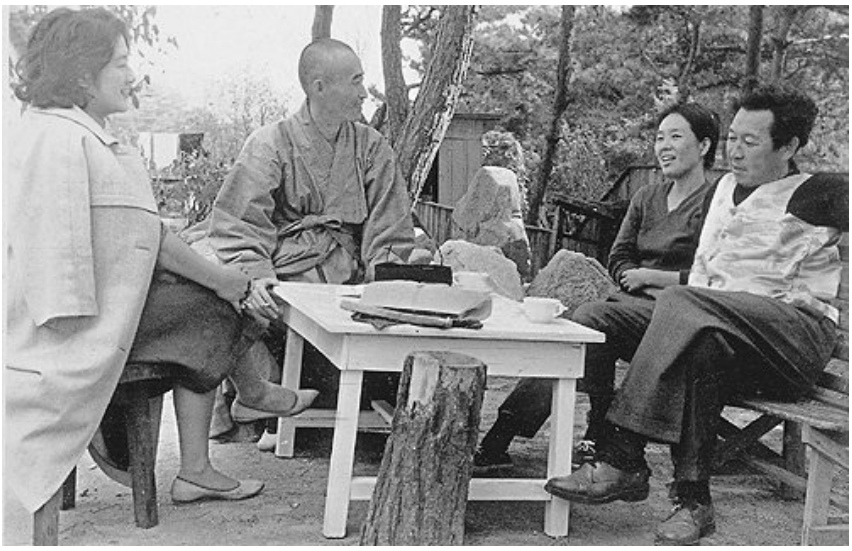
바닷가에서 자란 나는 어릴 때부터 나돌아다니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여름이 와도 해수욕장에 가본 일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수영도 할 줄 모른다. 그런 내가 작년 여름, 하도 아이가 졸라대기에 수영복을 두벌 사가지고 아이와 함께 정릉 '풀'에 간 일이 있었다. 아이 혼자 보내기가 걱정스러웠고 또 그 핑계삼아 나도 물에 들어가보자는 심산에서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어린애들 아니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이십대의 청년들만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우리 또래의, 더군다나 여자는 거의 없었다. 좀 무춤한 생각이 들기는 했으나 용기를 내어 물에 들어갔다. 전신이 저리듯 물은 차가왔다. 그러나 시원한 것보다 까닭없는 불안이 자꾸만 일었다. 신경을 쓰거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 식사를 같이하면 체하는 버릇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재미나는 놀이를 해도 낯이 설고 주위에 익지 않으면 이내 피곤하여 공연히 내방 생각을 하고 혼자 방에 도사리고 앉은 그 고독을 그리게 된다.

마침 그날은 중학생이 심장마비로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산란하였던 모양이다. 아이는 무척 즐거운지 흰 이를 드러내고 나를 보며 연신 웃었다. 그러나 나는 집에 돌아가고만 싶어졌다. 물 속에 엉거주춤 서 있는데 따님을 데리고 온 H화백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분은 수영을 곧잘 하시는 모양이다. 그러니 더욱 내가 멋적을수밖에. 하는 수없이 바위 위에 올라와 버렸다. 아이에게 신경을 쓰면서 H화백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더위를 잊기는커녕 집에서보다 더 답답하고 고역 같은 시간을 치른 셈이다.

사람이란 어떤 외적조건보다 내적상태로 더워지기도 하고 써늘해지기도 하는 것일까? 문명이 인간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도 그 때문이겠지. 하기는 이런 얘기는 감정의 사치인지도 모를 일이다.

—『경향신문』1962. 6. 22.



<좌로부터 박경리, 고은. 맨 오른쪽이 박고석 화가이다. 고은이 환속하기 전이다. (1958년 박경리의 정릉집)>

원천자료	김채원 외, 『그들이 떠난 행복의 피난처 : 정릉에 내리는 비』, 글세계, 1991. 『경향신문』 1962. 6. 22.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27	정릉동의 예술가들 - 3	작성자	백외준
제목	정릉동의 화가들	키워드	박고석, 한묵, 이중섭, 기조전, 모던아트협회

이야기

화가 박고석(1917-2002)은 평양에서 태어나 숭실중학을 졸업한 후 1939년 일본대학 미술학부 미술과를 졸업했다. 1955년 정릉동 산 5번지에 들어와 열두 평짜리 바라크를 손수 짓고 1979년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1968년부터 박고석은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산'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도봉산과 설악산은 작품의 주 소재였다.

박고석은 정릉 생활에 꽤 만족해 한 것 같다. 박고석이 틈틈이 발표한 수필에는 정릉동의 아름다운 경관과 그 속에서의 일상을 소재로 한 것이 많다. 박고석의 수필은 당시 정릉에 살았던 문인들의 글이나 신문기사가 전해주지 못한 1950-60년대 정릉동 골목 풍경을 살뜰하게 보여준다. 그만큼 정릉동의 옛모습을 찾는 데 있어서 박고석 수필의 가치는 높다.

마루턱 풍경

여기 회색 하늘에 이마가 맞닿는 마루턱이 있다. 초가가 유난한데 기와집 . 판잣집들이 꼬리를 물고 위로 위로 뻗어 올라간다.

내가 여기서 살기 시작한지 아직 반 년이 못 되는 풋내기 이웃이기는 하나 요즈음 제법 동리 사람들과 오가는 버릇도 생겼다.

동리에 경사나 상사가 있을 땐 온 동리가 떠들썩할 뿐 평시에는 그저 조용하기 짝이 없다.

지대가 높은 덕에 공기가 좋고 가물에도 쏟아지는 샘물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만치 맛이 싱싱해서 좋다. 시내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불편한 곳에 어찌 견뎌 배기느냐고 인사이다.

그렇다. 나는 교통이 불편한 것쯤 문제가 아니며 언덕길이 힘에 넘치는 것도 아예 핑계가 안 되리라. 그저 나는 여기서 평생 살고 싶고, 한없이 마음이 가라앉아 좋기만 하다.

— 연도 미상 (1955-1956)

정릉리 풍물

시내에서 집을 마련하기란 어렵다기보다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보니 하는 수 없이 변두리로 쫓기다시피 나와 어언 삼 년째 정릉살이를 하고 있다. 물 좋고 산 좋아서 사람살기에는 으뜸가는 고장이요 그저 지나기에는 시원스럽고 자유롭기 그지없다.

우리집 옆을 뚫고 내려오는 시냇물이 있어 식구들이 가로되 자가용 시냇물이라 한다. 삼복 더위에는 탕 안에 들어가듯이 앉으면 배꼽까지 오는 맑디맑은 물이 시원스럽기 그지없고 소주잔이나 몇 잔 비우고 나면 사람 사는 꼴이 이 이상 유쾌하고 멋들어진 데는 없을 성 온 몸과 마음이 다 시원스러워진다. 겨울이면 겨울대로 눈이 덮인 얼음을 깨고 흐르는 물엣 세수를 하고 나면 술기가 가시지 않아 지긋지긋한 어깨가 가벼워지는 듯 창백한 얼굴에 제법 불그스레 화기가 풍긴다. 요즈음 드나들던 합승이 없어지고, 내가 늘 늦게 집에 돌아오는 습관이라서 게다가 거나하게 취한 걸음씨로 이 산길을 걸어올랍시면 팔자 한탄이 무럭무럭 허리가 아플 정도로 느끼는 불편과 피로를 어찌할 수 없다. 또한 친구들로부터 홍제동으로라

도 나와야지 불편해서 어떻게 살겠는가고 적이 권고도 듣는다.

게으름뱅이요 늑장을 부리는 주정뱅이고 보니 지당한 말씀이요, 나 스스로도 몇 번이나 시내로 들어올 궁리를 안 해 보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일곱 살짜리가 오리 길을 추우나 더운 때나 공부한답시고 터벅터벅 걸어다니는 꼴을 보니 애비로서의 측은한 마음도 간절하기도 하고 차라리 시내로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한두 번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러나저러나 요즈음 생각하기를 꿩먹고 알먹기란 도대체 없을진대 차라리 그냥 그대로 여기서 견디기로 다짐을 하고 있다. (하략)

—『조선일보』1958. 2. 22

화첩 속의 봄 - 4

여기 교외로 빠지는 마루턱에 노곤히 봄빛이 졸고 있고 빠르게 뛰하고 있는 "생선 사려!" 아저씨의 타이어 바퀴에 포근히 봄바람이 아롱져 있다. 멀리 보는 빨강 노랑 분홍들의 부흥 주택 지붕 위로 막 봄빛이 미끄러지는데 어느 집에선가 거위 우는 소리가 드높다. 여읜 나뭇가지의 봄 내음을 맡은 봉오리들이 맺어져 가는데 저기 웬 아가씨들이 떼 지어 오고 있나.

—『평화신문』1959. 2. 10

정릉 골

내가 이 땅에 사는 기쁨이 있다 치면 그것은 이 땅의 산수풍월이 유달리 마음에 드는 까닭이리라. 혹시 마음이 언짢을 때나 혹은 답답증이 마음을 흔들어댈 때, 어떻게 맑고 높은 하늘 밑이나 그늘이 우거진 깊숙한 산속으로 발을 옮겨 보면 제법 마음이 가라앉음을 느낄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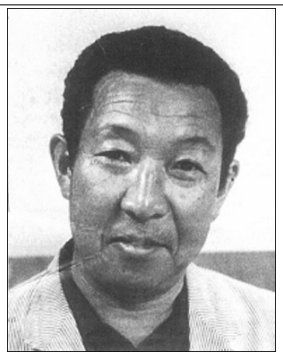
다행히 내가 사는 정릉 골짜구니가 온통 산으로 뒤덮여 있는 까닭도 있어 십상인 것이다. 행여 반가운 친구나 와서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 그늘을 찾아 자리를 잡아도 좋고, 또한 홀로 산기슭을 돌아 높은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좋다. 마음이 후련해짐을 느낀다.

—『女苑』1964. 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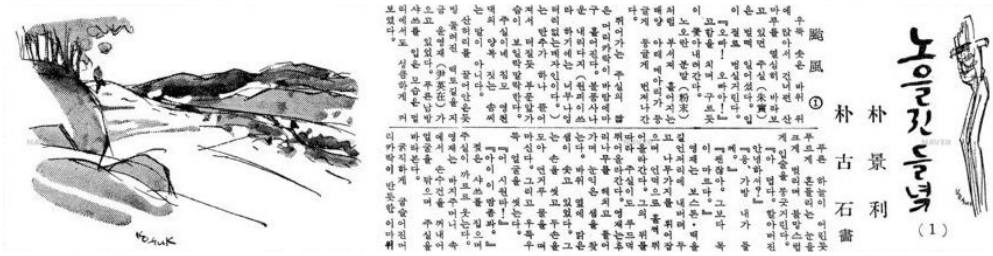
합승

누구나가 대개의 경우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나는 거의 매일같이 한두 번 합승(마이크로버스)을 이용한다. 내가 사는 곳이 貞陵이라서 시내와는 꽤 먼 거리에 떨어져 있고 보니, 타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노라면 하루에 한 시간 남짓하게 합승과 더불어 산다. 싫건 좋건 이 합승의 신세를 지고 있는 셈이다. (중략) 밤이 늦어지면 대개의 경우 정원을 초과해서 태우는 수가 많다. 만원이 된 합승에 한두 사람 더 태우는데 끼여올라 탔을 때, 물론 자가자청이다. 합승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달려들다시피 해서 탄 놈은 나다. 차장은 정원초과를 감행하고 손님들은 왜 또 더 태우느냐고 야단들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억지로 올라탔을 때의 요행감과 민망감은 몸과 마음을 주체할 바를 모르게 한다.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서성거리고 있노라면, 차장 아가씨의 빨리 앉으세요, 라는 호통이라도 날까봐 그저 겁에 질리기만 한다. (하략)

—『현대문학』1965. 12월호



<박고석>



<정릉동 이웃이었던 박경리와 박고석이 경향신문에 연재한 소설과 삽화
(1961. 10. 23부터 1962. 7. 1까지 총 250회)>

박고석이 한묵(1914-)과 이중섭(1916-1956)을 만난 것은 1952년 부산 피난살이 할 때였다. 이때 이들과 어울렸던 사람들로는 이 외에도 시인 구상, 화가 장욱진과 이봉상, 부산 주먹계의 박용주 등이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부산 르네상스 다방에서 「기조전(基潮展) 창립동인전」을 열고 작품을 전시했다.

전쟁이 끝나고 2년 뒤인 1955년, 박고석이 정릉에 집을 짓고 들어와 살자 뒤따라서 한묵과 이중섭이 들어왔다. 자취하는 것에 진저리가 난 한묵이 먼저 하숙집을 찾아 정릉에 들어왔고, 이중섭은 성베드로 병원을 퇴원하면서 한묵의 권유로 이곳에 가담해 왔다. 박고석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 묵과 중섭이 같이 살면서부터 더욱 그 주변은 두터운 정과 뜨뜻한 기가 오고가는 친구들이 적지않게 정릉 골짜기로 모여들었다. 구상, 신근호, 김이석, 이기련, 황염수, 오영진, 김병기 등 많은 친구들과 김충선, 이영진, 김영환 등 많은 후배들이 꼬리를 물었다.
>
> 당시는 오늘과는 판이했다. 생활은 궁핍한데도 오가는 정의가 두터웠고, 서로가 마음의 여유 속에 활보했다. 이러한 서리가 얼싸는 듯한 일상 속에서 묵과 중섭은 한편 작품활동에 정진했고 많은 제작을 남겼다.
>
> —「인간 韓默」(1973)

정릉을 먼저 떠난 것은 나중 들어왔던 이중섭이었다. 병이 재발한 이중섭은 청량리 신경정신과에 입원했고 이듬해 1956년 9월 6일 서대문 적십자병원에서 타계했던 것이다. 이중섭은 정릉에 1년도 채 못 살았지만 생애 마지막 작품을 여기에서 남겼다.

어느날 신문에서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영화 광고를 본 이중섭은 일본에 있는 아내 이남덕에게서 온 편지들을 광고면 테두리에다 다닥다닥 붙인 후

그 옆에다 그림을 그렸다. 한 아낙이 목판을 이고 판잣집을 향해 오고 있고, 한 사내가 창문에 두 손을 얹고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림이었다. '돌아오지 않는 강' 저편에 있는 아내 이남덕을 향한 이중섭의 절절한 그리움이 표현된 작품이었다.



<이중섭의「돌아오지 않는 강」연작 중 한 작품. 1955년 정릉 하숙집에서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묵은 1961년에 프랑스로 떠나면서 정들었던 정릉 생활을 청산했다. 그와 함께 1957년부터 한묵, 박고석을 비롯해 유영국, 이규상, 황염수, 김경, 정규, 문신, 천경자, 정점식이 가담해 결성했던 '모던아트협회'의 전시도 끝나게 되었다. 이후 한묵은 계속 프랑스에서 활동하며 기하학적 추상이라는 독자적 작품 세계를 개척해나갔다. 2013년 6월, 100세를 맞은 한묵은 「삶의 찬가(L'HYMNE À LA VIE)」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파리에서 열기도 하였다.



<한묵>

원천자료	박고석, 『글 그림 박고석』, 열화당, 1994.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28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1	작성자	한아름
제목	정릉	키워드	정릉, 신덕왕후, 태조, 태종
이야기	지정사항 : 사적 제 208호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산 87 조선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이다. 원래의 자리는 정동에 있었으나 의정부에서 왕의 무덤이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정릉만이 도성 안에 있고, 무덤이 크고 넓다는 논란이 있어서 도성 밖 현재의 자리로 태종 9년(1409)에 옮겼다. 태종은 무덤을 옮긴 후 정자각을 없애고, 홍수에 의해 없어진 광통교를 다시 짓는데 정릉의 십이지신상 등 석물을 실어다 만들게 하였다. 무덤을 옮긴지 수백년간 정릉은 왕후의 무덤이라기보다는 주인 없는 무덤에 불과하였는데, 현종 10년(1669)에 송시열의 상소에 의해 정릉이 회복되었다. 정릉은 병풍석과 난간석을 세우지 않고, 호석과 양석이 각 1쌍으로 줄어들고, 무석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왕후의 무덤에 비하여 빈약하지만 조선왕조 최초로 만들어진 왕비의 무덤이다. 조선왕릉의 무덤 제도는 고려왕릉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약간 변화시켜 만든 것이다. 정릉의 사각명등석이 고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무덤인 현재 정릉의 것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왕릉은 고려왕릉을 규범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릉 (2013)>		
원천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29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2	작성자	한아름
제목	의릉	키워드	의릉, 경종, 선의왕후, 동원상하봉릉
이야기	지정사항 : 사적 제 204호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산1-5 (화랑로32길 146-37) 조선의 20대 왕 경종(재위 1720~1724)과 그의 계비 선의왕후의 능으로, 왕과 왕비의 봉분을 한 언덕에 앞뒤로 나란히 배치한 동원상하봉릉이다. 위쪽에 있는 경종의 능침에만 곡장을 둘렀고, 왕릉과 왕후릉 모두 혼유석을 비롯한 대부분의 석물은 별도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 양식은 능혈의 폭이 좁아 왕성한 생기가 흐르는 정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풍수지리적 이유이며, 자연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능원을 조성하려는 우리 민족만의 자연관을 볼 수 있는 형식이다. 능묘 조각들은 규모가 작고 왜소한 편이며, 봉분에는 난간석을 설치하였으며, 난간석주에 방위를 나타내는 십이지를 문자로 간략히 새겨 넣었다. 경종 능의 망주석 세호는 왼쪽은 위를 향해 기어오르고 오른쪽은 아래로 내려오게 조각되어 있다. 이와 달리 계비 선의왕후 능의 망주석 세호는 경종 능과 반대로 조각되어 있다. 장명등은 지붕이 4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숙종대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형식으로 건원릉부터 나타난 8각등에 비해 한결 간략하면서도 소박한 인상을 준다. 문무석인은 전체적으로 4등신의 땅딸막한 비례에 움츠러든 어깨가 경직된 느낌이다. 왕후릉은 왕릉과 마찬가지로 병풍석 없이 난간석 만으로 봉분을 호위하고 있으며, 석물들의 배치 또한 왕릉과 같은 형식이다.  <선의왕후의 능 (2013)>		

	 <경종의 능 (2013)>
원천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30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3	작성자	한아름
제목	서울 선잠단지	키워드	선잠단지, 선잠제, 잠업, 잠신 서릉씨
이야기	지정사항 : 사적 제83호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115 (대사관로 3) 잠업을 주관한 신을 위한 선잠제 고려시대부터 조선말까지 역대 왕실에서, 지금의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선잠단지(先蠶壇址)에서 잠신(蠶神) 서릉씨(西陵氏)에게 양잠(養蠶)의 풍요를 기원하며 지내던 전통 제례의식을 재현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1400년(정종 2)부터 매년 3월 초사흘에 행해졌고, 1471년(성종 2) 선잠단을 다시 쌓은 뒤 1477년 창덕궁 후원에 채상단(採桑壇)을 신축하고 왕비가 직접 누에를 쳤다. 농업을 주관하는 신(神)은 동대문구 제기동 선농단(先農壇)에서, 잠업을 주관하는 신은 선잠단에 모시고 국가에서 매년 제사를 지냈다. 성현(成俔)의 《용재총화》10권에 '선잠제는 음력 3월에 풍악을 써서 제사를 지낸다' 고 되어 있어 선잠제 거행시 승무와 제례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08년(순종 2) 7월 선잠 신위를 선농 신위와 함께 사직단으로 옮겨 배향한 후 중단되었다가, 성북구에서 1993년 재현해 매년 선잠제향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선잠단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어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없으나 1939년 10월 18일 보물 제17호로 지정되었다가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83호로 재지정되었다.  <선잠단지 (2013)>		
원천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31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4	작성자	한아름
제목	성저오리 정계석표	키워드	성저오리 정계석표, 관할구역
이야기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403-6 (보국문로 38) 조선 초기에 관할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높이 76cm, 너비 42cm, 두께 24cm이다. 정릉동 403번지 6호 청수장 유원지로 올라가는 큰길가에 있었던 이 정계비의 건립연대는 미상이나 정계석 정면에 「성저오리 정계압표 경인삼월 일(城底五理 定界立標 庚寅三月 日)」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1410년(태종 10)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 초기 한성부의 관할구역을 정할 때에 도성에서 사방 10리까지로 하였는데, 이 때 정한 관할구역은 동쪽으로는 양주 송계원(松溪院)과 대현(大峴), 서쪽으로는 양화도(楊花渡)와 고양 덕수원(德水院), 남쪽으로는 한강과 노도(露渡), 북쪽으로는 북한산으로 하였고, 도성으로부터 5리 되는 지점에 성저오리 정계비(城底五理 定界碑)를 세웠다. 조선 초기에 많은 방명표(坊名標)와 정계표를 세웠으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것이다. 이 성저오리 정계비는 1970년 문화재관리국에서 경복궁으로 옮겼고, 그 자리에는 시멘트로 된 유지표(遺址標)를 세웠으나, 현재는 유지표도 없어져 성저오리 정계비가 있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원천자료	양보경,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성북문화원, 1998.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32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5	작성자	한아름
제목	한양도성 성곽	키워드	한양도성, 서울성곽, 태조 이성계, 일제강점기
이야기	지정사항 : 사적 제10호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누상동 산1-3 외 삼선동의 서쪽과 남쪽의 경계를 이루는 도성은 '한양도성'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다.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천도한 후 종묘·사직의 건축을 하고 궁궐인 경복궁이 거의 완공될 무렵인 1395년 도성축조령을 내렸다. 성기(城基) 결정에 대해 일설에서는 무학대사가 잡았느니, 혹은 겨울철인데 눈이 온 뒤 이상하게도 성을 쌓은 자리만 눈이 녹았으므로 눈 녹은 자리를 따라 성을 쌓았다는 등의 전설이 있다. 1396년(태조 5) 1월 9일 백악신과 오방신에게 도성 축조를 고하는 제사를 지내고 2월 28일까지 49일간 제1차 도성공사가 있었다. 연인원 11만 8,070명의 민정이 동원되어 97개 공구로 나뉘어 40리(17km)의 도성을 쌓았는데 전체 길이의 3분의 2 이상은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다. 1차 공사 때는 대부분 토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 해 여름 장마로 무너진 곳이 많았다. 이에 태조는 주위의 반대를 물리치고 민정 7만 9,400명을 다시 동원하여 9월 1일부터 49일간 제2차 공사를 진행시켜 무너진 토성을 석성으로 바꾸고 8개의 문루를 건축했다. 그리고 1398년(태조 7)까지 계속해서 매년 도성을 수축하였다. 그 후 태종은 도성의 확장과 수축을 계획했으나 민정을 살피고 나서 축성의 서두름을 취소하고 보류시켰다. 한편 도성의 대부분이 토성인 관계로 축성한 지 20년이 지나자 거의 훼손되어 꼴베는 아이와 나무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넘나들었다. 이에 세종은 무너진 곳만 막는 소규모의 보수공사를 하려 했으나, 상황인 태종의 지시로 8도의 민정 32만 2,640명을 동원하여 1422년(세종 4) 1월 15일부터 40일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었다. 각기 40일간 양식을 싸가지고 서울에 집합하게 한 결과 서울 인구 10만 명의 3배 이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므로 쌀값이 폭등하기도 했다. 각 지방 수령들은 40일 동안 담당구역의 수축을 다 마치면 귀향할 수 있기 때문에 민정을 독촉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역했다. 이에 세종은 각 수령들에게 임명을 내려 성문을 여는 파루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성문을 닫는 인정 때까지만 공사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하루 17~18시간의 중노동을 견디다 못한 민정중에는 도망가는 사람도 많았다. 이것을 막기 위해 초범자는 곤장 80대를, 재범자는 사형에 처하는 규정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세종은 추위로 동상에 걸리거나 부상자가 생기는 것을 대비하여 의원 60명을 서울의 두 곳에 대기시키고, 승려 탄선을 불러 승려 300명으로 구호활동을 펴게 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완공될 때까지 872명이 사망했는데 부상자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세종 때 축성된 도성은 모두 석성으로 자연석이 아닌 직사각형으로 다듬어 쌓은 것이 특색이며 태조 때보다 1척씩 높게 쌓은 외에 성첩(城堞)을 쌓아 군사들이 전투 때 이 성첩에 의지해 싸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성 안팎에 15척의 도로를 내 순찰에 편하도록 하였으므로 도성의 위용은 세종 때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도성의 관리를 위해 성문도감을 설치하고 우의정을 책임자로 8인의 실무진을 두어 10일마다 한 번씩 도성 내외를 순찰하고 보고를 하게 했다.

문종 때에는 경기 · 충청 · 전라도의 현역 수군을 동원하여 수축하였다. 이는 각도의 백성을 동원하여 민원을 사는 것보다 큰 임무가 없는 수군을 시켜 수축하는 것이 편했던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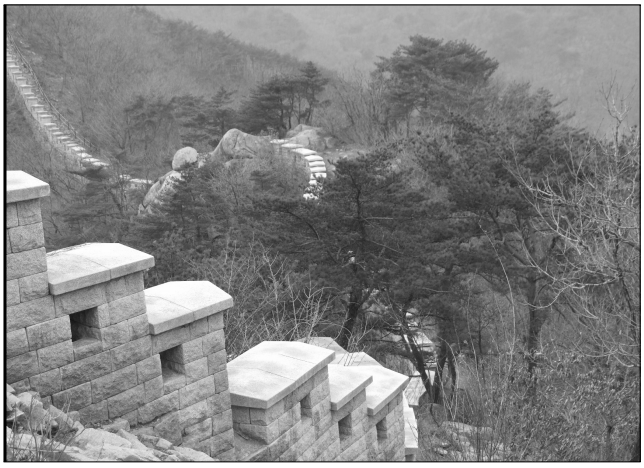
임진왜란 때 왜군이 서울을 철수한 다음 서울에 환도한 정부는 도성 수축에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서울 수복 후 1개월 후부터 도성 수축에 들어가 도성 안에 설치되었던 왜군 진지를 철거하고 그 돌로써 도성을 수축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도성의 수축과 아울러 네 곳에 포루를 설치하고 도성 밖에 해자(垓字: 성 밖에 둘러 판호)를 파도록 명했지만 인적 · 물적 피해가 혹심했던 그 당시에 실현되지 못했다.

1661년(숙종 즉위)에 청나라가 오삼계의 반란으로 원군을 청해오자 조정에서는 자강책이 주장되어 북한산성의 축성 논의가 결정하였다. 즉 도성을 모성(母城)으로 삼고 북한산성을 자성(子城)으로 삼아 적의 침입 시 도성을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북한산성과 도성 수축을 놓고 어느 것을 먼저 쌓느냐로 격론이 벌어졌는데 결국 도성 수축을 선행하기로 의견이 기울어져 1704년(숙종 30) 3월 25일 공사가 착수되었다. 삼각산에 도성 수축을 선행하기로 정하고 공사는 5군영에 분담시켜 책임을 지게 하였다. 수축의 첫 번째 일은 필요한 돌을 떠서 운반하는 일이었다. 성을 쌓는 것은 5개월 후부터 시작되었다.

돌은 뜨는 일이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어서 동대문 밖 노원과 주암 등지에서 채석하게 하고 축성기구를 만들기 위해 사산(四山)의 벌레 먹은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경기도 민정(民丁)으로서 5군문에 속한 자는 농사를 폐하고 돌을 운반하는 일에 매달려 사상자가 많이 생겨 민원이 많았다. 채석장소가 거의 30리나 되는 먼 곳이어서 한 명이 하루에 한 개 밖에 운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정릉 근처의 구준봉 밖 청수동에서 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해 여름에 가뭄이 들어 7월에 작업을 일단 중지하게 되었고, 공사 재개에 대한 문제로 갑론을박 하였다. 또한 도성 수축을 청나라에 통고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공사 진행에 큰 지장을 가져왔으나, 한성판윤 민진후와 병조판서 유득일, 좌의정 이유가 강력히 왕에게 건의하자 왕은 "몇 년을 두고 논의한 끝에 도성 수축을 결정하였는데, 어찌 그것을 방해하는 말이 있다고 하여 변경할 수 있겠는가. 앞서 분부한 대로 수축하는 것이 옳다" 라고 하여 1705년(숙종 35)에 도성 남 · 북쪽 수축이 끝났다. 그 이듬해 봄부터 성첩 공사가 착수되어 7,081개의 성첩이 이루어졌다.

이 때 도성 수축은 매우 중요시되어 공사의 진행을 군율로써 다스리게 하고, 동

	역(董役)의 장교와 석고의 이름을 수축한 성벽 석명에 새기게 하여 부실로 후일에 성벽이 무너지는 경우 군법으로 다스린다는 엄격한 규율 하에 공사를 진행시켰다. 숙종 때 수축된 도성의 특색은 상하 모두 약 2척의 방형이고 돌과 돌 사이의 간격이 없이 수직으로 쌓았는데 동대문, 백악 동쪽, 광희문 부근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삼선동에서도 간혹 볼 수 있다. 그 후 영조는 외적의 침입 시 도성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1743년(영조 19) 11월 3군문에 명하여 도성의 수축을 분담시켰다. 그러나 이 때 공사가 착수된 것 같지는 않고, 1745년(영조 21) 7월 다시 3군문에게 도성 수축을 분담시켜 이듬해 7월에 완공하였다. 대원군이 집권 후 경복궁 중건 때 도성도 수축하였다. 그 후 1898년(광무 2) 10월에 남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가 처음으로 가설되어 1899년 5월 17일에 개통되자 동대문과 서대문 부근의 성고가 일부를 철거하였고, 1907년(융희 원년) 7월 일본 황태자 대정(大正)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남대문 북쪽 성벽을 철거하여 성 내외로 통하는 새 도로가 개통되었다. 즉 일제는 한국정부에 강요하여 성벽처리위원회를 만들어 일본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1908년(융희 2) 3월부터 동대문 북쪽 성벽과 동대문 남쪽 5간수문, 남대문 남쪽 성벽의 철거에 착수하고자 하였다. 이는 성벽을 모두 철거하려 한 것이었으나 우리 국민들의 반발로 성벽 처리위원회는 폐지되고, 대신 내부(內部)의 지방국과 토목국이 이를 이관 받아 그 해 9월 서대문 부근의 성벽 77칸과 남대문 무근의 성벽 77칸이 각각 철거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성북구와 종로구를 분할하는 성벽은 많은 훼손을 당해 성북구의 경우 혜화문에서 성북동으로 넘어오는 길을 내기 위해 성벽이 허물어졌다. 동소문에서부터 삼선동 1가까지의 성벽은 성첩이 거의 남아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가 허물어져 아이들이 넘나드는 정도였다. 광복 후에도 도성은 거의 방치되어 오다가 1963 · 1972 · 1976년에 서울특별시에서 개축 · 보수하여 원형을 되찾았다.  <삼선동에서 본 한양도성 성벽 (2013)>
원천자료	양보경,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성북문화원, 1998.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33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6	작성자	한아름
제목	북한산 북한산성 성곽	키워드	북한산성, 성곽, 수도
이야기	지정사항 : 사적 제 162호 소 재 지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외 서울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백제가 수도를 하남 위례성으로 정했을 때 도성을 지키던 북방의 성이다. 백제 개루왕 5년(132)에 세워진 곳으로, 11세기 초 거란의 침입이 있을 때 현종이 고려 태조의 관을 이곳으로 옮겨 오기도 했다. 고려 고종 19년(1232)에 몽고군과의 격전이 있었고, 우왕 13년(1387)에 성을 다시 고쳐지었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도성 외곽을 고쳐짓자는 의견이 일어나 숙종 37년(1711) 왕명으로 토성을 석성으로 고쳐지었다. 성의 규모는 대서문, 동서문, 북문 등 13개의 성문과 불을 피우던 곳으로 동장대, 남장대, 북장대가 있었다. 성내에는 중흥사를 비롯한 12개의 사찰과 99개의 우물, 26개의 작은 저수지, 그리고 8개의 창고가 있었다. 현재 북한산성에는 삼국시대의 토성이 약간 남아 있기는 하나 대개 조선 숙종 때 쌓은 것으로 여장은 허물어 졌고, 대서문과 장대지・우물터・ 건물터로 생각되는 방어시설 일부가 남아있다. 이 지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였던 곳이며, 조선시대에는 도성을 지키는 중요한 곳이었다.  <북한산성 성곽 (2013)>		
원천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34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7	작성자	한아름
제목	혜화문	키워드	혜화문, 홍화문, 동소문

이야기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28-6 (창경궁로 307)

혜화문의 원래 이름은 홍화문(弘化門)이었으나, 1484년(성종 15)에 창경궁을 새로 지으며 그 동쪽문을 홍화문이라고 해서 두 개의 홍화문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1511년 (중종 6)에 두 문의 혼동을 막기 위해 동소문을 혜화문이라고 고쳤다. 또 동소문에는 문루가 없이 홍예(虹霓)만 있었으나, 1744년(영조 20)에 동소문의 문루를 만들었다.

1451년(문종 1)에 이 문을 수리하면서 사슴뿔과 같은 나무 말뚝을 박아 적의 침입을 막는 녹각성(鹿角城)을 설치하게 하였다. 혜화문 문루 천장에는 봉황을 그려 놓았는데 이는 삼선평 일대에 새가 이 날아 들어 농사에 피해가 많았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동소문은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강점당한 뒤에는 보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루가 크게 퇴락했다. 1928년 일제는 이것을 이유로 동소문 문루를 헐어버림으로써 영조 때 달았던 현판도 없어지고 홍예만 남았다. 그 후 1939년 돈암동까지 전차 노선을 연장할 때 이 홍예마저 헐어버려 이 문은 자취조차 남지 않게 되었지만 혜화문 · 동소문동의 동명과 동소문고개라는 고개 이름만이 남게 되었다. 혜화문은 1994년에 복원되었다. 혜화문 밖에는 여러 가지 새들이 많아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문루 천장에 용을 그리지 않고 봉황을 그렸다고 한다. 동소문은 서울의 4대문은 아니지만 북쪽의 숙정문이 음문(陰文)이라 하여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소문의 역할은 다른 대문에 못지않은 큰 역할을 하였다.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혜화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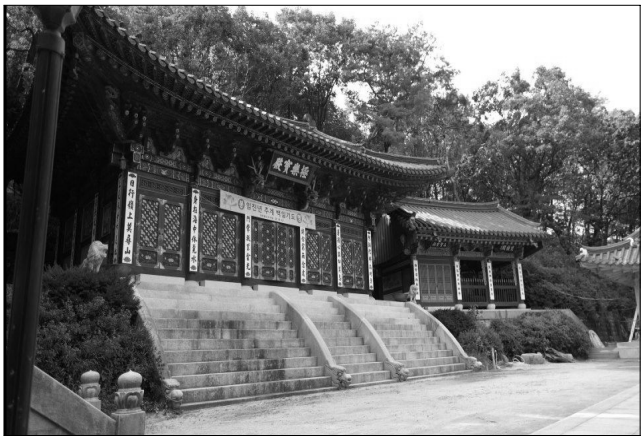
	 <복원된 혜화문 (2013)>
원천자료	양보경,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성북문화원, 1998.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35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8	작성자	한아름
제목	숙정문	키워드	숙정문, 서울성곽, 4대문, 숙청문, 태종
이야기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산 2-1 삼청터널 위에 자리한 숙정문은 남대문 · 동대문 · 서대문과 함께 서울성곽 4대문의 하나로 속칭북문이었다. 서울의 정북에 위치한 이 문은 처음에는 숙청문(肅淸門)이었는데 숙정문(肅靖門)으로 개칭되어 중종(中宗) 이후의 실록에는 모두 숙정문으로 기록되고 있다. 4소문의 하나인 창의문(彰義門)과 함께 양주와 고양으로 왕래하는 통로로 이용되기도 한 이 문은 서울성곽의 다른 문과 같이 태조 5년(1396)에 창건되었다. 이문은 연산군 10년(1504)에 원래의 위치에서 약간 동쪽인 지금 자리로 이건하였는데 이때 무지개 모양의 홍예(虹霓)로 된 석문(石門)만 세우고 문루(門樓)는 세우지 않은 듯하다. 1975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조 때 문루가 건축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복원한 뒤 숙정문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조선 초의 기록을 보면 풍수설과 음양설에 따라 숙정문을 닫아 두었거나 열어 놓기도 하였다. 그 예로 태종 13년(1413) 6월에 풍수학자 최양선(崔揚善)이 풍수지리학상 경복궁의 양팔이 되는 창의문과 숙정문을 통행하는 것은 지맥(地脈)을 손상시킨다는 상서가 있자, 마침내 이 문을 폐쇄하고 길에 소나무를 심어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였다. 그 후 태종 16년(1416)에는 기우절목(祈雨節目)을 만들어 가뭄이 심하면 숙정문을 열고 남대문을 닫았으며, 비가 많이 내리면 숙정문을 닫고 남대문을 열게 하였다. 즉 가뭄이 심하면 먼저 종묘 · 사직과 명산 · 대천에 기우제를 지내고,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남대문을 닫고 숙정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시장(市場)을 옮기고 보신각의 종을 치는 대신 쟁(錚)을 치게 하였다. 이는 북은 음(陰)이요, 남은 양(陽)인 까닭에 가물면 양을 억제하고 음을 부양하는 음양오행설에서 나온 것이다. 예종 때의 기록에도 몹시 가물면 종로의 시장을 구리개(현 을지로 입구)로 옮기고, 남대문을 닫은 다음 북문, 즉 숙정문을 열게 한 뒤에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였다. 한편 조선시대 이규경이 지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의하면, 숙정문을 열어 놓으면 서울 장안의 여자가 음란해 지므로 항상 문을 닫아 두게 되었다고 소개 하였다. 이것도 숙정문이 음방(陰方)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보면 상원(上元 : 음력 정월 대보름) 전에 민가의 부녀자들이 세 번 숙정문에 가서 놀면 그 해의 재액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이 전해온다고 하였다. 이는 숙정문 부근의 자연풍경이 아름다워 도성의 사녀(士女)들이 자주 이곳을 찾아와 놀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오래도록 비가 오면 숭례, 흥인, 돈의, 숙정문에 나가서 비 개이기를 비는 제사인 영제를 지냈다.		

	 <숙정문 (2013)>
원천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36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9	작성자	한아름
제목	동활인서	키워드	동활인서, 동서대비원, 기민구호, 조선시대
이야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03 (동소문로3길 98) 동활인서는 도성 내의 질병에 걸린 빈민 환자, 주로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에 고려의 제도에 따라서 동·서대비원을 두어 병자와 갈 곳이 없는 사람을 수용하여 도와주었다. 1414년(태조 14) 9월에 불교의 명칭을 벗고 동·서활인원으로 새로 고쳤다. 이것은 배불정책에 의한 것으로 대비원이란 이름은 불교의 대자대비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것을 활인원으로 바꾼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 한성부조에 동활인원은 동소문 밖에, 서활인원은 서소문 밖에 두어 도성 내의 병자와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치료하고 의식을 지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466년(세조 12) 1월에 동활인원과 서활인원을 통합하여 활인서로 고쳤다. 그 후 폐지되었다가 1662년(광해군 4) 12월에 예조의 건의로 다시 설치되었으나, 역할이 미미하여 1882년(고종 19)에 결국 폐지되었다. 동활인서의 위치는 조선 후기의 서울 고지도들에 지금의 동수문동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 후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가 그린 《수선전도(首善全圖)》,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등에는 동활인서가 현재 성동구 신당동 236, 304번지 일대에 설치되어 있음을 보아 19세기 동활인서가 동소문동에서 신당동 쪽으로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활인서의 목적은 치료와 구호사업에 있으며, 역·원 등과 함께 국가에서 직할하는 사회기관으로서 기민구호에도 큰 구실을 했다. 또한 의원 외에 무당을 배치해서 도성 내 환자들 중에 의지할 곳이 없는 환자들을 구휼 · 보호하게 했다. 세종이 활인원에 무당을 배치한 것은 무당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일반 민중의 사고방식을 참작하여 환자들의 정신적인 안정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많은 환자가 구휼·치료되고 무당에게는 특별히 세금과 부역을 덜어 주었다. 그런데 무당들이 귀신을 방자하여 요사스런 일을 꾸미는 등의 축출과 폐단방지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1693년(숙종 19)에 비로소 무당들을 성 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활인서 내에는 한증탕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기록이 세종 때 나타나는데 “땀내고 찜질하고 목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원천자료	양보경,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성북문화원, 1998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37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9	작성자	한아름
제목	경국사	키워드	경국사, 청암사, 보경스님, 지관스님
이야기	지정사항 : 사적 제 208호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753 (보국문로 113-10) 부처님의 가호로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항상 있기를 기원 『경국사 사적기』에 의하면 670년 전 고려 충숙왕 12년(1325)에 자정율사(慈淨律師)가 창건하여 청암사(靑巖寺)라 하였다. 절이 위치한 곳이 청봉(靑峰)아래 있었으므로 청암사라 붙인 것이다. 자정율사는 충숙왕으로부터 국존(國尊)으로 존경받았던 고려 후기의 스님이다. 창건 이후 1330년경에 무기(無奇)스님이 머물면서 천태종의 교풍을 크게 떨쳤으며, 충혜왕 1년(1331)에는 부정축재로 거금을 모은 권신 채홍철(蔡洪哲)이 선방(禪房)을 증축하여 선승(禪僧)들의 수도를 적극 후원하였다. 고려말인 1352년에는 금강산 법기도장(法紀道場)을 참배하고 남하한 인도승 지공(指空)이 이 절에 머물렀다.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누르고 유학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이 절은 퇴락하였다. 인종 1년(1545)에 왕실의 도움으로 중건되고 이듬해에는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대적인 중창이 있었다. 절이 중수되자 성대한 낙성식과 함께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발원하는 호국대법회를 열었다. 『경국사 사적기』에는 문정왕후의 중창 이후 『부처님의 가호로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항상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청암사를 경국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현종 10년(1669)에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을 복원하면서 부근의 약사사를 봉국사로 중창 · 개칭하고, 흥천사와 함께 정릉의 원찰(願刹)로 삼을 때 이 청암사도 원찰로 지정되어 경국사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절은 숙종 때 연화 승성스님, 영조 때 난암 의눌스님이 중수(重修)하였으며, 철종 때는 예봉 평신스님이 법당을 다시 세우고 고종 1년(1864)에는 고종의 등극을 축하하는 재를 열기도 하였다. 고종 5년(1868)에는 칠성각과 산신각을 새로 짓고 호국대법회를 열었는데 이 때 왕실에서 범종을 보시(布施)하였다. 일제 때인 1921년부터는 단청(丹靑)과 탱화 조성에 일가를 이루었던 보경(寶慶:1890~1979)스님이 60년간 주지로 머물면서 절을 새롭게 변모시켜 나갔다. 보경스님은 교학과 선지(禪智)를 두루 익히고 계율에도 철저하여 승가의 귀감이 되었고,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서 민족의 정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민족문화의 전승에 있다고 생각하여 전통 불상조각과 불화화법을 익혀 대가를 이루었다. 1950년대에는 이승만대통령이 보경스님의 인격과 태도에 감화되어 몇 차례나 찾아왔고, 1953년 닉슨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였을 때도 이 절을 찾아왔다. 그 후 지		

	관(智冠)스님이 1979년에 주지를 맡아 활발한 포교활동과 절의 내실을 다졌다. 따라서 이 절은 고승대덕의 수도처이자 호국안민을 위한 기도 도량으로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국사 극락보전 (2013)>
원천자료	성북구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38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10	작성자	한아름
제목	봉국사	키워드	봉국사, 무학대사, 신덕왕후, 정릉,
이야기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637 (정릉로 202-14) 봉국사는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건축 초인 1395년(태조 4), 조선 왕조의 개창에 큰 역할을 했던 무학대사(無學大師, 1327~1405) 자초(自超)가 전각을 지어 약사여래를 봉안하고 약사사(藥師寺)라 한 것이 창건의 시작이다. 절이 창건된 후 왕실의 지원과 협조가 계속 이어져 1468년(세조 14)에는 왕의 시주로 절을 중창하였다. 약사사가 지금의 이름인 봉국사로 불리게 된 것은 조선시대 중기의 일이다. 1669년(현종 10) 태조의 두 번째 왕비인 신덕왕후 강씨(康氏)의 묘를 능묘로 복원하면서 바뀌게 되었다. 신덕 왕후의 묘소 정릉(貞陵)은 본래 지금의 서울시 중구 정동 부근에 있었으나 태조가 제8왕자인 방석(芳碩)을 세자로 책봉하자, 이복형인 방원(芳遠)이 이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왕위에 올라 1409년(태종 9)에 정릉을 지금의 자리로 옮겨 버렸다. 태종은 능을 옮긴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정자각을 허물고 능묘의 시설을 모두 파괴해 버렸다. 이렇게 해서 정릉은 왕비의 능이라기보다는 주인 없는 묘지처럼 수백 년간 황폐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이 정릉을 복원하면서 정자각 · 안향청 · 전례청 등을 새로 세웠는데, 이때 신덕 왕후의 명복을 비는 왕실의 원당으로서 약사사를 지정하고 나라를 받든다는 뜻에서 봉국사라 고쳐 불렀던 것이다. 그 뒤의 역사는 자세히 전하지 않는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의 와중에서 절이 불에 타고, 이듬해(1883)에 한계(漢溪)·덕운(德雲) 두 스님이 힘을 모아 중건하였다. 1885년 3월 명부전에 지장탱화를 조성하였는데 금어는 금곡(金谷)이고 증명은 대응(大應) 스님이었다. 1898년에는 운담(雲潭) · 영암(永庵) · 취봉(翠峰) 스님 등이 명부전을 중건하고 시왕도를 함께 봉안하였다. 계속해서 1913년에는 주지 종능(宗能) 스님과 화주 월하봉연(月荷奉蓮) 스님이 칠성각을 중건하였다. 1938년에는 화주 금파(錦坡) 스님이 조인섭(趙寅燮)의 시주를 받아 염불당을 새로 지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1979년 10월에 주지 현근(玄根) 스님이 절 입구에 일음루(一音樓)를 지었다. 1986년 산신각을 중수하였고, 만월보전에 신중탱을 봉안하고, 1991년 천불전에 신중탱을 모셨다. 1994년 3월 천불전 아래에 안심당을 새로 마련하여 스님들의 수행정진과 신도들의 신행처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에는 주지 선관스님과 신도회 등 봉국사 전 대중이 힘을 모아 경내에 천여 그루의 나무와 꽃을 심어 도량을 일신하였다.		

	 <봉국사 만월보전 (2013)>
원천자료	전통사찰 관광종합정보 홈페이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39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11	작성자	한아름
제목	개운사	키워드	개운사, 교육불사, 마애석불
이야기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산4-11 (개운사길 73) 안암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개운사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한국 불교 개혁의 근원지이고, 불교 교육의 근본도량인 중앙승가대학이 있다. 이 절은 조선 초 태조 5년(1396)에 왕사(王師)인 무학대사가 동대문 밖 5리 정도 되는 안암산 기슭, 현재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부근에 절을 짓고 영도사(永導寺)라고 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정조 3년(1779) 5월에 정조의 후궁 원빈(元嬪)홍씨가 세상을 떠나자 영도사 자리에 묘소를 정하고, 명인원(明仁圓)이 세워지자 인파당(人波堂) 축홍(竺洪)스님이 영도사를 동쪽으로 몇 리 떨어진 현재의 자리에 절을 옮겨지었다고 하였으나 『사기(寺記)』라는 문헌에는 영조 6년(1730)에 영도사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영도사가 개운사로 이름을 바꾼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개운사는 20세기 이후에 한국 교육불사와 불교의 진보적인 운동을 주도해 왔다. 1926년 근대 불교의 대석학이었던 박한영 스님이 머물었고, 이절의 암자인 대원암에 탄허(呑虛)스님이 머물면서 역경(譯經) 사업에 종사 하였다. 이 절은 현재 조계종이지만 최근까지 태고종에서 관리하였으므로 1955년에 대처승 주최로 전국포교사대회(全國布敎師大會)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81년부터 중앙승가대학이 이곳을 교육도량으로 사용하면서 현대사 속에서의 개운사 전통을 꽃피우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조선말 고종 10년(1873)에 명부전을 세우고 나서 7년 후인 1880년에는 이벽송(李碧松)대사가 대웅전을 중건하고, 그 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절은 현재 대대적인 중건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내에는 현대식 건물로 지은 지상5층의 중앙승가대학 건물이 세워져 있다. 이 절의 암자로서 대원암(大圓庵)과 보타사(普陀寺:안암동5가 157)가 절 동쪽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근 보타사 대웅전 뒤의 암벽에 5m 크기의 마애석불(磨崖石佛)이 발견되었으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9호로 지정되어 있다.		

	 <개운사 일주문 (2013)>
원천자료	성북구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40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12	작성자	한아름
제목	내원사	키워드	내원사, 북한산, 삼각산, 범종루
이야기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산1-1 (보국문로32길 103) 내원사는 북한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수많은 사찰 가운데 하나로, 정릉 골짜기를 지나 1km 정도 오르면 멀리 목멱산을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언제 누가 창건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터전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내원사의 존재를 밝혀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김정호가 제작한 「수선전도(首善全圖)」와 1859년(철종 10) 만들어져 사찰에 전하는『백의대사불도(白衣大士佛圖)』라는 목판이 유일하다. 수선전도에는 현재 내원사가 자리한 곳과 같은 위치에 내원암이 표시되어 있고, 『백의대사불도(白衣大士佛圖)』목판에는 삼각산내원암(三角山內院庵)이라는 기록이 있어 19세기 전반만 해도 법등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던 내원사가 언제 어떠한 이유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더욱 세월의 무상함이 절로 느껴진다. 오늘도 무상함 속에 범종루 아래 길게 이어진 이끼 낀 석축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배어나고, 바위틈에서 솟는 감로수는 사찰의 흥망성쇠를 잊은 듯 말없이 흐르고 있다.  <내원사 (2013)>		
원천자료	내원사 홈페이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141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13	작성자	한아름
제목	미타사	키워드	미타사, 탑골승방, 후궁, 정순왕후 송씨
이야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3가 51 (보문사길 6-16) 동대문 밖 비구니 수행도량 미타사(彌陀寺)에는 한 가지 별칭이 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은 탑골승방으로 서울의 낙산 아래 동망봉을 경계로 청룡사, 보문사, 미타사 등 비구니 도량이 군집해 있어 생긴 이름이다. 하지만 탑골승방은 미타사 뒤편에 자리한 탑과 관련 있는 듯하며, 고려시대 혜거국사 이후 혜감국사에 이르기까지 고려 국사와 왕사가 창건한 사찰로 그 사맥을 이어 왔다. 특히 미타사는 조선시대에 탑골승방이라 불리는 옥수동의 두뭇개 승방, 석관동의 돌곶이 승방, 숭인동의 새절 승방(청룡사)과 함께 여승들이 거처하는 성 밖의 네 이사 중의 하나로 꼽혔는데, 단종의 왕비 송씨와 연관된 동망봉과 청룡사가 이웃해 있어 이 곳이 왕비와 후궁들의 기도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옛날 멀리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낸 왕비 정순왕후 송씨가 청룡사에 머물며, 미타산의 남산인 낙산에 올라 하염없이 그리움으로 세월을 낚은 곳. 또 그 그리움으로 단종의 축원을 위해 시주한 곳. 탑골승방이 자리한 이 곳 미타사와 청룡사에는 그녀의 그리움과 불심이 묻어 있다. 또 동문 밖, 비구니 도량으로 왕을 여의거나, 나이가 찬 후궁들이 갈 곳 없이 방황할 때 이곳 탑골승방의 문은 활짝 열려 그녀들의 지친 마음을 감싸 주었을 것이다. 지금은 그녀들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지만, 대웅전과 삼성각에 남아 있는 그녀들의 불심어린 시주로 조성된 탱화를 보며, 내세의 기복과 왕에 대한 사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미타사 (2013)>		
원천자료	전통사찰관광종합정보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42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14	작성자	한아름
제목	정법사	키워드	정법사, 건봉사, 복전암, 범종, 열반도
이야기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 (대사관로13길 44) 정법사는 원래 종로구 가회동에 있던 건봉사(乾鳳寺) 포교당이었는데 1960년 이곳의 조그만 암자인 복전암(福田庵)으로 이전하였다. 즉 정법사가 위치한 가회동은 수행처로 적합한 분위기가 아니었으므로 이 암자를 인수하여 정법사로 개칭한 것이다. 이곳에 있었던 복전암이 언제 어떻게 창건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현재 정법사에 봉안되어 있는 범종과 열반도(涅槃圖)가 1922년에 제작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복전암의 유물이라는 점을 추측 할 수 있다. 정법사 부근의 요정 대원각이 전일에 후궁 터였다는 점에서 복전암이 후궁들의 기도처였던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정법사는 대웅전 · 팔상전 · 사천왕문 · 산신각 · 요사3동 등 7채의 건물 외에 미륵불상이 세워져 있다. 대웅전은 정법사가 이전해 올 당시 서대문 신학대학에 있던 황태자궁을 이전해 온 것이다. 내부에는 석가모니불 · 지장 · 관음 등의 불상과 1918년에 그려진 열반도 · 후불탱화 · 현왕탱화 등이 있다. 1969년에 건립된 팔상전 내부에는 석가모니불과 청동으로 만든 천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정법사 (2013)>		
원천자료	성북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43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15	작성자	한아름
제목	적조사	키워드	적조사, 홍천사, 혜암 성혜, 경산스님, 자성스님
이야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산85-127 적조사는 원래 홍천사의 산내암자로 전체적인 규모는 큰 편이 아니지만 아담함 분위기에 전형적인 암자의 틀을 갖추고 있는 절이다. 특히 대웅전 앞의 두 소나무가 사격을 한층 높여주며, 주위를 둘러싼 아름다운 수림은 청정도량으로서 적조암의 분위기를 대변해준다. 적조사의 창건은 1849년(헌종 15)에 혜암성혜(慧庵性慧)스님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이절을 염불관선(念佛觀禪)의 도량으로 삼았다. 창건주인 성혜스님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창건배경 등을 알기 어려우나,『동사열전(東師列傳)』에는 백파(白坡)스님의 제자로 혜암이라는 스님이 등장하고 있어 생존연대를 추정할 때 그를 동일인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정할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그 뒤 가람이 소실되어 폐허로 있던 것을 1958년 경산스님이 주지로 부임하여, 1960년대 가람을 정비하였으며, 1977년에는 경산희진(京山喜璡)스님에 의해 건물과 가람이 복원되어, 당시 관자재보살의 강림도량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곳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네 번이나 역임한 경산스님이 입적하기 전까지 전법교화(傳法敎化)하셨던 장소로, 경산스님의 수행과 업적은 현대불교사의 전개과정에서 반드시 주목되어야할 부분이다. 1970년대 이후 총무원장과 동화사 주지 등 불철주야로 교단정화와 화합에 앞장선 경산스님은 1974년에 자공(慈空)스님에게 주지직을 물려주었다. 이후 자공스님은 대웅전 내부의 불상과 탱화불사를 시작하여 1974년에 석가삼존상 조성과 1975년에 칠성탱, 독성탱, 산신탱 조성, 1976년에 신중탱을 조성하여 전각내 모든 성보를 이 당시 조성하게 되었다. 또 1979년에 경산스님이 입적한 후에는 스님의 사리를 수습하여 1982년 사리탑과 비석을 조성하였으며, 2002년에는 상좌인 자성(慈成)스님이 주지직을 이어 받아 현재 가람의 기틀을 이루었다.		

	 <적조사 (2013)>
원천자료	한국사찰관광종합정보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44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16	작성자	한아름
제목	대원암	키워드	대원암, 탄허 스님, 박한영 스님, 개운사
이야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7 (개운사길 60-46) 대원암은 개운사의 산내 암자로 1845년(조선 현종11) 지붕 우기가 창건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근대불교의 대석학인 석전 박한영스님이 불교전문강원을 개설하여 불교계석학들을 배출했고, 1970년대에는 탄허스님이 주석하면서 경전 번역불사를 하신 곳이기도 하다. 석전(石顚) 영호 스님은 속명인 박한영(1870~1948)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우리 불교계의 대강백이자 선승이기 이전에 유불선에 통달한 석학으로 구한말 지식인 사회를 이끌었던 때문이다. 해방 후 조선불교 중앙총무원회 제1대 교정(종정)을 지냈고, 1919년 한성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기도 한 항일운동가였다. 또 일제가 우리 불교를 일본화하려는 것에 맞서 불교 개혁을 주창하고 나선 운동가였다. 석전 스님의 강맥은 운허 스님에게 전해지며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을 비롯한 한국 불교의 학승 대부분으로 이어질 만큼 큰 줄기를 형성했다. 석전 스님이 재가 불자는 물론 당대의 문사들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1926년 서울 안암동 개운사 대원암에 개설한 불교전문강원에서 신석정, 서정주, 이광수, 조지훈, 김달진 등을 지도했다. 특히 광주학생 항일운동으로 서울중앙고보와 고창고보에서 퇴학당하고 방황하던 미당을 중앙불교 전문학교 제자로 불러들였다. 이처럼 두 사람의 인연은 각별하다. 미당은 석전을 “내 뼈와 살을 데워준 스승”이라고 부르며 평생 그 은혜를 갚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석전이 남긴 한시 3000여수 중 육당 최남선이 420편을 골라 ‘석전시초’를 묶었고, 미당이 이 중 130여수를 직접 한글로 번역해 간직했던 원고가 2006년 공개되기도 했다. 석전은 한국 근대 불교의 태두이자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지식인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일반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선맥을 중시하는 한국불교의 풍토, 백파에서 비롯되는 선운사 문중의 세가 비교적 약했던 탓이다. 한국불교 근세 3대 강백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석전은 유교의 경사자집과 노장 학설에도 밝았고 한시와 서법에도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는다. 최남선이 정리한 ‘석전시초(石顚詩艸)’와 ‘석전문초(石顚文艸)’ 등 9권의 책에 시, 논설, 수필 500여편도 남아 있다.		

	 <대원암 (2013)>
원천자료	개운사 홈페이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45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17	작성자	한아름
제목	길상사	키워드	길상사, 삼각산, 길상화
이야기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23 (선잠로5길 68)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로 삼각산 남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고급요정 '대원각'을 운영하던 김영한(법명 길상화)이 대원각을 송광사에 시주하여 탄생하였다. 1995년 6월 13일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의 말사인 '대법사'로 등록하였으며 1997년에 길상사로 사찰명을 바꾸어 창건하였다. 사찰 내의 일부 건물은 보수하였으나, 대부분의 건물은 대원각 시절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경내에는 극락전, 범종각, 일주문, 적묵당, 지장전, 설법전, 종무소, 관세음보살석상, 길상화불자공덕비 등이 배치되어 있다. 사찰의 대웅전격인 극락전에는 아미타부처를 봉안하고 좌우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시민운동 '맑고 향기롭게'의 근본도량으로 해마다 5월이면 봉축법회와 함께 장애우, 결식아동, 해외아동, 탈북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승려이자 수필작가인 법정이 1997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회주(會主: 법회를 주관하는 법사)로 주석하였다.  <길상사 (2013)>		
원천자료	『두산백과』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46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18	작성자	한아름
제목	석관동 도당	키워드	도당, 도당신, 석관동, 당제
이야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40 도당(都堂)은 석관동 340번지에 위치한다. 약 5~6평의 당내에 신주(神主) 대신 항아리에 벼를 가득 넣고 짚으로 땋은 주저리로 덮어 놓았으므로 주신(主神)이 여신이었음과, 이 마을의 주업이 농업으로서 풍농을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 유래의 시발점은 알 수 없으나 이 마을이 형성될 당시부터 수호신으로 숭배되어 오고 있다. 주민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 도당신(都堂神) 양주분이 있는데 중화동 봉화산신은 도당 할아버지이고, 천장산신은 도당 할머니라고 한다. 석관동에서는 도당 할머니를 모신다. 원래 의릉이 조성되기 전에는 천장산 아래에 있었으므로 산신으로서 이 동네 수호신으로 모시다가 의릉이 들어오자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함께 현 위치에 이전해 와 동신(洞神)으로 받든 것이라고 한다. 주신의 호칭은 도당할머니이고 축문의 표기는 토지지신(土地之神)으로 되어 있다. 이 마을 당제(堂祭)에는 제관(祭官) 선정이 있다. 석관 12동 중 약 150세대가 이 당을 모시는데 원래는 제관 3명, 주비 4명 등 7명을 선출했으나 선출시 어려움이 많아 1980년부터는 도가(都家) 1명, 소임 2명, 주비 2명 등 5명으로 줄여 선출했다. 먼저 제관 선출방법은 제일(祭日) 10일 전에 선출하는데 지정된 대상자와 그 날의 일진(日辰)과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맞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집안에 부정(不淨: 해산이나 초상 등)이 있으면 선출되지 못했다. 제일은 매년 10월 초하루 일몰(오후 5~7시)이 되면 행한다. 선출된 제관은 그 날부터 출입을 삼가고 매울 목욕 제계를 하여 심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리고 당 주위에는 왼새끼줄에 창호지를 끼워 주위에 두르고 출입을 금한다. 원래 천장산에서 받들 때에는 산 길목에 금줄을 쳐 출입을 금지했으며, 산 중턱에서 솟아나는 천연수로 음식을 만들었다. 제의 절차는 분향재배(焚香再拜)·축(祝)·소지(燒紙) 순이다. 소지의 내용은 처음에는 마을 전체·제관·마을 존로(尊老)순, 즉 유교식 제의(祭儀)로 진행된다. 상차림은 황우 · 수탉 · 삼색과실(대추 · 밤 · 감) · 제주(祭酒) · 콩 · 팥 · 소적 · 시루떡(백미 4두 5승) · 백설기(5승) · 건대구 · 후추 등이다. 특히 황우는 수놈이어야 하고 시장에서 소를 살 때 제관은 직접 흥정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흥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소나 닭을 수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동신(洞神)이 여신임을 알 수 있다. 제주를 빚는 데는 두 개의 큰 항아리를 마련하고 한 항아리에는 벼를 넣고 다른 항아리에는 누룩을 빚어 넣은 다음 당내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제주를 마련한다. 이 모든 제수(祭需)는 도가에서 준비한다. 제수 중에서 쇠고기는 꼬치로 만들어 준비하는데 내장 · 껍질 모두 따로 꿰어 150개를 만들고 짚으로 엮어 제관 5명이 집집마다 돌리며, 집에서는 제수를 받기 위해 깨끗한 쟁반을 준비한다. 제비(祭費)는 우선 도가에서 모두 준비하고 제사가 끝난 다음 동민이 공동 부담한다.		
원천자료	양보경,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성북문화원, 1998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발간		

No. 147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19	작성자	한아름
제목	보문사	키워드	보문사, 미타사, 비구니, 보문, 혜조국사
이야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3가 168 (보문사길 20) 인근 미타사와 같이 탑골(塔洞)에 있었으므로 탑골 승방이라고 잘 알려진 이절은 전에 조계종 소속이었으나 1972년 세계 유일의 비구니 종단인 대한 불교 보문종(普門宗)을 창시하여 그 본산이 되었다. 보문(普門)이란 뜻은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몸 전체의 온갖 덕(德)을 보(普)라 하고, 쓰임을 나타내는 곳을 문(門)이라고 하므로 보문은 보살이 일체 성덕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기회와 시기를 따라 그 효용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만여평의 대지위에 대가람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보문사는 비구니들이 거처하는 조용한 암자이다. 보문사는 처음 고려 예종 10년(1115)에 담진(曇眞) 스님 즉, 혜조국사(慧照國師)에 의하여 창건된 것으로 전승되어 오는데 조선 후기 숙종 18년 (1692)에 묘첨 스님이 대웅전을 중건하였고, 영조 33년 (1757)에 보찬, 유봉 스님이 대웅전을 수축하였다, 순조 26년(1826)에 정운(正雲)스님이 좌우승당(左右僧堂)을 개축하였으며 헌종8년(1842)에 영전 스님이 또 다시 대웅전을 수축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절이 황폐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광복과 함께 주지 송은영(宋恩榮)이 취임하면서 30여년간을 불사(佛事)의 중흥과 건물 중창에 전심하여 대사찰의 면모를 갖추었다. 송은영 주지는 석굴암을 비롯한 많은 건축물을 새롭게 짓고, 보문종 이라는 독립된 종단을 설립함으로써 비구니들만의 고유한 수행 풍토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 절은 1972년 대한불교 보문종으로 등록한 후 이 해 6월 16일, 경주의 신라 석굴암을 본 따 사찰 뒤쪽의 보문산 돌산에 석굴암을 조성하였다. 1970년 8월부터 23개월간 진행된 이 불사에는 약 4,500여명에 이르는 조각가, 석공이 종사하였고, 2,400톤의 화강석이 사용되었으므로 이 절의 대표적인 불사(佛事)로 알려져 있다. 이 절은 대웅전 영산회상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8호, 대웅전 신중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9호, 지장보살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00호로 1996년에 각각 지정되어 있다. 한편 석굴암 앞의 팔각 9층 석탑은 1978년에 오대산 월정사의 탑을 본따서 조성하고, 스리랑카에서 가져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내부에 봉안 하였다. 보문사 스님의 범패(梵唄)는 잘 알려진 무형자산이며, 이 절의 청정도량의 분위기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더 없는 청량감을 느끼게 한다.		
원천자료	성북구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48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20	작성자	한아름
제목	삼군부 총무당	키워드	삼군부, 총무당, 삼선공원, 홍선대원군
이야기	지정사항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호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산1-13 삼선동1가 서남쪽 한성대학교 옆 삼선공원 안에 시도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된 삼군부 총무당(三軍府 總武堂) 청사가 세워져 있다. 이 건물은 원래 정부종합청사 자리에 세워졌던 건물로 1930년에 현 위치로 이전한 것이다. 그 후 1942년 일제강점기 말에는 경기도 공무원 연수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6·25전쟁 후에는 고아원이 들어섰다가 서울시 직업훈련원의 사무실로도 쓰였다. 이 건물이 낡고 퇴락되어 서울특별시에서 해체한 후 보수 · 복원 공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인 1979년 12월 20일에 완공되었다. 1982년 삼선공원이 조성되면서 삼군부 총무당 청사는 이 공원 한복판에 서 있게 되었다. 「총무당」이란 현판이 걸린 이 청사는 건평 721평으로 정면 7칸, 측면 4칸으로 조선 말기의 전형적인 관아건물로써 북쪽에서 보면 5벌대 높은 기단 위에 2고주(高柱) 7량(樑) 팔작지붕에 한식기와를 얹었으며, 막새와를 썼고 용마루 끝과 내림마루 끝에는 용두를 얹었다. 사래 끝에는 토수를 끼웠고 겹처마이다. 조선시대 말 흥선대원군은 집권하자 외척세력을 배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1865년(고종 2)에 310년 동안 군국사무를 담당하던 국가의 최고기관인 비변사(備邊司)를 폐지했다. 그리고 정치는 의정부에서 맡도록 하는 한편 삼군부(三軍府)를 설치하여 치안과 국방 관계를 담당하게 하였다. 삼군부는 조선 초의 의흥삼군부(義興 三軍府)를 계승한 것으로 훈련도감의 신영(新營) · 남영(南營) · 마병소(馬兵所)로서 국가의 중추적인 관아로 삼았다. 그리하여 청사자리를 광화문 앞의 예조(禮曹: 현재 정부종합청사 자리)가 위치하던 곳으로 정한 뒤 1868년(고종 5)에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 때 총무당을 정당(正堂), 즉 중심 건물로 삼고 그 좌우에 청헌당(淸憲堂)과 덕의당(德義堂)을 지었던 것이다. 그 후 삼군부는 훈련도감 · 어영청 · 총융청 · 금위영 · 용호영 등 5개 군문(軍門)을 비롯하여 전국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병인양요 · 신미양요 때에 위세를 떨쳤다가 개항 이후 1890년(고종 17)에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원천자료	양보경,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성북문화원, 1998.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49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21	작성자	한아름
제목	성락원	키워드	성락원, 심상훈, 의친왕 이강, 별장
이야기	지정사항 : 사적 제 378호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22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었으나, 의친왕 이강(1877～1955)이 35년간 별궁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져 그 아름다움을 맘껏 뽐내고 있는 성락원은 조선시대 서울 도성 안에 위치한 몇 안 되는 별서정원의 하나로 가치가 크다. 사적 제378호. 지정면적 1만4407㎡. 이 정원은 뒤에 산언덕을 등지고 좌우에 청룡·백호의 산줄기가 벌려선 형국에 자리 잡고 있다. 성락원 입구에 들어서면 두 줄기 계류가 하나로 모이는 산문(山門) 같은 계곡이 있으며, 여기에 '쌍류동천(雙流洞天)'이라는 글자가 계류의 암벽에 새겨져 있다. 쌍류동천 안으로는 용두가산(龍頭假山)을 만들어 성락원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 용두가산은 성락원 내원(內園)을 아늑하게 감싸서 깊이를 주기 위해 만든 인공조산(人工造山)으로 200～300년 전의 느티나무 · 음나무 · 참나무 숲이 울창하다. 내원에는 계류의 암벽 밑에 소(沼)를 조성하였다. 이 소는 장축이 16m, 단축이 약 12m이며, 물 깊이는 약 1.5m이다. 소의 주위는 자연암벽과 암반으로 이루어졌는데 물이 흘러내리는 북쪽 암벽에는 인공으로 수로를 파고 3단의 폭포를 조성하였다. 제일 위의 폭포는 낙차가 15cm로, 직경 30cm, 깊이 15cm의 둥근 석구(石臼 : 돌절구)에 떨어진다. 중간폭포는 낙차가 30cm로 역시 같은 크기의 석구에 떨어진다. 제일 밑단의 폭포는 낙차가 150cm로 가장 큰데, 직경 80cm, 깊이 20cm의 석구에 떨어졌다가 소(沼) 속으로 넘쳐 흘러들어간다. 폭포로 떨어지는 3단의 물줄기는 물의 생동감있는 수경(水景)을 연출하고 고요한 계곡에 요란한 물소리를 낸다. 이 폭포 옆 바위에 '靑山壹條(청산일조)'라는 전서체 각자가 있으며, 소의 서쪽 암벽에는 행서체의 '檣氷家 阮堂(장빙가 완당)'이 새겨져 있는데, 장빙가란 겨울에 고드름이 매달이 장빙가 각자가 있는 암벽 위에 "影碧池 海生(영벽지 해생)", "百泉會不流 爲沼碧闌頭 自吾得此水 少作江湖遊 癸卯五月 孫文鶴書(온갖 샘물을 모아 고이게 하니 푸른 난간머리에 소가 되었네. 내가 이 물을 얻은 뒤부터 약간의 강호놀이를 하네. 계묘 5월 손문학 씀)." 이라는 각자가 있다. 영벽지란 세 글자는 초서체로 썼으며, 해생이란 호를 가진 사람이 오언시를 해서체로 쓴 것이다. 계묘는 1843년(헌종 9)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성락원의 소의 명칭이 '영벽지'임을 알 수 있다. 이 영벽지 각자 위의 바위에 전서체로 내리쓴 또 하나의 각자가 있는데, 원문은 "明月松間照 靑泉石上流 靑山數疊 吾愛吾廬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에 비치고 맑은 샘물은 돌 위에 흐르며 푸른 산이 몇 겹 싸여 나는 내 농막을 사랑한다)." 이		

	다. 영벽지 소속에는 괴석 하나를 물 속에 배치하여 놓았으며, 이 영벽지 동쪽 언덕 위에 변형된 고가 한 채가 남아 있는데, 이 집은 원래 농막의 본채로 이강(李堈)이 살았다 한다. 이 집에서 숲 속의 돌계단을 오르면 또 하나의 못이 영백지 위에 있다. 못 동쪽에는 근래 지은 '송석정(松石亭)' 이란 누(樓)가 있으며, 못 북쪽 계류가에 '松石(송석)' 이란 각자가 있어 원래 이 못가 바위 사이에 큰 소나무들이 울창했음을 알 수 있다.
원천자료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50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22	작성자	한아름
제목	김진흥 가옥	키워드	김진홍가, 남녕재, 남녕위궁, 윤용구, 진흥선원
이야기	지정사항 :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25호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6-59 (돌곶이로34길 4-11) 장위동 76의 59번지에는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25호로 지정된 김진홍가가 자리잡고 있다. 이 집을 남녕재라 하는데 조선시대 순조의 부마인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이 거처해서 남녕위궁이라 칭하기도 했다. 현 주인 김진홍이 매입한 것으로 본래의 소유주 윤용구는 윤의선의 아들이다. 조선왕조실록 1837년(현종 3) 8월 무오에 “덕온공주가 남령위 윤의선과 가례를 지냈다. 순조대왕의 셋째 따님이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1837년에 부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집은 건평 107평, 대지 795평의 한옥으로 사랑채 중앙에 “남령채(南寧蔡)”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사랑채 대청에 따로 보관하고 있는 상량문에 의하면 을축년에 건축했다는 것으로 보아 1865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 부마도위궁을 도성 밖 이곳에 지었을까 하는 의심이 있으나, 순조의 둘째 딸 복온공주가 창령위 김병도와 가례를 치르고 장위동 북쪽 번동 93번지 현 북서울 꿈의 숲 일대에 부마도위궁을 짓고 산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사위들을 궁궐로부터 멀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집은 서울 지역에 남아 있는 귀중한 한옥으로 소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넓은 장방형에 가까운 대지에 안채·사랑채·안별당·중문간행랑채·별채들이 남향으로 자라잡고 있는데, 안채와 사랑채는 한 지붕으로 연속되어 건립되었다. 본래는 솟을대문간채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대문을 들어서면 두 계단 높은 곳에 자리잡은 중문간채와 사랑채의 남쪽과 동쪽을 둘러막은 담장을 바라보게 된다. 중문간행랑은 정면 7칸, 측면은 동쪽 2칸, 서쪽 4칸으로 동쪽은 사랑채와 연결되고 서쪽은 안채와 연결되어 있다. 이 건물의 공간배치에서 특히 흥미를 끄는 것은 안마당을 ㄱ자로 꺾고 마당 내부 구석의 각 실들을 들쭉날쭉하게 처리해서 큰 공간에 변화를 주었는데, 시선의 방향에 따른 공간의 분위기를 안정감 있게 하려는 것이다. 안채의 뒤쪽 터에는 꽃을 심어 바라보는 화계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후원을 꾸몄다.		
원천자료	양보경,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성북문화원, 1998.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51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23	작성자	한아름
제목	한규설 가옥	키워드	한규설 가옥, 한규설, 국민대학교
이야기	지정사항 : 사적 제 208호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55-2 국민대학교 (정릉로9길 64) 조선 후기 한성판윤을 지낸 한규설(1848~1930)의 저택이다. 원래 장교동에 있던 것을 국민대학교에서 사들여 교내로 옮겨지었으며, 1890년 이전에 지은 건물로 추정된다. 원래의 모습대로 옮겨 지으면서 솟을대문 좌우의 행랑채와 중문간행랑채, 사잇담 등을 복원하였다. 사랑채와 안채·별채·사당·광채 등이 넓은 대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금은 학교 생활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안채는 ㄴ자형으로 앞면 6칸·옆면 2칸의 규모이다. ㄱ자형의 사랑채는 앞면 4칸·옆면 2칸 반이며, 지붕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집이다. 별채 역시 ㄱ자형으로 광채와 연결되어 있으며, 사당은 일반적인 규모보다 약간 작게 지었다. 한규설(韓圭卨, 1848~1930)은 조선 말기의 무관으로 호는 강석(江石)이다. 서울 출신이며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28세에 진주병사에 발탁되었다. 고종 20년(1883)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되고 이듬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1885년 우변포도대장을 거쳐 형조, 공조판서와 1890년 한성부판윤을 역임하였다. 중추원 의장과 법부대신으로 고등재판소 재판장을 거쳐 1905년 의정부 참정대신(參政大臣)을 지낸 종1품의 고위관료이다. 1905년 일제가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하려 하자 끝까지 앞장서서 이를 반대하였다. 일제의 갖은 협박에도 굴하지 않자 결국 경운궁 수옥헌(穗玉軒) 골방에 감금된 채 본관을 면직 당하였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곧 징계에서 풀려나 중추원 고문 · 궁내부 특진관을 역임하였고, 일제강점기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가 주어졌으나 이를 받지 않았다. 이후 칩거생활을 하다가 1920년 이상재 등과 함께 조선교육회를 창립하고 이를 민립대학기성회로 발전시켰다. 타고난 성품이 바르고 곧으며 충신(忠臣)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 조선의 왕을 섬길 뿐이지 일제에는 결코 굽힐 수 없기에 을사늑약을 반대하였고, 그들이 주는 남작 작위도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 일례로 1885년 갑신정변에 연루되었던 유길준을 연금형식으로 보호, 그로 하여금 『서유견문』을 집필, 완성케 하였던 점과 독립협회에 대해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인데도 불구하고 독립협회가 결성될 당시 그 활동에 호의적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갑신정변의 역적을 비호함으로 인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그를 파직,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친 것을 본다면 한규설에 대한 평가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원천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2011. 12. 8.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52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24	작성자	한아름
제목	이종석 별장	키워드	이종석 별장, 성북동, 시도민속문화재
이야기	지정사항 : 서울특별시 시도민속문화재 제10호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43-4 (성북로 131) 1977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민속자료 제10호로 지정되었다. 183평의 가옥이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서쪽 골짜기, 직사각형의 집터에 지어진 이 집은 서북쪽으로 드나드는 좁은 길이다. 조선시대에 새우젓 장사로 갑부가 된 이종석의 별장이었다고 한다. 우물이 있는 바깥마당의 동북쪽에는 안채가 있고, 북쪽에는 행랑채가 자리 잡고 있다. 1900년대에 지어진 이 집은 건평이 29.8평에 이른다. 이 집은 사랑채 비슷한 별채의 안채와 이에 부속된 행랑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북쪽에는 안채가 있고, 북쪽에는 행랑채가 있다.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3칸인 'ㄹ'자 모양의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향집이다. 대청 옆 누마루에 일관정이라고 쓴 편액을 걸고, 추녀에는 풍경을 달았으며 회색 벽돌로 영롱담을 쌓아 집터 주위를 둘러막아 놓았다. 특히 안채로 드나드는 일각대문과 그 바깥마당의 우물가 등은 집터 주위의 수목과 마당의 감나무, 소나무 등과 어울려 옛스런 멋을 나타낸다. 휘어져 하늘로 올라간 지붕과 처마, 그리고 마루로 통하는 미닫이문 창살도 한옥의 멋을 더해준다. 이 집은 살림집이라기보다 별장 건축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집이라 할 수 있다.		
원천자료	『두산백과』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53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25	작성자	한아름
제목	심우장	키워드	심우장, 만해, 한용운, 성북동, 시도기념물
이야기	지정사항 : 서울특별시 시도기념물 제7호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22-1 (성북로29길 24) 심우장은 승려, 시인,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생이 1933년에 지은 집이다. 심우(尋牛)란 소를 사람의 마음에 비유하여 잃어버린 나를 찾자는 뜻이라고 한다. 1910년 한일병합이 되면서 중국에 망명하여 의병학교를 설치하고, 독립군의 훈련장을 돌면서 독립정신과 민족혼을 심어주는 일에 전력하였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민족대표 33명 중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3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다. 출옥 후에도 선생은 일본경찰의 감시 아래 강연 등 여러 방법으로 조국독립을 위해 힘쓰다가 1944년 심우장에서 입적했다. 저서로는 『조선불교유신론』, 『님의 침묵』 등이 있다. 심우장의 규모는 앞면 4칸·옆면 2칸으로 옆에서 보았을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 기와집으로, 선생은 총독부와 마주보기 싫다 하여 일부러 북향으로 집을 지었다고 한다.  <심우장 입구 한용운 선생 동상 (2013)>		
원천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54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26	작성자	한아름
제목	이태준 가옥 (수연산방)	키워드	수연산방, 이태준, 성북동, 달밤
이야기	지정사항 : 서울시 민속자료 제 11호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48 (성북로26길 8) 소설가 이태준이 1933년부터 1946년까지 머물면서 『달밤』, 『돌다리』, 『황진이』 등의 작품을 집필한 곳이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1977년 서울시민속자료 제11호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이태준 선생의 외종손녀가 당호인 수연산방(壽硯山房)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찻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집은 1933년에 지어진 개량한옥으로 대지 약 120평, 건평 약 23.2평이다. 서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별채 없이 사랑채와 안채를 결합한 본채로만 이루어져 있다. 일각대문(一角大門)을 들어서면 바로 장독대가 보이고 좌측에는 야외 테이블, 오두막이 있고, 우측에는 본채가 있다. 본채 앞 작은 마당에는 우물이 있다. 본채는 전면부는 팔작지붕이고 후면부는 맞배지붕이며, ㄱ자형 구조이다. 중앙 2간을 대청으로 하고 대청의 남쪽에는 한 칸 크기의 안방을, 안방 앞에는 작은 한 칸 크기의 누마루가 있으며, 뒤에는 칸 반 크기의 부엌이 있다. 대청의 북쪽에는 한 칸 크기의 건넌방이 있고, 대청과 건넌방 앞에 툇마루가 있으며, 건넌방 뒤에는 한 칸 크기의 뒷방이 있다.  <이태준 가옥 안뜰 (2013)>		
원천자료	『두산백과』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55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27	작성자	한아름
제목	간송미술관	키워드	간송미술관, 전형필, 훈민정음, 간송문화
이야기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97-1 (성북로 102-11) 1966년 전형필(全鎣弼)의 수집품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민족미술연구소 부설 미술관으로 발족하였다. 전형필은 1929년부터 우리나라의 전적 및 고미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서화·도자기·불상 등의 미술품과 국학 자료를 확보한 뒤 1936년 지금의 미술관 건물인 보화각(寶華閣)을 지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및 8·15 광복, 6·25전쟁 등을 겪으며 일반 공개를 위한 미술관은 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업은 아들인 성우(晟雨)·영우(暎雨)에게 이어져 1965년 가을부터 한국 고미술품 및 전적의 정리 작업을 시작, ≪고간송전형필수집서화목록 故澗松全鎣弼蒐集書畵目錄≫ 상·하권을 간행하였고, 1967년에는 수만 권의 도서 중 2천여 질의 한적(漢籍)을 정리하여 ≪간송문고한적목록 澗松文庫漢籍目錄≫을 간행하였다. 이 정리 작업을 준비, 진행시키며 한국민족미술연구소 및 간송미술관이 1966년에 발족하였다. 미술관은 연구소의 부설 기관 형식으로 되어 있어 미술관은 미술품의 보전·전시 업무를, 연구소는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사업을 맡고 있다. 미술관의 규모는 1층과 2층의 전시실을 가지고 있으며 소장품은 전적·고려청자·조선백자·불상·그림·글씨·부도·석탑 등에 걸쳐 다양하다. 그중 ≪훈민정음≫(국보 제70호)을 비롯하여 10여 점이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많은 유물들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전시 활동으로는 1971년의 개관 전시회 '겸재전(謙齋展)'을 시작으로 해마다 봄·가을에 한 번씩 수장품전을 여는 동시에 전시회와 함께 논문집 ≪간송문화 澗松文華≫를 발간하고 있는데, 2000년 현재 57호가 발간되었다. 전시회는 회화·서예·도예·서화로 분류, 개최하며 일반 공개는 봄·가을의 정기 전시회 이외의 상설 전시는 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30여 회의 전시회를 통하여 약 1천점의 수장품이 일반에게 공개되었는데, 최근(2000년 10월)에는 '단원·혜원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수장품들을 모아 ≪혜원전신첩 蕙園傳神帖≫·≪추사명품첩 秋史名品帖≫·≪겸재명품첩 謙齋名品帖≫ 등을 편찬하였다.		
원천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56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28	작성자	한아름
제목	돈암장	키워드	돈암장, 이승만, 장진영, 돈암동
이야기	지정사항 : 서울시등록문화재 제91호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03-3번지 (동소문로3길 84) 1945년 이승만(李承晩)이 환국하여 처음 기거했던 사저(私邸)로 당시 서울시 돈암동 인근에 있다 하여 '돈암장'이라 하였다. 이 집은 당시 조선타이어주식회사 사장이었던 장진영(張震英)으로부터 빌린 집으로서, 장진영은 연건평 약 150평의 3채 중 1채만을 쓰고, 안채인 54평과 또다른 1채를 빌려주었다. 약 700평의 정원에 뛰어난 미관(美觀)을 지녔다. 장진영은 6·25사변 때 납치되어 죽었고, 돈암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03번지의 1호 및 2호로 분할되어 1986년 현재 문화재로 지정받지 않은 채 3명의 소유자에게 나뉘어 있다. 이승만은 환국 후 조선호텔에서 며칠을 묵고 경비과중으로 이 집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윤치영(尹致暎 : 비서실장)·이기붕(李起鵬 : 서무담당)·윤석오(尹錫五 : 문서담당)·송필만(宋必滿 : 비서) 등이 보필하였고, 와병 중에는 임영신(任永信)이 간병하였다. 이승만은 돈암장에서 미군정청으로부터 추대되었던 민주의원 의장직을 버리고, 공산계열의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대결을 하면서 신탁통치반대운동에 열중하였다. 극도의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이승만은 장진영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통고를 받았고, 이 소식을 들은 미조선주둔군사령관인 하지(Hodge,j. R.)중장의 주선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다나카(田中)가 쓰던 마포장(麻浦莊)을 얻어 이사하였다.  <돈암장>		
원천자료	박용만, 『경무대비화』, 삼국문화사, 1965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57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29	작성자	한아름
제목	최순우 옛집	키워드	최순우 옛집, 혜곡 최순우 기념관, 시민문화유산
이야기	지정사항 : 등록문화재 제268호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28-20 (성북로 73-6) 최순우 옛집은 혜곡 최순우(1916~1984)선생이 살던 옛집이다. 193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튼 ‘ㅁ’ 자 평면의 전형적인 경기지방 한옥양식 주택이다. 혜곡 선생은 개성부립박물관 입사 이후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내기까지 평생 박물관에 재직하시면서 박물관의 발전에 힘썼고 한국 도자기와 목공예, 회화사 분야에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겼으며, 한국 미(美)를 널리 알리는 데 평생을 바쳤다. 옛집에서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와 같은 아름다운 글을 집필하였다. 최순우 옛집은 2004년 개관하여 ‘혜곡 최순우 기념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혜곡 선생의 유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봄, 가을에 문화프로그램을, 가을에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시민문화유산1호인 최순우 옛집은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역사적 인물의 흔적을 미래세대에 영원히 남겨주기 위하여 2002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보전한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이다.  <최순우 옛집 (2013)>		
원천자료	성북구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58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30	작성자	한아름
제목	청수동	키워드	청수동, 정릉계곡
이야기	북한산 남쪽에 위치한 정릉동은 석가봉 · 성덕봉 · 잠룡봉 · 형제봉 등의 여러 봉우리가 높이 솟고, 남쪽을 향하여 작고 큰 능선이 뻗어 내려온 사이로 깊은 골짜기, 맑은 시냇물이 곁들여서 가는 곳마다 산수풍경의 조화를 이룬다. 그 중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시냇물이 맑고 좋다 하여 '청수(淸水)'의 동명으로 부르는 청수동의 계류를 따라 올라가면 청수장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유원지의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여름철이면 피서·청유(淸遊)를 위하여 찾아 드는 인파가 길을 메운다. 또 청수동 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등산로가 북한산성의 대성문·보국문을 지나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로까지 이어지는데, 보국문을 넘어서면 동북쪽으로 노적봉·만경대·백운대·인수봉 등 북한산의 웅장하고 기묘한 봉우리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정릉 청수동 부근 전경 (1991)>		
원천자료	양보경,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성북문화원, 1998.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59	정릉, 의릉 일대의 문화유산 - 31	작성자	한아름
제목	삼청각	키워드	삼청각, 전통문화 체험, 한식당, 성북동
이야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115 (대사관로 3) 맑을 청이 세 개인 삼청각(三淸閣)은 이름 그대로 도심에서 가장 맑은 기운을 지닌 곳이다. 북악산의 정기가 모인 아름다운 숲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채 지난 반세기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드물어 주변 산림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채로 보존되어 온 덕이다. 가까이에는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 등 가볼만한 전통문화 명소들이 산재해 있어서 한국의 전통문화의 중신지로서도 최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곳이 한국의 풍요로운 전통문화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한국의 명인 명무들의 공연과 국제회의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중심건물을 비롯하여 다례, 규방공예, 가야금, 판소리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 전통찻집, 한식당, 마당극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일 수 있는 야외놀이마당 등 복합전통문화공간의 면모를 골고루 갖춰,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 공간으로서, 국제적 명소로서 손색없는 곳이다.  <삼청각 (2013)>		
원천자료	성북구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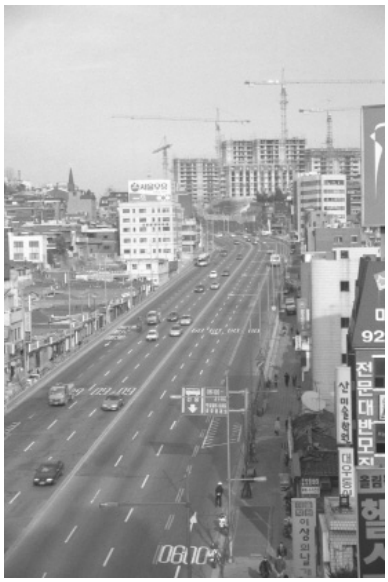
No. 160	정릉, 의릉 일대의 자연유산 - 1	작성자	한아름
제목	북한산	키워드	북한산, 삼각산, 화산, 부아악,
이야기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북한산의 높이는 837m이고, 전체 면적 중 서울은 약 39㎢, 경기도는 약 41㎢를 점하고 있다. 북한산은 경위도상 위치는 동경 126° 56′ ~127° 03′ , 북위 37° 35′ ~37° 43′ 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산은 예로부터 명산으로 일명 한산, 삼각산 또는 화산이라 불렀으며 신라 때에는 부아악이라고도 하였다. 옛날 개성의 송도에서 한양으로 오다가 이 산을 바라보면 백운대, 만경대, 인수봉의 세 봉우리가 삼각으로 나란히 우뚝 솟아 있어 삼각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전설에 의하면 고구려 동명왕의 아들 비류(沸流)와 온조(溫祚)가 이곳 부아악에 올라 살 만한 땅을 찾았다고 한다. 또한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이성계를 위해 도읍지를 정할 때 백운대에서 맥을 찾아 만경대에 올랐다가 서남쪽으로 가서 비봉에 이르렀다고 하여 만경대를 일명 '국망봉(國望峰)'이라고도 한다. 비봉은 진흥왕순수비가 꼭대기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북한산은 주봉인 백운대를 중심으로, 남쪽의 만경대 · 보현봉 및 북악산으로 연결되는 주능선과 북쪽으로 인수봉 · 우이암 · 주봉 · 자운봉 및 사패산으로 연결되는 주능선을 축으로 동서로 대별된다. 이러한 산봉이 하나의 거대한 암괴로 된 돔(dome) 형상을 띄는데 일종의 도상구릉(島狀丘陵)이라고 한다. 이는 두꺼운 풍화층이 침식되어 없어지고, 그 하부에 있던 절리 간격이 넓은 화강암이 지표 혹은 지표 가까이로 노출되면서 하중제거에 의한 판상절리가 탁월하게 발달될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북한산 (2012)>		
원천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61	정릉, 의릉 일대의 자연유산 - 2	작성자	한아름
제목	미아리 고개	키워드	미아리 고개, 돈암, 미아, 되너미고개
이야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돈암1동 51-65 서울 돈암동에서 길음동으로 이어지는 '미아리고개'는 우리 역사의 마디마디 등장하는 오랜 증인 같은 고갯길이다. 예전에는 이 고개를 '되너미고개'라 불렀다. 그 유래는 병자호란 때 되놈(胡人)들이 이 고개를 넘어 침입했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과 고갯길의 경사가 심해 고갯마루에 오르다 보면 다시 밥을 먹어야 된다는 뜻으로, 즉 밥을 '되(다시) 먹는 고개'라는 말이 변해 한자음 돈암(敦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18세기 중엽으로 여겨지는 사산금표도에는호유현(胡踰峴)으로, 겸재 정선의 '도성대지도', 고산자 김정호의 '수선전도' 등 대부분 지도에는 적유현(狄逾峴)이라는 이름으로 쓰여 있다. 또 돈암현(敦岩峴)도 보인다. 이외에도 '되너미'에서 접두어 '되'는 '일이 힘에 벅차다'는 뜻을 지닌 순우리말 형용사 '되다'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도 눈에 띈다. 어쨌든 지금의 미아리고개는 고갯길에 얽힌 힘든 역사만큼이나 어렵게 넘어야 했던 고갯길이었다. '언덕에서 쉬어 간다'는 뜻의 한자어 미아(彌阿)란 지명은 조선 말 고종(高宗) 초 공식기록에 처음 나타나는데 그 유래는 확실치 않다. 다만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되너미고개(敦岩峴)를 일명 미아리(彌阿里)고개라고 부르는 까닭에 고개 이름에서 동명이 유래되었다는 설과 미아7동에 있는 불당곡(佛堂谷)에 오래된 절인 미아사(彌阿寺)가 있어 이름도 절 이름에서 땄다는 설이 있다. 지금의 미아리고개는 조선시대 여진족이 북쪽에서 혜화문을 통해 도성으로 입성할 때 이 고개를 이용했었다고 전해 온다. 아마 이 고갯길을 넘을 때 여진족의 마차는 가파르고 험한 고개 탓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6·25 전쟁 당시엔 북한군 탱크가 이 고개를 지나갔다. 인민군이 패퇴할 때 북으로 끌려가던 가족을 이 고개에서 바라보았던 우리 민족의 마음 아픈 역사도 배어 있다. 작사가 반야월 선생의 '단장의 미아리고개'의 노랫말은 당시의 아픔을 바탕으로 지어졌다. 미아리고개는 예전엔 우마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매우 경사지고 험준한 고개였으나 196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변신을 거듭했다. 고개 정상에 노래비, 미아리고개 유래비, 휴식처를 갖춘 소공원이 탄생하였고, '아리랑아트홀'이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도로도 8차선으로 확장되고 육교 대신 구름다리가 들어서면서 주민 편의는 물론 미적효과까지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미아리고개 (1990)>


<미아리고개 (1992)>



<미아리고개길 확장공사 직후 (1997)>



<미아리고개 구름다리 주변 전경 (2007)>



<단장의 미아리고개 노래비 (2013)>

	 <미아리고개 (2013)>
원천자료	성북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62	정릉, 의릉 일대의 자연유산 - 3	작성자	한아름
제목	아리랑 고개	키워드	아리랑 고개, 아리랑, 나운규
이야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09-48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아리랑고개는 좌절과 시련의 역사, 그리고 이를 극복한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 아리랑고개는 괴나리봇짐을 짊어지고 넘던 고개였고, 눈물을 흘리며 걷던 고개였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는 실존의 고개이든 상징의 고개이든 아리랑고개가 많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를 주제로 한 영화가 만들어져 민족의 염원을 상징적으로 그리기도 했다. 아리랑고개는 돈암사거리를 기점으로 하여 서쪽으로 동소문동 동쪽으로 동선동을 지나 돈암동, 정릉길과 교차하는 아리랑 시장 앞까지 폭 15m, 길이 1,450m의 가로명이자 고개 이름도 된다. 아리랑 고개는 서울 시내 249개 가로명 가운데 길이 아닌 고개를 부르는 유일한 도로다. 아리랑고개의 명칭은 이름 그대로 이 도로에 돈암동에서 정릉동으로 넘어가는 유서 깊은 아리랑고개(일명 정릉고개)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그 유래로 1935년 일제강점기에 요리업자들이 고급 요정을 꾸며 손님들을 끌기 위해 민요 "아리랑"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설이 있으며, 또 여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항거 민족정신을 형상화한 춘사(春史) 나운규(羅雲奎) 선생이 영화 "아리랑"을 촬영하였다고도 전한다. 이를 기념하여 매년 아리랑 축제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1997년 아리랑고개를 '영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테마공원조성, 아리랑 시네센터, 아리랑 정보도서관 등을 설립, 전통과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거리로 탈바꿈하였다. 아리랑고개 곳곳에 쉼터와 나운규 소공원 등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가족 나들이 장소가 있다.		

	 <아리랑고개길 확장 전(1997)>  <확장 공사 후 아리랑고개길>
원천자료	성북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63	정릉, 의릉 일대의 자연유산 - 4	작성자	한아름
제목	북한산 정릉계곡	키워드	정릉계곡, 북한산, 국립공원특별보호구
이야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1-1 북한산 정릉탐방지원센터에서 보국문으로 이어지는 길에 있는 계곡이다. 계곡을 따라 넓적바위를 지나 보국문에 이른 뒤 왼쪽으로 대성문을 거쳐 영추사와 삼봉사 방향으로 내려오면 청수천이 흘러내려 계곡에 합류한다. 정릉계곡의 정릉탐방지원센터~청수폭포~넓적바위 구간과 청수폭포~청수천 30m 상단 구간은 국립공원특별보호구로 지정되어 2026년까지 출입이 통제된다.   <북한산 정릉계곡 (2013)>		
원천자료	『두산백과』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64	정릉, 의릉 일대의 자연유산 - 5	작성자	한아름
제목	개운산	키워드	개운산, 개운공원, 개운사, 대원암
이야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산2-27 (종암로19다길 60)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산으로서, 안암산, 진석산(陳石山)이라고도 한다. 삼각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한북정맥의 끝자락은 보현봉에서 형제봉과 북악터널의 위쪽인 보토현을 거쳐, 328m 봉우리에서 다시 서남방의 북악 지맥과 동남방의 미아리고개 지맥으로 갈린다. 이 동남방 지맥은 정릉(貞陵)을 끼고 돌아 아리랑고개와 미아리고개로 이어지며, 다시 표고 134m의 개운산 봉우리를 형성한다. 개운산은 나라의 운명을 새롭게 열었다는 뜻의 개운사 절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또 안암동에 있어 '안암산'으로, 종암제1동의 진씨성을 가진 사람의 채석장이 있어 진석산으로도 불렸다. 개운산 남쪽 기슭, 안암동사거리에서 북쪽으로 큰 길을 따라 올라가 안암동 5가 157번지 뒷산의 이어진 봉우리가 높이 둘러 선 아래에는 개운사가 있다. 개운사는 태조 5년(1396) 왕사 무학이 창건하였는데, 처음에는 지금의 고려대학교 이공대 부근에 짓고 이름을 영도사(永導寺)라 하였다. 정조 3년(1779)에는 원빈 홍씨가 세상을 떠나자, 그 부근에 묘소를 정하고 빙명원(氷明園)이라고 하였는데, 절이 원묘에서 가깝다 하여 북쪽으로 옮겨 짓고 이름도 개운사라고 고쳤다. 그런데 『동사열전(東師列傳)』에 보면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영도사의 도문 스님 처소에서 주로 양육되었는데, 언젠가 영도사에서 노닐다가 절의 한 모퉁이에 이름을 써놓았고, 왕위에 오른 다음 절이름을 나라의 운명을 새롭게 열었다는 뜻으로 개운사라고 고쳤다고 한다. 개운사는 20세기 이후 한국 교육불사와 진보적 불교운동을 주도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26년부터 근대 불교의 대석학이었던 박한영 스님이 머물면서 강원을 이끌어 나갔던 일이 그 시초였고, 1970년대 부속암자인 대원암에 탄허스님이 머물면서 역경사업에 종사하였던 일이 그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1981년부터 중앙승가대학이 이곳을 교육 도량으로 사용하면서 젊은 학인스님들이 불교진보운동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운산 일대는 1936년 경성부로 편입되어 신흥 주택가로 각광받으면서, 서쪽 기슭인 돈암동과 동선동 일대에 전차가 가설되고, 인구 집중도가 높은 주거지로 변하였다. 따라서 1940년에 개운산 일대는 공원지역으로 고시되었다. 이에 앞서 1934년에는 오늘날 고려대학교 전산인 보성전문학교의 안암동 건물이 신축되어 민족교육기고나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개운산 주위에는 남쪽으로 고려대학교, 서쪽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북쪽으로 서라벌중, 고교를 비롯한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개운산의 표고 75m 이상 지역은 임야지역을 이루고 있으며, 그 이하는		

	주택가와 학교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어, 공원지역은 대체로 다른 지역보다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다. 광복 이전만 하더라도 이 일대의 야산은 울창한 산림으로 되어 있어, 인근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기도 하였고, 낙엽이나 나무의 잔가지들은 땔감으로도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광복과 함께 많은 월남민들이 산비탈에 정착하면서부터 나무를 마구 베어냈고, 6.25전쟁 때 미아리-종암동을 잇는 국군의 서울 방어 저지선이 바로 이 능선이었으므로, 포격전에 의해 많은 나무가 불타서 한때는 민둥산이 되었다. 그후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조림과 식목사업으로 지금은 수령 50~60년 된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아울러 1982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인근 주변의 휴식공간으로 가능하며, 산 중턱 이상까지 도로가 놓여져 접근하기 쉽다.
원천자료	『서울지명사전』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No. 165	정릉, 의릉 일대의 자연유산 - 6	작성자	한아름
제목	천장산	키워드	천장산, 석관동, 의릉
이야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동대문구 회기동, 청량리동 동대문구 회기동, 청량리동, 석관동에 걸쳐 있는 해발140m의 산으로서, 불교사찰의 입지유형 가운데 가장 빼어난 명당터로써 '하늘이 숨겨놓은 곳' 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한편 연화사의 삼성각 상량문에 의하면 '진여불보의 청정법신이 시방삼세에 두루하지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는 뜻에서 천장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천장산 일대는 조선 왕가의 묘지로 조성되었다. 경종과 계비 선의왕후 무덤인 의릉(懿陵)이 북동쪽에 있고 을미사변으로 시해된 명성황후의 묘가 고종의 승하로 남양주 홍릉으로 합장되기 전까지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고종의 계비이자 영친왕의 생모인 순헌귀비 엄씨의 묘인 영휘원(永徽園)과 영친왕의 아들 이진(李晉)의 묘소인 숭인원(崇仁園)이 있으며 이를 홍릉이라고 부른다.  <이문동에서 본 천장산과 석관2동 전경>		
원천자료	『두산백과』		
활용	역사문화탐방 코스 개발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